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4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augural Address of the President

Esteemed fellow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Don Baker, who has been your host for this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 hope that you have had a very productive meeting her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 Vancouver, Canada. We here at UBC, with the help of the hard-working ISKS staff from the Osaka headquarters, have tried to provide you with a venue conducive to sharing your latest research with colleagues from around the world. We have also tried to provide a comfortable and relaxing atmosphere for you to get to know one other. We know how difficult it can be for scholars of Korea in one part of the world to learn what sort of research scholars of Korea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engaged in. We hope you have been able to meet people you did not know previously who share your research interests so that you may be able to join forces in the future to expand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Korea.

Because of all the hard work done by the ISKS and UBC staff who have contributed to making this a successful gathering of Korean Studies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I have been given undeserved credit for the success of this conference. As a result, at a meeting of the presidents of the various regional chapters of the ISKS yesterday, I was asked if I would be willing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of serving as international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now that Chung Kwang, who had led the ISKS so ably as international president for the last four years, has decided that it is time for someone else to head this important organization. Though I am sure that there are many people more qualified to lead the ISKS than I am, I have decided to humbly accept the responsibility I have been asked to assume. However, I will need the help of all of you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as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maintain the ISKS as the primary contributor to the tru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As you all know, the ISKS is the only Korean Studies society that brings together scholars from all over the world, regardless of political ideology, to exchange the results of our research in order to gai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economics, politics, language, literature, society, and culture. More importantly, the ISKS is the only Korean Studies society that treats Korea as one country, rather than focusing our attention on only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twenty years, despite at times a lack of understanding from some governments, we have dealt with Korea as one nati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cholars from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o meet one another and also meet with Korean studies scholars from China, from Japan, from the Americas, and from Europe. I am proud to have been a member of an organization that has worked so hard to create a truly global Korean Studies society. I am also proud of the contributions the ISKS has made to the easing of political tensions in the world by making it possible for scholars to form academic partnerships despite political differences.

Increasingly, the scholarly world outside of Korea is coming to share our recognition that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both East Asia and the world requires a profound understanding of Korea. More and more academic

institution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for example, are adding Korean Studies to already existing programs in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The ISK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expansion of Korean Studies on campuses outside of Korea because our members approach Korea from a wide range of disciplinary specialties, including both the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and because we embrace all of Korea. The ISKS therefore has a unique responsibility for helping Korean Studies program outside of Korea deal with Korea comprehensively and also in ensuring that such programs treat Korea as one country.

Leading such an important organization is a heavy burden no one person can bear alone. I therefore again ask all of you to help me continue the vital work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ver the next two years. I promise you that I will do my best to work with the staff in the headquarters in Japan, with the leaders of the various regional branches, and with all of you, to make the ISKS an even better global Korean Studies society than it is today. With your help, I believe we can build on the progress made over the last twenty years and make even mor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Korea around the world, and to the building of an even stronger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Studies scholars.

Don Baker
President,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국제고려학

제14호

차례

기조강연

| | |
|---|----|
| 민족주의와 제일교포 / 송남선 | 11 |
|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평양민속공원 / 김정영 | 31 |
| 소품문 정신의 비판적 계승과 동양 미학의 시각 - 윤오영에 대한 중국문학의 영향 / 서영빈 | 39 |
|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과제와 남북 역사학 교류의 전망 / 정태현 | 51 |

일반논문

| | |
|--|-----|
| 《예맥》관계기록을 통해본 고구려주민의 조선민족적성격 / 강세권 | 71 |
| 제중원(濟衆院)의 신화와 역사 (2) / 황상익 | 89 |
| “먹다”와 “吃”의 어휘 정보 대조 연구 / 김성란 | 127 |
| 18세기朝鮮 漢字音의 規範化와 ㄷ-구개음화 / Rainer Dormels | 155 |
| 대용량 언어자료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언어정보과학 앞에 나선 주요과제 / 문영호 | 181 |
| 형태의 발달과 술어의 위치에 대하여 - 언어의 유형적 측면으로부터 고찰 / 태평무 | 201 |

| | |
|---|-----|
| 『오래된 정원』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 인식 / 김춘선 | 231 |
| 灾难映畵에 대한 거시학적 연구 - 한, 중, 일, 미의 경우를 중심으로 / 임향란 | 251 |
| 윤선도의 시조창작과 개성적면모 / 전인철 | 265 |
| 여성 한부모가족의 아동지원 문제점 / 백승국 | 289 |
| The Construction of 'Safe House' and Social Imaginary through Korean Popular Culture; the Cas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Canada / Jeeweon Shin | 311 |
| 재가노인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이지희 · 나카시마노조미 · 후토유요시코 · 나카지마카즈오 | 337 |
|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관계 / 정영조 · 박지선 · 김정숙 · 윤정수 · 나카지마카즈오 | 353 |
| 지방정부의 시민 거버넌스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카네무라 타카후미(兼村 高文) · 홍만표(洪萬杓) | 371 |
|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거점 / 리기성 | 405 |
| The Rapid Emergence of Korea's Global Auto Industry / Norman Thorpe | 415 |
| The Interaction of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 Period of the Second Vietnam War (1964-1967) / SONG Key Young | 455 |
| Evolving aesthetics of <i>Kumgangsan Gagukdan</i> (금강산가극단) - Korean professional arts troupe 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in Japan / AeRan JEONG | 471 |
| 한(조선)반도 통일철학과 융철학 / 김희성 | 503 |
| ■ 활동과 연혁 | 523 |

민족주의와 재일교포

송 남 선

오사카경제법과대학

1. 머리말

재일교포들은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일본과 조국, 그리고 양자 간의 정치 역학의 직접적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으로 인하여 재일교포 사회는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재일교포 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요인을 재일교포 사회형성과정과 그들의 언어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적 소수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있어서 거주국자의 국적 취득은 그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는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일교포의 다수는 조국이 독립한 후에도 반 세기를 넘게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살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재일교포 사회는 다른 나라의 교포사회와 구별된다. 재일교포 사회가 가진 이러한 특성은 일본사회와 재일교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단일민족 국가관과 민족주의적 가치관에 기초한 '암묵적 이해'의 결과로서 설명된다.

재일교포들은 전후 일관되게 자제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전쟁 직후에는 억압적이었으나 그 후 차별적 무시로 바뀐다. 본고에서는 재일교포 모국어 교육에 대한 일본

의 배타적 입장과 모국어에 대한 재일교포들의 인식에 대하여 일본과 조선의 국가언어관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독일 낭만주의 언어철학을 배경으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일교포 공동체의 형성

2.1. 재일교포 구성

재일교포 인구는 600,000명에서 650,000명 사이로 추정된다. 야마와끼(山脇 2005: 43)에 의하면 2004년에 재일교포 인구는 약 610,000명이었으며 그중 ‘특별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교포가 약 460,000명이라고 한다. 특별 영주권이란 일본의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법적 지위다. ‘자이니찌(在日)’라고도 불리우는 재일교포는 좁은 뜻에서는 조선 국적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특별 영주자를 가리키며 250,000명을 넘는 일본 국적 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국적 취득자는 일본 정부와 재일교포 사회에 의하여 재일교포 공동체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다른 나라의 코리안 교포 사회에서는 거주 국가의 국적 취득은 출신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과는 모순되지 않을 뿐더러 거주국가 사회에서나 출신 민족 공동체에서의 지위를 높이며 보다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재일교포 사회에서는 일본으로의 귀화는 교포 공동체에서의 제외를 뜻하였다.

일본 국적 취득자 수는 계속 증가되어 왔다. 1950년대에는 해마다 약 2,500명이 귀화하였으며 1960년에서 1966년까지는 해마다 약 3,600명이 일본 국적을 얻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그 수가 일년에 5,000명 전후로 추이되지만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해마다 약 10,000명까지 증가된다.

2.2. 공동체 형성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유입이 많아진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에서의 노동력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여 일본의 산업은 조선에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유인하기 시작한다. 1920년에는 약 40,000명이었던 일본의 조선인 인구가 1930년에는 420,000명으로, 1940년에는 1,240,00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보다 심각해지고 1945년에 대일본제국이 패망하였을 때에 일본 국내의 조선인 인구는 약 2,100,000명까지 늘어났다(藤井 2005: 179). 조선과 일본이 피와 살을 나누는 한 몸을 이룬다는 내선일체 구호와는 정반대로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노예적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식민지 체험은 재일교포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강한 반일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조선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갔으나 오래 된 일본 체류로 인해 고향의 생활 기반을 잃거나 외국에 의하여 강점된 조국의 앞날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등 약 600,000명이 일본에 남게 된다.

전쟁 직후의 재일조선인의 처지는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의 정책과 일본정부의 정책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었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SCAP의 정책은 이중적이었다. 그들은 재일 조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해방된 인민’으로 정의하는 한편 그들을 적대국 국민(일본 국민) 또는 격리되어야 할 ‘불순분자(disturbing elements)’로 취급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사람들의 지위의 이와 같은 이중성을 이용하여 통치목적으로는 조선사람들을 일본국민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그들의 제반 시민권을 제한했다. 이로써 재일조선인은 형식적으로는 일본 국민으로 남고 실제로는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재일조선인의 조국독립이 보장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로 일본정부는 조선인과 대만인에 대한 일본국적상실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과 조선반도의 남과 북 사이에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의 일본국적상실은 재일조선

인들을 무국적, 무권리상태로 몰아넣었다. 예를 들면 재일조선인들은 그때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권을 잃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입은 일본이 국제인권규약과 난민조약을 비준한 1982년까지 30년을 기다려야 했다.

해방 직후 재일교포들은 재일조선인련맹(조련)을 결성하였다. 조련의 주요 사업은 재일교포들을 조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었다. 조직의 주도권은 공산주의자와 좌익교포들이 쥐었으며 반공산주의 교포들은 거류민단(민단)을 결성하게 된다. 오누마(大沼 1980: 241 n87)에 의하면 조련이 교포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귀국사업이 한 고비를 넘기자 조련의 주된 관심은 교포들의 생활권과 교육으로 옮겨간다. 1947년 10월에는 541개의 초등학교, 7개의 중학교, 8개의 고등학교, 22개의 성인학교가 일본 전국에 만들어진다. 조련의 교육 방침은 공산주의적이라기보다 민족주의적인 것이었으며 그 교육 내용은 조선의 문화, 역사와 언어였다.

SCAP은 소수민족집단의 존재가 사회적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건설을 반대하였다.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조선학교를 각종학교로 인정하려 하다가 연합점령군의 방침에 따라 1949년 9월에 조련을 불법화하여 조선학교들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여기에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그 때에 민단이 만든 학교도 거의 폐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정부와 연합군지도부를 괴롭힌 것은 실은 공산주의의 위협이 아니라 소수민족집단 존재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조선)반도에서의 냉전의 긴장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며 그 절정에 달한다. 조국의 분단과 북남대립은 재일교포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좌우대립은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교포들은 1955년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결성하였다. 총련은 그 사명을 공화국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 하며 재일교포를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규정하였다. 총련이 공화국과의 연대를 쌓아감에 따라 민단도 한국에 기

올어져 갔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으로 건너 온 조선인의 92.2%가 조선반도 남반부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西成田 1997: 43-44) 총련은 광범위한 재일교포들의 지지를 얻었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1955년에 재일교포의 약 90%가 북의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Ryang 2000: 35). 총련은 동포들의 압도적 지지를 배경으로 일본 곳곳에 민족학교를 재건하였으며, 1988년에는 대학교 하나와 12개의 고등학교, 56개의 중학교, 83개의 초등학교로 구성된 교육망을 가지게 된다.

1965년의 한일국교수립은 재일교포를 대표하는 두 조직의 역량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한일조약은 재일교포들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일본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국적은 재일교포들에게 해외여행의 자유를 비롯한 일련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해 많은 총련 지지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재일교포사회는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은 재일교포들에게도 부분적 혜택을 주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조선반도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증가는 총련계 교포들을 점차 교포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만들었다. 1979년의 국제인권규약과 1981년의 유엔난민조약의 비준으로 인하여 일본정부는 재일교포들의 시민적 권리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91년에 일본 정부는 드디어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특별영주권이란 범주로 통일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재일교포를 '일시적 체류자'로부터 '영주자로' 만들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일교포인구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들은 일본의 풍습과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고 대다수는 모국어를 쓰지 않는다. 교포 아이들의 90% 이상이 일본 학교를 다니며 교포들의 결혼의 약 70%가 일본인을 상대로 한다. 그들은 남과 북의 정치/사회

집단에 관여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덜 가지며 조국을 본딴 정치게임은 그들에게 호소력을 잃은 것같이 보인다. 재일교포사회는 총련 대 민단 또는 남과 북의 대립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2.3. 암묵의 이해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이 처음으로 실시된 1947년에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 639,368명 중 재일교포수가 598,507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94%를 차지하였다(山脇 2005: 41). 재일교포는 1970년대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바꾸어 말한다면 재일교포에 대한 정책이 곧 거주외국인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국가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출입국 관리와 사회통합의 두 가지 범주로 이루어진다. 사회질서와 안전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거주 외국인의 큰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국가에 있어서 항상 근심사항이 된다. 따라서 그들의 출입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들을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모국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거주사회에 통합시키느냐 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야마와끼(山脇 2005: 45)는 거주코리안에 대한 전후의 일본정책에는 출입국관리밖에 없었으며 사회통합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정부는 적어도 1970년대 말까지 재일교포들의 일본영주를 전제로 한 정책수립을 시도하지 않았다.

식민지 통치시기 일본은 조선사람들을 천왕의 신하로 정의하고 일본사회에 강제로 통합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제국의 다민족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의 학자와 지식인들은 일본을 '동질적인 사람들이 사는 섬나라'로 묘사하기 시작한다(Kashiwazaki 2000: 27). 전후 일본경제의 복구와 성장이 외국의 노동력수입에 의거하지 않고 농촌에서 도시부로의 대량인구이동에 의하여 달성되었다는 사실도 일본의 단일민족

국가 담론을 보강하였다(西成田 1997: 349). 일본정부는 주민등록도 아니고 출생지기록도 아니며 그 본질에 있어서 ‘천왕의 신하명부’인 호적제에 기초한 일본국적에 민족성을 상징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국적은 민족의 징표라는 것이다.

하라지리(原尻 1998: 77)는 전후 일본의 재일교포에 대한 정책은 배타와 동화의 개념으로써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재일교포들은 엄격한 출입국 관리하에서 일본사회에서 배척된 채 살든지 아니면 복으로 귀국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귀화의 통로를 조심스럽게 좁히었다. 신청자들의 정치적 경향은 철저하게 조사되었다. 그들은 일본문화와 풍습에 충분히 적응하여야 했으며 일본식 이름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귀화는 일본사회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서구에서는 국민성이나 국민 자격은 인종적 의미에서나 문화적 의미에서나 민족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국민성과 국민자격은 법적으로 정의되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실체 속에 있다는 환상이 여전히 강하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국적은 정통성이란 개념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하야오(早尾 2007)는 식민지에서 통치자가 피통치자를 지배할 경우 정통성개념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되었는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피통치자는 정통성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정통성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정통성 있는 국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피통치자가 모방을 통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피통치자는 영원한 동화과정에 물리게 되는 것이다.

식민지시기에 조선사람들은 정통국민의 징표인 일본국적을 가졌기에 천황의 진정한 신하가 되기 위해 노력을 다 하도록 강요당하였다. 해방 후 재일교포들은 그 정통성의 징표를 얻기 위하여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일교포들이 반세기를 넘게 거주외국인으로 살아

왔다는 특수성은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배타적 정책만으로 다 설명될 수는 없다. 가시와자끼(Kashiwazaki 2000: 13-31)는 일본 통치자들이 들고 나온 국적과 민족성의 동일시는 대다수의 재일교포들에게도 공유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재일교포를 대표하는 좌우 두 조직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반일, 반식민지 민족주의자들이었으며 무엇보다 '귀국주의자'들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들 중 누구도 재일교포들의 영주를 염두에 둔 활동방침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가 조국은 머지 않아 통일 될 것이며 재일교포들은 조국에 돌아갈게 된다고 믿거나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였다.

일본의 집권자들이 1952년에 조선인들의 일본국적상실을 선포하였을 때 재일교포들은 그것을 환영하였으며 일본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때에 무엇을 잃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재일교포조직들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는 국가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동포들을 설득하는 데에 주력하였으나 그들의 시민적 권리확대에 주된 힘을 쏟지는 않았다. 그들은 이중국적취득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동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귀화수속의 간이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하였다.

두 조직의 지도자들은 모국어와 모국의 국적을 민족성의 주요 징표로 보았다. 그러나 재일교포들의 언어생활이 일본말로 단일화되어 감에 따라 두 조직은 국적의 상징적 가치에 더욱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민족공동체는 누가 구성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다(Fought 2006: 7). 어느 개인이 그와 같은 규범을 어기고나 공동체에 대한 충실성의 결여를 가리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공동체에서 제재를 받게 되며 공동체에서 추방될 수 있다. 재일교포 사회에서는 일본국적취득은 이와 같은 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로 오랫동안 여겨져 온 것이다. 따라서 귀화한 교포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 침묵을 지켰다. 이처럼 재일교포들의 귀화율이 낮았던 이유는 같은 민족주의적 담론을 공유한 일본 정부와 재일교포 조직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3. 공유된 언어민족주의

여기에서는 전쟁 전과 후 두 시기에 일본과 조선반도에서 지배적이었던 언어에 관한 사상이론적 조류를 살핍으로써 재일교포의 언어교육과 언어사용문제를 보다 적절한 사회/역사적 문맥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랜 역사를 내려온 것처럼 믿어진 것이 실은 어떤 정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근대의 개념일 수 있다. 그와 같은 개념들의 힘은 원시적인 모습을 가장함으로써 그 기원을 가리는 데에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단일민족국가이라는 담론은 전쟁 전에도 국내에서 사람들에게 믿어졌으나 전후에 더 널리 퍼지게 된다. 일본사람들은 언어적 소수집단이 전체인구의 2% 밖에 되지 않는 단일성이 높은 언어사회에 살면서 자기들의 민족성을 언어와 결합시켜 왔다. Coulmas(1999: 404)는 일본에서는 일본어가 일본사람들의 진정한 정신을 담은 것으로 흔히 묘사되지만 그러한 견해는 근대에 발생한 것이며 그 출처는 유럽의 언어민족주의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1868년 메이지유신 후 일본에서는 근대국가건설이 일정에 올랐다. 국가어 또는 국어는 일본열도에 사는 사람들을 조화된 정치적, 국가적 단위로 즉 일본국민으로 단합시키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장치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일본에서의 국어개념은 우에다 가즈도시(上田万年 1866-1937)란 한 언어학자에 의해 그 윤곽이 만들어지고 정립되었다. 그는 일본 교육행정부의 언어정책수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安田 2000: 66-82). 그는 독일유학에서 돌아온 후 일본의 통일된 언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어가 일본사람들이 하나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민족의 정신적 피라고 하면서 민족정신은 오직 표준화된 국어의 보급을 통해서만 키워질 수 있다고 논하였다. 그의 언어이론이 핏줄과 정신이 민족의 기초이며 이 두 개는 언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

다고 하는 독일의 낭만주의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낭만주의 철학에서는 유전적 혈통과 언어를 함께 하는 사람들만이 현실에 대한 공통된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정신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afran 1999: 79). 우에다의 이론은 근대일본 언어정책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패전을 거처도 그 민족주의적 색채가 약화되는 일은 없었다. 식민지경영의 실패경험은 오히려 일본어는 일본사람만을 위한 언어라는 견해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국민구성에서나 언어사용에서나 다양한 사회를 허용하려는 지향이 자라지 않았다.

일본의 근대국가건설은 제국형성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에다에 의하여 정립된 국어의 개념은 식민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식민지의 신하는 오직 국어의 교육과 보급을 통해서만 정통한 천왕의 신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첸(陳 2005: 43-44)은 대만의 일본식민지통치를 분석하면서 일본의 식민지통치자들은 평등에 관한 모순된 논리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하였다. 식민지 주민은 본국의 주민만큼 문명화되면 그들과 똑 같은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명화의 척도가 국어의 사용능력이기 때문에 그 평등에 대한 약속은 영원히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김하수(2005)는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의 언어사상이 조선에 소개된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하여 썼다. 피히테는 나폴레옹 점령하의 베를린에서 독일인민들에게 투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14번에 걸친 애국적인 강연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민족과 언어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언어야말로 민족정신의 본질이라 하였다. 그는 게르만민족이 순수한 것은 게르만언어가 유구하고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신들의 원시적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인민은 라틴화된 언어를 가진 프랑스인보다 우수하다고 하면서 게르만어를 ‘인민들의 생명의 원시적 샘’이라 불렀다. 언어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피히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를 ‘생성된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한 Humboldt(1910: 15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럼 독일 낭만주의의 공동된 견해였다. 언어에 대한 피히테의 견해는 다른 독일의 낭만주의 철학이론과 함께 독일의 민족주의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나중에 나치의 파시즘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피히테의 사상이 번역되어 조선에 들어가자마자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매혹하였으며 그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 사상에 의거하여 우에다에 의하여 정립된 언어동화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담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독일의 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독일철학이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담론을 마련한 것은 김하수(2005: 489)가 지적한 것처럼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최현배를 비롯한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언어와 민족정신은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다는 신념으로 표준화된 조선어의 보급을 통하여 조선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려 시도하였다. 일본과 조선의 언어 민족주의는 그 역사적 뿌리를 함께 하는 것이다.

구마타니(熊谷 1997: 192)는 한국에서는 단일민족국가관의 고전적 패러다임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민족어에 대한 사랑과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동일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대조선어가 특히 그 어휘구성에서 일본어의 모방을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조선어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개화에 벌써 조선어에 일본어휘가 대량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단어들에는 대응하는 조선어 발음이 주어졌다. 아래 올린 것은 1896년에 발간되기 시작한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예들이며 이와 같은 일본제 한자어는 중국어에도 채용된다.

경제학, 공동, 관계, 교환, 권리, 국장, 금고, 금액, 기관, 기회, 대리, 대표, 동기, 등기, 목적, 물리학, 미술, 배급, 보증, 부동산, 분석, 상업, 생물학, 소비, 수학, 승인, 신용, 연설, 연필, 의회, 전보, 전신, 정당, 정부, 정책, 주식, 집행, 제조, 종교, 철학, 출판, 치외법권, 투표, 특허, 학기, 향의, 해방, 형법, 화학(Kumatani 1997: 166-167)

일본어에는 또한 *teate* (手当), *kozutsumi* (小包), *yougasa* (洋傘), *amagasa* (雨傘), *kaiki* (買氣)와 같이 한자로 표기되는 고유어가 있다. 이와 같은 단어들도 수당, 소포, 양산, 우산, 매기처럼 조선어의 한자발음을 가지고 쓰이게 되었다. 구마타니는 이처럼 현대한국어 어휘목록의 기본 테두리는 조선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어어휘를 대량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광해(1995 :23)는 이 차용이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그것들을 쓰면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즉시 언어생활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조선사람들은 조선어와 일본어의 이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많은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조선어보다 일본어가 더 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간조* (counting), *테짜이* (assistant), *반도* (a head clerk), *다비* (split-toe socks), *모모하기* (underpants), *아이마이* (ambiguous), *지미* (plain), *와가마마* (selfish), *사기* (fraud), *호미기리* (a railroad crossing)와 같은 일본음가를 가진 직접차용어가 많아진다. 이것들 중에는 *벙끼* (house paint), *세멘트* (cement), *보게또* (a pocket), *고뿌* (a glass)와 같은 일본어가 서구에서 차용한 단어까지 포함되었다. 어휘뿐만 아니라 ~을 의미하다 (mean that ~), ~하자마자 (as soon as ~), ~에 틀림이 없다 (must be, there is no doubt that ~)와 같은 서구언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어와 통사구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국어순화운동은 해방 후 힘 있고 넓게 이루어졌다. 그 주된 목적은 한국어에 들어온 일본어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구마타니에 의하면 한국어순화운동의 모순은 한국어에 남아있는 일본어의 잔재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것을 운동 목적으로 삼으면서도 그 표적을 주로 일본음가를 가진 직접차용어에만 한정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차용어는 그것들이 가지는 낮은 음가와 의미의 비근성으로 인하여 일반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쉽고도 상징적인 운동 목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어순화운동의 지도자들은 국어에 침입한 일

본어 잔재가 분간해 내기에는 너무나도 널리 퍼지고 흔하며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뿌리내렸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려 하지 않았다. 국어순화운동이 내포한 이와 같은 모순과 제한성은 한국의 민족정신은 한국어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굳건해진다는 것을 공리로 삼는 언어민족주의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순화될 수 없는 국어를 가진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민족정신, 즉 아마토 다마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당시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또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같은 단일민족국가관과 더불어 민족성 또는 민족정신과 언어를 동일시하는 언어민족주의를 공유하여 왔다. 이 사상적 조류는 지금도 일본과 한반도(조선반도)의 북과 남에서의 국가언어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의 언어정책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4. 언어민족주의와 재일교포

최근에 민족을 둘러싸고 서구에서는 민족성이 혈통과 언어에 기초하고 있다는 논조는 그리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한다. Kohn(1945: 13)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객관적 유대가 사회집단을 한정할 때 존재하게 된다. 민족을 잠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것들을 다 갖춘 민족은 드물다. 그 요소들 중 가장 흔히 논해지는 것은 공통의 혈통, 언어, 영토, 정치체(political entity), 풍습과 전통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민족성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만약 언어가 민족성을 배양하는 충분조건이라면 Safran(1999: 7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구상에는 현존하는 200여 개가 아니라 수천의 민족국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민족성을 만

든다라기보다는 민족적 정서의 성장이 어떠한 언어에게 정치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Cobban(1970: 121-123)은 한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공동 의식은 물려 받은 인종, 언어, 문화에서라기보다 함께 살고 이념을 공유하는 데서 생긴다고 논하였다.

재일교포의 언어생활과 언어교육이 언어와 혈통을 민족성 또는 민족(국가) 구성원의 자격과 동일시하는 강한 경향을 가진 일본 그리고 남과 북의 3자로부터 부단한 압력을 받으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 3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너희들은 저쪽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쪽 사람들이나’라는 물음에 늘 명백한 답을 요구하는 흑백논리를 가지고 재일교포공동체를 파악하려 하였다. 국적(일본, 조선 아니면 한국)과 언어는 이와 같은 흑백논리 속에서 각 개인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되어왔다.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의 정체성은 복잡하다.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과 기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여러 속성의 복합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민족적 속성은 그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지배적 속성이라고도 확정할 수 없다. 국적과 언어에 관한 흑백논리는 재일교포들이 원래 가졌어야 했던 다양한 선택권을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밀어내어 버렸다.

일본은 개인의 모어와 국가어가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동질한 민족국가라고 믿는 일본의 집권자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자기 모어와 조국의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의 상상력을 가지지 않았다. 재일교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억압적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1940년대 후반에 재일교포 민족학교를 강제로 폐쇄시켰다. 그들은 또한 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를 마치 일본영토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였다. 일본의 남세자인 재일교포들이 운영하는 총련의 조선학교들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오늘까지 단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일본의 몇 개 지방자치체가 조선학교에 대한 일정 금액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민족적 자의식은 민족적 타의식과의 대조를 통하여 길러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나서 자란 많은 재일교포들이 모국어를 배우러 한국으로 간다. 이것은 재일교포들이 모국어사용을 유지하고 모국과 유대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에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체험은 일본에서는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보다 더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일본에서 난 재일교포들을 모국어를 잃은 한탄스러운 존재가 아니면 자기존엄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칭찬해야 할 존재로만 본다는 것이다. 어느 쪽의 경우이나 재일교포들은 ‘희생자’라는 시각에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언어적 동질성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재일교포들이 모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바치는 노력과 시간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총련은 일본 전국에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민족교육망을 만들었다. 총련학교(조선학교)들에서는 모든 교과목이 조선어로 가르쳐지며 교외활동과 휴식시간에도 조선어를 쓰도록 지도한다. 총련은 일본에서 나서 자라는 교포자녀들에게 고도로 효과적인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일본의 억압적이고 무관심한 정책 아래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의 민족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것은 경탄할 만한 일이며 재일교포사회에서의 모국어유지는 총련에 속한 교포들의 노력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총련과 이에 속한 교포들은 일본에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다. 조선어는 총련의 모든 집회, 회의, 예술공연과 같은 조직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공용어로 쓰인다. 그러므로 조선어는 총련교포들에게 있어서 모국어인 동시에 그들의 공동체언어로서 기능하며 그것은 김 이리나(キム イリーナ 1994: 187)가 쓴 것처럼 총련의 교포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조선학교에서의 모국어교육은 언어가 민족성을 이룬다는 언어민족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모국어에 대한 강한 미화경향이 보

인다. 조선어는 빼앗긴 언어, 무슨 일이 있어도 되찾아야 할 성스러운 언어로 항상 묘사되는 한편 일본어는 강요된 언어로 그들이 극복하여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었다. 재일교포자녀들이 일본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맥락 속에서는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로 간주되었다. 조선학교의 모국어교육은 1983년의 교과서개편까지 조선어가 제1언어이며 일본어는 제2언어라는 현실을 무시한 원칙 하에서 진행되었다.

언어와 민족을 동일시하는 가치관에 따르면 일본어밖에 모르는 대다수의 재일교포는 ‘진정한 조선 사람’이 아니게 되며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그들은 모국어를 배우는 신성한 시련을 겪어야만 진정한 조선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모국 또는 거주국의 민족주의가 민족적 소수집단에 의하여 모방되어 공동체 안에서 압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재일교포 작가 양석일은 재일교포의 애국 의식은 모국어의 사용능력에 의하여 측정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계승에 대한 압력은 그 공동체의 민족적 정체성이 위기에 처할 때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언어민족주의 담론은 재일교포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강한 동기가 되어 온 것과 동시에 공동체의 배타성을 낳게 하였다.

5. 맺는 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 한국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군사독재국가라는 관념을 제거하였으며 2002년의 월드컵 한일공동주최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 유대감을 만들었다. 한류는 일본을 휩쓸었다. 그리하여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류는 재일교포들뿐 아니라 많은 일본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하였다. 1998년에 약 1,800명이었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자수는 2001년에는 2,800명으로, 2004년에는 9,000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어수업을 실시하는 일본의 고등학교수는 1993년에는 42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9에는 159개로, 2003년에는 219개로 증가되었다. 2003년까지 702개 일본 대학교 중 335개의 대학교가 한국어 또는 조선어 수업을 개강하였다.

재일교포사회도 중요한 변화를 겪어 왔다. 3세, 4세 교포들은 조국과 교포 공동체 안의 권력정치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지위를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족적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밖에 여기지 않는 교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더 이상 모국어사용에 의해 구별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결정짓는 것보다 민족적 속성을 포함한 개인의 복합적 속성들을 통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재일교포들은 반세기 이상 일본과 조국의 남과 북의 강한 민족주의에 복종하여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결정하도록 부단히 압력을 받아 왔다. 그들의 국가에 대한 귀속심과 충성심은 국적선택에 의하여 시험되어 왔다. 그들은 또한 공동체 가입자격에 관해서 언어를 척도로 시험되어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재일교포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대처하려 하고 있으며 주변의 민족주의가 제기하는 흑백논리와 양분법적 물음에 대하여 대답을 보류하려 하고 있다.

앞에서 쓴 것처럼 재일교포들은 모국어를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며 소속을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워 왔다. 그러나 재일교포의 모국어교육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동체 재생산을 위한 언어 교육으로부터 조국의 북과 남을 포함한 보다 넓은 언어공동체와의 유대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

야 할 것이다. 모국의 언어와 대중문화에 접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재일 교포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변하여 가고 있다. 그들은 이제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문화적 흥미를 채우기 위해 모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조류들이 합해져 재일교포들에게 있어서 모국어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언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 植田昇次(2001) 『『総連朝鮮語』の基礎研究』, 野呂香代子/山下仁 編著, 『正しさへの問いー批判的社会言語学の試み』, 三元社, 111-147頁.
- 植田万年(1895) 「国語と国家と」, 『東洋哲学』 1卷 11号・12号.
 _____(1895) 「国語研究に就いて」, 『太陽』 1卷 1号.
- 大沼保昭(1980) 「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に関する一考察 4」 『法学協会雑誌』 97(2), 192-26頁.
- 生越直樹(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意識とその変化ーある民族学校でのアンケート調査結果からー」,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 編,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11-52頁.
- キム イリーナ(1994) 「朝鮮総連の朝鮮語教育ーコミュニティ再生産のテクノロジー」, ジョン・C・マーハ/本名信行 編, 『新しい日本観・世界観に向かってー日本における言語と文化の多様性』, 国際書院, 182-199頁.
- 金徳龍(2002) 『朝鮮学校の戦後史 1945-1972』, 社会評論社.
- 金美善(2005) 「言語景観にみえる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 編,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193-224頁.
- 熊谷明泰(1997) 「朝鮮語ナショナルリズムと日本語」, 田中克彦/山脇直司/粕谷啓介 編, 『言語・国家, そして権力』, 新社会, 164-193頁.
- 申昌洙(2005) 「民族教育の歴史と朝鮮学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 編,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271-289頁.
- 陳培豊(2005) 「台湾における2つの国語『同化』政策 近代化・民族化・台湾化」, 原聖 編, 『ことばと社会 別冊2』, 三元社, 41-64頁.
- 西成田豊(1997)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東京大学出版会.
- 朴三石(1997) 『日本のなかの朝鮮学校 21世紀にはばたく』, 朝鮮青年社.
- 早尾貴紀(2006) 「“偽日本人”と“偽ユダヤ人”, そして“本来的国民”」, 『現代思想』 vol.35-7,

196-210頁.

- 原尻英樹(1998) 『「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 講談社.
- 福岡安則(1993) 『在日韓国・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新社.
- 藤井幸之助(1999) 「朝鮮語[連載報告・多言語社会ニッポン]」 『ことばと社会』, 編集委員会編, 『ことばと社会』 1, 三元社, 136-142頁.
- 藤井幸之助(2005) 「韓国・朝鮮人」, 真田信治/庄治博史 編, 『辞典 日本の多言語社会』, 岩波書店, 178-182.
- 前田達朗(2005) 「『在日』の言語意識—エスニシティと言語」,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87-114頁.
- 前田真彦(2005) 「韓国系民族学校の事例」,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 編,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227-269頁.
- マーハ・ジョン・C(1994) 「日本におけるコリアン維持状況」, ジョン・C・マーハ/本名信行 編, 『新しい日本観・世界観に向かって—日本における言語と文化の多様性』, 国際書院, 165-181頁.
- 安田敏郎(2000) 「帝国日本の言語編成—植民地期朝鮮・『満州国』・『大東亜共栄圏』」, 三浦信孝/糟谷啓介 編, 『言語帝国主義とは何か』, 藤原書店.
- 山脇啓造(2005) 「日本の外国人」, 真田信治/庄治博史 編, 『辞典 日本の多言語社会』, 岩波書店, 41-44頁.
- 김광해(1995) 「조망—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3-26.
- 김하수(2005) 「제국주의와 한국어 문제—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한국 언어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가스야 게이스케/미우라 노부타카 엮은이,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479-511.
- 고용근(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최현배(1984)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정음문화사.
- 송민(1979) 「언어의 접촉과 간섭 유형에 대하여—현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성신여대논문집』 제4집.
- Aoki, Eriko (2000) Korean children, textbooks, and educational practices in Japanese primary school.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 Cobban, Alfred (1970) *The Nation-State and National Self-Determination*. New York: Crowell.
- Coulmas, Florian (1999) The Far Est. In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ed.

- by Fishman, Joshua A.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rik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W. Norton & Company, Inc.
- Fishman, Joshua A. ed. (1999)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Oxford University Press.
- Fought, Carmen (2006) *Language and Ethnic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es, Carol (2000) Cultural identity in the work of Yi Yang'ji.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 Helbig, Gerhard (1970)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Unter dem besonderen Aspekt der Grammatiktheorie—. VEB Bibliographisches Institut, Leipzig.
- Hester, Jeffrey T. (2000) Kids between nations: ethnic classes in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ies in Japanese public schools.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 Humbolt, Wilhelm v. (1910) Über das vergleichende Sprachstudium in Beziehung auf die verschiedenen Epochen der Sprachentwicklung. Leipzig.
- Inokuchi, Hiromitsu (2000) Korean ethnic schools in occupied Japan, 1945-52.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 Iwabuchi, Kouichi (2000) Political correctness, postcoloniality and the self-representation of “Koreanness” in Japan.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 Kashiwazaki, Chikako (2000) The politics of legal status: the equation of nationality with ethnonational edentity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 Kohn, Hans (1945) *The Idea of Nationalism*. New York: Macmillan.
- R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Westview Press.
- _____ (2000) The North Korean homeland of Koreans in Japan. In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ed. by Ryang, Sonia. Routledge.
- Safran, William (1999) Nationalism. In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ed. by Joshua A. Fishman. Oxford University Press.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평양민속공원

김 정 영

조선사회과학원

반만년의 오랜 역사적기간에 우리 민족이 창조한 고상하고 문명한 력사와 생활문화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특색있는 민속공원이 평양의 대성산 안학궁터 주변에 훌륭하게 건설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전통을 옳게 계승하고 적극 살려 나가는 것은 민족성을 고수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평양민속공원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생활 풍습을 보여주는 대로천박물관, 조선민속전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지로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민속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목적밑에 공원이나 야외박물관의 형태로 민속공원이 세워지기 시작한것은 19세기말기 북유럽에서 부터였다. 1873년 스웨리에의 스톡홀름에 스칸디나비아 민속학박물관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 아르트르 하젤리우스는 1891년에 최초의 민속야외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칸센 야외박물관을 건립하였다.

단순히 전통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을 비롯한 자연동식물도 함께 전시한 당시로서는 공원적 성격을 함께 가진 특이한 형태의 야외박물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칸센¹박물관은 아르트르에 의해 스웨리에국왕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스톡홀름의 스칸센지역에 건립되었다. 이 야외박물관에는 스웨리에의 여러 지역에서 150여채의 전통적인 살림집들을 옮겨다 전시하였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통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안내 및 해설을 진행하게 하는 한편 계절과 명절에 따라 진행되던 하던 해당지방의 전통음악과 춤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스웨리에의 전통적인 시장을 설치하여 역사적인 상업생활모습을 재현해보이기도 하고 또한 동물원도 함께 배치하여 스웨리에에만 있는 가축을 특별히 전시하는 한편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특이한 동물들을 가져다 동물원을 보강하기도 하였다.

야외박물관에서는 교회, 상점 지어는 유리공장과 같은 수공업자들의 작업장도 구경하게 하였으며, 일부 건물들에서는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직접 보여주거나 여러 명절들을 계기로 진행되던 하던 민속공연을 통해 스웨리에의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전사업도 진행하였다.

스칸센 야외민속박물관은 세계각국에 영향을 주어 이러한 형태의 민속공원이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폭발적으로 건립되기 시작되었다. 먼저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와 비슷한 박물관들이 건설되었다.

1894년에 노르웨이의 오슬로에는 노스크 민속박물관이, 단마크(덴마크)에는 1897년에 흐릴랜드 박물관이, 1909년에 핀란드에서는 쉐리싸렌 울코박물관 등이 건립되었다.

다음으로 20세기중엽에 들어오면서 네덜란드(네덜란드)의 마드로담, 이탈리아(이탈리아)의 《미니이탈리아》, 프랑스의 《미니프랑스》, 도이츨란드(독일)의 바덴 위텐버그주의 야외박물관, 미국 버지니아주의 윌리엄스버그 야외박물관, 중국의 중화민족원, 세계공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민속공원 (야

1 스칸센이라는 말의 뜻은 조용한 휴식터 또는 보호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는데 스칸센이라고 불리운 야산은 원래 스웨리에왕국이 거처하던 별궁터로서 한때에는 군사적요새로도 사용되었던 곳이다.

외민속박물관) 들이 수많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나라마다 또 건립목적과 성격에 따라 호칭에서 야외민속 박물관, 민속공원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불리우고 있다. 지어는 일정한 시기의 전통적인 민속살림집을 집중적으로 옮겨놓고 생활을 복원해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민속촌》이나 《민속마을》로 부르는 대상들도 있다.

세계각국의 야외민속박물관이나 공원들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간에 자기 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목적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시설들에 단순한 전통생활과 살림집들의 복원과 소개선전 뿐만아니라 어린이들이나 또는 관람자들을 위한 유희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는 점에서도 역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로 20세기 말에 건설된 중국의 대표적인 민속공원의 하나인 중화민족원은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특색을 살려 56개 소수민족의 문화와 문물, 사회생활을 복원하고 소장된 유물을 진렬, 연구하는 국가의 최고급 관광지이다. 중화민족원은 17세기중엽부터 1911년경까지 주로 청나라시기를 기본으로 하여 해당 민족의 주택생활풍습을 대표할수 있는 진품 또는 모조건물을 1:1 또는 축소하여 건설해놓고 해당민족의 생활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니이탈리아》, 《미니프랑스》, 마드로담과 같은 유럽의 민속공원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건축물들을 자기 나라 지도 모형에 지역별로 축소, 전시해놓고 자기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프랑스 파리중심부에서 약 35키로 떨어져있는 프랑스의 미니프랑스공원은 전국을 돌아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또 빠른 시일내에 자기 나라의 유명한 명소들을 알게 하지는 목적에서 건설되었다.

프랑스지도를 축소하여 지역별에 따라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유적들과 명소들을 배치하였다.

미니프랑스는 력사유적, 명소부와 놀이부, 봉사부, 경영부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유적들은 당대 시대의 것을 그대로 1:30으로 축소, 재현하였으며 재료표현은 그때 당시의 것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강질수지재료로 하고 폴르우레판 도장으로 마감하였다.

유희장에는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대형미끄럼대를 비롯한 간단한 유희기구들도 배치하였다.

마드로담은 1952년에 네델란드의 헤그에 건설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들이 창조한 고대건축물 뿐만아니라 현대에 건설된 이름있는 건축물과 구조물, 시설물 등을 빠른 시간내에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을 두고 여기에 상업적목적도 작용하여 건설되었다.

1.8정보의 부지를 입구구, 고대유적구, 항구와 운하구, 비행장구, 현대건축물과 구조물구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름에는 민족기악과 춤, 노래공연을 하는데 다른곳에서 출연자들을 초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공원들은 민속공원이라기보다 축소, 건축모형 야외박물관 혹은 야외모형 전시공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또한 도이칠란드의 바덴 위텐버그주에 있는 7개의 야외민속박물관은 스칸센야외박물관과 같이 바덴 위텐버그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살림집들을 그대로 보존, 전시하고 여러 종류의 살림집들과 실내유물전시를 통해 과거 이 지역사람들의 생활풍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야외박물관이나 공원들은 특정한 지역과 시기의 문화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미적인 점을 강조하여 민가들을 전시하였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전시하거나 연구할 수 없다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원들의 가장 중요한 제한성은 우선 시기적으로 볼때 해당나라의 어느한 시기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웨리에의 스칸센박물관과 그와 유사한 종류의 박물관들은 모두 어느 한

시기의 해당 종족의 생활풍습을 한정적으로 보여준다는데 그 제한성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그 제한성은 미니이탈리아나 미니프랑스와 같은 공원들은 해당나라의 전역사적기간에 창조된 모든 역사유물들을 모두 갖추어 놓은점에서는 좋은것이지만 건축물이 모두 축소모형인것으로 하여 당대 인민들의 생활을 재현하여 보여주는데서는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평양민속공원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의 민속공원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이며 이것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속유산을 옹게 계승발전 시키는 것이다.

평양민속공원은 조선인민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을 옹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줄수있게 훌륭하게 건설되고있다. 우선 평양민속공원은 조선역사와 민족풍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볼수 있는 로천력사박물관의 풍격에 맞게 학술적으로 여러가지 구획들로 다양하게 꾸러지게 된다.

평양민속공원은 로천력사박물관으로서의 사명에 맞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알수 있도록 학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민속공원은 력사종합교양구, 력사유적전시구, 민속촌, 민속놀이구, 민속종합관과 기타 경영관리구로 구성되어 있다.

력사종합교양구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자료가 대형벽화형식으로 설치되게 된다.

9개관으로 구성되는 직관관들은 우리 나라의 원시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반만년의 민족사가 일목료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직관관들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해당 국가의 강성기령역, 건국시조, 애국 명장과 명인들, 해당 시기의 반침략투쟁, 과학문화창조활동, 특징적인 민속풍습 등이 알기쉽게 반영된다.

력사유적전시구에는 역사적으로 창조되고 발전하여온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유적유물들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모형화하여 전시하게 된다.

여기에는 우선 원시인들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그림판과 원시초막들, 고조선시기의 단군릉, 고인돌, 비파형단검, 고구려시기의 동명왕릉, 광개토왕릉비, 고국원왕릉, 금강사탑, 백제의 미륵사탑, 신라의 황룡사탑, 발해시기의 상경돌등, 고려시기의 왕건왕릉, 공민왕릉의 문무관상, 경천사탑, 보현사 8각13층탑, 리조시기에 창조된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측우기, 표충비, 북관대첩비 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력사유적유물 80여개대상이 1:1 또는 축소모형으로 전시된다.

그리고 선군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인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천리마동상, 평양산원, 서해갑문 등을 축소하여 현대건축물전시구역에 배치하게 된다.

민속촌에는 원시시기의 집자리를 복원한 초막집과 고조선시기의 노예소유자집을 비롯한 고대시기의 살림집들, 고구려시기의 관청과 무관, 문관집, 고구려시기의 상오리 절터복원건물, 군영, 발해시기의 궁전건물, 고려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인 성균관, 동명관, 99칸짜리 집들이 원상그대로 복원되게 된다.

또한 리조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류형인 북부, 중부, 남부류형의 각이한 농민, 평민, 양반, 토호들의 살림집과 우물, 방아간, 야장간, 가게방, 서당, 약방, 주막집을 비롯한 생활관련 건물들 50여동도 복원하여 분산배치하게 된다.

유적과 유물배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문제는 모든것을 철저히 력사적시기와 전통적 계승관계를 한눈에 알수 있게 배열하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다.

살림집과 관청들에는 해당 시기의 방안 및 부엌생활유물, 로동생활관계유물, 의장기, 무기무장, 군복, 고약기, 탈 등 해당시기의 생활문화를 그대로 보여줄수 있는 수많은 력사유물들을 전시하게 된다.

복원한 살림집을 리용하여 평양랭면, 개성추어탕, 전주비빔밥, 안동밀국수 등을 비롯하여 지방의 대표적인 민족음식들을 만드는 공정을 보여주고 봉사도 해주며 여러가지 초물제품, 도자기, 고려약, 조선옷, 인형, 돌공예, 민속놀이기구, 서예 등 수공예품 제작공정을 보여주게 되어있다.

공원에는 2정보면적의 부지에 조선지도모양의 경관구가 꾸러지는데 여기에는 해당 시기의 건축물들인 안학궁, 경주월성, 부여성, 만월대, 경복궁 등이 축소모형으로 놓여지게 된다. 그리고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한 자연경관들을 공원안의 여러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공원의 풍치를 한껏 돋구게 되어있다.

민속놀이구에는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동시에 벌릴수 있고 여러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야외종합놀이장과 활쏘기, 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윷놀이 등을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실내놀이장이 꾸러지게 된다.

이와 함께 민족음식종합식당을 비롯하여 참관자들의 식사와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야외식사장들, 휴식터들이 공원의 곳곳에 꾸러지게 되며 복원한 고려시기의 동명관과 99칸짜리 살림집은 국내외손님들을 위한 민속려관으로 리용되게 된다.

다음으로 평양민속공원은 민족문화와 력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조선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량속을 적극 장려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꾸러지게 된다.

대로천박물관으로서의 민속공원은 단순한 참관기지로써 뿐만아니라 해당나라의 력사와 전통풍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중심지, 보급지로서의 역할도 원만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민속공원안에는 복원된 수많은 력사유적들과 옛건물들이 있는데 맞게 여기

서 중심적역활을 하여야 할 센터, 즉 실지 유물을 진렬해놓고 우리 민족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민속종합관(민속박물관)이 훌륭하게 건설되게 된다.

민속종합관은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온 로동생활, 가정생활, 민속명절, 민속놀이, 민족음식, 민속예술, 미풍양속과 관련한 력사 유물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전시할수 있게 꾸려지게 된다. 또한 민속종합관에는 수많은 강사, 학술연구사, 유물보존연구사, 유물모조 및 수복제작사들이 있어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풍습을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유적유물들을 수복하고 제작설치하는 문제 등 많은 점에서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준다. 민속종합관은 민속전통과 유물에 대한 연구보존 뿐만아니라 참관자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평양민속공원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고유한 생활풍습을 잘 알도록 하여 사람들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북돋아줄수 있게 훌륭하게 꾸려지게 된다.

소품문 정신의 비판적 계승과 동양 미학의 시각

- 윤오영에 대한 중국문학의 영향

서 영 빈

대외경제무역대학

1.

수필가 윤오영(尹五榮, 1907-1976) 선생은 생전에 독특한 형식의 빼어난 수필작품들을 많이 남김으로써 한국의 현대 수필문학을 한층 빛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수필문학입문』이란 저서를 통해 한국 수필문학의 이론 정립을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수필집으로 『고독의 반추』(1974, 관동출판사)와 『방망이 깎던 노인』(1976, 범우사)을 남겼으며 최근에는 선집형태의 『꽃감과 수필』(2000, 태학사)이 태학산문선의 한 권으로 나온 것이 있다. 본고는 태학사의 이 『꽃감과 수필』을 텍스트로 하여 윤오영의 수필세계를 점검하면서 그의 수필작품에 나타난 중국문학전통의 영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그만의 독특한 문학세계와 수필사적 의의를 자리 매김 해보려고 한다.

윤오영의 수필작품들을 읽어보면 수필에 대한 저자의 애착과 수필에 임하는 저자의 진지한 자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젊어서부터 수필에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다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의 수필작품들이 대부분 저자의 만년에 쓰여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문학수필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선각자적인 자각과 수필문학 수련을

위해 경주한 그의 각고의 노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다양하다. 서사 위주의 「달밤」이나 「소녀」 같은 작품도 있고 사경(写景) 위주의 「밀물」, 「내 고향」 같은 작품도 있으며 또 설리(說理) 위주의 「명분」, 「백의(白衣)와 청송(青松)의 변」 같은 작품도 있고 또 서정 위주의 「봄」, 「소창(素窓)」 같은 작품도 있다. 또 서사와 서정, 사경과 설리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방망이 깎던 노인」, 「마고자」와 같은 작품도 있다. 작품의 구성 면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였는데 그 구성의 필요에 따라 작품의 길이도 「달밤」처럼 2백자 원고지 5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백의와 청송의 변」처럼 30매 이상 되는 것도 있다. 작품의 내용도 다양하여 인물, 사건, 동물, 소장품, 자연, 기호(嗜好) 등등이 모두 그의 작품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미일관 그의 수필세계를 관통하는 특징은 바로 전통적인 산문정신일 것이다. 그의 수필에 나타난 투철한 산문정신은 전통적인 소품문(小品文) 정신에 대한 비판적 계승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또한 소품문 정신에 뿌리를 둔 창신(創新)과 동양 고유의 미학적 시각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독특한 문학적 경지를 개척하였다.

본고는 윤오영의 수필이 지니는 이러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수필세계를 고찰하면서 그의 이러한 산문정신이 오늘의 우리 수필계에 시사하는 바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2.

윤오영의 수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소품문(小品文)이다. 『꽃감과 수필』이나 『수필문학입문』을 막론하고 그의 글 중에는 소품문에 대한 소개와 인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그가 명작수필의 전범으

1 차주환(1982) 「윤오영과 수필문학」, 『수필공원』 창간호 참조.

로 내세운 세 편의 수필이 모두 명(明), 청(淸)의 소품문인 것만 보더라도 소품문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의 일각을 엿볼 수 있다.²

소품문은 중국의 신문학 운동시기 임어당(林語堂)이나 주작인(周作人)에 의해 널리 소개되고 제창된 하나의 장르인데 그 시초는 명대말기의 공안경류파(公安竟陵派)에서 기원한다. 16세기 말 원씨 삼 형제³에 의하여 창시된 이 파는 성령파(性靈派)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성(性)은 개성을 의미하고 영(靈)은 사람의 혼 또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말로서 한마디로 자기의 개성과 품격을 표현하는 자기표현파라고 할 수 있다. 성령파의 소품문은 개인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고 있지만 역대 정통 문장가들에 의해서는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지껄이는” 보잘것없는 글로 취급되었었다. 그러나 신문학 운동의 물결과 더불어 소품문은 개성의 문학으로 새롭게 인식되면서 이 시기에 다시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수많은 명말의 소품문이 주석본으로 출간되었고 드디어는 문장가들이 다투어 모방하는 범문(範文)으로 발전했다.

중국의 사상과 문학을 그 절대적 획일주의와 죽음에서 건져낸 것은 이러한 독창적인 작가들이었다(袁中郎, 金聖嘆, 李卓吾 등 성령파 작가들 - 필자 주). 이제부터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중국도 반드시 그들의 천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중국의 정통파문학은 분명히 성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지(主旨)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죽었다. 성령파문학은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성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다.⁴

2 『수필문학입문』에서 그는 장대(張岱)의 「민노자(閔老子)의 차(茶)」, 임사환(林嗣環)의 「구기(口技)」, 담원춘(譚元春)의 「기산시초(期山詩草)에 적음」을 명작감상에다 넣고 있다.

3 袁宋道, 袁宏道(字는 中郎), 袁中道の 삼 형제.

4 임어당(1963) 『생활의 발견』, 을유문화사, P.353.

임어당의 이러한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품문은 당시 중국 신문학 운동의 취지에 제일 잘 부응하는 하나의 문학형태로서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 신문학 운동 중에서 산문은 이러한 전통적인 소품문의 성공적인 계승 발전에 힘입어 소설이나 시, 희곡에 비해 더욱 뚜렷한 문학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⁵

193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 산문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임어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품문파는 전통적인 소품문에 유머를 첨가하여 “자아를 중심으로 하고 한적(閑適)을 격조(格調)로 하는” 새로운 소품문의 품격(品格)을 형성하기에 이르고 노신(魯迅)을 중심으로 한 잡문파(雜文派)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내용을 신랄한 풍자에 담아 표현하는, 시사성과 혁명성이 짙은 “잡문”이라는 산문의 새로운 한 지류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윤오영이 중국 소품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마도 신문학 운동을 통해서였던 것 같다.⁶ 그의 작품들을 읽다보면 그가 노신의 산문이나 임어당의 산문에 대해 모두 익숙하게 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 있는 것은 그의 수필 중에는 임어당 식의 유럽풍 유머나 노신 식의 날카롭고 예리하게 정곡을 찌르는 풍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어쩌면 당시의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임어당의 유머는 지나치게 한가하고 노신의 비판과 풍자는 지나치게 각박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자신의 체질(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품문의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장대(張岱)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명말의 문장가 장대는 소품문의 완성을 일구어낸 장본인이다. 장대의 수필 「민노자의 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윤오영은 “깨끗하고 빈 구석이 없이 흐르

5 錢理群 溫儒敏 吳福輝(1998) 『中國現代文學三十年』, 北京大學出版社, P.146.

6 차주환(1982) 「尹五榮과 수필문학」, 『수필공원』 창간호.

는 문맥, 간결하고 긴박하면서도 깨끗하게 다듬어나가는 솜씨”를 극찬하면서도 “시대와 지역과 언어와 환경과 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체의 특색은 우리에게 별 관심거리가 못된다”고 못박고 있다.⁷ 그러면서 그는 동서 고금의 성공한 문장들의 공통점으로 천속하지 않은 생활 속의 소재, 일관된 문맥, 절제된 표현, 청신한 이미지, 함축과 여운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수필의 본보기로 명대말기의 소품문을 꼽으면서도 그것에 얽매이거나 구속됨이 없이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수필작품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의경(意境)의 추구를 들 수 있다.

의경은 전통적인 중국의 문장론에서 주로 시에서 동경하던 하나의 경지이다. 사전적 해석으로 의경은 문학예술작품에 표현된 경지나 경계, 정취, 정서, 무드를 일컫는 말인데⁸ 글에서는 언유진이의무궁(言有盡而意無窮)의 경지를 말할 수 있다. 윤오영이 장대의 글을 평하면서 절제, 함축, 여운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 의경을 이루게 된다.

예전에 최북(崔北)이라는 화가는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아니했다. 그 이유를 힐난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산 밖이 다 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의 옳고 그름은 내 아는 바 아니다. 그러나 오묘한 맛이란 항상 붓 밖에 있는 법이다.⁹

붓 밖에 있는 오묘한 그 맛, 그것이 의경인 것이다.

윤오영의 수필 중에서 의경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 바로 「달밤」이다.

서사적인 내용으로 된 이 작품은 달밤에 일어난 아주 평범한 사건, 아니 사

7 윤오영(2001) 『수필문학입문』, 태학사, P.130.

8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편(1995) 『중한대사전』.

9 윤오영, 「조매(造梅)」, 『꽃감과 수필』.

건이랄 것도 없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아주 간명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달밤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생면부지의 노인을 만나 술 한 잔 나누고 왔다는 것이 전부의 내용이다. 만나서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노인에게 어떤 비범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우리에게 극도로 응축된 한 폭의 담백한 정물화 소묘를 연상시킨다. 밝은 달빛, 고요한 밤, 큰 사발의 농주... 이러한 몽롱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 화폭 속의 색조나 선은 고도로 응축되고 절제되어 있지만 화폭 외에서 느껴지는 여운과 맛은 유장(悠長)하기 이를 데 없다.

윤오영이 장대의 「민노자의 차」를 극찬하면서 “이 글이 어찌 차에만 한한 글이겠는가”고 할 때 우리는 「달밤」과 「민노자의 차」 사이의 동공이곡(同工異曲)의 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장대의 글은 분명히 전형적인 소품문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는 아취(雅趣)는 있을지언정 일상성이 없고 장대와 민노자는 있을지언정 시대와 사회의 현주소는 없다. 윤오영의 「달밤」은 이런 의미에서 소품문의 한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 거기에는 일상성의 쇄신이 있고 시(時)와 공(空)으로 짜여진 구체성이 개입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윤오영의 「달밤」이 소품문의 의경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탈속과 초월을 보여준 부분이다. 전통을 계승함에 있어서 맹목에 흐르면 길모습만 빼어 닮은 모사신리(貌似神離)에 빠지게 되지만 「달밤」은 비판적 계승을 통하여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경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오영은 “내가 원하는 수필은 시로 쓴 철학이 아니면 소설로 쓴 시다”¹⁰고 하면서 이러한 경지가 바로 산문문학의 극치라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와 철학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철학과 시는 무엇을 의미

10 윤오영(2001) 「현대 수필문장의 발달 소고」, 『수필문학입문』, 태학사.

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임어당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생활의 발견』이란 명저의 서문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한다.

이 책은 사상과 인생에 관한 나의 체험을 피력한 일개인의 증언이다. 이 책의 의도는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영구적 진리를 수립하려는 것도 아니다. 실인즉 〈나〉라는 사람은 철학의 객관성이라는 것을 오히려 경멸하는 자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객관적 진리보다는 오히려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서정시적이라는 말을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이 책을 〈서정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미명(美名)에 치우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¹¹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임어당이 말하는 철학은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요, 서정은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 임어당의 서정철학과 윤오영의 시와 철학 사이에는 얼마나 먼 간격이 있는 것일까? 필자는 위에서 이야기한 윤오영의 시의 의경을 제외한다면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윤오영의 수필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방법”으로서의 철학과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로서의 서정시적인 요소를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생활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예술에서 미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석굴암의 돌부처는 황금이나 보옥이 아닌 화강석으로 된 것이지만, 황금 보옥으로 바꿀 수 없는 미를 가지고 있다. 모래와 흙으로 빚어진 고려의 청자나 이조의 백자는 또 얼마나 고귀한가. …신라의 금관은 순금으로 된 찬란한 공예품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금에 있지 않고 예술적 미에 있다.

미는 균형과 조화에서 이루어진다.¹²

11 임어당, 앞의 책, P.5.

윤오영이 비록 소품문의 독창성과 개성을 높이 사고 있지만 이 글을 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얼마나 동양적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가 수필론에서 이야기하는 파격과 창신은 어디까지나 동양의 전통적인 미학의 기틀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창신을 위한 창신, 파격을 위한 파격은 아닌 것이다.

윤오영의 아호 동매실주인(桐梅室主人)의 연유를 밝힌 「촌가의 사랑방」이란 수필을 보자.

오동나무는 천 년을 늙어도 늘 노래를 간직하고 桐千年老恒藏曲

매화는 일생토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梅一生寒不賣香

시구의 선택이 더욱 좋아 쓴 이의 인품을 들려주는 듯했다. 봐도 봐도 싫지 않은 글씨요, 읊어도 읊어도 다하지 않는 시구다. …이조의 문화는 가난한 선비의 문화다. 빈한하고 검소한 생활이기는 했지만, 거기는 ‘안목’이란 것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지성과 교양의 표현이요, 문식(文識)과 아취(雅趣)의 유로(流露)다.¹³

윤오영은 촌가의 사랑방 풍경과 이조의 안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이것을 통해 저자의 동양적인 안목과 선비적 기질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문여기인(文如其人),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문학관이 오늘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번에는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로서의 서정시적인 요소가 윤오영의 수필에서 어떻게 나타나있는가를 보도록 하자.

그는 진솔의 사람이다. 그는 진실과 유리된 붓을 희롱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새벽이 김장 삼십 번만 담그면 할머니가 되는 세월”을 탄식했다. 자기가 보고 느낀 세월이다.¹⁴

12 윤오영, 「생활과 행복」, 『꽃감과 수필』.

13 윤오영, 「촌가의 사랑방」, 『꽃감과 수필』.

이 글은 금아의 수필 「송년」 중에 나오는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고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다. 금아는 새댁이 김장 담그는 횃수로 그 빠름을 나타냈다. 신선하고 낯설며 주관적이고 해학적이다. 공자가 냇가에서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을 때, 그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참신하고 신선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아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자기만의 느낌, 자기만의 표현을 찾았던 것이다. 낯설게하기의 효과가 여기에서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윤오영은 정확히 집어내어 “자기가 보고 느낀 세월”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수필이 객관적 또는 영구적 진리의 구명에 목적을 둔 글이 아니라 개인의 체험과 느낌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라고 할 때,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이 아닌 이러한 개성적인 시각의 획득은 수필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 될 것이다.

술을 절개의 상징으로 사랑해 왔다고 하나, 절개가 나쁠 것도 없다. 그러나 반드시 비유나 이유를 따져서 좋다 그르다 할 필요는 없다. 만일 술을 절개 때문에 사랑한다면 단풍은 변절 때문에 사랑하는가?¹⁵

(나는) 다만 내가 보는 각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다. 혹자, 타당성과 정작을 잃은 일변의 편견이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즐거워하는 바다. 내 붓은 어느 때나 자유로운 산책이다.¹⁶

개성이 강한 독자적 견해로서의 서정시적인 모습이 강하게 안겨오는 대목들이다.

그의 수필들을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의

14 윤오영, 「수금아회갑서(壽琴兒回甲序)」, 『꽃감과 수필』.

15 윤오영, 「백의와 청송의 변」, 『꽃감과 수필』

16 윤오영, 「연암의 문장」, 『꽃감과 수필』.

미의 부여가 늘 신선하다. 「조약돌」, 「사발시계」, 「방망이 깎던 노인」, 「소창」, 「농촌」, 「넥타이」, 「마고자」... 이러한 작품들에서 보여준 저자의 개성적이고 선비적인 안목은 실로 한국 현대 수필문학의 소중한 재산들이다. 물론 이 외에도 그의 수필은 탄탄한 구성, 절제된 표현, 자유자재로 능란하게 구사되는 문장의 호흡 등으로 현대 수필문학에 기여한 공이 참으로 크다.

3.

현대 수필문학의 발달과정을 이야기할 때 흔히 프랑스와 영국의 수필, 그리고 몽테뉴와 베이컨과 찰스 램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 수필의 서구적 전통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수필창작에 그대로 반영된다.

윤오영은 중국의 산문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양의 소품문에서 한국 수필문학의 또 다른 한 갈래의 원류를 찾아내어 신선하고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했다. 동양의 산문전통에 대한 언급은 물론 그가 첫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윤오영처럼 이론과 창작에 걸쳐 폭넓게 소품문의 정신을 제창한 사람은 일찍 없었다. 우리가 만약 김진섭의 수필을 가리켜 서구 지향적 성향이 짙은 작품이라고 한다면¹⁷ 윤오영의 수필에 대해서는 동양 지향적, 고전 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소품문 전통의 비판적 계승과 동양미학의 안목을 조화롭게 유지하여 새로운 경지의 수필들을 창작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수필문학이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수레바퀴를 찾을 수 있게 된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수필에 있어서의 동양 전통의 회복과 계승 면에서 윤오영은 한국 현대 수필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윤오영은 한국에서는 연암 박지원의 문장을 높이 사면서 연암 문장의 진가는 “어느 글에서나 일관되어 흐르는 그의 산문정신에 있다”고 했다.

17 이정립(1992) 「김진섭론」, 『수필공원』 여름호.

평소에 쌓인 온축과 박학이 완전히 융화되어 체질이 되고 생활이 되어 사물을 볼 때마다 자기의 독특한 리듬을 타고, 위트와 유머를 풍기며 퍼져, 혹은 풍자가 되고, 혹은 우화도 되며, 고비마다 새로운 기축(機軸)을 열되, 어느 때 어느 줄을 튕겨도 거문고는 거문고 소리, 비파는 비파 소리를 잃지 않는 것이 곧 산문정신의 가장 높은 경지다.¹⁸

그러나 윤오영이야말로 전통적인 동양미학의 안목을 체질화하고 그것을 다시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우리 수필문학에 새로운 산문정신을 부여한 작가로서 손색없다. 그의 문학적 성과는 물론 “예민한 정서, 예리한 관찰력, 놀랄 만한 상상력, 그리고 기억력의 산물”¹⁹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수필적 성과가 오늘 의 한국 수필문단에 시사하는 바는 오히려 그의 치열한 산문정신일 것으로 보인다. 전통을 따르되 창신을 꿈꾸고 창신을 꿈꾸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그의 이러한 산문정신은 오늘 한국 수필문단의 좋은 거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18 윤오영, 「연암의 문장」, 『꽃감과 수필』.

19 피천득(1996), 「痴翁」, 『인연(因緣)』, 샘터.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과제와 남북 역사학 교류의 전망*

정 태 현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장, 고려대학교

1. 머리말

반세기 이상 적대적 대립이 지속된 상황에서 체제가 다른 남북 간에 역사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남과 북에서는 그동안 상호 간의 역사인식 차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차이에 매몰되거나 이를 부각시키는 데만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한(조선)반도의 21세기는 새로운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는 역사인식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남북 연합(낮은 단계의 연방)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에 조응하는 ‘남북 역사인식 연합’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역사인식은 연합의 대상이고, 그 대상을 연합하는 주체는 남과 북이다. 21세기 남북 역사학계는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방법론을 구체화하여 남북연합에 대비한 준비

* 필자는 국제고려학회가 주최한 〈제10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2011.8.24-25, 캐나다 UBC)에서 남측 기조발제로 「남북 역사인식의 수렴·공존 가능성과 역사학(자) 교류의 전망」을 발표한 이후 이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서울에서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역사비평』 99, 2012.5), 「남북 역사인식의 상호 변화와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를 통해 본 ‘역사인식 연합’의 전망」(『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 논문집』 14, 2011.12) 등 두 논문을 상기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책의 출간 시점상, 결과적으로 이 글은 위 두 논문을 종합하여 원래의 발표문을 대폭 수정한 셈이 되었다.

를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 ‘남북 역사인식 연합’은 결코 일방성을 내포하는 단일한 역사인식으로서의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인식 차이의 상호 변화와 수렴, 차이의 상호 인정-공존 가능성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연구방법론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역사인식의 차이도 그 범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적 차이’를 들 수 있다. 이는 남북의 두 정권 또는 국가의 배타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근현대사(1920년대 이후)와 고대사 인식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서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에서 비롯되어 특정한 역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서술 또는 표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문화적 차이는 현시점에서 서로 인정 또는 공존이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차이의 경우는 현시점에서 바로 풀기 어렵고 남북 간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통일을 전망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공존의 방법론이 모색되는 가운데 대립적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만물은 변하게 마련이다. 정치적 차이는 적대적 배타적으로 고착되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과거를 보는 현재의 문제의식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일정하게 수렴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남측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역사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이와 궤를 같이 하여 북측 역시 그들의 ‘혁명력사’ 인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범을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이 제시하고 있다.

2. 북 쌍방의 근현대사 인식 변화

2.1. 남측: ‘사실적’ 역사인식의 보편화

남측에서는 6·25 전쟁 이후 반북·반공론이 고착되었다. 일제 지배하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대한

민국임시정부 ‘정통론’(「제헌헌법」 서문) 중심으로 우파만 언급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후 민주화운동이 지속되면서 1980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민족(해방)운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도 학술적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북측의 연구방식이나 이해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완전히 금기시하거나 사실 자체를 부정했던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현격한 변화였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학자(和田春樹 등)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간접적 방식을 띠기도 했다.

활발한 연구 성과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에는 좌우 민족(해방)운동사를 사실에 기초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오늘의 이념적 차이를 기준으로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상식적’(진보적이라기보다) 역사인식이 보편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북측: ‘탄력적’ 역사해석의 가능성

북측 역사학의 민족해방운동사 정리는 ‘혁명력사’ 시기인 현대사(1926년 이후)는 수령 영도하의 항일무장투쟁사에 집중되었고 일제 지배의 연장으로서 ‘남조선=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했다. 주체사상에 따른 역사인식을 총괄하여 1979~83년간에 간행된 『조선전사』는 민족해방운동사를 인민대중의 투쟁을 영도하는 수령의 출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1992~95년간에 여섯권, 1996~98년간에 ‘계승본’으로 7~8권이 간행된 ‘회고록’은 이전 역사서술에서 볼 수 없던 내용이 풍부하게 언급되는 큰 변화를 보였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특징만 거론하고자 한다.

① 3·1운동과 관련하여 이전과 달리, 종교계(천도교, 기독교, 불교)와 직업, 신앙, 성별, 연령에 구분 없이 ‘전민족적’ 투쟁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신채호나 이동휘 등의 인물이나 신간회(국내의 대중적 반일연합전선조직)와 독립군(민족주의 진영의 무장세력)에 대해 긍정적 재평가를 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만의 사상이 아니고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애국사조이며, 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발생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자평했다. 임시정부의 통일전선 성격을 강조하고 중일전쟁 이후 김구(임정 주석)와의 연계 시도나 여운형-건국동맹과의 공동전선 모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③ 이전까지 종파로 규정했던 여타 공산주의자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0년대 한인사회당이 “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조선공산당 창건(1925년)의 역사적 합법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제 지배하 국내 공산주의자의 리더였지만 전쟁 후 ‘미제 스파이’로 처형된 박헌영의 측근이었던 이현상, 김삼룡(애국열사릉에 묘가 있음) 등과 그들이 주도한 경성콩그룹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④ 일국일당 원칙에 따른 중국공산당 입당, 소련 정내로의 부대 이동(1940. 11)과 ‘소련원동군 독립88려단’ 활동 사실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민생단 사건 등 조중 민족갈등에 대해 중국공산당 중앙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비판한 반면에 소련과 국제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가 세고 특히 국제당의 조선공산당 해체를 적극 비판했다. 나아가서 ‘파벌성’은 조선공산당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공산당운동에서 일반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남북 역사용어 공동연구>를 통해 본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전망

3.1.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의 의의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이하 <공동연구>)는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화협-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가 2007년 초부터 논의하여 그 해 11월에 성사되었다. 3년간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선사시대부터 3·1운동 시기까지를 3단계(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 각 단계마다 쌍방 33~49명의 연구진이 참가하는 대형사업이었다.

〈공동연구〉의 일차적 취지는 남북의 한국사-조선사 서술에서 같은 역사대상(사건, 인물, 개념)에 사용되는 역사용어를 각 단계별로 300여 개씩 선정하여 남북 역사학계가 각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함으로써 남북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상호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에 대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가 드러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장차 역사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공통적 영역을 넓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공동연구〉 결과물은 연구자들 혹은 일반 독자들에게 공개되어 향후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공동 역사서술을 추구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3.2.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의 추진경위

2000년 6·15선언 이후 분단 50년을 뛰어넘어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교류행사가 몇 차례 이뤄지면서, 남북 역사학자들의 문제의식은 본연의 ‘학술적 성과’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남북의 연구환경이 다르고 서로가 예민한 정치적 영역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남북 역사학(자) 교류가 학술적 성과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의 축적 덕분이었다. 남북공동학술회의 의제는 교류 초기 일제 강점기에 제한되었던 것에서 점차 고구려, 고려 시기로 확대되었고 나아가서 공동발굴조사, 공동답사 등 교류방식의 다양화로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학술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7년 5월 <남북역사용어비교

사전 출판) 사업안을 북측에 제시했다. 남북 역사인식의 거리를 좁히고 궁극적인 재통합을 위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해서 장차 차이점을 통합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 단계 심화된 교류와 학술적 성과를 쌓자는 의도였다.

이 사업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혼동도 있었다. 한 예로 이 사업안에 대한 북측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작업이 남북 간 역사인식의 차이만 부각시켜 결국 통일 노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즉 “분단 과정에서 형성된 북남 역사용어의 차이점을 밝혀내 『남북역사용어 비교사전』으로 출판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북남 간의 일시적 차이를 영구적 차이로 고정화하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이었다. 북측으로서는 혹여나 남북 간의 역사용어 차이가 실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공표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 간의 역사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고민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연한 고민이었다.

남측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북측에 <공동연구>를 제안하기 전에 개략적인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차이점보다 오히려 공통점이 너무 많아 ‘비교’라는 명칭이 오히려 무색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는 판단이 들었다. 5천 년간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는 당연한 사실 때문이었다. 결국 남북 간 협의과정에서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혀가고자 하는 남북 역사학자의 ‘소명감’과 신뢰가 어우러져 <공동연구>가 착수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이 사업을 처음 제시할 때의 명칭인 <남북역사용어비교사전 출판사업>을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 사업으로 바꾸었다. “분단된 것도 억울한데, 일시적인 차이점을 사전으로 만들어 출판 배포하는 것은 차이를 고정화하려는 반통일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북측의 일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일부 우려는 <공동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말끔히 정리되었다. 실제로 이 사업 협의과정에서부터 남북은 모두 특히 정치적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측

은 이 사업 검토과정에서 세 단계(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근대의 하한을 1910년대까지 제한하자고 먼저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8월 6~7일 개성에서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와 북측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조희승, 민화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무협회가 열렸고, 2007년 9월 7일에는 세부 내용에 대한 2차 실무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쌍방은 역사용어 선정과 시대구분 방식, 공동연구진의 구성 형태 등을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9~10월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공동연구 실무진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남북공동연구의 기본 틀을 확정하고 제1단계 연구 대상시기인 임진왜란~1919년까지의 주요 역사용어 300여 개를 선정(진행 과정에서 260개로 재정리)하여 북측에 전달했다. 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남측이 안을 북측에 제시하고 북측이 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마침내 2007년 11월 16일 <공동연구> 1단계 사업(근대편)에 대한 최종 합의서가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간에 체결되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역사문제를 통일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북역사용어공동연구 사업에 합의함
- 대상 : 1592년 임진왜란 시기부터 1919년 3·1운동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관련 용어 300여 개
- 학술협의 : 남북 학자들이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며 상호 작성한 원고를 교환함
- 기타 :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민족화해협의회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함

- 부속합의서 내용

- 11월 또는 12월 중 공동연구 성원과 300여 개의 역사용어를 선정하고 공동연구 세부일정계획, 예상항목 등을 협의함
- 실무협의 : 필요한 시기마다 협의하여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함
- 공동연구 모임 : 2008년 중 두 차례의 공동연구 모임을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역사용어 300개에 대한 원고의 평가를 행함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남북 역사용어의 수집과 비교

- 남북의 역사연구 논저, 교과서 등 출판물을 통해 각각의 역사용어를 수집하고 이를 시대별, 분야별, 어순별로 정리(남북 개별작업)
- 제1차년도 공동연구의 대상 시기는 임진왜란으로부터 1919년으로 한정
- 연구대상 시기는 다시 조선후기/개항기/일제시기로 나누어 주요한 용어를 선정
- 선정대상 용어는 민족사 전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인물/개념으로 구분
- 수집 정리한 남북 역사용어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 후 주요 용어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남북 공동작업)
- 남북 역사학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연구할 용어를 선정하고 내용과 형식에 대한 기초 틀을 확정 (남북 공동작업)

- 용어설명 집필 및 검토

- 남북이 합의하여 선정한 역사용어의 내용에 대해 각각의 연구진들이 집필 (남북 개별작업)
- 집필의 주요 내용은 (1) 간단한 정의 (2) 정의에 관한 상술 (3) 전거 순으로 기술
- 연구자는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소속 학계의 의견을 대변하며 소속 학계

내의 다른 의견도 충실히 소개

- 집필이 완료된 모든 원고는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의 연구모임을 갖고 상호 교차 검토를 실시(남북 공동작업)
- 교차 검토를 통해 남북 역사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상호 강구

1단계 <공동연구> 집필자로는 남측에서 서중석(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 성균관대 교수) 등 18명, 북측에서 조희승(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등 15명이 참가했다.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진행된 1단계 <공동연구>는 수차례의 연구모임을 거쳐 성과 있게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실 특이한 것이라기보다 예상했던 바지만, 남북 간 역사용어의 개념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260항목 가운데 정치적 차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0여 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공동연구> 참가자들 사이에서 남북 간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 역사적 의미가 담긴 이 연구의 의의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남북 간 역사인식 차이를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던 북측도 1단계 연구 결과를 확인한 후 2단계(고대) 공동연구 진행에 흔쾌히 동의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이 사업을 가급적 빨리 진행하기 위해 2단계(고대편)와 3단계(중세편) 공동연구의 동시진행을 북측에 제안했고, 남북은 2008년 12월~2009년 11월 사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남북관계 악화로 남측 인사의 방북 불허 등이 겹쳐 2~3단계 공동연구는 어쩔 수 없이 6개월 연장되었다. 공동학술회의 장소도 예정된 평양에서 개성공단으로 옮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5월 공동연구를 어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530여 개로 축소하여 재정리된 2~3단계(고대와 중세) 역사용어 가운데 정치적 차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 ‘대동강문화’, ‘단군릉’을 들 수 있다. 나머지

지는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고분의 묘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든가, 위화도회군이나 정도전, 서경덕에 대한 평가 등 문화적 차이의 범주에 속하는 정도였다. 남북 간의 역사인식 차이를 학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오히려 남북 간의 역사인식 차이가 선형적으로 추정하는 바와 달리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공동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남북한 간 유사한 역사용어의 통일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시기별,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용어들을 선정하여 합의에 이르는 작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용어 전반에 대한 통일, 즉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공동의 역사 개설서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남북의 역사인식에는 공통점이 지배적이면서도 차이도 일정하게 존재한다. 정치적 차이의 경우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그러나 왜 달라졌으며 같아질 방법이 무엇인가까지 밝혀나가는, 길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여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연구> 사업은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첫 작업이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2007~2008년 1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2009년 2~3단계 학술회의에서는 남북 학자들은 자유토론 시간도 가졌다. 실제로 현시점에서 남북의 역사학자들끼리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4.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향한 단계별 과제와 전망

4.1. 화해협력기: 역사인식의 공통성 확대

역사학 교류는 평화협정 체결을 경계로 한 ① '화해·협력기'(현재)와 ②

‘평화공존기’(평화협정 체결 이후), 그리고 ③ ‘남북연합기’ 등 남북관계의 단계에 따라 교류의 내용과 수준, 초점과 방향이 변화·발전해야 한다. 즉 각 단계에 조응하는 단계별 성과를 쌓아가면서 교류의 수준을 높여, 향후 ‘남북연합기’의 경제·사회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방법론을 일궈내야 한다.

이 중 첫 단계인 화해협력기는 남북관계가 냉전시대의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 관계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말한다. 남북관계는 통일 이전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13) 발표 이후 사실상 화해·협력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전히 강고하게 작용하는 정치, 이념 및 군사적 대결구도가 시시때때로 불거져 민간교류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실제로 2008년 남측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닫기 이전에도, 즉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정치·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 민간교류는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일차적 선결과제는 한(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대결구도 청산, 평화 정착에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류 확대가 우선 과제인 화해·협력기의 역사학 교류는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추구하는 문제의식 아래 ‘남북역사용어통일공동연구’,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와 보존조치’, ‘고구려 발해 역사 공동연구’, ‘일제강점기 피해 실태 공동조사’ 등 남북 공동의 역사 관련 현안이나 소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시로 불거지는 정치·군사적 대결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치가 정책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도 역사학 교류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남북 역사인식 연합’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 간의 ‘남북역사교류협정(가칭)’ 체결은 가능하다.

그리고 남측의 경우 전 역사학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류를 지원, 관리, 조정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남북역사학교류지원센

터'같은 기구를 설립해 역사학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리적 목적의 민간교류와 달리 민족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역사학 교류는 국가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이다.

화해협력기에는 과도기적 한계로 인해 어려운 절차를 거쳐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주제를 두고 남북 학자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남북 공동학술회의는 냉정하게 말해 '발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문에 교류를 통해 서로 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겠느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판에 앞서 남북 학자들의 객관적 조건과 환경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 업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남측의 연구 환경과 달리 구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학술연구가 집체적으로 수행되었다. 북측의 집중성은 과거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더 강하다. 이로 인해 북측은 『리조실록』 등 각종 대형 고전 번역사업을 국가 지원 아래 일찌감치 마무리하기도 했다.

또 개인의 문제의식이나 관심에 따라 연구주제를 정하는 남측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북측 학자의 발표나 논문은 결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분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역사과학』에 실리는 논문은 깨알만한 글씨로 편당 두어 쪽 정도로 촘촘하게 인쇄되어 있다. 그 이유를 묻자 한 북측 학자는 “우리는 논문이 개인의 작품이 아니고 집체적 성과이므로 집필 전에 집체적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 때문에 근거 제시는 필요 없고 결론적 내용만 주로 쓴다”고 답했다.

교류를 통해 남측 학자들이 북측의 연구 방식이나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듯이 북측 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세기 이상 만남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없이 차이점만 드러내 왔던 남북 갈등의 관행에 안주하는 한, 새로운 차원의 전진을 모색할 수는 없다. 그간의 교류 과정에서 이면적으로 학자들 간에 서로의 연구 환경을 이해하게 된 자체가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연구 방식과 환경의 차이를 상호 이해하는 것이 본격적인 역사학 교류와 역사인식 연합을 향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4.2. 평화공존기: 역사인식에서 문화적 차이의 수렴·공존과 정치적 차이의 완화

4.2.1. 평화공존기의 민간교류 환경

평화공존기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단계를 말한다. 조미, 조일 수교가 이루어지고 대북 에너지 경제지원이 본격화되며 남북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군축에 나서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해 갈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단일시장에 준하는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평화공존기에는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넘어 통일을 향해 한 차원 발전해갈 수 있도록 남북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통일문화에 대한 준비가 요청된다. 제도적으로 남북교류를 저해하는 법령이 개폐될 것이고 사회문화 분야의 당국 간 대화도 정례화 또는 상설화될 것이다. 남이건 북이건 분단 이래 겪어본 적이 없는 환경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정상 간에 합의한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면서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제도적 밑받침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6·15 및 10·4 공동선언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 조항을 구체화하여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하위문서로서 학술 등 각 부문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다.

4.2.2. 평화공존기의 역사학 교류와 역사인식 수렴의 수준

평화공존기에는 역사학계 전반이 참여하는 본격적 정례적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남북 간 역사인식 쟁점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의 역사학자가 상대 지역에서 강의 또는 발표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자의 역사인식을 상대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 역사인식에서 문화적 차이가 수렴·공존하고 정치적 차이를 완화하는 방법론이 모색될 수 있다. 이는 평화공존기 역사학 교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남북연합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정부가 평화공존기에 조율하는 구체적 교류내용을 포함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민간학자들이 이에 협력하여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역사학 교류는 학문 특성상 민관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장기계획과 지원 속에서 민간학자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즉 6·15 선언 2항에 따라 남북 간에 합의될 통일방안을 편의상 ‘남북연합(연방)제’라 한다면 통일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남북연합(연방) 단계에서 조직되고 진행되어야 할 남북역사공동위원회나 공동교과서 편찬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기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학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 방향에서 민간학계 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남측에서는 이를 위해 통일부, 교육부, 문화재청,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민간학계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역사교류추진위원회’(가칭)와 같은 민관협력기구를 상정할 수 있다. 남북역사교류추진위원회는 ‘남북 역사인식 연합’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내다보면서 평화공존기 남북 역사학 교류의 여러 과제들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설정된 과제가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기획, 지원, 조정하는 기능을 지녀야 한다.

남북역사교류추진위원회 산하에는 남북역사교류지원센터 같은 기구를 두어

업무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의 업무는 역사학(자) 교류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구축, 북측 교류대상 중재, 재정 지원 등의 활동을 주요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설정한 장기계획에 조응하여 민간 역사학계가 역사학 교류의 단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전략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 분야의 개성 경제협회사무소처럼, 개성에 사회문화협회사무소 또는 학술교류협회사무소 같은 기구를 두고, 교류 주체들이 북측과 직간접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

평화공존기에 요구되는 남북 역사학 교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 시대사별 공동연구, 공동학술회의 확대 및 정례화
- 교환교수, 방문교수제 실시
- 사료, 연구자료 공유
- 학술지 상호개방
- 학문적 업적 상호인정
- 북측의 연구기반 인프라 지원

- 문화재 공동발굴조사의 제도화, 정례화
- 문화재 보존 협력, 통합DB구축, 통일안 모색
-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한 공동연구

물론 이 시기에도 남북 간의 오랜 적대감을 해소하고 분단구조를 청산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결구도로 복귀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크건 작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나 여전히 엄존하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지향의 폭을 넓히는 연구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항일운동사에서 남북의 민족주의 운동과 북측의 공산주의 운동

을 모두 포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한 연구방법론은 남과 북의 역사학자들 간 토론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범주를 찾아낼 수 있다. 해방 후 분단 시대사에 대해서도 각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적대적 인식을 완화시켜 향후 공존을 추구하는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6·25 전쟁 같은 예민한 주제도 공동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영역이 넓다. 전쟁의 발발 원인과 같이 적대적 대립이 부각될 수 있는 소재는 어렵겠지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꾀하는 소재는 얼마든지 선정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정하게 제한된 수준에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소모적이지만 앓다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4.3. 남북연합 단계: '남북 역사인식 연합' 방법론의 마무리와 정치적 차이의 공존 모색

4.3.1. 남북연합 단계의 민간교류 환경

평화공존기 후반기에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회담, 국회회담이 정례화되고 남북연락사무소가 운영되는 상황에 이르러, 남북 정상이 '남북연합헌장'을 합의하고 이를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면 남북연합 단계가 시작된다. 이 단계는 두 정부가 공동기구를 통해 향후의 통합에 필요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시기이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정착되면 남북 주민들은 제한된, 또는 폭넓은 왕래도 가능해진다.

즉 남북연합 시기에 이르면 상이한 이념 체제를 가진 두 정부를 유지하면서도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등이 상설화, 정례화됨으로써 남과 북이 통합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향후의 통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법령체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통합을 준비하면서 정치기구 뿐 아니라 경제나 학술,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역사학 분야에서도 공동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4.3.2. 남북연합기의 역사학 교류와 ‘역사인식 연합’

이 시기에는 통일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남북공동역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정치적 차이에 따른 역사인식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상호 인정과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마무리하여 공동역사 개설서를 집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역사 개설서 편찬에 착수하게 되면, 이는 곧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내용과 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해 구성된 남북공동역사위원회는 정부기구 안에서 관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수준 높은 학술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제별, 시대별 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그에 따른 평가 작업을 본격화함으로써 공동교과서 편찬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역사학계는 대립과 경쟁을 해소하고 통일 이후에도 ‘역사인식의 연합’이 성숙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해야 한다. 결국 ‘남북 역사인식 연합’이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전제로 적대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남북연합기에도 남과 북의 정부가 따로 엄존하는 만큼 고대사와 근현대사 분야에서 역사인식의 정치적 차이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따라서 주제별, 시대별 공동학회 등이 진행되는 공동연구의 문제의식도 평화공존기에 모색된 역사인식의 정치적 차이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공존하는 방법론을 마무리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1국가 1정부 통일’ 이전의 남북연합 단계가 길고 짧음은 ‘남북 역사인식 연합’의 수준 여하에 달려 있다.

남북연합(연방) 단계에서 요구되는 남북 역사학(자) 교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 남북공동역사위원회 설립 및 남북공동교과서 편찬
- 공동역사서 서술
- 주제별 분야별 공동학회 구성

- 주제별 분야별 공동연구소 설립
- 주제별 분야별 공동학술지 발간
- 학위의 상호 인정
- 주제별 분야별 남북한 쟁점 합의
- 교환교수, 교환연구원제 확대 실시

- 국보 등 주요문화재 공동 재지정
- 문화재 통합관리
- 문화재 분야 공동조직 구축
- 세계문화유산 공동신청

5. 결론: ‘남북 역사인식 연합’-차이의 공존을 향하여

남북 간 역사인식의 이질성을 논하기 전에 남측 사회 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역사상이 공존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에 조응한 사회문화적 토대의 마련은 남북 간 역사인식 차이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남북 역사인식 연합’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남북연합에 대비해야 하는 역사학 교류는 화해·협력기, 평화공존기, 남북연합기 등 남북관계의 단계에 따라 교류 수준을 높여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 역사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고대사와 근현대사 영역이지만, 이 영역 내에서도 남북 역사인식의 동질적 영역이 대단히 넓다. 실제로 교류 초기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남북공동학술회의 소재는 모두 일제강점기였다. 즉 남북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제한된 영역 외에는 한(조선)반도 역사를 대상으로 한 역사인식에서 남북의 차이는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한 이질성 범주에 속한다. 연구의 수준이나 깊이,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드러나는 이연구 환경의 차이는 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교류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로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남과 북의 역사서술에서 정치적 차이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즉 남과 북의 역사인식은 이질적 측면과 동시에 공유면적 또한 일반적인 선형적 판단과 달리 대단히 넓다. 역사학 교류는 당연히 공유면적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특정 주제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대부분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예맥》관계기록을 통해본 고구려주민의 조선민족적성격

강 세 권

조선사회과학원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우리 민족사의 갈피에는 동방강국으로 우뚝 솟아 그 이름 높이 떨친 천년강국 고구려도 있다.

고구려는 중세동방의 천년강국으로서 삼국시기 우리 나라 력사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주도적 역할을 한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일부 학자들 속에서는 고구려의 민족적 성격에 대해 제 나름대로 해석하며 고구려의 조선민족적 성격을 부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구려 주민의 조선민족적 성격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것은 력사주의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구려사를 빛내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나라의 민족성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해당 나라 주민들의 민족성과 결부시켜 론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민족적성격 역시 고구려의 건국과 강화발전에 직접 기여한 고구려주민들의 민족적실체를 통하여 입증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구려주민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대표적인 력사문헌 자료로는 《후한서》와 《삼국지》등의 기록이 있다.

《후한서》고구려전에서는 《구려는 일명 맥이다》라고 하였고 《삼국지》고구려전에서도 《또 소수맥이 있다. 구려가 나라를 세울 때 대수(큰강)에 의거하여 살았는데 구려의 별종이 소수에 의거하여 나라를 세웠기때문에 소수맥이라고 부른다.》고 함으로써 고구려가 《맥(貊)》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밖에도 고구려가 맥 또는 예맥(穢貊)과 관련이 있다는것은 《한서》왕망전을 비롯하여 여러 중국측 력사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맥이나 예맥으로 불리웠다는것을 의미한다.

고구려를 가리켜 맥이라느니, 예맥이라느니 하는것은 결국 고구려의 주민들을 가리켜 그들이 맥 또는 예맥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같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의 건국과 강화발전에 직접 기여한 고구려의 기본주민들이 명백히 예맥계통의 사람들이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맥은 조선옛류형사람들의 후손의 일부로서 오늘의 조선반도 중부이북지역과 중국동북부일대에서 활동한 우리 나라의 고대부족들이였으며 조선민족의 주요성원들이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제어용사가들의 악랄한 력사외곡 책동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의 기본주민으로서의 예맥의 조선민족적성격은 심히 유린말살되고 통구스족의 일종이니, 중국의 소수민족이니 하는 그릇된 주장들이 대두하였다.

최근년간에 와서도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구려의 주권국가적성격을 부정하다 못해 고구려건국의 담당자, 조선민족의 한 성원들이였던 예맥까지도 그 누구의 소수민족이였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견해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예맥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것은 고구려건국초기 주민들의

민족적성격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뿐만아니라 예맥이 고구려는 물론 고조선, 부여의 일부 지역주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만큼 예맥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것은 고구려와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의 민족적성격을 명백히 하고 고구려의 주민과 관련한 그릇된 주장들을 타파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이번 토론에서는 력사기록들에 나타나는 예맥관련기록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예맥의 성격을 해명함으로써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후예들이 세운 우리 민족의 나라였으며 그 주민들은 조선민족의 중요 구성 부분이였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한다.

예맥의 성격을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예맥의 일반적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예맥이라는 것은 예족과 맥족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서 오래전부터 력사기록들에 전해져왔다.

예맥기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건국 이전시기의 예맥기록들에서는 대체로 예와 맥을 따로따로 구별해보았으며 고구려건국이후시기의 력사를 서술한 기록들에서도 대체로 예와 맥을 구별하여 쓰고있다.

이것은 예와 맥이 서로 구별되는 두개의 집단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후세에 들어오면서 기록들에서는 예와 맥을 가르지 않고 예맥이라고 한것이 많다. 예와 맥을 갈라보지 않고 예맥이라고 하게 된것은 후세에 와서 예와 맥으로 정확히 구분할수 없었던데도 있지만 예와 맥이 서로 같은 계통에 속하는 집단들이였기때문이다.

《삼국지》 고구려전에서는 구려를 일명 맥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예전에서는 예의 늙은이들이 옛날부터 구려와 같은 족속이였다고 하면서 언어와 풍습이 대체로 구려와 같다고 하였다. 또한 《사기》 흉노렬전의 기록에 대한 위소(韋昭)의 주석에서도 《맥은 예이다.》라고 함으로써 예와 맥이 서로 같은 족속들이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들은 예와 맥이 원래는 같은 계통의 두 갈래집단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력사기록들에 반영된 예맥의 실체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고구려의 주민으로서의 예맥의 민족적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론증하기 위하여 예맥에 대한 기록을 편의상 B.C. 277년 고구려건국을 기점으로 하여 고구려건국이전과 건국이후시기의 예맥기록으로 구분하여 보려고 한다.

1. 고구려건국이전시기의 기록에 나타난 예맥에 대한 고찰

고구려건국이전의 력사기록들에는 예맥에 대한 자료가 얼마 없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맥에 대한 기록이고 예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고구려건국 이전시기 예맥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기록들을 보면 《시경》, 《목자》, 《관자》, 《론어》, 《상서》, 《맹자》, 《일주서》 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예맥에 대한 기록이 제일 오랜것은 《시경》의 대야 한혁의 시이다. 그러나 예맥관련기록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시경》을 비롯하여 고구려건국이전시기 력사문헌들에 반영된 예맥관련기록들을 보면 그것이 개별적인 어떤 세력을 나타낸것인지 아니면 북방종족 일반을 가리킨 통칭인지 알수 없게 섞여진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예맥의 지리적위치는 물론 그의 민족적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알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예맥에 대한 당시 중국인들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고 예맥이라는 말자체가 고대중국인들이 대국주의적립장에서 주변이족들을 천시하여 부른데로부터 산생된 명칭이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선 고구려건국이전시기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고구려건국이전시기의 력사문헌들가운데서 맥의 실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자료로는 《관자》소광편과 《산해경》의 기록을 들수 있다. 《관자》소광편에 의하면 B.C. 7세기경에 제 환공이 북쪽으로 고죽, 산융, 예맥에 이르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¹

물론 이 기록에서도 예맥의 위치를 명백히 밝히고있지 않지만 기록에 반영

된 위치로 놓고 볼 때 예맥은 고죽과 산융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의하면 산융은 오늘의 베이징 서북방으로부터 란하 상류일대에 있었던 족속들이었다고 인정된다.² 결국 예맥은 고죽과 산융의 동북쪽 즉 란하이동지역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산해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B.C. 3세기 이전시기까지만 해도 맥이 란하동쪽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해경》 권11 해내서경에는 《맥국은 한수의 동북에 있다. 땅은 연나라와 가까웠는데 (연나라에게) 멸망하였다.》(貊國在漢水東北 地近于燕 滅之)라는 기록이 있다.

맥국이 한수의 동북에 있다고 한 《산해경》의 기록은 맥의 지리적 위치를 비교적 상세히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수의 위치를 밝히는 것은 맥국의 위치를 밝히는 것으로 될 것이다.

《수경주》 권14 유수조에 의하면 《유수(濡水)는 동북쪽에 난하(서難河)와 합쳐지고 오른쪽으로는 한수(汗水)가 들어온다.》고 하였다.³ 《수경주》 유수조에서 유수가 오늘의 란하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 만큼 한수(汗水)는 란하의 동북쪽에 있는 지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산해경》의 한수와 《수경주》의 한수는 서로 다른 글자들이다. 그러나 《수경주》유수조의 기록을 내놓고 다른 기록들에서 한수와 관련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넘 두해 둘 때 《산해경》의 한수와 《수경주》의 한수는 전사과정에 생겨난 오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보게 되면 기록들에 반영된 내용과도 서로 통하게 된다.

-
- 1 고구려건국 이전시기의 예맥관련 기록들 가운데서 예와 맥을 합쳐서 예맥으로 쓴 실례는 이 기록을 제외하고 다른 기록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2 산융이 B.C. 7세기 이후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차 《동호》에 흡수동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이 유수는 후에 《난수》라고도 불리웠다. 그러므로 유수와 난수는 결국 같은 강이다.

《수경주》의 한수를 《산해경》의 한수라고 하면 맥국을 란하의 동북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산해경》에서 맥국이 연나라와 가까웠다고 한 내용과 일치된다. 또한 《관자》소광편에서 제 환공이 북쪽으로 고죽, 산융, 예맥에 이르렀다고 한 기록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산해경》에 기록된 맥국의 위치는 어느 시기를 반영하였겠는가 하는 것이다.

《산해경》에서 연나라가 맥국을 멸망시켰다고 한 것은 연나라가 란하 동북지역으로 현저히 진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나라가 란하동쪽지역으로 진출한데 대하여 전하고있는 자료는 《사기》흉노전과 《위략》에 나오는 연나라 장수 진개에 의한 고조선정벌기사이다.⁴ 그에 의하면 연나라는 B.C.284년(연소왕 28년)경에 장수 진개로 하여금 동쪽으로 고조선을 침공케 함으로써 고조선의 서쪽 2000여리 땅을 차지하고 만반한을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산해경》에서 전하는 맥국의 위치는 바로 그 이전시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B.C.3세기 초엽에 란하 동쪽지역에 맥으로 불리운 집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B.C.7세기에 란하 동쪽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관자》의 맥과 B.C.3세기 초엽 그와 같은 지역에 존재한 예맥은 같은 족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맥국과 고조선을 서로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맥국이 연나라의 동쪽에 접경하고 있었으며 연나라가 맥국을 정벌한 시기도 고조선을 공격한 시기와 서로 일치되기 때문이다.

4 연나라가 동북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계기는 동호의 1000여리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에 대하여 《사기》 흉노전에서는 진개가 동호를 격파하여 1000여리나 진출하였다고 썼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맥국과 동호를 동일시한 견해도 있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B.C. 209년경에 흉노에 의한 동호의 해체로 선비와 오환이 갈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를 비롯한 여러 중국 역사 기록들에는 예나 맥을 고조선, 고구려, 부여 등과 같은 나라들에 한해서만 부르고 있고 선비와 오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산해경》에서 말하는 맥국이 연나라가 동북쪽으로 진출하면서 격파한 동호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조선은 전국시기이래로 서쪽으로 연나라와 이웃하고 있었다. 전국시대 사람인 소진은 B.C.334년에 연 문후에게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 료동이 있고 북쪽에 름호, 루변이 있다.》(燕東有朝鮮遼東 北有林胡樓煩)고 말한바 있다.⁵ 《산해경》의 해내북경에도 《조선은 렬양의 동쪽에 있다. … 렬양은 연나라에 속하였다.》(朝鮮在列陽東…列陽屬燕)라고 함으로써 연나라와 고조선이 지리상 름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

이처럼 연나라가 동쪽으로 고조선과 름접하고 있었다면 고조선은 《산해경》에서 말하는 맥국과 동일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것은 《산해경》의 저자가 고조선을 맥국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맥이라는 말이 원래 《부루》, 《불》, 《박》, 《발》로 불리우던 고대조선사람들의 명칭에서 유래 되었다고 인정되고 있는 조건에서⁷ 《산해경》에서 말하는 맥국은 고조선(후조선)이나 그 일부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⁸ 《산해경》의 맥국이 고조선과 동일시된다면 B.C.7세기 이 지역에 있었다는 《관자》의 예, 맥도 고조선 사람들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산해경》이나 《관자》의 기록뿐아니라 고구려건국이전시기 력사문헌들에 반영된 맥관련기사들도 적지 않은 경우 고조선사람들과 름관 되어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렇다고 하여 고구려건국 이전시기의 력사 기록

5 《전국책》 2 권29 연1, 《사기》 권69 소진전

6 여기서 말하는 렬수는 오늘의 료하인데 당시 렬수는 연산부근에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므로 렬양이란 패수류역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된다.

7 《조선전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채80(1991)년, 11페이지

8 《산해경》에서 맥국이 연나라와 가까웠고 연나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맥국은 고조선전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서쪽변방에 있었던 고조선의 후국을 가리키고 있던 말이라고 인정된다. 만조선말기에 그 서쪽변방에 《예군남려》의 예지역이라는 고조선의 한개 후국이 있었던 것만큼 아마 B.C.3세기이전시기에도 서쪽변방에는 이와 같은 후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나라는 연나라의 공격으로 고조선이 2000여리의 땅을 빼앗기는 것과 동시에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에 나타난 맥이 다 고조선사람들을 가리켜 부른 말이라는 것은 아니다.

예, 맥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중국사람들이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 민족성원들을 천시하여 부르는데로부터 생겨난 말이었는데 점차 북방종족들에 대한 통칭으로 특히 북방종족들가운데서도 생산력발전수준이 가장 낙후한 단계에 있던 미개한 원시종족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였다. 그것은 중국의 《4서5경》의 하나로 알려진 《맹자》(고자 장구 하)에서 《자네의 도는 맥의 도이다. … 대체로 맥땅에는 5곡이 자라지 않고 기장만 자란다. 성곽과 궁실이 없으며 … 관리와 관청이 없다.》(子之道貉道也 … 夫貉五穀不生 惟黎生之 無城柳宮室 … 無百官有司)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맥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고조선이나 고조선사람들을 가리켰다고 볼 수 없다.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은 B.C.4000년 후반기부터 벌써 청동제품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B.C. 30세기 초에는 국가형성단계에로 이행하였다. 청동제품의 대대적인 사용은 정복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였을 뿐 아니라 로동도구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높은 생산력발전의 밑천으로 되었다. 생산력발전은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5곡을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비단옷을 만들어 입는 문명한 민족으로 되었다. 이에 대하여 《후한서》 부여전에서는 《5곡을 키우기에 적합하며 … 궁실과 창고가 있다.》고 하였고 고구려전에서는 《궁실을 잘 수리했다.》고 하였으며 옥저전에서는 《토지는 비옥하고 … 5곡을 키우기에 적합하여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였고 예전에서 《삼을 심을줄 알았으며 누에를 쳐서 비단천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전조선시기부터 농경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킨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맹자》에서 말하는 맥인들은 고조선사람들을 가리킨것이 아닐뿐더러 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맥이 고조선이나 그 주민들이 아닌 다른 종족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실례

들은 이 밖에도 력사 문헌들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B.C.3세기 이전시기의 맥에 대한 기록들은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그것이 많은 경우 고조선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성원들을 가리켜 부른 말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건국이전의 기록들에 나타난 예인의 실체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B.C.3세기 이전시기 기록들 가운데서 예에 대한 자료는 《일주서》 왕희해 편과 《관자》소광편에 전해지고있다. 《일주서》(일명 급총주서)에는 《성주의 모임에 … 서쪽을 향하고있는 사람들은 바로 북방사람들인데 직신, … 예인, … 량이, … 양주, … 발인, …》(成周之會 …西面子正北方稷愼, …穢人, …良夷, …楊州, …發人, …)라고 하여 주 무왕때 성주(락양, 동도)의 락성식에 참가한 외인들가운데 예인들도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주서》의 이 내용을 보고는 예인의 위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일주서》의 기록에 대한 진나라사람 공조의 주석에서 《예, 한예는 동이의 별종이다.》(穢韓穢東夷別種也) 라고 한 것을 보면 《일주서》의 예가 그 후 시기에 자주 보이는 《동이》 족으로서의 예와 같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공조는 한예(조선반도 중부이남지역에 살던 주민집단)와 함께 예를 동이의 별종이라고 하였다. 별종이라는것은 대체로 같은 갈래의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만큼 그것은 《일주서》의 예가 한예사람들과 같은 계통에 속하는 족속들이지만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일주서》의 기록된 예인은 비록 조선반도 중부이남지역주민들과 지역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건국이전의 예에 대한 기록으로서는 앞에서 말한 《관자》 소광편의 기록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맥을 예와 맥으로 갈라서 본다고 하더라도 《관자》소광편에 기록된 예는 맥의 이웃지역이거나 그와 가까운 지역에

있던 고조선 서변지역의 사람들 이였을 것이다.

원래 동북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에 퍼져살던 우리 선조들속에서는 문화적 측면에서뿐만아니라 언어생활에서도 다소 지방적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밝음, 광명》의 뜻을 어떤 지역에서는 《새》라는 말을 붙여서 《새밝》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기록에 《예맥》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고 인정된다. 《새》는 고대 우리말 《사라/서러...사라/서리...사/서》에 근원을 둔 것인데 《밝음》의 뜻(東, 黎, 新)을 나타내므로⁹ 역시 《부루》와 같은 뜻의 말이다.

고대중국인들은 이 《새》에서 음을 취하여 《세(歲)》를 음부로 하고 여기에 《禾, 水》변을 붙여 이족을 천시하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예(穢)》였던것이다.¹⁰

이와 같이 고구려건국 이전시기의 력사 문헌들에 나타나는 예, 맥에 대한 기록들을 놓고볼 때 그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고조선사람들의 집단들로서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이였다는것은 명백하다.

2. 고구려건국이후시기의 기록에 나타난 예맥에 대한 고찰

고구려건국이후시기의 력사기록들에는 예맥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등 고구려초기 력사를 서술한 중국 력사문헌들에 적지 않게 올라있다. 문제의 초점이 고구려의 기본주민으로서의 《예맥》의 민족적성격을 밝히는데 있는것만큼 여기서는 이 기록들에 반영된 예맥기록을 가지고 예맥이 어떤 나라와 지역, 어느 민족에 속하는 집단이였는가를 밝혀보려고 한다.

고구려건국 이전시기 즉 B.C.3세기 이전의 력사 기록들에서는 예맥의 정체

9 《세나라시기 리두에 관한 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77(1988)년, 231페이지

10 《조선전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80(1991)년, 12페이지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기록들의 내용과 사료들의 분석을 통하여 예와 맥이 고조선사람들을 가리킨 별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B.C.3세기이후시기의 문헌기록들에서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예, 맥의 민족적성격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고구려사람들뿐 아니라 고조선, 부여 등 여러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예맥이라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조선을 가리켜 예맥이라고 말한 것이 많다.

《사기》권129 화식열전에서는 《대체로 연나라도 발해와 갈석 사이에 있는데 하나의 도회지이다. 북쪽으로는 오환과 부여에 이웃했고 동쪽으로는 예맥조선, 진반의 리익을 얻었다.》(夫燕亦勃碣之間一都會也 北隣烏桓扶餘 東緇濊貊朝鮮眞潘之利)라고 하였으며 같은 책 흉노전에서는 《한나라가 양신을 흉노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이때 한나라는 동쪽으로 예맥조선을 함락시켜 군으로 삼았다.》(漢使楊信於匈奴 是時漢東拔濊貊朝鮮爲郡) 라고 하고 그것을 현도, 락랑이라고 주석하였다. 《한서》권27 지리지에서는 《현도, 락랑은 무제 때 둔 것인데 모두 조선예맥, 고구려만이다.》(玄菟樂浪武帝時置 皆朝鮮濊貊高句麗蠻夷)라고 하였고 하후승전에서는 한 무제의 고조선침공을 찬양하면서 《동쪽으로 예맥조선을 평정하였다.》(東定濊貊朝鮮) 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기》와 《한서》에는 《예맥조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보인다. 기록에 예맥조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그것은 예와 맥으로 갈라볼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예, 맥, 조선으로 갈라서 본다면 연나라의 동쪽에는 예와 맥, 고조선이 모두 린접한것으로 되며 한나라가 설치한 한4군도 모두 이 지역들에 각각 있는 것으로 된다.

진시황에 의한 중국의 통일이 이룩되기 전까지 연나라는 동쪽으로 고조선과 이웃하고 있었고 현도군과 락랑군이 B.C. 108년 한 무제에 의한 고조선침략전쟁결과에 그 땅에 세워진 군들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과 사실들은 예맥조선이라는 말이 고조선에 대한 다른 하나의 명칭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정사로서 첫손가락에 꼽는다고 하는 《사

기》와 《한서》에서 고조선을 가리켜 예맥조선이라고 한 것은 예와 맥이 고조선에 속한 지역들이었거나 그 주민들을 가리킨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예와 맥이 고조선에 속한 지역들이었거나 그 주민들을 가리킨 명칭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자료들을 놓고도 말할 수 있다.

중국정사들에는 한 무제에 의한 창해군 설치경위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서》 식화지에서는 《팽오가 예맥조선을 뚫러 창해군을 두니 연, 제나라들이 휩쓸듯이 발동되었다.》(彭吳穿穢貊朝鮮 置滄海郡則燕齊之間靡然發動)라고 하였고 《사기》 권30 평준서에서는 《팽오가 예조선¹¹에 통상로를 열어 창해군을 두었다.》(彭吳貫濊朝鮮 置滄海郡)고 하였으며 《한서》 무제기에서는 《원삭원년 가을에 … 동이 예군 남려 등 28만명이 투항하였으므로 창해군으로 삼았다.》(元朔元年秋…東夷濊君南閔等口二十八萬人降爲滄海郡)고 하였다. 또한 《후한서》 예전에도 《원삭원년에 예군 남려 등이 우거왕을 배반하고 28만명을 거느리고 료동에 이르러 내속하니 무제가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다. 몇 년만에 폐지되었다.》(元朔元年濊郡南閔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 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滄海郡 數年乃罷)고 전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창해군은 B.C.128년 예군 남려의 예지역에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한서》 식화지와 《사기》 평준서의 기록에서 《예맥조선》, 《예조선》에 창해군을 두었다고 한 것이라든가, 《후한서》 예전에서 《예군 남려 등이 우거왕을 배반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예군 남려는 고조선왕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던 변방의 후왕이었으며 그 지역은 고조선에 속해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성과에 의하면 예군 남려의 땅에 설치하였다고 하는 창해군은 료

11 기록에는 《예조선》이 아니라 《멸조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상의 착오라고 본다. 《멸(滅)》자와 《예(濊)》자는 혼동하기 쉬운 글자이며 기록상에서 그러한 실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동반도 동남쪽지역의 바다가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¹² 또한 《후한서》와 《삼국지》 예전의 서술체계를 놓고도 예와 맥이 고조선에 속한 지역이나 그 주민들을 가리킨 말이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후한서》와 《삼국지》 동이전들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예에 대한 렬전도 따로 올라있다.

예전의 첫머리에는 예의 지리적 위치가 올라있는데 그에 의하면 《예는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와 남쪽으로는 진한과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으며 서쪽으로는 락랑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강원도지역을 가리킨 것으로서 강원도지역이 예땅이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강원도일대가 예로 불리운 지역이였다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북명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 나라에 바쳤다.》(北溟人耕田得濊王印獻之)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삼국지》 고구려전과 동옥저전에서는 강원도일대를 그냥 《예》라고 하지 않고 《예맥》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렬사 기록들에서 예를 가리켜 예맥이라고도 하고 맥을 가리켜 예맥이라고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결국 예를 가리켜 예맥이라고 하였다는 것을 넘두해 둔다.

예전에서는 예의 위치를 서술한데 뒤이어 예인들의 청렴한 생활방식과 아름다운 성품에 대하여 말한 다음 고조선의 준왕으로부터 한나라에 의한 고조선의 멸망, 한4군의 설치와 반침략투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 예전의 대부분이 고조선력사를 개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예군 남려지역의 창해군 설치문제와 단단대령동쪽의 주민들은 예인들이라고 한 내용을 비롯하여 예와 관련한 약간의 설명도 있지만 예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조선에 대한 렬사 서술이였다.¹³

12 《력사과학》주제88(1999)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4-57페이지

13 이것은 강원도 북부를 예로 기준으로 한 기사이지만 예군 남려가 있던 후의 렬동7현의 지역이 락랑군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조선》전체를 혼동하여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예가 고조선과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그것이 고조선에 속한 개별적인 지역명 혹은 고조선주민들에 대한 명칭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기》와 《한서》 등에서 고조선을 가리켜 《예맥조선》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놓고 본다면 예맥은 곧 고조선의 기본주민들로서 다름아닌 조선민족의 주요성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맥이나 예맥으로 불리운 고구려의 기본주민들도 결국 고조선사람들과 피줄과 언어, 문화를 함께 하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었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실지로 고구려와 고조선의 주민들은 조선옛류형 사람들의 후손들로서 오래전부터 한강도우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온 한겨레였다.

《예와 옥저, 구려는 본래 다 조선의 땅이었다.》(溟及沃沮句麗本皆朝鮮之地也)라고 한 《후한서》 예전의 기록과 고조선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예의 《늙은이들이 옛날에 스스로 이르기를 구려와 같은 족속이라고 하였다.》라고 한 《삼국지》 예전의 기록 등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예맥계통의 나라로서는 고구려와 고조선외에도 우리 나라 고대국가의 하나였던 부여도 있다.

《삼국지》 부여전에서는 《그 도장에는 〈예왕의 도장〉이라고 새겨져 있고 나라에는 〈예성〉이라는 옛 성이 있다. 그것은 본래 예맥의 땅이었다.》(其印文言溟王之印 國有故城名溟城 蓋本溟貊之地)고 함으로써 부여가 본래 예맥의 땅이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여의 주민들도 고구려와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지로 고구려와 부여의 주민들은 피줄, 언어, 문화를 함께 하는 한겨레들이었다.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며 언어를 비롯한 모든 것이 대부분 부여와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별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새기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 역사문헌들에는 별종이라는 말이 많이 올라있는데 《선비는 동호의 별종이다.》(《삼국지》 선비전), 《백제는 본래 역시 부여의 별종이다.》(《구당서》 백제전), 《일본은 왜의 별종이다.》(《구당서》 왜전), 《발해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당회요》), 《철록은 흉노의 별종이다.》(《구당서》 철록전) 등이 그 대표적 실례들이다.

우의 기록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별종이라는 말은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혈연적으로 완전히 같거나 아주 가까운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역사 문헌들에 씌어져 왔다.

따라서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이었다고 한 것은 그들이 한피줄을 나눈 같은 혈족집단이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언어가 민족의 공통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조건에서 고구려와 부여의 언어가 서로 같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두말할 것 없이 같은 민족, 성원들이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고구려와 부여가 혈연적으로 같은 계통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신국인 구려의 판이름도 졸본부여라고 불리워졌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예맥은 고구려의 기본주민들뿐 아니라 고조선과 부여의 주민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고구려, 고조선, 부여 세 나라의 주민들이 다 하나의 피줄과 언어를 가지고 단일한 문화를 창조하며 한 강도에서 함께 살아온 단일민족 다시 말하여 다 같은 조선민족의 성원들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고구려나 고조선, 부여의 주민을 나타내는 예맥이 조선민족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면 조선민족의 한성원이었던 진국의 삼한과도 피줄, 언어, 문화를 함께 하였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실지로 예, 맥, 한은 한피줄을 나눈 다 같은 조선민족의 주요 성원들이었다.

삼국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가 같았다는 사실¹⁴은 삼국시기 세나라가 한 겨레의 나라들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한, 예, 맥의 주민들이 언어가 동일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한서》의 기록에 대한 당나라사람 안사고의 주석에서 《삼한의 족속은 모두 맥계렬》이라고 한 한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예, 맥, 한 집단들이 모두 혈연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 풍습을 같이하는 한겨레, 한민족성원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런즉 예, 맥, 한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족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구분한 편의상의 호칭일 따름이지 서로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예맥에는 고구려뿐 아니라 고조선, 부여, 동예(강원도지역에 살던 예맥) 등 조선반도 중부이북지역의 주민들이 속하였다. 이들이 다같이 예맥으로 불리우게 된 것도 모두 피줄, 언어, 문화를 함께 하는 하나의 민족, 조선민족의 성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력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일제어용사가들은 실체도 뚜렷치 않은 고구려건국이전시기의 일부 맥관련 기사를 놓고 제 나름대로 그 위치를 해석한데 기초하여 고구려나 부여 등 예맥족들이 지금의 열하성부근에 있다가 몽골족인 동호와 한(漢)족에게 쫓기워 동쪽으로 이동하여 고구려, 부여, 옥저, 예맥(강원도지방의 예맥)을 세웠다¹⁵고 외곡 주장하였다. 일제어용사가들의 궤변인 《예맥의 동천설》은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다른 나라의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초기의 예맥관련기록들에서 고구려나 부여지역의 예맥에 대하여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무턱대고 예맥은 퉁구스족 또는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고구려나 부여 등의 나라를 세웠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릇된 편견이고 황당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론어》, 《맹자》와 함께 봉건유학자들의 정치 리념으로 되어 있던 《상

14 《량서》권 54 백제전, 같은 책 신라전

15 《시라도리구라끼찌전집》(일문) 4권 이와나미서점, 1970년, 537페이지

서》에도 B.C. 12세기~B.C. 11세기에 《구려, 부여, 한, 맥》 등이 주나라와 통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B.C. 12세기이전부터 구려, 부여, 한, 맥 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제어용사가들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예맥의 동천설》이란 허황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최초의 예맥관련기록들에 반영된 예맥이 고구려나 부여 등 지역들과는 관련이 없는 《외딴곳》에서 나타나게 된 것은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예》니, 《맥》이니 하는 말 자체가 고대중국인들이 대국주의 적립장에 서서 주변종족들을 멸시하여 부른데로부터 생겨난 말 이었기 때문이다.

후세의 중국정사들에서 고구려를 가리켜 《맥》 또는 《이맥》, 《예맥》이라고 한 것 역시 중국사람들이 고구려사람들을 경시하여 부른 말들이었다. 단적인 실례로 《광개토왕릉비》를 비롯하여 고구려사람들 자신이 직접 남긴 기록들이나 《삼국사기》 등 후세 조선사람들이 전한 기록들에서는 고구려사람들이 자신을 맥으로 간주하고 불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중국고전들에 고구려가 일명 맥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들에서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맥이라는 말이 중국사람들이 고구려사람들을 가리켜 부른 다른 하나의 별칭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상의 제반 사실들은 력사 기록들에 나타난 예맥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나 이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주요성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가 철두철미 조선민족의 국가였다는 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다.

제중원(濟衆院)의 신화와 역사 (2)*

황 상 익

서울대학교

1885년부터 1905년까지 20년 동안 존속했던 제중원(濟衆院)은 한국(조선) 최초의 근대서양식 국립병원이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근대의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계기와 통로가 바로 제중원인 것이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제중원은 조선 정부의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핵심적인 기능인 진료는 전적으로 서양인 선교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더욱이 후반 10년 동안은 운영도 선교부에 의해 이루어져 선교병원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다.

이렇듯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덕분에 제중원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풍성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적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화’라고 부를 정도로 실체가 왜곡된 측면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1편에 이어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제중원의 실상을 살펴보려 한다.

* “제중원(濟衆院)의 신화와 역사 (1)”은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13호 7-40쪽(2010년 12월)에 게재되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서양식 국립병원 2. 제중원의 설립 과정 3. 「제중원 규칙」의 제정 과정과 성격 4. 제중원의 설립일 5. 제중원 근무 의사들의 자격과 위상.

1. 제중원 학당

1.1. 학당의 설립과 운영

알렌(Horace Newton Allen)의 「병원 설립 제안(朝鮮政府京中設建病院節論)」에는 “조선의 생도들이 서양의 의법을 배워 약을 쓰는 방법을 알 수 있고 또 조리하는 절차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제중원의 교육기능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알렌의 제안은 「제중원 규칙」 제3조와 제4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제3조. 학도(學徒, 영어로는 student) 4명을 임명한다.

제4조. 학도들은 의사를 보조한다. 의사의 지도 아래 약을 조제, 투약하고 외국인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구의 사용법을 익힌다. 학도들은 환자를 간호하며 의사가 지시하는 것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학도는 직책을 뜻하지만 그들은 “의사의 지도 아래 약을 조제, 투약하고 외국인 의사들이 사용하는 기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일종의 피교육과정의 조수직이다. 즉 제중원에 교육부서를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학도에게 “조제, 투약, 의료기구 사용법” 등을 교육하려 했던 것이다.

「제중원 규칙」 대로 학도 4명이 항상 갖추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중원 설립 초기부터 학도들이 근대서양의술을 배우면서 조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다음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중례 1은 첫 번째 입원환자이자 최초의 수술환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경우였다. 훈련받지 않은 조수들이 클로로포름 마취를 해야 했으며, 그래서 생긴 나쁜 결과는 새로 세워진 병원에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¹

¹ Case I was the first hospital patient and the first operation. It was a critical one, since

이것은 대퇴골 괴사로 부골절제술(sequestrotomy)을 받은 25세의 남성 환자에 대한 언급이다. 제중원에서의 첫 수술은 제대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조수들이 마취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인용 글만으로 나쁜 결과가 생겼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경우였음은 익히 알 수 있다.

정확한 수술날짜는 기록에 없지만 “첫 번째 입원환자이자 최초의 수술환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1885년 4월이었을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 개원 초에 이미 2명 이상(assistants라고 표현했으므로)의 조수(학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름 거들 사람이 없어서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의사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취를 맡긴다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위험한 경우’라고 언급한 것이 환자에게 위해가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새로 세워진 병원에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경악할 일이다.²

알렌의 일기 1885년 12월 1일자 “이같은 사실은 지금 국왕의 통역관 일을 하는 나의 이전 학생(pupil)이 말해 주었다”라는 언급도 학도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또한 헤론(John W. Heron)도 자신이 제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1885년 6월 “한 조선인 조수는 우리 중 한 사람의 지도하에 약을 준비하기에 충분히 훈련되었다”라고 했으며,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선교본부 총무

the chloroform had to be administered by the untrained assistants and a bad result would have injured young hospital,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30-31쪽.

2 의사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소양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히포크라테스 이래 시대를 뛰어넘어 의사들의 철칙은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Do no harm)”는 것이었다. 동서(東西)의 차이가 없는 문제이다. 환자에게 이로운 치료를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엘린우드(Frank Field Ellinwood)에게 보낸 1885년 8월 31일자 편지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조선인 학생(student)이 있다”고 했다.

요컨대, 알렌의 병원 설립 제안에는 ‘교육기능’에 관한 언급이 있을 뿐 ‘의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없다. 그리고 조수 역할을 하는 ‘학도’는 제중원 진료에 참여하며 도제식 교육을 받았고, 의학교와 같은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초안으로만 존재했던 「공립의원 규칙」에 “생도 약간 명이 매일 학업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휴일 외에 마음대로 놀 수 없으며 학업에 정통하고 남달리 재능이 뛰어나 중망을 얻은 자는 공천하여 표양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병원 설립 제안에는 없었지만 제중원 설립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제중원 설립과 함께 의학교 개설을 건의했지만 알렌의 건의 내용에 담긴 의학교 설립은 제중원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일각의 주장과 같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왜 제중원에 의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예정보다 1년이나 늦어졌을까?” 하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체로 “알렌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바쁘기도 했고, 그보다도 시설과 가르칠 사람이 없었으므로 불가능했다”, “제중원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답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별도의 교육부서를 둘 계획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답으로 얘기하는 사정이 1년 뒤라고 크게 달라진 바도 없다. 알렌과 헤론 두 사람이 환자 진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제중원 학당에서 교육을 담당한 알렌, 헤론, 언더우드는 이미 1년 전에 조선에 와 있었다. 또 재정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나빠진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시설 문제는 국왕의 조치로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따라서 “제중원이 기왕에 도제식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별도의 교육부서를 설치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하는 편이 오히려 적절할 터이다. 1880년대까지도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인 교육에서 도제식(徒弟式)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³ 당시 제중원의 사정을 보면 도제식 교육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때문에 별도로 의학교를 설립하지는 알렌의 구상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알렌은 1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1883년 3월 신시내티의 마이애미 의대를 졸업했을 뿐, 의학 연구와 교육 경력이 없으며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험도 물론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임상 경험과 훈련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1887년 1월 3일 엘린우드에게 보낸 알렌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박사님이 나중에 저를 다시 조선으로 파송하게 된다면, 저는 외과분야에서 졸업 후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저는 조선에 오기 전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순전히 독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제중원과 같이 전국적인 영향력이 있는 병원에서 시술해야 할 큰 수술을 다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⁴

헤론은 미국에서 4년간 교사(중등학교) 생활을 했지만 제중원 학당 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학당 개설 직전에야 알렌에게서 그러한 사실을 듣고 학당의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 왜 의학교 설립을 추진했는지 알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알렌은 병

3 예비슨이 약사가 된 과정이 좋은 예이다.

4 In case you wish me return to Korea after a time, it would be very desirable for me to take a postgraduate course in surgery. … Yet I had no experience before coming, am altogether self-taught and consequently I have not confidence enough to tackle heavy work that should be done at an institution of the national influence of this Hospital. This work is therefore turned away, and it should not be so.

원의 영향력과 기회를 증대시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교육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것이 원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렌이 「병원설립제안」에서 의학교 설치를 제외했던 것은 아니었다.

병원 설립 제안에서 언급했듯이, 병원에 의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다. 물론 이 일이 당장 시작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설립한 지 1년이 다 되어 갈 즈음 병원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우리는 병원의 영향력과 기회를 증대시킬 방법과 비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교육부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보였다.⁵

알렌에 따르면, 교육기관(부서)의 설립 계획은 다음과 같이 1885년 12월 이전에 시작되었다. 12월 1일자에 이런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상은 그보다 얼마간 앞섰을 것이다.

조선 대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대리공사) 폴크(George Clayton Foulk)는 처음에는 그 계획에 대단히 호의적이었지만 미국으로부터 교사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전체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⁶

언더우드에 의하면, 알렌의 대학교 설립 계획은 어느 조선인이 언더우드에

5 It was the original intention, as expressed in the proposal for founding the institution, to include a school of medicine under the hospital management. Of course this could not be begun at once, but as the institution very successfully neared the close of the first year of its existence, we began to think of ways and means for enlarging its influence and opportunities. The “way” which best recommended itself seemed to be the opening of the school department. 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5쪽.

6 I have had a scheme for the founding of a Korean University. Mr. Foulk was very much in favor of it at first but objects to the full plan now as the teachers from America are not here. Allen’s Diary, 1885년 12월 1일자.

계 동문학(同文學)에서 영어 과목을 맡으라고 제안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언더우드에게서 이러한 얘기를 들은 알렌은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교 설립을 계획했다고 한다.

폴크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 교사들은 다음 해에 조선정부에 의해 설립될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교사로 일할 사람들일 것이다.⁷ 폴크로서는 교사로서의 자격과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대학교를 개설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된다.

대학교 설립에 폴크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알렌은 다음과 같이 국왕의 지원을 받아 학교 설립을 계속 추진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school)와 12월 1일자의 대학교(University)가 같은 것인지, 구상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물론 폴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표현에서 알렌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으며, 그러한 자신감은 국왕의 신임과 지원에서 비롯되었던 것일 터이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250달러는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The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의 “학교 도구(school apparatus) 구입비 250달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국왕은 나의 학교 설치 계획을 간파하고 폴크에게 이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물론 폴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들(조선정부)은 화학, 철학(philosophical), 해부학 도구 구입비로 250달러를 지급했다.⁸

7 민영익은 1883년 국왕의 특사(보빙사, 報聘使) 자격으로 미국에 다녀온 뒤 영어를 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하여 1884년에 국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갑신정변 등으로 계속 미루어지다가 1886년 9월 23일, GW 길모어, DA 벙커, HB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 3명이 초청되어 동문학을 대체하는 육영공원이 문을 열었다. 육영공원에서는 젊은 관료들과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영어 외에도 수학, 지리, 정치, 경제 등을 가르쳤다.

8 The king got wind of my school scheme and asked Foulk to push it through, of course he had to. They gave \$ 250.00 for a chemical, philosophical and anatomical outfit. Allen's Diary, 1885년 12월 20일자.

이후 학당 설립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1886년 2월 11일, 외아문이 8도 감영에 내린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공문에 “생도가 아직도 많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거꾸로 이미 그 전에 생도 선발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국왕이 학교 설립에 대해 재가를 하고 두 달도 채 안 되어 ‘제중원 학당’이라는 명칭이 정해지고 생도 선발이 상당 정도 진행된 것이다. 여기서 본아문(외아문) 학당은 통역관 양성소인 동문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아문에서 관할했던 교육기관은 동문학뿐 이기 때문이다.

본아문 학당과 제중원 학당의 생도가 아직도 많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지벌을 따지지 말고, 반드시 총명, 영오, 근실한 14·5세에서 17·8세까지 3·4명을 가려 뽑아서 빨리 올려보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라.⁹

『통서일기(統署日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사군관초(九道四郡關抄)』 2월 8일(음력 1월 5일)자에는 “아침 저녁은 학당이 제공할 것이며, 이번 그믐 안, 또는 내달 초에 한성에 도착하여 수업을 받도록 하며,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86년 3월 29일 제중원 학당이 개교했다. 이 무렵 알렌과 조선정부 모두 학당에 대해 커다란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자신감도 느껴진다.

정부 학교(대학)가 개교할 때가 되자, 정부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외아문은 경쟁시험으로 생도들을 뽑으며, 그들에게 재학 기간 동안 저녁을 제공하고, 졸업하면 일반의사(관리) 자격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생도)들은 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¹⁰

9 本衙門學堂及濟衆院學堂生徒 尙多未備 無論地闊 必擇聰明穎悟勤實之幼童 自十四五歲至十七八歲 揀取三四人 不日起送入學事. 『통서일기』 1886년 2월 11일(음력 1월 8일)자.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졸업생들에게 의사자격을 주고 정부관리로 채용하겠다는 정부(외아문)의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은 당시 우두의사에 대한 조치를 보아 공허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5쪽)에는 다음과 같이 제중원 학당의 운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제중원 학당은 1886년 3월 29일에 경쟁시험으로 선발된 16명의 생도로 개교했다. 이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일부 생도는 영어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우리는 곧 이들이 과학 과목들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아문의 독판, 협판들과의 논의에서 채택된 학교 규칙에 의해 이 젊은이들은 4개월 동안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상위 12명을 선발하여 정규 과정에 진급시키고, 하위 4명은 탈락시킬 예정이다. 12명의 생도는 매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식사, 숙소, 학비 등을 제공할 것이며, 과정을 끝내면 주사의 직급을 가진 정부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생도들은 이사회에 역할을 하는 외아문 독판, 그리고 학당 교원들의 허락 없이는 중퇴할 수 없다.¹¹

조선 해군의 첫 군함이 취항하게 되면 우리는 군의관(medical officer) 1명을 그 배로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기록을 보면, 1886년 3월 29일 개교 당시 제중원 학당의 생도 수는 16명이었으며, 구체적인 경쟁률과 선발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경쟁시험으로

10 With the Government school (college) about to open, in which the Government is displaying great interest. I won't have time for other work. The foreign office have promised to appoint the scholars by competitive examination and give them their supper during the school period, making them General physicians (Officers) on graduation. They will also be compelled to stay their full time. 알렌이 1886년 2월 1일 엘턴우드에게 보낸 편지.

11 They will not be allowed to leave except on permission of the 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 who acts as a board of trustees, and the faculty of the institution.

선발되었다. 또한 이 생도들은 정부로부터 식사, 숙소, 학비 등을 제공받는 장학생이었다. 따라서 생도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주사로 등용된다는 것도 상당한 특혜로 생각된다. 하지만 2월달에 언급되었던 ‘일반의사(general physician)’라는 표현이 없어졌는데 그 의미는 알 수 없다.

이러한 특혜가 있는 대신 생도들은 외아문 독판과 교원들의 허락 없이는 중퇴할 수 없다는 의무도 지녔다. 시험기간을 거친 뒤 상위 12명을 선발하여 정규 과정에 진급시키고, 하위 4명은 탈락시킨다는 것은 면학을 위한 조치일 것이다.

학당 운영의 최고기구로 여겨지는 이사회의 구성은 조금 불분명하다. 즉 “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 who acts as a board of trustees”라고 되어 있어 외아문이 이사회인지, 외아문 독판이 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학당 교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이 작성되는 시점에서¹² 생도들은 영어를 배우고 있었고 아직 과학 과목은 공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과학 과목으로 화학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의학에 관한 것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일본 『초우야신문(朝野新聞)』 1886년 7월 29일자 「조선통보(朝鮮通報)」 난에는 다음과 같이 제중원 (의)학당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의학당을 제중원에 설치하고 영재인 자제 13명을 선발하여 화학, 영문, 의술, 제약 등을 학습시켜 의도(醫道)에 정통하는 것을 기다려 널리 세민(世民)을 구휼할 목적이라 한다. 13명의 성명을 열거하면, 木¹³宜植, 金鑲成, 禹濟翌, 李謙來, 金震聲, 崔奎星, 崔鐘岳, 尹鎬, 李軫鎬, 秦學洵, 尙瀟, 高濟棗, 一人欠. 그리고 교사는 화학교사 안륜(安綸), 의사 혜론(蕙論), 영어교사 원덕우특(元德禹特).

12 혜론이 4월 8일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고서를 이미 작성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4월 8일 이전으로 생각된다.

13李의 오식이다.

이 기사는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의 기록과 상당히 흡사하다. 더욱이 “의도에 정통하는 것을 기다려 널리 세민을 구휼”할 것이라는 학당의 목적이 나와 있다. 이 기사가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생도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점이다. 이름이 누락된 1명을 포함하면 13명이 이 기사를 작성한 시점(신문 발간일은 7월 29일이지만 기사 작성일은 알 수 없다)에 학당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16명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개교한 뒤 이 기사 작성 때까지 3명이 학당을 그만 둔 것일 수 있다.

『일성록』에 의하면 생도 가운데 이의식은 6월 14일(음력 5월 13일)자로 제중원 주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의식의 이력서에는 “제중원에서 의학을 수업하고 졸업”¹⁴하여 6월 13일에 주사로 임명된 것으로 적혀 있다. 따라서 이의식을 생도로 보도한 초우야신문 기사는 6월 14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학당의 생도이면서 제중원 주사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름이 밝혀진 12명을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1886년 7월말에 본과생으로 결정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들 12명이 학당 개설 초기에 생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이의식은 이력서로 보아 생도였던 것이 확실한 것 같다. 나머지 11명은 이력서 등 다른 데에서 제중원 학당과 관련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경래, 최종약, 윤호, 이진호, 진학순, 상소 등 이력서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제중원 학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경쟁시험을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특혜를 받았다면 그러한 경력을 내세울 만한데 누구도 그러하지 않은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의식의 경우도 의아스러운 면이 있다. 즉 이의식은 입학한 지 불과 두 달 보름 만에 졸업을 하고 학당의 규칙에 따라 제중원 주사가 된 것이다. 이

14 受業於濟衆院醫學卒業.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이러한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이의식이 주사로 임명받은 것은 정부의 공식기록에 나와 있으므로 확실하지만 ‘의학졸업(醫學卒業)’은 이의식이 자의로 적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이의식은 학당 졸업과 무관하게 제중원의 주사로 임명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 제중원 학당의 ‘2기 생도’라고 주장하는 김의환(金宜煥)은 「제중원 규칙」 3항의 학도(學徒), 즉 제중원 조수로 임명받은 것이지 학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중원 학당은 근대 의학 교육에 대한 의욕과 기대를 가지고 자못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생도들이 3년 내지 5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일반의사(general physician) 자격을 주고 관리로 임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도로 입학하여 제중원 주사가 된 이의식의 경우도 성공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1.2. 제중원 학당의 평가

제중원 학당 교육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남아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조선 정부에게 있다 할 것이다. 국왕과 정부는 근대의학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실제 준비와 실행에는 소홀했다고 보인다. 국왕의 ‘진두지휘식’ 개입만 두드러졌을 뿐 정부(외아문)가 의제를 마련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스템의 작동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병원학교도 다소 경시되어 왔습니다만 국왕께서 듣고서 즉시 새 생도들을 보내고 이전 생도들은 적절히 지원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한 시간도 가르치기 어렵고 최근에는 전혀 가르치

지 못했습니다.¹⁵

왕권국가에서 국왕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국왕의 역할이 정부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전제적(專制的)으로 작동할 때 효과는 즉흥적이고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에도 국왕의 근대적 개혁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과시'에 그칠 수밖에 없는 내재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학당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했던 알렌과 헤론 등은 어떠했을까? 알렌은 학당을 병원의 영향력과 기회를 증대시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막상 학당 교육이 시작된 이후,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남겼을 뿐 알렌의 일기와 편지에는 학당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제중원 학당 교육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에 참여한 알렌, 헤론, 언더우드가 서로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학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헤론과 언더우드는 소외되어 있었고, 그들은 개설 직전야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다.

알렌과 헤론 사이의 갈등은 그들이 제중원에서 함께 일한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매우 고질적이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기록에서 1886년 10월 무렵 헤론이 제중원 학당에서 매일 한 시간씩 교육을 해야 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헤론은 격주로 하루 세 시간만 일하는 것 이외에 모든 시간을 자신의 개인적 일

15 The hospital school has also been somewhat neglected, but the king, when informed, promptly gave orders that the new students should be sent and the old ones properly supported, so that now we are getting on well. I find it now however difficult to give them an hour a day for teaching and often recently have not been able to teach them at all. 헤론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1887년 11월 13일자 편지.

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는 병원학교에서 매일 한 시간씩 가르쳐야 하는 것에 크게 불평을 하면서 항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¹⁶

이번에는 헤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헤론은 알렌에 비해서 오히려 학당 교육에 관한 기록을 비교적 많이 남기고 있다. 헤론은 초기부터 학당 교육을 선교의 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이것(학당 교육)은 우리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자료(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동안, 이곳 조선에서 기독교에 대해 말할 일 _____.¹⁸

이처럼 헤론 역시, 알렌과는 다른 이유에서였지만, 학당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의 많은 시간을 교육에 할애하지는 못했다. 초기에는 하루 1시간씩 교육했고 뒤에는 거의 교육을 할 수 없었다. 다른 일로 바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 다른 일이란 제증원 진료인 경우도 있었지만, 그밖의 이유가 더 많았다.

1885년 4월 제증원이 문을 열고 몇 달 동안 알렌과, 그리고 6월에 합류한 헤론이 환자 진료에 진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을에 들면서부터는 오히려 환자가 줄어들어 진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어떤 때에는 알렌과 헤론이 격주로 번갈아 진료를 할 정도였다.

지금 이곳에는 의사 두 명이 있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진료소에 오는 사람의

16 Heron has had all of his time to himself except, say three hours daily every other week (not more). He complains greatly at having to teach an hour daily in the Hospital School and is always trying to worm out of it. 알렌이 1886년 10월 2일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

17 제증원과 달리 학당에서는 어느 정도 선교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언더우드도 언급한 바 있다.

18 This give us good material to work on, and if in our teaching _____ work which will tell for Christianity here in Korea. 헤론이 1886년 4월 8일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

수가 약간 감소했고, 이곳 관리들이 약을 조제하는 것을 잘 도와주기 때문입니다.¹⁹

위의 기록은 제중원 학당 개교 이전의 것이지만, 의사 두 명이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중원 환자가 많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제중원 진료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알렌의 기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은 알렌이 제중원을 이진, 확장하자고 외아문에 건의했을 무렵인 1886년 8월 23일 알렌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이다.

오늘 병원으로 막 떠나려는데 국왕이 사람을 보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는 제 (근무) 주라서 헤론에게 대신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병원 일은 2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²⁰

따라서 그들이 학당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제중원 진료 때문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은 대체로 제중원 진료 이외의 일이었다. 그러한 사정을 헤론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들어보자.

물론 그(알렌)가 매우 많은 기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를 위한 시간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조선인 진료를 거의 모두 제가 하고 있습니다.²¹

19 Two physicians were scarcely needed here now, as the attendance at the dispensary had slightly decreased and good assistance in preparing medicines was given by the officials there. 헤론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1885년 10월 26일자 편지.

20 Today I was sent for by the King just as I was setting out for the Hospital. This is my week, I asked Heron to go instead and he flatly refused. I mentioned that it would not take two hours to do the hospital work, for the number is very low now.

21 Of course it may be said that this is only right since he brings in the funds very largely, but as in order to give him time for this, I do all or nearly all with the Korean practice.

알렌이 미국 주재 조선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받아 떠난 뒤, 헤론의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제중원 환자가 한때 증가하여 헤론이 그 일만으로도 벅차한 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다른 일이 더 큰 부담이었다. 다음과 같은 그의 기록을 보면, 다른 일이란 외국인 진료, 그리고 제중원이 아닌 헤론 자신의 집에서 환자 보는 것 등이었다.

이것(제중원 일)은 제 업무의 비교적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진료와 집에서 환자 보는 것이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²²

요컨대, 헤론은 제중원 학당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로 과외의 업무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교육은 육영공원 교사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와, 학당 초기부터 관여했던 언더우드가 거의 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당은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헤론의 기록에 따르면, 헐버트는 이미 1888년 3월경부터 하루 2시간씩 제중원 학당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다.

『통서일기』 1890년 4월 21일(음력 3월 3일)자에 제중원 교사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무렵까지 제중원 학당이 존속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보다 훨씬 전에 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의의는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정부와 외국인 의사, 양쪽 모두 의욕은 있었지만 학당을 애초 계획대로 운영할 준비와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을지 모른다. 차라리 제중원 학도들을 대상으로 도제식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당시로는 현실적이었다고 생각된다.

1886년 8월 27일자.

22 This tells comparatively the smaller part of my work. The foreign practice and the patients I see at home making up the most laborous part of it. 1888년 5월 20일자.

2. 제중원 운영권의 이관과 환수

2.1. 운영권의 이관

1893년 11월 1일부터 '제중원 의사'로 근무를 시작한 에비슨(Oliver R. Avison)은 전임자 빈튼(Charles C. Vinton)의 태만과 불성실로 2년 반가량 제 구실을 못했던 제중원을 되살리기 위해 힘껏 노력했다. 에비슨이 제대로 의사 구실을 하자 제중원의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근무를 시작한 첫 6개월 동안 에비슨은 먼저 빈 방을 병실로 개조해 본격적인 병원 구실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수술실을 준비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근무 6개월 말, 즉 1894년 4월 말쯤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수술실을 만들기로 예정했던 즈음인 5월 초에 발생했다. 에비슨은 4월 말 이틀이나 걸려서 가야 하는 시골(경기도 광주)로 꽤 지위가 높은 중환자를 치료하러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언더우드와 함께 왕진을 갔다. 하지만 에비슨이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사망했다. 헛걸음을 한 셈이었지만 마침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5일장이 선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일행은 그곳으로 갔다. 장에서 언더우드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설교를 했고, 에비슨은 진료를 했다. 이렇게 예정에 없던 일을 하느라 에비슨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한성으로 돌아왔다.

에비슨이 그 다음날 제중원에 출근했을 때, 그로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가 수술실로 예정해 놓은 방을 에비슨이 없는 사이에 한 일본인 의사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비슨의 회고에 의하면, 주사들은 방들을 적당한 값으로 세를 놓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편이 수술 때문에 애를 먹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에비슨은 그 날 그 사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제중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으니 국왕이 약속한 연봉(annual contribution)의 절반을 받아야 했는데 단지 그것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는 데에도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에비슨은 계속 이런 식으로 주사들로부터 방해를 받든가 아니면 병원 업무들에 관한 권한(authority over its affairs)을 갖든가 양단간에 입장을 취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²³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0일, 미국 공사 실(John M. B. Sill)은 외아문 독판 서리 김학진(金鶴鎭)에게 에비슨이 제중원 의사직을 사임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실 공사는 에비슨의 사직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이유는 약품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점을 언급한 대목의 한문과 영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한문으로는 “購買藥料火柴等物之經費銀迄未收領”이고 영문으로는 “He has received no money for conducting the hospital, buying drugs, fuel, etc.”라고 되어 있다.

즉 한문 공문에는 없는 ‘병원 운영비(money for conducting the hospital)’가 영문 공문에는 있는 것이다. ‘빈튼 파동’ 때 일단락되었던 운영비 문제가 재연되는 듯도 한데, 운영비의 사용 권한이 외국인 의사에게 넘겨졌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아니면 약품과 땀감 구입비를 병원 운영비라고 표현한 것인지 모른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 마련된 규칙(arrangements)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공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과 새 규칙의 내용은 알 수 없다.

셋째는 에비슨이 근무에 대해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했으며,²⁴ 정부에서 사용토록 허락했던 집²⁵에서 쫓겨나는 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보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에비슨 자신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23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1979) 『에비슨 전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89쪽.

24 不食薪水. Receiving no pay for his services.

25 번커 부인, 즉 엘러스가 제중원에 근무할 때 정부가 제공했던 집이다.

『에비슨 전기』에는 “내가 제중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으므로 국왕이 약속한 연봉의 절반을 받아야 했는데 단지 그것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²⁶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6개월치의 절반은 받지 못했지만, 뒤집어 말하면 절반은 받았다는 것으로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공문에서 “알렌 의사는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²⁷라는 표현도 나온다. 하지만 알렌은 제중원 의사 자격으로 1887년 1월(음력)부터 1888년 2월까지, 그리고 헤론이 사망한 직후인 1890년 6월(음력)부터 아마도 1891년 초까지 월 50달러의 봉급을 조선정부로부터 받았다.²⁸

에비슨과 알렌이 실 공사에게 거짓으로 말했는지, 공사가 거짓인지 알고도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언급은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미국 공사는, 제중원은 애초에 민영익과 공동협력으로 미국 공사관에서 설립했다²⁹고 했다. 엄연한 조선정부의 기관을 미국 공사관이 설립했다고 주장한 것이 단순한 착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 공문은 단순히 에비슨의 사임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중원에 관한 미국 측의 원려(遠慮)가 담겨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 공문은 제중원의 운영권이 에비슨에게 이관되는 과정에 신호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공문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에비슨이 제중원을 그만 두겠다고 한 계기는 수술실로 쓰기로 작정한 방을 주사들이 에비슨 모르

26 I had been there six months and should already have received half the annual contribution promised by the king, but had received only half of that half.

27 該院直士安連不費薪水. Dr. Allen, who was in charge and working no pay.

28 황상익(2010) 「제중원(濟衆院)의 신화와 역사 (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13,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7-40.

29 該院之册起言之由本署泊閔台泳翊共同協力. 영어로는 This hospital was organized through this Legation with the assistance of Min Yong Ik.

게 일본인 의사에게 빌려준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공문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

미국 공사의 공문에 대해 외아문 독판 서리 김학진은 5월 22일(음력 4월 18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제중원 의사 에비슨이 자기 돈 125원으로 약품(藥料)을 산 것을 조사하고 제중원이 받은 비용을 참조하여 그 돈을 완전히 갚도록 했으며, 땀감(火柴)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중원에서 이를 관장하는 직원을 역시 깨끗하게 다스려 모름지기 염려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오직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조사해 보니 원래 육영공원 교사가 머물던 사택으로 지난 번에 제중원 의사가 들어갈 곳으로 비준했는데, 사실은 잠시 임시로 빌려준 것이니, 비워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육영공원이 돌려달라는 것이 매우 급해서이며 후의를 야박하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청컨대 해당 의사에게 이를 깨우쳐 주어 집을 비울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 에비슨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약품과 땀감 값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관련 직원을 징계했다는 것이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육영공원이 사용하는 것을 잠시 빌려 쓴 것이니 에비슨이 퇴거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새로운 규칙’과 월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공문에 대해 바로 다음 날인 5월 23일, 미국 공사는 조선 정부의 허락으로 그동안 에비슨이 사용해 온 가옥을 비워달라는 외아문의 요청을 에비슨에게 통지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 뒤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사이에 오간 공문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러했던가?

하지만 에비슨의 사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불씨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 같다. 알렌은 6월 9일 엘린우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제가 마지막 보낸 편지(5월 16일자)에서 에비슨 의사가 그 병원을 포기했다(giving up the hospital)고 적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에 소유했던 곳으로 지금은 여학교로 쓰고 있는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편지의 뒷 문장은 에비슨이 정부 사택에서 퇴거한 것을 뜻한다. 알렌은 엘린우드에게 보낸 4월 18일자 편지에서는 에비슨을 그 집에서 쫓아내려는 미국인들의 음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한성에 있던 미국인들 사이에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 문장은 5월 16일의 상황인지, 아니면 6월 9일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제증원에 복귀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에비슨이 계속 제증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에비슨은 조선 정부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제증원 일을 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알렌은 이어서 7월 26일 엘린우드에게 다음과 같이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제증원은 폐지(defunct)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도 마찬가지로 끝장이 났습니다. 일본이 23일 아침에 궁궐(경복궁)을 점령했고 지금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증원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8월 18일(음력 7월 18일)자로 제증원의 소속이 외아문에서 내무아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알렌이 위와 같은 편지를 쓴 시점뿐 아니라 8월 18일까지도 제증원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증원이 폐지되었다고 한 것은, 7월 23일 일본군이 무단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7월 25일에는 청일전쟁이 개시되는 혼란 중에 알렌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그 며칠 사이에 제증원을 폐지한다는 논의나 결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 것이 7월 27일이므로 설사 제증원을 폐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선 정부 차원의 것은 아니었

을 터이다.

8월 하순까지도 에비슨은 제중원 진료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다. 제중원 의사로 일하기 시작해서 첫 6개월은 근무했고, 나중 4개월은 근무를 하지 않은 셈이었다. 사실 진료 거부의 이유는 불투명하다. 애당초 내건 세 가지 이유는 대체로 충족되었고, 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근무 거부 이유로는 명분이 약해 보인다.

따라서 겉으로 내건 이유와는 달리 에비슨은 처음부터 제중원 운영권의 획득을 목표로 삼았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고 조선 정부를 겁박하는 뉘앙스를 띤 미국 공사의 5월 10일자 공문도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시대 상황은 점점 더 에비슨에게 유리해져 갔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 정부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은 알렌에게 에비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³⁰

1. 국왕은 주사를 한 사람만 남기고 모두 소환할 것. 제중원은 국왕의 소유이므로 국왕과 나 사이에 연락관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음.
2. 하인 35명을 모두 내보낸 뒤, 내게 필요한 조수를 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할 것.
3. 제중원의 모든 재산을 선교부에 이관하여 필요에 따라 선교부의 재정으로 제중원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할 것.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1. 국왕에게 제중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음.
2. 1년 전에 알려주면 제중원의 모든 재산을 국왕에게 되돌려 주겠으며, 그럴 경우 그동안 건물 개축 등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해야 함.

이제 에비슨이 진료를 거부해 왔던 이유와 목표가 명백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5월 10일 미국 공사를 통해 제시했던 사직 이유도 아니었고, 제중원

30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1979) 『에비슨 전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89-90쪽.

운영의 개선도 아니었다. ‘사직’도 유리한 협상을 위한 카드였다고 생각된다.

알레이 선교본부 총무 엘린우드에게 보낸 8월 26일자 편지에서 언급한 것이 실제에 가장 가까운 목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인 개혁(갑오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기관(제중원)을 박사님께 증서로 완전히 넘기든지 아니면 정부의 찬조 아래 운영할 수 있는 협약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³¹

8월 31일(음력 8월 1일), 외무아문 대신 김윤식(金允植)은 에비슨의 요구를 수락할 것이니 에비슨이 곧 제중원에 복귀토록 해 달라는 공문을 미국 공사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미국 공사는 9월 7일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에비슨의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다.

저는 제중원에 관한 귀 대신의 공문 내용을 에비슨 의사에게 알렸으며,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에비슨이 제중원의 일체 업무를 전담 관리(專管辦理)하게 되면, 필요한 외국인 조수들을 확보할 것이며 자신과 조수 모두 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귀 정부에서는 주사들을 임명해 귀 정부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제중원의 정당한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에비슨과 동료들은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입하고 피고용인과 조수의 급료를 모두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사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에비슨은 필요한 수리를 하고 병원 뒷쪽 언덕의 빈터에 자신이 살 집을 지을 것이며, 이 집과 부지는 병원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에비슨은 몇 해 또는 무기한 근무할 것이지만, 귀 정부는 언제든지 제중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1년 전에 에비슨이나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에비슨이

31 In the general reconstruction now going on we are trying, from the Legation, to have the institution either given over to you entirely by deed, or suitable arrangements made for its proper conduct under Government auspices.

자기 집과 병원 건물의 수리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공정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정부는 경비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1등 병원을 설치하는³² 것이며, 또 귀 정부가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제중원의 운영권을 에비슨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경우 조선 정부는 운영비를 쓰지 않으면서도 최상급의 정부 병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중원의 모든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하면서, 굳이 에비슨이 살 집을 새로 짓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에비슨은 육영공원 소관의 사택에서 퇴거한 것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리고 에비슨은 제중원의 3년치 예산에 버금가는 8500원을 들여 자신이 살 주택을 신축했다.

이에 대해 9월 26일 외무대신 김윤식은 에비슨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미국 공사에게 보냈다.

모든 병원 업무는 에비슨이 관할하여 운영(專管辦理)토록 할 것입니다. 제중원의 빈 터에 그가 거주할 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 조선 정부가 언제라도 제중원의 환취(還取)를 요구하는 경우 그때까지 들어간 건축비와 수리비를 모두 지불할 것입니다. ... 에비슨에게 운영권을 이관한 이상 조선 정부의 관리와 고용인을 파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에비슨이 업무를 볼 때 우리 정부의 지도(訓勸)을 받지 않거나 우리 정부가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귀 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이로써 9년 반 동안 조선정부병원 또는 왕립병원으로 존재했던 제중원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병원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제중원의 이관과 성격 변화는 조선 정부와 국왕의 뜻을 충실히 수행할 조선

32 貴政府無用經費而將設置一等病院. 영문으로는 Your Excellency's government will secure a first class hospital for nothing.

인 의사가 없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는지 모른다. 의사가 반드시 조선인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교부나 거기서 파견한 의사들이 조선 정부와 국왕의 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근대’와 ‘문명’을 지향하고, ‘진료’와 ‘환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동상이몽이었던 것이다.

조선 정부가 제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제중원을 아예 폐지하는 길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조선 정부의 뜻을 잘 따르는 외국인 의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는 아마도 국왕의 생각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신이 주도하여 만든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이고 미국과의 우호를 표상하는 제중원을 국왕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갑오개혁기에 조선 정부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일본 세력도 뚜렷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권 이관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알렌은 엘린우드에게 보낸 11월 29일자 편지에서 “일본인들이 제중원을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지만, 이제 병원은 박사님의 손에 있으며 박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제중원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일본 측과 갈등이 없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뜻대로 되었다. 힘겹게 청나라와 전쟁을 치르던 일본은 굳이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선교사들에게 제중원은 이미 선교활동에서 별 중요성이 없게 되어 꼭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예비슨이 조선 정부에 대해 마음 놓고 강경책을 쓸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즉 조선정부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제중원을 포기하면 되고, 요구를 받아들이면 선교병원으로 사용하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면 타당한 해석이다. 그러나 예비슨은 의료선교를 경시했던 빈튼이나 마펫(Samuel A. Moffett)이 아니었다. 예비슨은 제중원이 선교의 발판이 된다는 점은 물론이고 제중원에서의 진료 자체가 궁극적으로 선교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또 그런 점을 떠나 의사로서도 제중원은 탐나는 대상이었다. 알렌이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했듯이, 구리개 제중원은 1886년 당시 한성 최고의 건물이었으며 여러 장비, 시설, 기구, 약품도 당시 조선의 형편으로는 최상급이었다. 알렌은 엘린우드에게 여러 차례 제중원의 설비가 훌륭하고 조선 정부의 지원도 만족스럽다고 보고했다.

제중원은 지원을 잘 받고 있습니다. 선교지부 사람들은 지원 규모와 유용성 등에 탄복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1894년 4월 18일자)

상하이에서 일하는 매클로드 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제중원은 상하이의 어떤 것보다 뛰어난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1887년 8월 2일자)

따라서 에비슨은 포기해도 되는 상황에서 조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중원을 꼭 수중에 넣겠다는 목표를 관철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에비슨은 탁월한 외교관이고 수완가였다.

에비슨으로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제중원의 명칭과 정부의 권위,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활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병원 건물의 개조와 사택의 신축 등에 들어갈 비용도 제중원을 반환할 때 되돌려 받기로 했으니 최상의 딜이었다.

헤론은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았었다. “정부병원(제중원) 일을 가능하면 오래 잘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자신의 병원이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병원에서보다 환자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고 기독교에 대한 교육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은 헤론만이 아니라 제중원에서 일한 모든 선교의사가 공통적으로 가졌을 것이다. 헤론의 소원은 죽은 지 4년 남짓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에비슨이 최선의 조건으로 제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기는 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조선 정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제중원을 왕립병원이나 정부병원이라고 했다. 에비슨이 1901년에 작성한 보고서의 명칭도 「대한제국병원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f the Imperial Korean Hospital)」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정부가 언제 태도를 바꾸어 제중원의 반환을 요구할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운영권을 이관한 지 채 9개월도 되지 않은 1895년 6월 중순, 조선 정부는 제중원을 되돌려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아마도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그러한 시도는 성취되지 않았다. 제중원 반환을 요청했던 내무대신 박영효(朴泳孝)와 또 바로 그 무렵 에비슨의 조선 경찰관(순검) 폭행사건을 거론했던 경무사 이윤용(李允用)은 그 직후 실각했다.

1894년에 에비슨 측이 조선 정부로부터 제중원의 운영권이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어땠을까? 알렌이 “우리는 제중원을 박사님(엘린우드)께 증서로 완전히 넘기든지, 아니면 정부의 찬조 아래 운영할 수 있는 협약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미국 측은 소유권의 이전까지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 정부나 국왕이 선교부와 미국에게 아무리 호의적이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중원을 넘겨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유상 매입은? 선교부의 의지도 문제였지만 재정적 능력으로 보아서도 가능했을 것 같지 않다.

제중원의 수입-지출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는 위의 「대한제국병원 연례 보고서」를 보면 1900년 5월부터 1901년 4월까지 1년 동안 선교본부가 제중원에 제공한 돈은 2040원이었다.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894년 이전 조선 정부의 제중원 연간 예산인 3000원의 2/3에 불과할 뿐이었다. 또한 내부(內部)에 소속된 국립 병원 광재원의 1901년 예산(세출) 7332원에 비하면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국왕에게 제중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며 선심 쓰듯 운영권의 이관을 요구했던 에비슨과 선교부의 재정 능력은 이렇듯 충실치 못했다. 따라서 선교부가 제중원을 유상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중원의 소유권까지 얻지는 못했지만, 운영권을 이관받은 것만으로도 선교부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중원에서의 선교활동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를 통한 선교, 선교와 진료의 연계라는 알렌과 헤론과 에비슨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게다가 정부 병원인 이상, 정부가 가진 권위의 혜택도 여전히 함께 누릴 수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간섭이란 없었으니 금상첨화였다.

이 정도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영국성공회와 가톨릭, 그리고 일본 측이 제중원과 인연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생각하면 북장로교 선교부가 거둔 성과는 매우 컸으며 그 의미도 명백했다.

한편 제중원 운영권 이관 이후 조선(대한제국)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건물과 대지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정부의 권위까지만 제공한 것이었을까?

1905년 2월 16일 미국 공사 알렌은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세브란스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세브란스) 병원은 제중원을 이어서 옮겨 세운 것으로, 제중원으로 운영되던 때 귀 정부의 도와주는 은혜를 많이 입으며 경비를 분담했습니다. … 귀국의 환자들이 그 병원에 머물러 치료받을 때에 소용되는 음식물과 연료용 기름 등의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몇해 전 제중원의 예에 따라 귀 정부에서 이 경비를 보조해 준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렌의 공문에 정부가 제중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시기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도와주는 은혜’ ‘경비 분담’ 등의 구절로 보아 1894년 9월 운영권

을 이관한 뒤에도 조선(대한제국) 정부는 제중원 경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알렌이 언급한 시기가 운영권 이관 이전이라면, 그것은 제중원의 정체성과 운영의 실상을 크게 왜곡하는 것일 터이다. 운영권을 에비슨에게 넘기기 전까지 제중원 경비는 전적으로 조선 정부가 지출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알렌이 1902년 4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유기환(兪箕煥)에게 보낸 공문에는 대한제국 정부는 제중원 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without costing the Government any money)라고 하여, 어느 쪽이 사실인지 혼란스럽다.

설령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대지와 건물만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지 않은 역할이었다. 에비슨(선교부)에게 운영권을 이관했고 그에 따라 그동안 금지되었던 병원 내 선교도 허용되었지만, 제중원이 정부의 병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들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을 것이다. 또한 건물을 수리, 개조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나중에 제중원을 환수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미국 측과 약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뒤에 보듯이, 미국 측은 그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려 했다.)

2.2.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

1899년 3월 말 에비슨은 요양을 위해 안식년 휴가를 얻어 고국인 캐나다로 돌아갔다. 에비슨은 장기 휴가를 떠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제중원을 개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중원은 난방은 물론이고 상하수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제중원에 근무한 여의사 예바 필드가 “선교부는 현재 우리가 일하는 환경처럼 나쁜 곳에서 일 시킬 권리는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에비슨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당초 제중원 안에 자기 집을 짓는 데 사용한 8500원을 왜 병원 개선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8500원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돈이었다. 그 돈을 병원 건물의 신축

에 사용했다면 몇 해 뒤에 설립된 세브란스 병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규모의 최신식 병원을 세울 만큼의 액수였다.

어쨌든 4월 하순,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간 에비슨은 건축가 고든(Henry B Gordon)에게 40 병상 규모의 병원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에비슨에게 공감한 고든은 설계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으며, 건축비로는 1만 달러(2만 원에 해당) 정도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에비슨은 뉴욕으로 가서 선교본부 총무 엘린우드와 병원 신축에 대해 논의했고, 엘린우드는 병원 건립기금 모금 계획을 선교본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는 1년가량 모금에 별 진척이 없었는데, 1900년 4월 30일 에비슨이 뉴욕에서 열린 만국선교대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상황은 급진전했다. 그 자리에서 에비슨은 한성에 파견된 선교의사들이 협력해서 병원 하나를 새로 짓는다면 의료선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에비슨의 연설에 감명을 받은 클리블랜드의 대부호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는 병원 신축 비용 1만 달러를 선교본부에 기탁했다.

1900년 10월 2일 소원을 성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성에 돌아온 에비슨은 기왕이면 제중원 안에 새 병원을 짓기를 원했다. 그리고 알렌에 따르면, 세브란스가 병원 신축비로 1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소식을 알렌에게서 전해들은 국왕은 알렌과 에비슨에게 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왕의 언질에도 불구하고 새 병원의 터를 마련하는 일이 지지부진하자, 미국 특파전권공사 알렌은 1902년 4월 22일 외무대신 서리 유기환에게 공문을 보내 제중원 자리에 새 병원을 짓겠으니, 제중원의 대지와 건물들의 소유권을 미국 측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알렌은 제중원 자리에 새 병원을 지어야 하는 이유로, 조선인들이 구리개의 제중원 위치에 익숙해 있으며, 병원 건물을 새로운 장소에 짓는 경우에는 비

용이 2만 5000원이나 들 것이고, 또 한동안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는 순전히 병원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병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제증원의 대지와 건물들을 공식 문서로 미국인들에게 양도할 것³³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비슨이 제증원 터에 새 병원을 짓게 되면, 1894년의 약정에 따라 나중에 제증원을 환수하는 경우 대한제국 정부는 병원 건축에 쓰인 비용을 모두 갚아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알렌은 공문의 앞부분에서 이미 그때까지 제증원 건물들의 수리와 신축에 2만 5000원을 사용했음을 언급했다. 그런데 1905년 4월 막상 제증원을 환수하면서 대한제국 정부가 지불한 금액은 그것의 절반이 안 되는 1만 1269원 90전이였다.

공사관 서기관 시절인 1894년 8월 “제증원을 박사님(엘린우드)께 증서로 완전히 넘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³⁴라고 했던 알렌은, 한국 주재 특과전권 공사로 승진해서는 미국의 ‘국익’과 선교활동의 확장을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다.

만약 대한제국 정부가 알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더라면, 그 뒤 제증원의 역사와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알렌에게 그리도 우호적이었던 대한제국 정부와 국왕도 알렌의 그 요구만은 들어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국 측도 그러한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에 맞서 제증원 내에 새 병원 건물을 짓는 실행행사는 하지 않았다.

얼마 뒤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세브란스는 병원 대지 구입 비용 5000달러를 추가로 보냈다. 에비슨은 그 돈으로 6월 초 남대문 밖 복숭아골(지금의 남

33 that he(the King) grant by regular deed, this present hospital site and its native buildings, to the Americans for the continuance of the hospital work.

34 We are trying to have the institution either given over to you entirely by deed.

대문로 5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일대)의 대지를 구입했고, 11월 27일에는 정초식을 가졌다. 그리고 1904년 9월 23일, 병상 40개를 갖춘 현대식 병원, 즉 '세브란스 기념병원'(Severance Memorial Hospital)이 완공되자 봉헌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선교부 자체의 병원을 갖기를 원했던 헤론의 꿈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2.3. 제증원의 환수와 종언

1895년 6월과 1902년 11월,³⁵ 정부는 제증원의 환수를 시도했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다가 1905년 4월 한국 주재 일본 공사관의 거중 조정으로 제증원은 10년 7개월 만에 대한제국 정부로 환수되었다.

일본 측의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전 해에 세브란스 병원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정부가 제증원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과 미국이 어느 때보다도 밀월 관계를 즐기던 때였지만,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일본이 미국 측에게 제증원 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이 제증원 환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다. 환수된 병원 건물은 일본인과 친일파의 사교클럽인 대동구락부로 재건축되었고, 예비슨이 사용하던 사택은 1904년 11월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어 을사늑약의 막후 역할을 하는 등 일본의 공작원처럼 활동한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의 사택으로 쓰였다.

이로써 1885년 4월 14일 국왕의 재가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되었던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증원은 꼭 20년 만에 운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

35 신문 보도만 있을 뿐 다른 기록은 없어 확실치는 않다.

중원의 승계와 관련된 세간의 논란이다.

먼저 광제원과 제중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1885년, 알렌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선에 온 선교의사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은 1908년 6월 3일 세브란스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식에서 ‘한국에서 서양의학의 도래와 발전에 대한 간략한 묘사(A short sketch of the advent and progress of Western medicine in Korea)’라는 제목의 축하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스크랜튼은 광제원을 “어떤 의미에서 옛 외아문 병원(제중원)의 계승자”³⁶라고 지칭했다.

광제원은 1899년 4월 24일 내부(內部) 소속으로 설립된 국립병원이다. 스크랜튼이 광제원을 ‘제중원의 계승자’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두 병원이 정부가 운영한 국립병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1900년 10월부터는 광제원이 예전의 재동 제중원의 대지와 건물들을 사용했으므로, 광제원과 제중원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던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광제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둘 사이에 법률적, 제도적 승계를 보여주는 근거와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제중원(1885-1905년)과 광제원(1899-1907년)은 별개의 국립병원이었을 뿐이다. 또한 이후의 국립병원들과 제중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승계와 연결을 말하기 어렵다.

만약 1895년에 조선 정부가 의도대로 구리개 제중원을 환수하여 의학교로 사용했다면 의학교가 제중원을 계승하게 되었겠지만, 당시 조선 정부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1899년에 실제로 설립된 의학교와 제중원의 계승 또는 연관 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없다.

그러면 제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는 어떠한가? 제중원의 운영권은 1894년 9월 에비슨(사실상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게 이관되었다가 1905년 4월에 건물 및 대지와 함께 환수되었다. 일부에서는 환수된 것은 제중원의 ‘건

36 in some sense the late successor of the old Foreign Office Hospital.

물들과 대지라고 주장하여, 제중원의 운영권과 법통은 여전히 에비슨에게 남아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제중원의 건물, 대지와 분리된 별도의 운영권이라는 것은 없었다.

만약 대한제국 정부가 제중원의 대지와 건물들을 공식 문서로 미국인들에게 양도해 달라는 1902년 4월의 알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더라면, 그래서 미국 측 소유가 된 제중원 자리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더라면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1905년 4월 10일, 대한제국 외부대신 이하영과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를 대표한 빈튼 사이에 「제중원 반환에 관한 약정서」가 체결됨으로써 제중원과 미국 측과의 관계는 소멸되었다. 그리고 환수받은 제중원을 대한제국 정부가 더 이상 병원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립병원 제중원은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그(세브란스) 병원은 제중원을 이어서 옮겨 세운 것으로”³⁷라는 식의 표현은 알렌이나 미국 측의 자의적 인식일 뿐, 제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승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제중원 때와 마찬가지로 세브란스 병원에도 경비 지원을 해 달라는, 바로 위의 미국 측 공문에 대해 외부대신 이하영은 한참 뒤인 6월 5일에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신제중원(新濟衆院)에 매달 400-500원씩 보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회답이 늦어진 것은 본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대신은 그 뜻에 찬성하지만 정부에서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귀 공사가 국왕을 만날 때 문의해 보십시오.

대한제국 정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

37 該病院 係是濟衆院之移設者, 미국 공사 알렌이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보낸 1905년 2월 16일자 공문.

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여전히 친미적이었던 이하영도 알렌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공문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신제중원(新濟衆院)’이라고 지칭했다고 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세브란스 병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제중원이 정부에 환수된 뒤에도 오랫동안 제중원이라는 명칭이 쓰였다. 심지어 1920년대까지도 사용되었다. 예컨대 “血汗의 結晶 귀중한 동정금, 東拓 이민의 私差押의 본보 기사를 읽고 십원 기부, 제중원 내의 일 독자”(『동아일보』 1927년 12월 15일자) 식이다.

세브란스 병원 스스로도 제중원이라는 명칭을 병용했다. 사람들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제중원과의 관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종종 다른 제중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황성(皇城) 제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00년 무렵부터 ‘평양 제중원 미국 의사 魏越時(헌터 웰즈)’(『황성신문』 1900년 1월 11일자) 식의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점점 확산되어 광주 제중원(광주기독교병원), 대구 제중원(동산병원), 선천 제중원, 재령 제중원 등 지방에서 활동하던 장로교 선교의사들의 진료소를 제중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중에는 제중원의 의미가 더욱 넓어져 ‘불교 제중원 준공 개업’(『동아일보』 1923년 9월 2일자)처럼 병원과 비슷한 뜻으로까지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영의 공문에 언급된 ‘신제중원’은 선교부가 새로 지은 병원이라는 뜻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1906년 5월 31일, 대한제국 정부는 ‘제중원 찬성금(贊成金)’으로 3000환(圓)을 지불할 것을 논의하여 결정했다. 이때 제중원, 다시 말해 세브란스 병원에 찬성금을 보내는 이유로 청의서(請議書)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중원의 설행(設行)이 이미 몇십 해가 되었고,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데 열심이

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고 위험한 지경에서 목숨을 잇게 된 자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도 아직까지 한 마디 칭찬하는 말이 없고 한 푼 도와주는 돈이 없으니 심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제증원 찬성금을 보내는 것이 이미 정부의 방침인바, 잘 검토한 다음 찬성금 3000환을 예산 외에서 지출하여 제증원이 널리 시술하는 아름다운 뜻을 깊이 치하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물론 1년여 전, 미국 공사 알렌이 세브란스 병원의 경비 보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결정이다. 알렌은 매달 400-500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일시금으로 6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 사안을 정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의서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20년 동안 제증원을 국립병원으로 유지했고, 그 가운데 처음 9년 반을 정부가 직접 운영했는데 “한 마디 칭찬하는 말이 없고 한 푼 도와주는 돈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1894년 9월 에비슨에게 운영권을 이관할 때까지 정부는 건물, 대지, 설비, 약품, 운영비 등을 모두 부담했으며, 알렌, 헤론, 에비슨, 엘러스(Annie J. Ellers), 호튼(Lillias Stirling Horton, 언더우드 부인) 등 제증원에서 일한 의료인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었다. 그리고 운영권을 이관한 뒤에도 건물과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병원 건물과 사택의 수리비, 신개축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지원을 했다. 운영비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문서가 정부와 제증원의 관련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 제증원은 아예 설립 때부터 정부와 무관한 기관임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문서 제목의 ‘내부(內部) 소관(所管) 제증원’도 제증원이 내부 소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립병원) 제증원에 관한 업무를 내부가 담당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사실 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정부 문서가 작성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내용상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만큼, 제증원의 역사를 기술하

는 데에 사용할 만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서를 근거로 세브란스 병원이 제중원을 승계했다는 주장도 무리한 것이다.

다만 이때의 내각 결정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가 ‘제중원 찬성금’이라는 명목으로 3000환을 세브란스 병원에 제공한 사실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제중원은 20년 동안 한국(조선)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으로 존립하면서 근대서양의학이 이 땅에 도입되고 발전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중원은 역사 속으로 물러난 뒤에도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의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세브란스 병원을 통한 것이었다. 제중원에서 일했던 여러 선교의사들의 경험은 선교부가 설립한 세브란스 병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 등을 통해 한국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대한제국 정부의 의학교와 광제원을 통한 것이다. 제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정부와 한국인들의 경험은 의학교와 광제원 등 국립 의료기관의 건립과 운영, 나아가 역시 의사 양성 등을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먹다”와 “吃”의 어휘 정보 대조 연구

김 성 란

중앙민족대학교

1. 서론

동사 “먹다”와 중국어의 동사 “吃(먹다)”는 모두 자국의 언어 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아주 높은 단어다. “먹다”와 “吃”는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해내며 아주 복잡한 의미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록 “먹다”와 “吃”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의 공통된 원형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확장 의미¹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국수를 먹다”(결혼하다), “미역국을 먹다”(낙방하다), “콩밥을 먹다”(감옥살이를 하다)는 표면적으로는 모두 어떤 음식물을 먹는 의미를 가지지만, 문맥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 양상을 지닌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어의 “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吃醋”(식초를 먹다- 질투하다), “吃鸭蛋”(오리알을 먹다- 빵점을 맞다), “吃黑枣儿”(검은 대추를 먹다- 총살당하다)에서처럼 먹는 대상물이 “식초, 오리알, 대추”와 같이 모두 음식물이지만 “吃”과 결합하면서

1 하나의 단어에 대응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 다의관계에 대한 용어 선택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좀씩 다르다. 그중 지금까지 많이 쓰여온 용어는 “기본의미”-“파생의미”, “중심의미”-“주변의미”, “원형의미”-“확장의미”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형의미”를 한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적이고 의미라 생각하고 “원형의미”(prototypical meaning)와 “확장의미”(extended meaning)용어를 사용함을 밝혀둔다.

문맥 속에서는 아주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먹다”는 “100점을 먹다”에서처럼 [얻다]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한 골을 먹다”에서처럼 [잃다]의 의미도 가지면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 양상을 지니기도 한다. 똑같은 의미인 “결혼하다”를 한국어에서는 “국수를 먹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吃喜糖”(사탕을 먹다)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먹다” 자체의 복잡한 의미 구조에 모국어의 “吃”의 의미 전이로 인해 “먹다”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다.

기존의 “먹다”에 대한 논의를 보면 본동사 “먹다”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조동사 “먹다”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 김재봉(1989)에서는 보조동사 “먹다”가 본동사가 가진 추상 의미의 비유적 확산일 것이라는 전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연구를 하였고, 김주미(1991)에서는 “-어 먹다” 구성에 대한 연구를 다루면서 양태동사 범주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심현숙(2006)에서는 한국어의 보조동사 “먹다”가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밝혔다. 물론 본동사 “먹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논문도 있다. 이종열(2005)에서는 “먹다”의 의미 확장의 양상을 인지적인 원리에 따라 분석하여 그러한 의미 양상이 “먹다”가 사용되는 구문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밝혔고, 김태자(1997)에서는 담화분석에서 “먹다”의 의미 수행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먹다”의 다의적인 양상을 밝히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어휘 정보 구축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그 교육 상대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인임을 감안할 때 “먹다”처럼 다양한 의미 양상을 지닌 단어의 경우는 더욱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 구축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신현숙(2004, 2010), 오현경(2010) 등 연구들을 손꼽을 수가 있다. 이러한 개별 단어에 대한 어휘 정보를 구축하고, 또 원형의 의미와 확장의 의미와의 상호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모

형까지 제시한 연구들은 한국어 교사가 한국어 어휘 교육 현장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어휘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어 교사가 한국어 어휘교육을 좀 더 학문적으로 하고, 특히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논문은 모국어가 중국어인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을 밝히며, 중국인 학습자들이 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애를 먹다”와 같은 은유적 표현으로 쓰일 때의 “먹다”의 쓰임을 밝혀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에서는 “먹다”와 “吃”의 의미 정보 대조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먹다”와 “吃”의 원형의미가 어떻게 확장 되는지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먹다”에 대한 유용한 어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본동사 “먹다”에 대한 연구이며 따라서 보조동사로 쓰일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됨을 밝혀둔다.

2. “먹다”와 “吃”의 사적적 의미 기술 대조

이 장에서는 “먹다”와 “吃” 의미의 객관적인 기준을 살펴보고자 사전에서는 어떤 의미로 기술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먼저 동사 “먹다”의 의미를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²에서의 풀이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먹다1 [-따] [먹어, 먹으니, 먹는[명]] 「동사」 【(…을)】

귀나 코가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먹다2 [-따] [먹어, 먹으니, 먹는[명]] ,
[I] 「동사」

2 이 외의 다른 사전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선택한 이유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였으므로 다른 사전에 비해 권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1] 【…을】

- 1)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밥을 먹다/술을 먹다/약을 먹다/물을 먹다/닭이 모이를 먹다
- 2) 담배나 아편 따위를 피우다.
담배를 먹다/아편을 먹다
- 3)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마시다.
연탄가스를 먹다/탄내를 먹다
- 4)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양심을 먹다/마음을 먹다
- 5)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나이를 먹다
- 6) 겁, 충격 따위를 느끼게 된다.
겁을 먹다/충격을 먹다
- 7) 욕, 핀잔 따위를 듣거나 당하다.
욕을 먹다/핀잔을 먹다
- 8) (속되게) 뇌물을 받아 가지다.
뇌물을 먹다
- 9) 수익이나 이문을 차지하여 가지다.
이익을 먹다
- 10) 물이나 습기 따위를 빨아들이다.
기름 먹은 종이/김이 습기를 먹어 누렇게졌다./숨이 물을 먹어 무겁다
- 11) 어떤 등급을 차지하거나 점수를 따다.
1등을 먹다/우승을 먹다/100점을 먹다
- 12) 구기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상대 편에게 먼저 한 골을 먹었다.
- 13) (속되게)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다.
그는 벌써 여러 여자를 먹었다.
- 14) 매 따위를 맞다.
상대의 센 주먹을 한 방 먹고 나가떨어졌다.
- 15) 남의 재물을 다루거나 맡은 사람이 그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
들다.
공금을 먹다

[2] 【…에】

- 1)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이 고기에는 칼이 잘 먹지 않는다./대패가 잘 먹는다.
- 2)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옷감에 풀이 잘 먹는다./얼굴에 화장이 잘 먹지 않고 들뜨다.
- 3) 벌레, 균 따위가 과 들어가거나 퍼지다.
사과에 벌레가 먹었다./옷에 좀이 먹었다./얼굴에 버짐이 먹다.
- 4)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공사에 철근이 생각보다 많이 먹어 걱정이다.

[II] 「보조동사」 (일부 동사 뒤에서 “-어 먹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 주로 그 행동이나 그 행동과 관련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쓴다.

약속을 잊어먹다/중으로 부러 먹다/유리를 깨 먹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먹다”를 2개의 동음이의어 항목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표제어로 21항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또 의미기술과 더불어 “먹어, 먹으니, 먹는”과 같은 형태 정보를 주고 있으며, 【…을】과 【…에】와 같은 통사정보도 제시하였다. “먹다2”의 경우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누어 의미를 제시하였다. “먹다”의 표제어 처리는 사전마다 다르다.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우리말 큰사전』³에서는 “먹다”가 하나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 편찬한 『연세한국어사전』⁴에서는 “먹다”가 세 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다. 형태가 동일한 단어에 대해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나에 대해서 임지룡(2009)에서는 한 형태의 어휘항목이 둘 이상의 관련된

3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먹다1”로 처리한 부분이 빠져 있다. 대신 “귀 먹다”라는 단어를 표제어로 처리하여 “듣는 기관의 장애로 부분적으로나 또는 완전히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다.”로 의미기술이 되어 있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 먹다”의 꼴로 쓰이어 보조동사를 나타내는 경우 따로 표제어로 처리하지 않고 “먹다2”에서 같이 기술하고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보조동사로 쓰일 경우의 “먹다”는 “먹다3”으로 따로 표제어를 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의미를 지닌, 하나의 범주로 파악되는 것은 다의어이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어휘 항목이 의미와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를 지닌, 둘 이상의 범주로 파악되는 것은 동음이의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취급한 “귀를 먹다”에서의 “먹다”와 “밥을 먹다”에서의 “먹다”는 과연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가. 이종열(2005)에서는 “귀가 먹다”의 “먹다”는 “막다”에서 온 것으로 모음 “ㅏ”, “ㅑ”의 교체현상으로 생긴 관용 표현이라고 하였다. 임지룡(2010)에서는 “귀를 먹다”에는 “먹히다”와 같은 피동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는 귀를 잡수셔서 말귀를 잘 알아 듣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이들이 다의어일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귀를 먹다”에서의 “먹다”를 “먹다”의 하나의 범주로 보고 다의어로 볼 것이다.

다음은 “吃”의 사전 의미 기술을 살펴보겠다. “吃”의 풀이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현대한어사전』을 통해서 살펴보겠다.⁵

吃[chi]

- 1) 把食物等放在嘴里经过咀嚼咽下去(包括吸、喝)。/음식 따위를 입에 넣어 씹어서 삼키다. (“피우다”, “마시다”도 포함)
吃饭/밥을 먹다, 吃奶/젖을 먹다, 吃药/약을 먹다
- 2) 在某一出售食物的地方吃; 按某表标准吃。 /외식하다;어떤 표준으로 먹다.
吃食堂/식당에서 먹다
- 3) 依靠某种事物来生活。/어떤 사물에 의지하여 생활하다.
靠山吃山、靠水吃水/산이 있는 곳에서는 산에 의지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에 의지한다.
- 4) 吸收(液体)/(액체를)흡수하다
吃墨/먹을 흡수하다
- 5) 某物体进入另一物体/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들어가다(...에 잠기다)

5 중국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현대한어사전』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있는 사전이다.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吕叔湘·丁声树이 주편을 맡았고 근 백여 명의 학자들이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다. 중국에서 가장 권위성이 있는 사전이라 판단되어 이 사전을 선택하였다.

- 吃刀/칼이 들어가다, 这条船吃水浅/이 배는 물에 적게 잠긴다
- 6) 消灭(多用于军事、棋戏)/(적군 등을) 소멸하다, (바둑알, 장기쪽)잡다/따먹다
吃掉敌人/적군을 소멸하다, 拿车吃炮/차로 포를 먹다
- 7) 领会; 把握/받아들이다
吃透文件精神/이 문건정신을 받아들이다.
- 8) 承受; 禁受/견디다, 참다
吃得消/참을 수 있다, 这根绳子吃不住这么重的分量/이 끈은 이렇게 무거운
것에 견딜 수 없다.
- 9) 受; 挨/당하다
吃亏/손해를 보다, 吃惊/놀라다, 吃批评/비평을 받다
- 10) 耗费/소모하다
吃力/힘이 들다
- 11) 被(多见于早期白话)/ …에 의해(주로 조기 백화에서 그 쓰임을 보임)
吃他吃笑。/그에게 놀림을 당하다

『현대한어사전』에서는 “吃”의 의미를 하나의 표제어로 11항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중 어휘적 의미는 10항이다. 의미 11)에서는 “吃”는 어휘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문법적 의미인 피동을 나타내고 있다. “먹다”와 “吃”의 사전에서 기술된 정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먹다”와 “吃”의 사전 정보 대조

| 사전 정보 | “먹다” | “吃” |
|-------|-------------|-------|
| 소리 정보 | [-따] | [chi] |
| 형태정보 | 먹어, 먹으니, 먹는 | 없음 |
| 통사정보 | …을 …에 | 없음 |
| 품사정보 | 동사 | 없음 |
| 의미정보 | 20(1+15+4) | 10 |

〈표 1〉을 보면 “먹다”가 “吃”보다 사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먹

다”의 경우 우선 품사 정보를 주고 있고, 또 소리정보도 주고 있으며, “...을”, “...에”와 같은 통사 정보도 주고 있다. 이는 사전에서도 한국어의 교착어 성격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吃”의 경우는 “chi”와 같이 소리정보와 의미정보만 주고 있는데 이는 표의문자로서의 중국어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의미 기술에서 두 사전의 공통점은 우선 사전에서 제시한 첫 번째 의미가 모두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로 같다. 단 『현대한어사전에서』에서는 “먹다²”의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의미를 첫 번째 의미에 묶어서 같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첫 번째 의미 외의 다른 의미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두 단어는 먹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경우는 별 차이점이 없지만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경우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먹다”와 “吃”의 의미 대응 관계를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먹다”와 “吃”의 의미에 대응되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사전의 의미 순서대로 대응시켜 본다. “먹다”가 보조 동사로 쓰일 때의 “...어 먹다”의 의미와 “吃”이 피동의 문법적 의미로 쓰일 때의 “被”의 의미는 제외하고 어휘적 의미만 대응시켰다.

〈표 2〉 “먹다”의 의미 대응 관계

| “먹다”의 구체적 의미 | | “먹다”의 추상적 의미 | |
|--------------------|---------------------------------|--------------|---------------|
| | “먹다”에 대응되는 의미 | | “먹다”에 대응되는 의미 |
| 밥 술 담배 연기 | 먹다 [마시다] [피우다] [들이마시다] | 귀 | [막히다] |
| | | 마음 | [품다] |
| | | 나이 | [더하다] |
| | | 겉 | [느끼다] |
| | | 육 | [당하다] |
| | | 뇌물 | [만다] |
| | | 이익 | [차지하다] |
| | | 습기 | [흡수하다] |
| | | 점수 | [따다] |
| | | 점수 | [읽다] |
| | | 여자 | [유린하다] |

| | | |
|--|-------------------------------|--|
| | 매 공금 칼 화장 벌레 돈 | [맞다] [횡령하다] [들어가다] [배어들다] [들어가다] [들다] |
|--|-------------------------------|--|

〈표 3〉 “吃”의 의미 대응 관계

| “吃”의 구체적 의미 | | “吃”의 추상적 의미 | |
|---------------|----------------------|--|--|
| | “吃”에 대응되는 의미 | | “吃”에 대응되는 의미 |
| 밥 우유 담배 | 먹다 [마시다] [피우다] | 식당 산 먹(기름) 배 적군 정신 고통 손해 힘 | [외식하다] [의지하다] [흡수하다] [잠기다] [소멸하다] [받아들이다] [견디다] [당하다] [소모하다] |

〈표 2〉와 〈표 3〉에서 서술한 구체적 의미는 먹는 행위가 육안으로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추상적 의미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선 구체적 의미를 보면 “먹다”와 “吃”는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먹다”가 “吃”에 비해 “연기”와 같이 대상물이 기체일 경우에도 기술이 되어 있다. 추상적인 의미를 보면 수량적으로 “먹다”가 “吃”보다 더 많이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먹다”의 의미가 “吃”보다 사전에서 의미 기술이 더 많이 기술되었다고 하여 “먹다”의 추상적 의미가 “吃”보다 더 풍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선 사전에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기술하기는 어려우며 또 이 두 단어를 싣고 있는 두 사전이 용량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먹다”의 경우 “뇌물을 먹다”, “이익을 먹다”, “공금을 먹다”에서의 “먹다”는 거의 비슷한 의미 양상을 지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먹다²”의 의미 기술에서 8), 9), 15)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일

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더위를 먹다”, “외국물을 먹다”와 같은 관용 표현에서의 “먹다”에 해당하는 의미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3. “먹다”와 “吃” 구문의 참여 요소 분석

“먹다”와 “吃”는 단어 자체가 복잡한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들과 결합하는 요소들과의 관련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먹다”와 “吃”의 문맥적 의미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속성이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먹다”와 “吃” 구문의 참여 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는 것은 “먹다”와 “吃”의 의미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먹다”와 “吃” 구문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다음의 요소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행위자(Agent) 주어: “먹다”의 행위를 하는 주어 자질을 가진 명사.

대상(Patient) 목적어: “먹다”의 영향을 받는 목적어 자질을 가진 명사.

3.1. 행위자 주어

우선 “먹다”의 행위자 주어를 살펴보자. “먹다” 구문에서 행위자 주어는 “먹다”가 타동사로 쓰일 경우 “먹다”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요소이다.

- (1) ㄱ. 아이가 밥을 먹는다.
- ㄴ. 닭이 모이를 먹는다.
- ㄷ. 이 나무는 꽃이 필 무렵이면 물을 많이 먹어.
- ㄹ. 이 차는 좋긴 좋은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예문 (1)에서 보면 행위자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사람], [동물], [식물], [사

물이 다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먹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이며, 다음은 [동물]이다. 구문에 따라서 행위자에 (1c)처럼 [식물]도 될 수가 있고 (1c)처럼 [사물]이 될 수도 있다.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먹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체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물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함으로 “먹다”의 행위자 역할이 가능하다. 행위자가 사물인 경우는 아주 드물게 쓰인다. (1c)에서와 같이 행위자가 “차”인 경우는 차도 달리자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살아가려면 영양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함으로 “기름을 먹다”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행위자는 “먹다”, “吃”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가장 그 선택이 자유롭고 [식물]이거나 [사물]인 경우는 상당한 선택제약이 따른다.

다음은 “吃”의 행위자 주어를 살펴보자.

- (2) 가. 弟弟吃饭。/동생이 밥을 먹는다.
 나. 我家狗不吃香肠。/우리 집 강아지는 소세지를 먹지 않는다.
 다. 这个菜很吃油。/이 야채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
 르. 这车太吃油。/이 차는 기름이 너무 많이 든다.

예문 (2)에서 보여지는 “吃”의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위자 주어에 [사람], [동물], [식물], [사물]이 다 해당될 수가 있지만, 중국어에서도 먹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역시 [사람]이므로 주체가 [식물], [사물]인 경우에는 거의 안 쓰인다.

3.2. 대상 목적어

대상 목적어는 “먹다”, “吃” 행위의 영향을 받는 상대로서 대상 목적어가 가

지고 있는 의미 자질에 따라 “먹다”와 “吃”의 문맥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 『표준국어대사전』과 『현대한어사전』에서 이용된 “먹다”와 “吃”의 용례에서 대상 목적어가 되는 명사들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대상물과 추상적인 대상물로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다. 여기서 구체적인 대상물이라는 것은 입이나 코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 추상적인 대상물은 입이나 코를 통하여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을 가리킨다. 추상적인 대상물은 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물과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물로 나누었다.

(3) “먹다”의 대상 분류

구체적인 대상: 입이나 코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고체]: 밥, 약, 음식, 모이, 보약

[액체]: 술, 물

[기체]: 담배, 아편, 연탄가스, 탄내

추상적인 대상: 입이나 코를 통하여 들어갈 수 없는 대상

A.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

[사람]: 여자

[사물]: 뇌물, 공금, 천원

B.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

[감정]: 마음, 양심, 겁, 충격

[나이]: 네 살, 삼십

[수익]: 이익, 점수, 골

[관계]: 매, 육, 편잔

(4) “吃”의 대상 분류

구체적인 대상: 입이나 코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고체]: 밥

[액체]: 우유, 약

[기체]: 담배

추상적인 대상: 입이나 코를 통하여 들어갈 수 없는 대상

A.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상물

[사물]: 산, 물, 목, 식당

[사람]: 적군

B.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

[정신]: 문건정신

[관계]: 손해, 힘, 비평, 고통, 손해, 놀라움

목적어가 구체적인 대상인 경우 한국어의 “먹다”와 “吃”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고체], [액체], [기체]인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 “먹다”와 “吃”는 대상물이 고체인 경우에 주로 쓰이고 액체인 경우에는 “마시다”, “喝(마시다)”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는 “먹다”와 “吃”는 차이점을 보인다. “죽”이나 “국”과 같이 대상물이 고체인지 기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먹다”를 주로 쓰고 중국어에서는 “喝”를 쓴다.

(5) ㄱ. 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ㄴ. 넌 중국 사람인데도 된장국을 참 잘 먹네.

ㄷ. 我今天喝了三碗粥。/나는 오늘 죽을 세 그릇이나 마셨다.

ㄹ. “喝奶”可以说成“吃奶”，但是“喝汤”还不能说成“吃汤”。

/“우유를 마시다”는 “우유를 먹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국을 마시다”는 “국을 먹다”라고 말하면 안된다.

예문(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죽(국)을 먹다”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 “죽(국)을 마시다”라고 많이 쓴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관용 표현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더 증명할 수 있다.

(6) ㄱ. 그 일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야, 걱정하지 마.

ㄴ. 너 이번 시험에서도 미역국 먹었어?

ㄷ. 吃饭泡米汤－喝粥(죽을 마시다)的命。(歇后语)

/밥을 말아 먹는다－죽 먹을 운명 .

ㄹ. 吃饭先喝汤(국을 마시다), 胜似开方药。(谚语)

/밥을 먹을 때 국을 먼저 먹으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口. 囍(국을 마시다)活多, 囍酒话多。(谚语)

/국을 먹으면 오래 살고 술을 마시면 말이 많다.

중국어의 “吃”는 대상물이 고체인 경우에 주로 쓰이고, 대상물이 액체일 경우에는 적게 쓰이고 대상이 기체일 경우에는 한국어에서는 “가스를 먹다”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먹다2-3)에서 “연기나 가스 따위를 들이마시다”와 같이 기체에 대해서도 따로 기술을 하였지만 『현대한어사전』에는 기체에 대해서 따로 기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문에도 “담배” 외에는 기체에 대해 따로 든 예문이 없는 것을 보면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일 경우에는 한국어의 “먹다”가 중국어의 “吃”보다 그 사용 영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목적어가 구체적인 대상일 경우를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구체물인 경우 “먹다”와 “吃”의 대상 목적어 대조

| 대상 목적어 | 먹다 | 吃 |
|--------|--------|--------|
| 고체 | 많이 쓰임 | 많이 쓰임 |
| 액체 | 드물게 쓰임 | 드물게 쓰임 |
| 고체+액체 | 많이 쓰임 | 안 쓰임 |
| 기체 | 드물게 쓰임 | 쓰임 |

목적어가 추상적인 대상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먹다”와 “吃”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선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추상물이 [사람]인 상황을 살펴보자.

(7) ㄱ. 그는 벌써 여러 여자를 먹었다.

ㄴ. 我军吃掉了敌人一个团。/우리 군은 적군 사단을 소멸하였다.

ㄷ. 幼年吃父母；壮年，假若能作了官，吃老百姓；老年吃儿女。

/어릴 때에는 부모한테 의지하고, 관리가 되면 서민들을 우려먹고 늙어서는 자식한테 기댄다.

예문(7)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먹다”의 대상이 사람일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여자의 경우에 쓰이며 “(속되게) 여자의 정조를 유린하다”의 뜻을 나타내지만 중국어의 “吃”는 (6-ㄴ, ㄷ)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적군, 부모, 서민, 자식] 등과 같이 다양하게 그 쓰인다. 비록 그 대상이 다 [사람]인 경우이지만 상대가 다름에 따라 “吃”의 뜻도 확연하게 달라짐을 보아낼 수가 있다. 추상적인 대상이 [사물]인 경우에도 “먹다”와 “吃”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 (8) ㄱ. 천원 먹기는 고사하고 본전 육백원이 다 날아날 판이니…
 ㄴ. 회사의 공금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
 ㄷ. 从今天起, 我也不带午饭吃食堂了。⁶
 /오늘부터 나는 점심을 싸가지 않고 식당 밥을 먹겠다.
 ㄹ. 靠山吃山、靠水吃水。
 /산이 있는 곳에서는 산에 의지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에 의지한다.
 ㅁ. 吃公款 的干部少了。/공금을 먹는 간부들이 적어졌다.

대상이 추상적인 대상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물]인 경우에도 “吃”의 사용 범위가 “먹다”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먹다”는 주로 “공금, 뇌물, 돈”과 같이 부정적인 뜻을 나타낼 경우에 주로 쓰이지만, “吃”는 “吃公款(공금을 먹다)”와 같이 한국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예문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물이 “식당, 산” 등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대상이 추상적인 대상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먹다”가 “吃”에 비해 상당히 풍부하다. “먹다”의 경우 “마음, 양심, 겁, 애, 충격, 나이, 점수, 골, 육, 핀잔” 등이 쓰이고 “吃”의 경우 “손해, 힘, 고통, 놀라움” 등에 주로 쓰인다.

6 현대 한어에서 “吃食堂”은 논란이 많은 표현이다. 王占华(2000)는 이 표현이 환유적 표현으로 “식당의 밥을 먹다”의 뜻이고, 刘存伟(2005)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의 구조가 간소화된 표현으로 “에서”가 탈락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9) ㄱ. 한번 먹은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자.
 ㄴ. 내년이면 삼십을 먹는구나.
 ㄷ. 체육 대회에서 우리 반이 일등을 먹었어.
 ㄹ. 상대방에게 먼저 한 골을 먹었다.
 ㅁ. 너때문에 겁 먹어서 말도 제대로 못해.

 ㅂ. 这次买卖我们**吃亏**了。/이번 장사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
 ㅅ. 每次我们赢得很**吃力**。/매번마다 우리는 아주 힘겹게 이겼다.
 ㅇ. 妈妈养我们吃了不少**苦**。/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
 ㅈ. 听到他的话我很**吃惊**。/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아주 놀랐다.

“먹다”와 “吃”의 대상 목적어를 종합해보면 “먹다”는 육안으로 물체의 형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의 정서나 정신상태와 관련된 대상에 많이 쓰이고, “吃”는 육안으로 물체의 형태의 확인이 가능한 대상에 많이 쓰인다.

4. “먹다”와 “吃”의 인지의미 대조

이경수(2009)에 의하면 체험주의에 바탕을 둔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반복적인 근육운동 경험이 일종의 개념적 원형을 형성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개념적 원형은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영상도식이 나타나고 이 영상도식은 더 추상화되어 의미가 확장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는 확장 의미 기제인 “은유”와 “환유”는 각각 “유사성”과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인지언어학의 입장에서 “먹다”와 “吃”의 원형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원형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며 이 두 단어의 확장 의미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먹다”와 “吃”의 원형의미

먹는 운동은 인간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근육운동의 경험이다. 따라서 “밥을 먹다”에서의 “먹다”의 의미는 “먹다”의 다의적인 의미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원형의미는 확장 의미에 비해 습득하기가 쉬우며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에도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빨리 배울 수 있다. 사전에서 원형의미는 일반적으로 표제어의 의미해석에서 첫 번째로 기술되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다의어의 의미 배열에서 사전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기술하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먹다”의 원형의미는 “먹다2” 1)의 의미이고, 『현대한어사전』에서의 “吃”의 원형의미는 첫 번째로 기술된 의미다.⁷

(10) ㄱ.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낸다.

밥을 먹다/술을 먹다/약을 먹다/물을 먹다/닭이 모이를 먹다

ㄴ. 把食物等放在嘴里经过咀嚼咽下去(包括吸、喝) /음식 등을 입에 넣어 씹어서 삼키다, (“피우다”, “마시다”도 포함)

吃饭/밥을 먹다, 吃奶/젖을 먹다, 吃药/약을 먹다

사전에서의 의미기술을 근거로 “먹다”와 “吃”의 원형의미는 “행위자가 신체 외의 음식물을 받아 들여 씹고, 삼키는 등의 근육운동을 거쳐 체내에 들여보내서 행위자가 그 영양물을 흡수하는”경험이라고 할 수 가 있다. “먹다”와 “吃”는 이러한 원형의미에 기초한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환유와 은유의 수법에

7 『한어대사전』에서 1)에 해당되는 의미를 『汉语大词典』(普及本)(2000)에서는 “吃”의 사전 의미 기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고체-액체-기체인 경우로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 把食物放入嘴中经咀嚼咽下。/음식물을 입에 넣어 씹어서 넘기다

2) 饮, 喝。/마시다

3) 吸, 吸收。/피우다, 들이마시다.

의해 그 의미가 구체적인 데에서 추상적인 데로 확장된다.

4.1. “먹다”와 “吃”의 확장의미 대조

우리는 먹는 과정을 통하여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등의 다양한 음식 맛을 체험한다. 이러한 다양한 맛에 대한 체험은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확장의미를 생성해내는 물리적 기초가 된다. “먹다”와 “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자가 신체 외의 음식을 받아 들여 씹고, 삼키는 등의 근육운동을 거쳐 체내에 들여보내서 행위자가 그 영양물을 흡수하는”의 원형의미는 환유와 은유라는 기제를 빌어 “먹다”의 “吃”는 비 신체적, 비 근육운동 영역의 의미까지 확장되어 간다. 따라서 “먹다”와 “吃”는 아주 풍부한 확장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먹다”가 들어간 관용구를 검색하니 73건이나 나왔다. 이 표현들은 한국의 언어 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들로서 다양한 확장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풍부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吃”는 문화적 함의가 아주 풍부한 단어이며 은유적, 환유적 의미로 쓰인 경우도 아주 많다. “먹다”와 “吃”의 모든 확장의미를 대조 분석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양국의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관용표현을 통하여 두 단어가 어떻게 원형의미로부터 확장의미로 확대되어 가는 지를 살펴보겠다.

4.2.1. “먹다”의 “吃”의 확장의미의 공통점

“먹다”와 “吃”는 그 행위동작 과정의 연관성으로 인해 확장의미를 산생해낸다. “먹다”와 “吃”의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은 음식물이 끊임없이 적어지면서 없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에 바탕하여 “먹다”와 “吃”는 비록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의 비슷한 확장의미를 가지고 있다.

“먹다”, “吃”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먹다”는 곧 인간이 생활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먹다”, “吃”는 생계 유지 경험에 근거하여 [생활하다]에 의해 의미가 확장된다.

- (11) ㄱ. 군대밥을 5년이나 먹었다.
 나. 그는 외국물을 많이 먹었다.
 ㄷ. 吃了10年军队饭/군대밥을 20년이나 먹었다.

“먹다”와 “吃”는 인간이 생존하고 생활하는 기초로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영양물을 의지해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즉 인간은 “먹는” 행위에 의지해 살아간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의지하다]에 의해 이어진다.

- (12) ㄱ. 너희들은 젊음을 먹고 사는 대학생들이잖아.
 나. 연예인들이야 대개는 얼굴 먹고 살지 않겠어?
 ㄷ. 이 부모님 등쳐 먹고 사는 놈아!
 ㄹ. 나라밥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ㅁ. 靠山吃山、靠水吃水。
 ㅂ. 不想再躺在床上靠国家、吃父母。
 /더 이상은 침대에 누워서 나라에 의지하고 부모에 의지하기 싫었다.

우리가 먹는 과정에서 액체와 같은 음식물은 점점 적어지면서 체내에 흡수 되면서 완전히 사라진다. 또한 인간은 먹은 음식물에서 몸에 유익한 영양소를 흡수한다. 이 경험은 예문(13)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불, 숨, 종” 등에 “풀, 물, 먹”이 스며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따라서 “먹다”와 “吃”는 [흡수하다] 의미로 확장된다.

- (13) ㄱ. 이 이불은 풀이 잘 먹는다.
 나. 숨이 물을 먹어 무겁다.

ㄷ. 这纸不吃墨。/이 종이는 먹을 잘 먹지 않는다.

“먹다”와 “吃”의 동작 실행과정에서 고체와 같은 음식물은 입에 넣는 순간 그 형태가 사라지고 사람의 몸이 그것이 차지해버린다. 이와 같은 경험은 카드 같은 것들이 기계 속에 들어가는 과정의 [삼키다]어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14) ㄱ. 내 카드를 먹어 버렸다.

ㄴ. ITM机吃了我的卡。/ITM 기계가 내 카드를 먹 버렸다.

“먹다”, “吃”의 동작 이행 중 대상물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는 차가 달리려면 기름을 소모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따라서 [소모하다]의 의미로 확장이 된다. “吃”의 경우 소모되는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에서 (15-ㄷ)의 “힘”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으로 이어진다.

(15) ㄱ. 그 차가 좋긴 좋은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ㄴ. 에어컨은 선풍기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먹는다.

ㄷ. 装甲车是吃油的, 没油它跑不起来。

/장갑차는 기름을 많이 먹어서 기름이 없으면 달리지 못한다.

ㄹ. 每次我们赢得很吃力。/번마다 우리는 아주 힘겹게 이겼다.

“먹다”와 “吃”의 대상물은 입안에서 “씹고, 부수고, 깨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는데 이 경험은 상대방을 제압하여 상대방이 소멸되는 의미로 확장되어 [소멸하다]로 의미를 나타낸다.

(16) ㄱ. 포를 먹지 왜 말을 먹어?

ㄴ. 우리 땅을 왜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ㄷ. 我们军队吃了敌人一个团。/우리 군은 적군 사단을 소멸하였다.

ㄹ. 拿车吃炮。/차로 포를 먹는다.

먹는 동작을 통하여 체내에 들어온 음식물은 우리의 소유물로 되며 우리의 몸이 그 대상물을 점유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험은 예문 (17)과 같이 [점유하다]의 은유적 의미로 확장된다.

- (17) ㄱ. 남은 이익은 모두 내가 먹어라.
 ㄴ. 뇌물을 먹고 탈세를 눈감아 주었다.
 ㄷ. 一些业务员吃回扣, 提供了方便。
 /일부 직원들은 커미션을 먹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먹다”, “吃”의 대상물이 보통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많은 영양소로 바뀌면서 유익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소화불량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이는 음식물이 우리 몸에 꼭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음식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이 “욕, 더위, 엘로카드 소송”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험의 유사성으로 [당하다]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이 경우는 추상적인 행위로 그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이기도 하다.

- (18) ㄱ. 아빠한테 욕 먹지 말고 게임 그만 해.
 ㄴ. 그 친구 말에 충격 먹었어.
 ㄷ. 여름에는 더위를 먹기 쉽다.
 ㄹ. 너 때문에 엄청 골탕 먹었잖아.
 ㄹ. 我们队吃了三张黄牌。/우리 팀은 엘로카드를 석장이나 먹었다.
 ㅂ. 我很吃惊。/나는 아주 놀랐다.
 ㅅ. 他再吃官司, 小股东要赔三亿。
 /그가 소송을 당하면서 소주주들은 3억 배상을 요구했다.
 ㅇ. 吃亏了不少。/손해를 적지 않게 보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경우 가끔 없힐 경우가 있다. 이는 먹은 음식물이

위에서 체할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음식물이 위에서 다른 소화계통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막혀버린 경우로서 위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할 경우다. 이는 귀나 입이나 코가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막히다]에로의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 (19) ㄱ. 저 사람은 귀를 먹어서 잘 못들어요.
 ㄴ. 감기에 걸려 코가 먹은 소리를 하네.
 ㄷ. 他说话有点口吃。/그는 말을 할 때 좀 더듬는다.
 ㄹ. 他一紧张就有点口吃。/그는 긴장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

위의 것을 종합해보면 “먹다”와 “吃”는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하다]-[의지하다]-[흡수하다]-[삼키다]-[소모하다]-[소멸하다]-[점유하다]-[당하다]-[막히다]와 같이 그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먹다”와 “吃”는 앞에 오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비슷한 의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 (20) ㄱ. 이과장 국수 언제 먹을 수 있어요?
 ㄴ. 成刚, 你今年24岁了, 什么时候请我们吃喜糖呀?
 /성강아, 넌 벌써 24살인데 언제 결혼할 거야?
 (21) ㄱ. 너 왜 또 꿀 먹은 병어리야?
 ㄴ. 哑巴吃黄连, 有苦说不出。
 /병어리가 황련을 먹은 격으로 괴로워도 말을 못한다.
 (22) ㄱ. 이번 시험 또 오리알 먹었어.
 ㄴ. 这次考试又吃鸭蛋了。/이번 시험에서 또 오리알 먹었어.

(20)에서 “국수 먹다” “吃喜糖”은 [결혼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21)에서 “꿀을 먹다”, “吃黄连”은 [말 못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21)의 “오리알 먹다”, “吃鸭蛋”은 [영점을 받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먹다”와 “吃”은 아주 넓은 의미폭에서 비슷한 확장의미 양상을 가진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서로 다른 문화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먹는 행위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신체적 경험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먹다”와 “吃”은 비슷한 은유적 의미로 확장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예문 (11)-(22)을 살펴보면 “먹다”, “吃”의 대상이 대부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체물이다. 이는 “먹다”와 “吃”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가지는 유사성으로 “먹다”와 “吃”의 확장의미도 비슷한 것이다.

4.2.2. “먹다”와 “吃”의 확장의미의 차이점

“먹다”의 확장의미는 많은 경우 느낌이나 감정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통하여 나타내지만, “吃”의 확장의미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23) ㄱ.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ㄴ. 겁을 잔뜩 먹은 눈으로 쳐다보네.
 ㄷ. 그 말에 충격 먹어서 밥도 못 먹는다.
 ㄹ. 야, 완전 감동 먹었어.
 ㅁ. 애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

(23)에서 제시된 “먹다”의 관용 표현들을 보면 “마음, 겁, 충격, 감동,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먹다”와 결합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도 나타낸다. 이는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하는 데에서 확장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중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먹다”의 확장의미다. 중국어에도 예문 (9日-2)에서처럼 “吃亏, 吃苦, 吃惊, 吃力”의 경우에 쓰이기도 하지만 “吃”은 구체적인 대상을 빌어 그 확장의미를 많이 나타낸다.

(24) ㄱ. 只要你不吃醋就行了。/너만 질투 안하면 돼.

ㄴ. 普通话已成为香港最吃香的语言。

/표준어는 홍콩에서 가장 인기있는 언어로 됐다.

예문 (24)에서 “吃醋”의 본래의 의미는 “식초를 먹다”이다. 하지만 (24)에서는 [질투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24)에서의 “吃”의 확장의미는 맛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가 먹는 “식초”는 신 것이 특징이다. 식초의 신 맛의 경험에서 [질투하다]의 의미로 확장이 된 것이다. “吃香”의 본래의 의미는 “향기를 먹다”이지만 (24-ㄴ)에서는 [환영받다]로 쓰인다. 향기로운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경험에서 확장하여 [환영받다]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먹다”의 확장의미는 추상적인 대상을 통하여 많이 나타내지만, “吃”의 확장의미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가. 중국어의 동사는 한국어의 동사에 비해 자체 언어의 전체 어휘 중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훨씬 높으며 그 의미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 외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다방면으로 연구를 시도해봐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배경이 달라서 독특하게 쓰인 경우도 있다.

(25) ㄱ. 이번 고시 시험 또 미역국 먹었어.

ㄴ. 또 콩밥 먹고 싶니? 정신 좀 차려.

한국 사람들이 생일을 쇠 경우 아침에 보통은 미역국을 먹는 경험에서 출발하여 예문 (25-ㄱ)에서는 “생일을 쇠다”의 의미로 확장 된 것이다. (25-ㄴ)엿의 “콩밥을 먹다”는 감옥에서는 보통 콩밥을 먹는 경험에 기인하여 [감옥살이를 하다]로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

(26) ㄱ. 传统的计划经济财政学是吃大锅饭的财政学。

/전통적인 계획경제재정학은 평균주의 재정학이었다.

ㄴ. 要解决企业内部职工吃大锅饭的问题。

/기업 내 직원들의 평균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에서 60년대에 전국적으로 “인민공사화”운동이 한창이었는데 그때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밥을 먹었다. 큰 솥에 밥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었는데 그때 “大锅饭”이라는 말이 생겼다. 특수 연대에 특수 상황에서 생긴 말이다. 지금은 [평균주의]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인다.

이처럼 한국어의 “먹다”와 중국어의 “吃”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지역 특색, 민족 특성으로 서로 다른 확장 의미도 많이 나타난다.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한 언어도 계속 발전할 것이며 “먹다”와 “吃”에 관련된 새로운 은유적 표현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목록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먹다”와 “吃”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 두 단어의 사전 기술 양상과 원형 의미 그리고 확장 의미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먹다”와 “吃” 의미의 객관적인 기준을 살펴보고자 사전에서는 어떤 의미로 기술되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동사 “먹다”의 의미를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풀이를 통하여 살펴보고, “吃”는 『현대한어사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두 단어의 사전기술처리가 많이 다르고 또 일상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도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 하였다.

“먹다”와 “吃”는 자체가 복잡한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들과 결합하는 요소들과의 관련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또 “먹다”와 “吃”의 문맥적 의미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속성이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먹다”와 “吃” 구문의 참여 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먹다”와 “吃”의 원형의미를 밝히고 이 원형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먹다”와 “吃”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가를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의 쓰임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두 단어는 [생활하다]-[의지하다]-[흡수하다]-[삼키다]-[소모하다]-[소멸하다]-[점유하다]-[당하다]-[막히다] 등의 아주 비슷한 확장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단어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확장의미의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먹다”처럼 의미적으로 복잡한 어휘는 외국인들이 언어생활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 연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대조 연구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재봉(1989) 「“먹다”의 의미연구」, 『우리어문연구』 4·5, 우리어문학회, 47-59.
- 김주미(1991) 「“-어 먹다” 구성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학』 15·16, 겨레어문학회, 637-649.
- 김태자(1997) 「“먹다”의 담화분석에서의 의미 관계」,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185-208.
- 신현숙·김영란(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색체어 어휘 정보」, 『이중언어학』 24, 이중언어학회, 151-176.
- 신현숙(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 : {소리}」,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247-280.
- 심현숙(2006) 「보조동사 “먹다”의 의미와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 『한국어교육연구』 4,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32-180.

- 오현정(2010) 「동사 ‘걸다’의 인지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141-168.
- 이경수(2009) 「동사 “지르다”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181-204.
- 이양해(2002) 「“떡다”의 기능과 의미 변화」,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185-210.
- 이종열(2005) 「“떡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249-277.
-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193-226.
- 임지룡(2010) 「어휘의미론과 인지언어학」,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1-35.
- 刘存伟(2005) 「“吃食堂”的认知生成机制」 『井冈山医学学报』 12, 177-179.
- 王占华(2000) 「“吃食堂”的认知考察」, 『语言教学与研究』 2, 58-64.

〈사전류〉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 사전』.
- 中国社会科学院(2002) 『现代汉语词典』.

18세기朝鮮 漢字音의 規範化와 ㄷ-구개음화

Rainer Dormels

Universität Wien

1. 서론

현재까지 18세기 조선 韻書들에 나타난 東音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切韻系 韻書 및 廣韻系 韻書들과 전통적인 東音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가정할 때가 많았다. 즉 東音의 기원을 切韻이나 廣韻系 韻書에서 찾음으로써 東音을 이들 중국 韻書의 음에 대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18세기 조선 韻書들에 나오는 漢字音이 규범화된 음일 가능성이 커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東音으로부터 동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8세기 韻書들은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에서 韻書의 漢字音을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규범화 과정에 적용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규범화된 것으로부터 전통적인 東音 연구에 필요한 것들을 가려내야만 하는 것이다.

2. 『三韻聲彙』의 분석

여기서는 韻書의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문제는 18세기의 韻書, 그중에서도 특히 『三韻聲彙』(1751)의

朝鮮 漢字音(이하 東音)이 어떻게 규범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글자(한글)로 東音を 표기한 韻書는 모두 네 종류가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책인 『東國正韻』은 訓民正音 창제 직후인 1447년에 편찬되었다. 이 책에서는 傳承 漢字音의 특징을 고려하면서도 『古今韻會舉要』의 체계에 맞도록 東音を 규정한 결과 91韻 23字母의 체계가 되어 漢字音이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그 결과 東國正韻式 漢字音 표기는 곧 폐지되고 만다. 그 후 18세기에 이르러 다른 세 종류의 韻書가 편찬되는데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奎章全韻』이 그것이다.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奎章全韻』 모두 한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東音뿐만 아니라 華音 또한 기입되어 있다. 몇몇 학자들은 “華音(중국어음)과 東音(한국음)을 …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李敦柱 1995: 344) 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東音이 실질적으로 현실음에 가장 근접하게 변하는 동안 華音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남아 버렸다.

1751년 洪啓禧에 의해 편찬된 『三韻聲彙』에는 약 13,000字가 수록되어 있는데, 漢字의 음을 달 때에 東音은 크게 적고 華音은 작게 적고 있는데 이것은 華音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三韻聲彙 (1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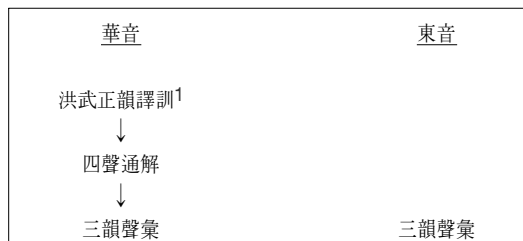
『三韻聲彙』에서 채택된 華音은 1517년에 간행된 『四聲通解』의 正音에 근거하고 있는데 『四聲通解』의 正音은 1455년 간행된 『洪武正韻譯訓』의 正音을 이어받은 것이다. 『洪武正韻譯訓』은 1375년 간행된 명나라 韻書인 『洪武正韻』에 正音 문자로 표음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三韻聲彙』의 華音은 그 시대의 현실 중국음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東音의 규범화 과정에서 일종의 보조 장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三韻聲彙』의 東音과 華音을 모두 이어받은 『奎章全韻』이 편찬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全韻玉篇』이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奎章全韻』을 母體로 하고 있다. 『全韻玉篇』에서는 『奎章全韻』에 나온 漢字들을 부수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각 항목에서는 漢字의 음과 함께 그 韻도 따로 덧붙이고 있으며 『奎章全韻』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 뜻을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漢字의 華音은 달지 않았다.

『全韻玉篇』에서는 규범화된 東音 이외에 소위 俗音이라 불리는 415자에 대해 “俗X”와 같이 표시하고 있으며 『華東正音通釋韻考』의 음과 달라진 224자에 대해 “正X”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全韻玉篇』에서 규범화된 東音은 대부분 『三韻聲彙』의 음과 같다. 이처럼 『全韻玉篇』은 18세기 말엽 규범화된 東音의 최종 결과물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서 漢字의 華音과 東音은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全韻玉篇』의 漢字音은 현대의 漢字 字典에 수록된 漢字音에 대해서도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全韻玉篇』의 漢字音을 『漢韓大辭典 大字源』(1989) 등과 같은 현대의 漢字 字典에 수록된 漢字音과 비교해 보면 1933년 朝鮮語學會에 의해 규정된 몇몇 규칙적인 변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적 변개들은 다음과 같다.

- 1) ‘ㄹ’ 문자의 폐지 : 中聲 卜로 대체됨.
- 2) 脣音 뒤에 위치한 一의 圓脣母音化 : 一은 ‘口, 日, 斗’ 뒤에서 卜가 됨.
- 3) ㄷ-구개음화 : i, y 앞의 ㄷ, ㅌ, ㅌ은 ㅈ, ㅊ, ㅈ이 됨.
- 4) ㅈ, ㅊ, ㅈ, ㅊ, ㅈ의 폐지 : ㅈ, ㅈ, ㅈ 뒤에서 ㅈ, ㅈ, ㅈ, ㅈ, ㅈ로 됨.

이외에 약 300字的 경우를 제외하면 『漢韓大辭典 大字源』의 漢字音은 『全韻玉篇』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한편 『漢韓大辭典 大字源』 이외의 현대 漢字 字典 중에는 『全韻玉篇』의 漢字音을 더욱 철저히 따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8세기 韻書에서 규범화된 東音은 현대 漢字 字典의 韓國 漢字音에 대한 기본틀이 되었다.

본 연구는 『三韻聲彙』, 규범화의 방식과 방향 그리고 편찬의 동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三韻聲彙』의 華音과 東音을 서로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華音이 東音의 규범화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규범화의 주된 방법이었는지 그 근거를 살펴야 한다.

1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는 일부 漢字에 대해 正音 이외에 俗音 등과 같이 여러音を 달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지칭하는 것은 이 중 正音을 가리킨다.

이에 初聲을 살펴보기로 하자.

18세기 韻書의 漢字音을 분석한 결과 初聲의 규범화 과정에는 확고한 대응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東音의 初聲은 대부분 華音의 初聲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다. 華音의 初聲이 △으로 시작하거나 有氣性的 有無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三韻聲彙』의 편찬자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대응 태도를 보일 뿐이다.

| 華音 | 正音 | 華音 | 正音 | 華音 | 正音 | 華音 | 正音 |
|--------|--------|--------|--------|--------|--------|--------|--------|
| 1 見 ㄱ | - ㄱ, ㅋ | 5 端 ㄷ | - ㄷ, ㅌ | 9 幫 ㅃ | - ㅃ, ㅍ | 13 非 ㅍ | - ㅍ, ㅍ |
| 2 溪 ㅋ | - ㄱ, ㅋ | 6 透 ㅌ | - ㄷ, ㅌ | 10 滂 ㅍ | - ㅍ, ㅍ | 14 奉 ㅍ | - ㅍ, ㅍ |
| 3 群 ㄱ | - ㄱ | 7 定 ㄷ | - ㄷ, ㅌ | 11 並 ㅃ | - ㅃ, ㅍ | 15 微 ㅍ | - ㅍ |
| 4 疑 ㅇ | - ㅇ | 8 泥 ㄴ | - ㄴ | 12 明 ㅁ | - ㅁ | | |
| 16 精 ㅈ | - ㅈ, ㅊ | 21 照 ㅈ | - ㅈ, ㅊ | 26 影 ㅇ | - ㅇ, ㅎ | 30 來 ㄹ | - ㄹ |
| 17 清 ㅊ | - ㅈ, ㅊ | 22 穿 ㅊ | - ㅈ, ㅊ | 27 曉 ㅎ | - ㅇ, ㅎ | | |
| 18 從 ㅈ | - ㅈ, ㅊ | 23 牀 ㅈ | - ㅈ, ㅊ | 28 匣 ㅎ | - ㅇ, ㅎ | 31 日 △ | - ㅈ, ㅇ |
| 19 心 ㅈ | - ㅈ | 24 審 ㅈ | - ㅈ | 29 喻 ㅇ | - ㅇ | | |
| 20 邪 ㅈ | - ㅈ | 25 禪 ㅈ | - ㅈ | | | | |

初聲은 華音과 東音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으로도 규범화 과정의 대응 규칙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中聲의 경우는 華音과 東音의 단순 비교 이외에 漢字의 韻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華音의 中聲과 漢字의 韻을 모두 보여주는 도표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中聲의 경우는 初聲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몇몇 경우에 편찬자의 규범화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中聲의 규범화에 있어서는 고정된 대응 규칙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

『三韻聲彙』 내의 東音과 華音의 中聲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 | | | | | | |
|------|---|----|-------|----|---|----|------|
| 1 東韻 | | | | | | | |
| 華音 | ㄷ | 東音 | ㄷ 336 | 華音 | ㅌ | 東音 | ㅌ 95 |
| | | | ㄷ 14 | | | | ㅌ 37 |

| | | | | | | | | | |
|------|---|----|-------|----|---|------|-------|----|------------|
| | | | ㄸ 7 | | | ㄴ 21 | | | |
| | | | | | | ㄴ 3 | | | |
| 2 冬韻 | | | | | | | | | |
| 華音 | ㄸ | 東音 | ㄴ 102 | 華音 | ㄸ | 東音 | ㄴ 98 | | |
| | | | ㄴ 13 | | | | ㄴ 43 | | |
| | | | | | | | ㄸ 30 | | |
| | | | | | | | ㄸ15 | | |
| 3 江韻 | | | | | | | | | |
| 華音 | ㅏ | 東音 | ㅏ | 華音 | ㅑ | 東音 | ㅏ | 華音 | ㅑ 東音 ㅏ |
| 4 支韻 | | | | | | | | | |
| 華音 | ㄱ | 東音 | ㄸ 140 | 華音 | ㅋ | 東音 | ㅣ 84 | 華音 | 一 東音 · |
| | | | ㄱ 29 | | | | ㄱ 51 | | ㄱ 16 |
| | | | ㄱ 17 | | | | · 12 | | ㅣ 8 |
| | | | ㅍ 12 | | | | ㄱ 3 | 華音 | ㅣ 東音 ㅣ 407 |
| | | | ㅑ 9 | | | | ㅋ 1 | | ㄱ 109 |
| | | | ㅣ 4 | | | | | | · 17 |
| | | | ㅋ 4 | | | | | | |
| 5 微韻 | | | | | | | | | |
| 華音 | ㄱ | 東音 | ㄱ 54 | 華音 | ㅋ | 東音 | ㄱ | 華音 | ㅣ 東音 ㅣ 53 |
| | | | ㄱ 4 | | | | | | ㄱ 39 |
| 6 魚韻 | | | | | | | | | |
| 華音 | ㄸ | 東音 | ㅋ 174 | 華音 | ㄸ | 東音 | ㄴ 31 | | |
| | | | ㄱ 90 | | | | | | |
| 7 虞韻 | | | | | | | | | |
| 華音 | ㄸ | 東音 | ㄸ 179 | 華音 | ㄸ | 東音 | ㄴ 338 | | |
| | | | ㄸ 102 | | | | ㄸ 103 | | |
| 8 齊韻 | | | | | | | | | |
| 華音 | ㄱ | 東音 | ㅋ 35 | 華音 | ㅣ | 東音 | ㅋ 73 | 華音 | ㅋ 東音 ㅋ 199 |
| | | | ㄸ 11 | | | | ㅋ 7 | | ㅋ 65 |
| | | | ㅍ 6 | | | | ㅣ 4 | | ㅣ 27 |
| | | | ㄱ 4 | | | | ㅋ 4 | | ㄸ 9 |
| | | | ㄱ 1 | | | | | | ㅋ 5 |
| | | | | | | | | | ㄱ 4 |
| 9 佳韻 | | | | | | | | | |
| 華音 | ㅏ | 東音 | ㅏ 43 | 華音 | ㅏ | 東音 | ·ㅣ 31 | 華音 | ㅑ 東音 ㅑ 12 |
| | | | ·ㅣ 19 | | | | ㅏ 7 | | ㅑ 8 |
| | | | ㅑ 5 | | | | ㅑ 1 | 華音 | ㄱ 東音 ㅑ 24 |
| | | | | | | | | | ㅏ 16 |
| | | | | | | | | | ·ㅣ 4 |
| | | | | | | | | | ㅑ 3 |

| | | | | | | | | | | | | |
|-------|----|---|----|----------------------|----|---|----|---|----|---|----|---------------------------------------|
| 10 灰韻 | 華音 | 기 | 東音 | 기 94 ·기 35 | 華音 | 히 | 東音 | ·히 107 히 41 ·히, 기, 해 1 | 華音 | 히 | 東音 | ·히 19 히 13 ·히 5 해 19 기 11 |
| 11 隊韻 | 華音 | 히 | 東音 | ·히 46 히 16 기 1 | 華音 | 기 | 東音 | ·기 28 기 22 히 11 해 9 ·히 4 계 3 | 華音 | ㅣ | 東音 | ·ㅣ 8 ·ㅣ 1 |
| 12 眞韻 | 華音 | ㅌ | 東音 | ㅌ 3 ㅌ 3 | 華音 | ㅌ | 東音 | ㅌ 161 ㅌ 15 | 華音 | ㅣ | 東音 | ㅣ 355 ㅡ 32 ㅌ 14 ㅣ 17 ㅡ 12 |
| 13 文韻 | 華音 | ㅣ | 東音 | ㅡ 75 | 華音 | ㅌ | 東音 | ㅌ 80 ㅌ 21 | 華音 | ㅌ | 東音 | ㅌ 113 ㅌ 1 |
| 14 元韻 | 華音 | ㅌ | 東音 | ㅌ 38 ㅌ 27 | 華音 | ㅌ | 東音 | ㅌ 168 ㅌ 70 ㅡ 10 · 7 | 華音 | ㅌ | 東音 | ㅌ 102 ㅌ 3 ㅌ 40 ㅌ 13 |
| 15 寒韻 | 華音 | ㅌ | 東音 | ㅌ 96 | 華音 | ㅌ | 東音 | ㅌ 180 ㅌ 117 ㅌ 4 | 華音 | ㅌ | 東音 | ㅌ 127 ㅌ 1 |
| 16 刪韻 | 華音 | ㅌ | 東音 | ㅌ 101 | 華音 | ㅌ | 東音 | ㅌ 51 ㅌ 5 | 華音 | ㅌ | 東音 | ㅌ 77 ㅌ 6 |
| 17 先韻 | 華音 | ㅌ | 東音 | ㅌ 558 ㅌ 66 | 華音 | ㅌ | 東音 | ㅌ 209 ㅌ 31 | | | | |
| 18 蕭韻 | 華音 | ㅌ | 東音 | ㅌ 448 | | | | | | | | |

| | | |
|-------|---------------------------------------|---|
| 19 肴韻 | 華音 ㄊ 東音 ㄊ 49 ㄊ 47 | 華音 ㄊ 東音 ㄊ 82 |
| 20 豪韻 | 華音 ㄊ 東音 ㄊ 308 | |
| 21 歌韻 | 華音 ㄊ 東音 ㄊ 207 ㄊ 6 | 華音 ㄊ 東音 ㄊ 55 ㄊ 31 華音 ㄊ 東音 ㄊ 4 華音 ㄊ 東音 ㄊ 2 |
| 22 麻韻 | 華音 ㄊ 東音 ㄊ 96 | 華音 ㄊ 東音 ㄊ 54 ㄊ 2 華音 ㄊ 東音 ㄊ 85 華音 ㄊ 東音 ㄊ 77 |
| 23 陽韻 | 華音 ㄊ 東音 ㄊ 405 | 華音 ㄊ 東音 ㄊ 208 ㄊ 90 ㄊ 12 華音 ㄊ 東音 ㄊ 102 |
| 24 庚韻 | 華音 ㄊ 東音 ㄊ 303 ㄊ 16 ㄊ 13 一 8 | 華音 ㄊ 東音 ㄊ 172 ㄊ 50 華音 ㄊ 東音 ㄊ 60 華音 ㄊ 東音 ㄊ 35 |
| 25 青韻 | 華音 ㄊ 東音 ㄊ 280 一 16 ㄊ 14 ㄊ 35 | 華音 ㄊ 東音 一 24 ㄊ 31 華音 ㄊ 東音 ㄊ 33 |
| 26 蒸韻 | 華音 ㄊ 東音 一 58 ㄊ 52 ㄊ 14 · 2 | 華音 ㄊ 東音 一 90 ㄊ 7 ㄊ 2 華音 ㄊ 東音 ㄊ 5 ㄊ 3 ㄊ 2 華音 ㄊ 東音 ㄊ 10 |
| 27 尤韻 | 華音 一 東音 ㄊ 297 | 華音 ㄊ 東音 ㄊ 262 ㄊ 72 |
| 28 侵韻 | 華音 ㄊ 東音 ㄊ 126 一 115 | 華音 ㄊ 東音 · 23 |
| 29 覃韻 | 華音 ㄊ 東音 ㄊ 324 | 華音 ㄊ 東音 ㄊ 4 |

| | | | |
|-------|---|----|---------------|
| 30 鹽韻 | | | |
| 華音 | ㄷ | 東音 | ㄷ 323 ㄷ 70 |
| 31 咸韻 | | | |
| 華音 | ㅌ | 東音 | ㅌ 73 |
| 華音 | ㅍ | 東音 | ㅍ 73 ㄷ 22 |
| | | | ㄷ 31 |

初聲까지 고려한 도표는 Domels (1999: 105-146) 참고

이상의 분석을 통해 漢字의 初聲에 있어서는 엄격한 대응 규칙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中聲의 경우에는 약간의 교정이 있었지만 편찬자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規範音을 정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아직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 즉, 한자음의 규범화 과정에서 실제로 변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규범화 과정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漢字音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은 것이다.

운서편찬이 어느 특정목적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三韻聲彙』의 서론을 근거로 정정일(2002: 25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홍계희가 『삼운성휘』를 편찬한 동기도 조선에서 편찬된 여타 운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한자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한자음이 중국음과 달라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론에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我音初聲 多有乖於正音字母 至有五音混淆者 不得不釐正”. 그리고 강신항(2000 : 234)은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우리 나라 한자음의 초성은 정음의 자모, 즉 홍무정운의 자모와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뒤섞인 것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三韻聲彙』 서론의 위 인용부분은 18세기 운서편찬이 初聲수정에 대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三韻聲彙』 서론에도 몇몇 예가 등장한다. 하지만 편찬자들의 목적이 東音을 華音에 맞추기 위함이었을까? 홍계희가 말하는 이유는 믿을만한 것인가? 아니면 혹 운서편찬에 전혀 다른 동기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三韻聲彙』 서론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18세기 운서의 규범화에 의해 구체적으로 변한 漢字音은 무엇인가? 이처럼 18세기 운서 내 변화된 한자음을 찾아냄으로써 해서 규범화의 진실된 동기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변형한자음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된 조사방법이다.

18세기 운서 이전에는 16세기 말엽 주로 간행된 『經書諺解』에 기입된 漢字音이 있었다. 이 한자음들이 말하자면 규범화 과정을 위한 입력형이다.

그럼 무엇이 규범화의 결과인가? 여기 두 가지 과정을 들 수 있다. 『三韻聲彙』가 그 첫 번째 과정이었고 이로서 『三韻聲彙』의 한자음이 첫 번째 결과로 출력형1이다. 하지만 18세기 운서규범화가 『三韻聲彙』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몇몇의 경우 『三韻聲彙』의 음에 실질적인 음과 일치하는 ‘俗X, 正X’ 음을 추가로 표기한 『全韻玉篇』(출력형2)을 통해 비로소 이루어졌다. 만일 全韻玉篇에 ‘俗X, 正X’와 같은 음이 덧붙이지 않았을 때에는 출력형 1과 출력형 2가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규범화 과정의 두 단계를 확인하였으므로 규범화 과정 이전과 이후의 漢字音을 비교할 수 있으며, 규범화 과정의 방법과 동기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經書諺解』의 漢字音과 『三韻聲彙』의 漢字音이 달라졌을 때, 즉 입력형과 출력형 1이 달라졌을 경우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1) 대상이 되는 예 중 거의 절반(112字)은 『全韻玉篇』에서 『三韻聲彙』의 규범음에 ‘俗X, 正X’를 덧붙이지 않은 경우
- 2) 대상이 되는 예 중 나머지 절반은 『全韻玉篇』 또는 『校訂 章全韻玉篇』(1838)에서 ‘俗X, 正X’와 같은音を 덧붙인 경우

후자의 경우 『全韻玉篇』에서 덧붙인 音들은 거의 대부분(111字에 해당) 『經書諺解』에서 사용되는 音들이다. 즉 덧붙은 音들은 이전의 『經書諺解』에 사용되던 音들로 다시 되돌아 간 것이다.

예 : 兪 論語諺解 4:17 시 ; 三韻聲彙 스 ; 全韻玉篇 스 正 시 (紙韻)
 乞 小學諺解 2:25 걸 ; 三韻聲彙 글 ; 全韻玉篇 글 俗 걸 (物韻)

가장 흥미로운 예는 『經書諺解』의 漢字音이 『三韻聲彙』에서 달라진 이후 달라진 音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이다. 즉 출력형 1과 출력형 2가 동일한 경우이다. 이것은 『經書諺解』에 쓰인 漢字音에 적용된 음운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아래의 리스트는 『三韻聲彙』의 音과 다른 音을 기입한 『經書諺解』의 漢字音을 나열한 것이다. 글자 오른쪽에는 언해의 音과 그 音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기입하였다. 出典 文獻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

| | | | |
|-----------|----------|-----------|----------|
| 小 - 小學諺解 | 大 - 大學諺解 | 孝 - 孝經諺解 | 中 - 中庸諺解 |
| 周易 - 周易諺解 | 論 - 論語諺解 | 詩解 - 詩經諺解 | 孟 - 孟子諺解 |
| 書傳 - 書傳諺解 | | | |

그리고 『三韻聲彙』(三)과 『全韻玉篇』(玉)의 音이 뒤따른다. 괄호 안에는 『奎章全韻玉篇』에는 나타나지만 『全韻玉篇』에 없는 ‘俗X’를 표기하였다. 오른쪽에는 조선 文書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당 글자의 韻이 써 있다. 이 리스트의 出典 文獻으로서 南廣祐의 『古今漢韓字典』(1995)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中聲에서만 달라지는 음:

3 江韻

學 ㅎ 大6 학 三玉 (覺)

4 支韻

嬌 귀 小4:47 규 三玉 (支)

淚 루 小6:23 류 三 류正류(俗류) 玉 (寘)

慧 긔 論2:28 / 긔 詩解2:31 ㄸ 三 ㄸ(俗긔) 玉 (紙)

繼 쇄 小2,1 ㄸ 三 ㄸ俗쇄 玉 (紙)

咒 시 論4:17 ㄸ 三 ㄸ正시 玉 (紙)

悴 취 孟3:6 취 三 취俗취 玉 (寘)

萃 취 小6:11;孟3:23 취 三 취俗취 玉 (寘)

5 微韻

巍 외 論2:35 위 三 위俗외 玉 (微)

7 虞韻

數 슈 孟1:9 수 三玉 (寘)

娛 오 小5:49,6:8 우 三 우俗오 玉 (虞)

娶 취 小4:2;孟7:43 추 三玉 (遇)

8 齊韻

底 데 小5:71 더 三玉 (齊)

奚 히 論1:16;孟1:33 헤 三 헤俗히 玉 (齊)

9 佳韻

階 계 小2:39;論2:52 기 三 기俗계 玉 (佳)

癩 라 小4:31 퇴 三玉 (泰)

12 眞韻

巾 건 小2:3,2:13 근 三 근俗건 玉 (眞)

率 솔 小5,18 술 三 술正솔 玉 (質)

旬 순 小6:27 슌 三玉 (眞)

13 文韻

乞 걸 小2:25 글 三 글俗걸 玉 (物)

物 물 詩解18:31 물 三玉 (物)

弗 불 中5 불 三玉 (物)

勿 물 孟3:5 물 三玉 (物)(月)(14元韻참고)

| | | | |
|-------------------------|----------|-------|----------------|
| 欣 흔 孟2:5 | 흔 三玉 | | (文) |
| 14 元韻 | | | |
| 婉 완 小1:6,2:9;(類合下33b) | 원 三 | 원俗완 | 玉 (阮) |
| 阮 완 小5:45,46;詩解10:19 | 원 三玉 | | (阮) |
| 曰 왈 大3 | 월 三 | 월正왈 | 玉 (月) |
| 勿 물 孟3:5 | 물 三玉 | | (物)(月)(13文韻참고) |
| 16 刪韻 | | | |
| 忽 괘 孟9:2 | 갈 三 | 갈正괘 | 玉 (黠) |
| 17 先韻 | | | |
| 涅 날 論4:34 | 널 三玉 | | (屑) |
| 拙 줄 小5:42 孟13:34 | 절 三 | 절俗줄 | 玉 (屑) |
| 迭 달 孟10:14 | 덜 三 | 덜俗달 | 玉 (屑) |
| 跌 덜 小4:16 | 덜 三 | 덜俗덜 | 玉 (屑) |
| 經 달 小5:60 | 덜 三 | 덜俗달 | 玉 (屑) |
| 姪 달 小6:69 | (질)/덜 三玉 | | (質)(屑) |
| 頤 힐 小6:96 | 힐 三 | 힐俗힐 | 玉 (屑) |
| 20 豪韻 | | | |
| 牢 퇴 小6:99 | 로 三 | 로(俗퇴) | 玉 (豪) |
| 21 歌韻 | | | |
| 箇 개 小8:6 | 가 三 | 기 | 玉 (箇) |
| 佐 좌 小2:40,5:50 | 자 三玉 | | (箇) |
| 22 麻韻 | | | |
| 這 저 小5:32 | 쟈 三 | 자(俗저) | 玉 (禡) |
| 嗟 차 小6:91;大6 | 차 三玉 | | (麻) |
| 23 陽韻 | | | |
| 愴 창 小2:24 | 창 三玉 | | (漾) |
| 24 庚韻 | | | |
| 硜 경 論3:46 | 깁 三玉 | (庚) | |
| 捰 경 孟12:9 | 깁 三 | 깁正경 | 玉 (庚) |
| 迫 박 小6:60;孟6:21 | 빅 三 | 빅(俗박) | 玉 (陌) |
| 26 蒸韻 | | | |
| 肱 궁 小3:16(굉 訓蒙字會;공 類合)굉 | 궁 三玉 | | (蒸) |

| | | | |
|-------------|------|-----|-------|
| 陜 응 詩解16:10 | 잉 三玉 | | (蒸) |
| 賊 적 小6:17 | 즉 三 | 즉正적 | 玉 (職) |
| 弘 흥 論2:31 | 횡 三玉 | | (蒸) |

27 尤韻

| | | | |
|-----------------------|------|-------|----------|
| 叩 고 小4:27;論3:71 | 구 三 | 구(俗고) | 玉 (有)(宥) |
| 扣 고 孟8:17 | 구 三 | 구(俗고) | 玉 (有)(宥) |
| 某 모 論4:15 | 무 三玉 | | (有) |
| 牡 모 論4:67 | 무 三 | 무(俗모) | 玉 (有) |
| 牟 모 小2:6 | 무 三 | 무俗모 | 玉 (尤) |
| 母 모 小4:2 | 무 三 | 무(俗모) | 玉 (有) |
| 矛 모 小6:123 | 무 三 | 무俗모 | 玉 (尤) |
| 畝 모 小4:7 (모 類合;묘 千字文) | 무 三 | 무(俗묘) | 玉 (有) |
| 臭 취 小3:25;孟14:15;中54 | 취 三 | 취(俗취) | 玉 (宥) |
| 趣 취 小5:6 | 취 三玉 | | (有) |

29 覃韻

| | | | |
|----------------|------|--|-----|
| 蠶 즈 孟6:8,13:17 | 잠 三玉 | | (覃) |
|----------------|------|--|-----|

30 鹽韻

| | | | |
|---------------|-----|-----|-------|
| 潛 즈 小6:44;中53 | 침 三 | 침正즈 | 玉 (鹽) |
| 脅 협 孟6:23 | 협 三 | 협 | 玉 (葉) |

初聲에서만 달라지는 音:

ㄱ - ㅎ - ㅇ

| | | | |
|-------------------|------|-------|----------|
| 暇 가 論3:64;小6:82 | 하 三 | 하俗가 | 玉 (禡) |
| 脛 경 論3:71 | 형 三 | 형俗경 | 玉 (迥)(徑) |
| 褐 갈 孟3:9 | 할 三 | 할俗갈 | 玉 (曷) |
| 憾 감 小4:48;中8 | 함 三 | 함俗감 | 玉 (感)(勘) |
| 害 갈 孟1:5 | 할 三玉 | | (曷) |
| 畦 규 孟6:23;類合 | 휴 三 | 휴(俗규) | 玉 (齊) |
| 穀 곡 孟1:18 | 혹 三 | 혹俗곡 | 玉 (屋) |
| 藿 광 小6:33;詩解 物名16 | 확 三 | 확俗광 | 玉 (藥) |
| 咳 히 小2:6 | 기 三 | 기俗히 | 玉 (灰)(隊) |
| 膾 회 小3:24;論2:56 | 괴 三 | 괴俗회 | 玉 (泰) |

| | | | |
|--------------------|------|-------|----------|
| 筴 협 小6:89 | 겹 三 | 겹俗협 | 玉 (葉)(洽) |
| 篋 협 小4:30 | 겹 三 | 겹俗협 | 玉 (葉)(洽) |
| 借 히 孟1:4 | 기 三 | 기俗히 | 玉 (佳) |
| 楷 히 小5:95,6:48 | 기 三 | 기俗히 | 玉 (佳)(蟹) |
| 懈 히 小4:21 | 기 三 | 기俗히 | 玉 (卦) |
| 革 혁 小6:17 | 격 三 | 격俗혁 | 玉 (陌) |
| 子 혈 孟9:15 | 결 三 | 결俗혈 | 玉 (屑) |
| 欽 흠 小5:66 | 금 三 | 금俗흠 | 玉 (侵) |
| 詰 힐 小6:96 | 길 三 | 길俗힐 | 玉 (質) |
| 蹊 계 孟14:32 | 혜 三玉 | | (齊) |
| 挈 혈 小5:70;(類合下28a) | 결 三 | 결俗설 | 玉 (屑) |
| 澮 회 小8:11,8:12 | 괴 三 | 괴俗회 | 玉 (泰)(卦) |
| 欠 흠 小2:6 | 검 三 | 검俗흠 | 玉 (黠) |
| 荊 형 論3:3 | 경 三 | 경俗형 | 玉 (庚) |
| 歐 구 小6:3,6:19 | 우 三玉 | | (尤)(有) |
| 沂 기 論3:15 | 의 三 | 의俗기 | 玉 (微) |
| 謳 구 孟9:21 | 우 三 | 구 | 玉 (尤) |
| 駟 와 論4:54;詩解 物名11 | 과 三玉 | | (佳) |
| 介 알 孟14:12 | 갈 三玉 | | (黠) |
| 泣 읊 小4:7 | 급 三 | 급俗읍 | 玉 (緝) |
| 磽 요 孟11:14,11:15 | 교 三玉 | | (肴)(效) |
| 鍋 와 小6:6 | 과 三 | 과(俗와) | 玉 (歌) |
| 盼 예 孟5:11 | 혜 三玉 | | (霽) |
| 浣 완 소6:79 | 환 三 | 환正완 | 玉 (旱) |
| 吁 우 小4:47;詩解1:4 | 후 三 | 후俗우 | 玉 (虞) |
| 奕 혁 小6:121;論4:43 | 역 三 | 역正혁 | 玉 (陌) |
| 驗 험 小2:53 | 엄 三 | 엄俗험 | 玉 (黠) |

ㄴ - ㄹ - ㄴ

| | | | |
|------------|------|--|-----|
| 笠 님 孟14:17 | 립 三玉 | | (緝) |
| 立 님 小6:15 | 립 三玉 | | (緝) |
| 勒 늑 小6:65 | 룩 三玉 | | (職) |

| | | |
|-----------------|------|-----|
| 郢 녕 小6:94, 孟8:1 | 영 三玉 | (梗) |
| 納 략 孟3:30 | 납 三玉 | (合) |

ㄷ - ㅈ

| | | |
|----------------------|------|-----------|
| 紬 듀 孟3:25 | 쥬 三玉 | (尤)(宥) |
| 鎮 딘 小6:112 | 진 三玉 | (眞)(震) |
| 朝 ㄷ 小1:4;中29 | 쵸 三玉 | (蕭) |
| 誅 듀 小4:33;論1:43 | 쥬 三玉 | (虞) |
| 趙 ㄷ 小4:40;論3:55 | 쵸 三玉 | (篠) |
| 長 댕 孟1:12;小書題1 大15 | 장 三玉 | (陽)(養) |
| 持 디 小2:3;中29 | 지 三玉 | (支) |
| 著 더 小3:23;大11 | 저 三玉 | (魚)(御) |
| 儲 더 孟12:13,8:32 | 저 三玉 | (魚) |
| 丈 댕 論4:50 | 장 三玉 | (養) |
| 質 디 孟6:7,6:9 | 지 三玉 | (質) |
| 朕 뎡 孟9:7,9:33 | 짐 三玉 | (寢) |
| 杖 댕 小2:57,6:19;論2:58 | 장 三玉 | (養)(漾) |
| 懲 뎡 孟5:30,6:32 | 징 三玉 | (蒸) |
| 伸 뎡 中2;小2:43 | 쵡 三玉 | (送) |
| 場 댕 孟11:31 | 장 三玉 | (陽) |
| 兆 ㄷ 孟10:20;孝25 | 쵸 三玉 | (篠) |
| 池 디 孟1:5 | 지 三玉 | (支) |
| 秩 딜 小5:17 | 질 三玉 | (質) |
| 遲 디 小3:11;論1:11 | 지 三玉 | (支)(眞) |
| 腸 댕 小5:72 | 장 三玉 | (陽) |
| 重 뎡 中28;小2:32 | 쵡 三玉 | (冬)(腫)(宋) |
| 陳 딘 中20;小2:35;論4:1 | 진 三玉 | (眞)(震) |
| 晝 듀 小2:23,6:3;論1:43 | 쥬 三玉 | (宥) |
| 廚 듀 論1:22 | 쥬 三玉 | (虞) |
| 儔 듀 小6:93 | 쥬 三玉 | (尤) |
| 疇 듀 孟13:18 | 쥬 三玉 | (尤) |
| 楮 더 小4:4 | 저 三玉 | (語) |

| | | | | |
|-----------------------|------|-----|---|--------|
| 中 둥 小1:14;大12,16;論3:9 | 중 三玉 | | | (東)(送) |
| 竹 독 小1:10 | 죽 三玉 | | | (屋) |
| 程 덩 大9 | 정 三玉 | | | (庚) |
| 貞 덩 孟9:34 | 정 三玉 | | | (庚) |
| 塵 던 孟3:27 | 전 三玉 | | | (先) |
| 徵 덩 中38 | 징 三玉 | | | (蒸) |
| 徵 디 孟2:16;小3:17 | 치 三玉 | | | (紙) |
| 齋 당 小6:35 | 장 三 | 장俗당 | 玉 | (絳) |

ㄷ - ㄸ

| | | | | |
|----------------------|------|-----|---|--------|
| 忠 퉁 大26 | 충 三玉 | | | (東) |
| 撤 털 小3:14;孟3:25 | 철 三玉 | | | (屑) |
| 恥 티 中26 | 치 三玉 | | | (紙) |
| 築 툃 小4:3;孟2:36 | 축 三玉 | | | (屋) |
| 置 티 小6:9;孟3:7 | 치 三玉 | | | (寘) |
| 畜 툃 孟2:17 | 축 三玉 | | | (屋) |
| 塚 퉁 小6:30 | 충 三玉 | | | (腫) |
| 抽 튜 孟8:30 | 추 三玉 | | | (尤) |
| 馳 티 孟5:5 | 치 三玉 | | | (支) |
| 追 튜 中19; 小5:62 | 추 三玉 | | | (支) |
| 丑 튜 孟3:1 | 추 三玉 | | | (有) |
| 暢 탕 孟5:22 | 창 三玉 | | | (漾) |
| 椿 퉁 小6:68 | 춘 三玉 | | | (眞) |
| 滯 테 孟4:30 | 체 三玉 | | | (霽) |
| 諂 텨 論1:7 | 첨 三玉 | | | (琰) |
| 植 티 論4:50 | 치 三玉 | | | (寘) |
| 招 툃 孟10:30 / 쇼 孟2:16 | 쵸 三玉 | | | (蕭) |
| 超 툃 孟 1:24 | 쵸 三玉 | | | (蕭) |
| 治 티 大3 | 치 三玉 | | | (支)(寘) |
| 琢 탁 小6 | 착 三 | 착俗탁 | 玉 | (覺) |
| 擇 툃 中5 | 척 三 | 척俗툃 | 玉 | (陌) |
| 宅 툃 小6:32;孟1:8 | 척 三 | 척俗툃 | 玉 | (陌) |

| | | | |
|-----------|------|-----|-------|
| 卓 탁 小2:42 | 착 三 | 착俗탁 | 玉 (覺) |
| 啄 탁 小6:92 | 착 三 | 착俗탁 | 玉 (覺) |
| 濁 탁 小5:1 | 착 三 | 착俗탁 | 玉 (覺) |
| 濯 탁 孟1:4 | 착 三 | 착俗탁 | 玉 (覺) |
| 塚 탁 論2:42 | 착 三玉 | | (覺) |
| 澤 툃 孟9:31 | 칙 三 | 칙俗툃 | 玉 (陌) |

△ - ○

| | | | |
|----------------------|------|--|-----|
| 潤 순 論3:22;孟5:16;大112 | 윤 三玉 | | (震) |
| 冉 씬 論1:20,1:22 | 염 三玉 | | (琰) |
| 衲 예 孟5:35 | 예 三玉 | | (霽) |
| 入 십 論3:7 | 입 三玉 | | (緝) |
| 綏 슈 孟5:33 | 유 三玉 | | (支) |
| 壤 양 論7:1 | 양 三玉 | | (養) |
| 任 심 孟9:26 | 임 三玉 | | (侵) |

平音 - 有氣音; 된소리 - 平音

| | | | |
|----------------|------|--|-----|
| 筒 동 小5:47 | 통 三玉 | | (東) |
| 哺 보 小6:92 | 포 三玉 | | (遇) |
| 逢 뵙 小5:68;孟8:8 | 봉 三玉 | | (冬) |

入 - 仄 - 去

| | | | |
|--------------------|------|--------|----------|
| 撰 선 小2:61;論3:15 | 전 三玉 | | (銑) |
| 沼 쇼 孟1:3 | 조 三 | 조俗쇼 | 玉 (篠) |
| 詐 사 小4:16 | 자 三 | 자俗사 | 玉 (禡) |
| 床 상 小5:38,6:56 | 장 三 | 장正상 | 玉 (陽) |
| 諄 순 孟9:18 | 춘 三 | 춘正 | 玉 (眞) |
| 愁 수 小6:93 | 추 三 | 추正수 | 玉 (尤) |
| 峻 준 中41;大4 | 순 三 | 순正준 | 玉 (震) |
| 浚 준 孟9:6 | 순 三 | 순正준 | 玉 (震) |
| 擅 천 小2:53 | 션 三 | 션俗천 | 玉 (霰) |
| 肖 초 中3;小2:77,5:102 | 쇼 三 | 쇼, 쇼俗초 | 玉 (蕭)(嘯) |

이외의 初聲들

| | | | |
|----------------------------------|------|-----|-------|
| 嗜 기 孟6:111,1:16 | 시 三 | 시俗기 | 玉 (寘) |
| 伎 기 論2:28 | 지 三 | 지俗기 | 玉 (寘) |
| 搗 과 小6:62 | 좌 三 | 좌俗과 | 玉 (麻) |
| 逞 령 小2:29;論2:52,2:53 | 정 三 | 정俗령 | 玉 (梗) |
| 貉 락 小4:43,論2:51; (학本國音락 訓蒙字會) | 학 三玉 | | (藥) |
| 弛 이 小3 | 시 三 | 시俗이 | 玉 (紙) |
| 春 용 小5:54 | 송 三 | 송俗용 | 玉 (冬) |
| 茁 줄 孟9:6 | 굴 三 | 굴正줄 | 玉 (質) |
| 恬 념 小5:48 | 텀 三 | 텀俗념 | 玉 (鹽) |
| 綻 탄 小2:7 | 잔 三 | 잔俗탄 | 玉 (諫) |
| 餉 향 孟6:15 | 상 三 | 상俗향 | 玉 (漾) |
| 恤 흘 小4:30,6:16 | 술 三 | 술俗흘 | 玉 (質) |

기타:

初聲과 中聲이 동시에 달라지는 音:

| | | | |
|----------------------|------|-------|-------|
| 譎 흘 小5:28;論3:57 | 결 三 | 결俗흘 | 玉 (屑) |
| 謬 뉴 中46 / (류 家禮1:17) | 무 三 | 무俗류 | 玉 (宥) |
| 崇 승 小1:10;中42 | 종 三 | 종正승 | 玉 (東) |
| 虐 학 小1:19,4:71 | 약 三 | 약正학 | 玉 (藥) |
| 確 확 小6:46 | 각 三 | 각俗확 | 玉 (覺) |
| 柴 시 論3:8 | 지 三 | 지俗 | 玉 (佳) |
| 械 계 孟5:50 | 희 三 | 희俗계 | 玉 (卦) |
| 乏 뵘 孟11:29,9:22 | 뵘 三 | 뵘俗뵘 | 玉 (洽) |
| 潰 궈 小5:83;中44 | 회 三 | 회俗궈 | 玉 (隊) |
| 豺 시 孟7:27 | 지 三 | 지俗 | 玉 (佳) |
| 猜 시 小5:18 | 지 三 | 지俗 | 玉 (灰) |
| 逼 뵘 孟9:22;(픽俗音뵘 註千) | 벽 三 | 벽俗뵘 | 玉 (職) |
| 澡 도 小3:21;論2:55 | 조 三玉 | | (皓) |
| 筭 틱 小4:19 | 치 三 | 치(俗틱) | 玉 (支) |

中聲과 終聲이 동시에 달라지는 音:

| | | | |
|--------------------|------|-------|-------|
| 鵬 열 孟6:35 | 역 三 | 역(俗얼) | 玉 (錫) |
| 孺 난 小5:46 | 노 三玉 | | (號) |
| 頃 기 小4:17(頃:기 步:보) | 경 三玉 | | (庚) |

終聲에서 달라지는 音:

| | | | |
|---------|------|--|-----|
| 厭 안 大11 | 암 三玉 | | (賺) |
|---------|------|--|-----|

기타

| | | | |
|----------------------|------|-----|-------|
| 亮 냥 小5:15 / 량 孟12:31 | 량 三玉 | | (漾) |
| 稟 품 小5:35 / 림 中29 | 품 三玉 | | (寢) |
| 箴 짐 小2:7 / 즘 2:74 | 침 三 | 침正즘 | 玉 (侵) |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9字 중 현대의 漢字 字典이 韻書의 漢字音이 아닌 『經書諺解』의 漢字音을 따르는 경우도 14字나 된다. 아래에 일부 예를 제시한다.

| | |
|---------------|-------------------------------|
| 弘 - 論語諺解 2:31 | 홍 ; 三韻聲彙, 全韻玉篇 횡 ; 現代音 홍 (蒸韻) |
| 癩 - 小學諺解 4:31 | 라 ; 三韻聲彙, 全韻玉篇 뢰 ; 現代音 라 (泰韻) |
| 某 - 論語諺解 4:15 | 모 ; 三韻聲彙, 全韻玉篇 무 ; 現代音 모 (有韻) |

『經書諺解』에 나타난 漢字音 중 『全韻玉篇』에서 그 音이 달라진 채 계속 유지되는 것 중 절반 정도(112字 중 55字)는 ㄷ-구개음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위 리스트 내 ㄷ-ㅈ 변화와 ㅌ-ㅊ 변화의 대부분 예가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 18세기 韻書 편찬 배경으로 작용한 實學 運動

규범화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ㄷ-구개음화에서 일어났다. 이에 ㄷ-구개음화가 18세기 운서편찬의 진정한 동기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운서편찬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배경으로는 實學 運動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16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조선에서는 實學이라고 불리는 철학, 정치, 문학적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경향 및 국내 문제에 대한 일반적 관심들은 조선글자(한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증거로 제시되곤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적 움직임의 직접적 선구자로는 朱子學에 대한 비판적 분과 중 하나인 陽明學派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중요한 언어학자들이 陽明學派의 一員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강신항 1987: 66-67). 이 당시에 陽明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다. 왜냐하면 陽明學을 따르는 것은 異端으로 간주되었으며 朱熹(1130-1200)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王陽明의 철학을 연구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 학파를 外朱內王(밖으로는 朱熹를 따르지만 안으로는 王陽明을 따른다) 학파로 부르게 되었다. 陽明學派에 크게 반대 한 사람은 退溪 李滉(1501-1571)이었다(Eikemeier 1970: 31-32). 그런데 李滉은 다시 栗谷의 반대에 부딪친다. 그런데 『三韻聲彙』를 간행한 洪啓禧가 栗谷 李珣(1536-1584)의 『四書諺解』를 간행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洪啓禧가 栗谷 李珣와 같은 학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韻書 편찬 동기로서의 ㄷ-구개음화

韻書 편찬자들이 韻書 편찬 동기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잘못된 漢字音을

中國 本土字音에 맞게 바꾼다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때 ‘잘못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사용하는 東音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華音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韻書들은 단순히 東音과 華音을 조선글자(한글)로 표기한 책들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韻書 편찬의 의도나 동기는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의 韻書나 玉篇에 의해 이루어진 규범화의 결과를 보면, 규범화의 입력형인 『經書諺解』의 漢字音과 그 출력형인 『全韻玉篇』 漢字音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i, y를 선행하는 초성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ㄷ-구개음화는 근대 한국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음운 변화 중의 하나이며 18세기 중엽 경에 이미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漢字音 규범화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i, y 앞의 ㅈ音을 齒音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18세기 韻書 편찬의 동기는 韻書의 序文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東音이 中國 本土字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18세기 韻書 편찬에는 근대 조선어에서 일어난 자생적 음 변화, 그중에서도 ㄷ-구개음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음운 변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고유어의 표기에는 해당 음운 변화를 점차 고려해야만 했을 것이다. 특히 漢字의 東音 표기에 있어 음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經書諺解』의 보수적 표기는 곤란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洪啓禧는 栗谷의 『四書諺解』를 옛날 표기 그대로 간행했다.² 그 당시까지 계속 전승되던 漢字音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당시는 中國 本土字音과 무관하게 韓國語의 자생적 변화에 기반해서 東音을 새롭게 표기할 수 있을 만큼 시대적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洪啓禧는 東音

2 단, △은 사용하지 않았다.

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것을 곧이 곧대로 할 수 없어서 일종의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 즉 東音을 『四聲通解』의 華音에 맞게 개정한다는 명분으로 『三韻聲彙』를 간행하는 것이다.

5. 『四聲通解』에 기반한 漢字音 규범화

18세기 당시 조선학자들이 전기 중세 중국어와 후기 중세 중국어 사이에 舌上音과 齒頭音, 正齒音이 합류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모르지는 않았다. 『洪武正韻譯訓』에서 舌上音과 正齒音은 이미 합류되었다. 명나라 韻書인 『洪武正韻』을 母體로 한 『洪武正韻譯訓』은 初聲으로 31개의 聲母를 가지고 있다. 이들 聲母는 전통적인 36 聲母 체계로부터 변화한 것이다. 不淸不濁音인 孃母의 경우 舌上音은 舌頭音에 합류되었으며(孃 > 泥), 그 이외의 경우에는 正齒音으로 바뀌었다(知 > 照, 徹 > 穿, 澄 > 牀). 또한 脣輕音 次淸字인 敷는 全淸字인 ‘非’로 합류되었다. 『四聲通攷 凡例』와 『四聲通解 序』 다음의 『廣韻三十六字母之圖』에도 이러한 漢字들의 初聲이 합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근대 국어 시기에 ㄷ-구개음화가 나타난 이후 韻書 편찬자들은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의 華音을 고려하게 된다. 이들은 “잘못된” 東音을 『四聲通解』의 華音에 기초해 교정함으로써 ㄷ-구개음화를 반영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편법은 다음의 도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 華音 | | | 東音 | | | |
|-----|---------------|----------|---------|------|------|----------------|------|
| | 環境 | 廣韻 | 四聲通解 | 經書諺解 | 三韻聲彙 | 全韻玉篇 | 現代音 |
| 舌頭音 | 'i, y' 이외의 경우 | t, t', d | ㄷ, ㅌ, ㄸ | ㄷ, ㅌ | ㄷ, ㅌ | ㄷ, ㅌ | ㄷ, ㅌ |
| 舌頭音 | 'i, y' 앞 | t, t', d | ㄷ, ㅌ, ㄸ | ㄷ, ㅌ | ㄷ, ㅌ | ㄷ, ㅌ | ㅌ, ㅍ |
| 舌上音 | 'i, y' 이외의 경우 | t, t', d | ㅌ, ㅍ, ㅍ | ㄷ, ㅌ | ㅌ, ㅍ | ㅌ, ㅍ 俗 ㄷ, ㅌ | ㄷ, ㅌ |
| 舌上音 | 'i, y' 앞 | t, t', d | ㅌ, ㅍ, ㅍ | ㄷ, ㅌ | ㅌ, ㅍ | ㅌ, ㅍ | ㅌ, ㅍ |

『訓蒙字會』나 『經書諺解』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東音에 있어서 舌上音を 初聲으로 가진 漢字들은 舌頭音を 初聲으로 가진 漢字와 동일하게 다루어짐으로써 ㄷ, ㅌ, ㄴ 初聲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東音에서는 初聲으로 舌音(ㄷ, ㅌ)을 가지고 있는 漢字들이 『洪武正韻譯訓』이나 『四聲通解』에서는 初聲으로 齒音(ㄷ, ㅌ, 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불일치가 『四聲通解』와 『訓蒙字會』를 모두 간행한 崔世珍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訓蒙字會』에 달아 놓은 東音의 타당성을 廣韻과 같은 중국 韻書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국어에 ㄷ-구개음화가 출현하고 이것을 東音에 반영하고자 했던 韻書 편찬자들은 『四聲通解』의 華音を 고려하게 된다. 『四聲通解』의 華音 중 舌上音은 初聲으로 齒音(ㄷ, ㅌ, 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東音은 초성으로 舌音(ㄷ, 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四聲通解』의 華音を 통해 국어의 ㄷ-구개음화를 東音에 반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 즉 『四聲通解』의 華音を 통해 잘못된 東音を 교정함으로써 적어도 이전 시기에 舌上音を 初聲으로 가졌던 漢字에 있어서만큼은 舌音(ㄷ, ㅌ)을 齒音(ㄷ, ㅌ)으로 바꿀 수 있었고 결국 국어의 ㄷ-구개음화를 반영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범화 작업을 행함에 있어 편찬자들은 i, y 앞에 오지 않는 ㄷ, ㅌ마저도 齒音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全韻玉篇』에서는 이런 영향을 입은 漢字들에 대해 初聲이 ㄷ, ㅌ 인 음들을 덧붙이고 있다. 가령 『經書諺解』에서 ‘당’으로 注音되어 있던 慇은 『三韻聲彙』에서는 ‘장’으로 표기되었지만 『全韻玉篇』에서는 ‘장 俗당’이라고 표기되었다.

조선어에서는 i, y 뒤에서 ㄷ-구개음화를 겪었지만 『四聲通解』의 華音에서는 舌頭音 ㄷ, ㅌ, ㄴ 을 初聲으로 가지던 漢字들은 漢字音 규범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에 간행된 韻書들은 ㄷ-구개음화의 영향을

입은 음들 중 일부, 즉 『四聲通解』에서 舌上音이었던 음들은 ㄷ, ㅌ으로 바꾸었지만 다른 일부, 즉 『四聲通解』에서 舌頭音이었던 음들은 ㄷ, ㅌ으로 바꾸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18세기 韻書 및 『全韻玉篇』으로부터 후대의 자료들에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東音에 있어서의 구개음화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든지 또는 韻書가 편찬되던 시기에 아직 구개음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朝鮮語學會가 中國 本土字음이 아닌 조선어의 자생적 음 변화에 기반해서 朝鮮 漢字音의 표기에 규칙적 개정을 확립한 것은 1933년에 이르러서이다.

6. 결론

18세기 韻書의 東音 규범화는 조선어의 자생적 음 변화를 東音의 표기에 반영하기는 하되 그것의 실제 이유는 숨기고 대신 華音의 正音を 따르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흥미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과 중국 문화의 상호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自國에 대한 주체성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 준다. 18세기 韻書의 漢字音 규범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조선어의 ㄷ-구개음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正X, 俗X’가 덧붙어진 사실을 고려한다면 漢字音 규범화는 韻書의 音을 이전 시기 『經書諺解』의 漢字音보다는 당시의 現實音에 더 가깝게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朱子學을 숭상하는 儒教論者들은 보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규범화된 것들은 明나라 韻書인 『洪武正韻』의 漢字에 正音으로 표음한 『洪武正韻譯訓』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華音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三韻聲彙』의 편찬자가 주장한 東音의 개정 이유를 해석함에 있어 이상에서의 논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18세기 韻書의 東音 규범화는 단순히 漢字音을

華音에 맞게 바꾸는 시도로 볼 수는 없음을 알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東音의 규범화 노력은 東音을 조선어의 자생적 音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外華內我(밖으로는 中國, 안으로는 自國)”이라는 주장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漢韓大辭典 大字源』, 張三植 著, 서울: 三省出版社, 1989.
『洪武正韻譯訓』, 高麗大學校影印叢書, 高麗大學校 出版部.
『華東正音通釋韻考』, 서울: 奎章閣.
『古今漢韓字典』, 南廣祐 著, 인천: 인하대학교, 1995.
『校訂全韻玉篇』, 奎章閣.
『奎章全韻, 全韻玉篇』, 姜信沆 編, 서울: 圖書出版 書光, 1991.
『三韻聲彙』, 서울: 奎章閣.
『四聲通解』, 서울: 大提閣 影印, 1985.

참고논저

- 姜信沆(1987) 『國語學史』, 普成文化社.
姜信沆(2000) 『한국의 운서』, 서울: 國語學會.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塔出版社.
정경일(2002) 『한국운서의 이해』, 대우학술총서 541, 서울: 아카넷.
Dormels Rainer (1994) 「玉篇類의 漢字音 比較研究—全音玉篇, 新字典, 漢韓大辭典 大字源을 中心으로」, 『國語研究』 第118號, 서울: 國語研究會.
Dormels, Rainer (1999a) 「18세기 韓國漢字音의 規範化 過程에 숨겨진 動機」, 『國語學』 33, 125-143.
Dormels, Rainer (1999b) *Koreanische Reimwörterbücher des 18. Jahrhunderts, List und Tücke bei der Standardisierung der sinokoreanischen Lautungen*, Hamburg: Lit Verlag.

대용량 언어자료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언어정보과학 앞에 나선 주요과제

문 영 호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인 오늘 사람들의 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창조와 건설에서 최대의 재부인 지식의 탐을 점령하면 강자가 되고 그것을 잃으면 시대의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최첨단의 지식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유용하게 습득 활용하기 위한 투쟁이 오늘날의 지식경쟁에서 주류를 이룬다.

현시대가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 과학과 기술의 시대로 특징 지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서 정보, 지식, 과학과 기술은 주로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표현되고 전달된다.

오랜 역사적 기간에 인류가 창조한 방대한 지적 창조물들인 도서와 신문, 잡지, 전자 자료들의 대부분은 언어문자로 기록, 전송, 보급되는 조건에서 누가 그것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있게 인식활용하는가 하는데 따라 시대의 첨단을 돌파하는 선구자로, 정보전, 지식전, 과학기술전에서 승리자로 될 수 있다.

언어학 부문에서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언어정보과학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용량 언어정보 자료기지를 구축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의 특성에 맞게 언어정보자료기지는 어떤 구성체계를 가져야 하며, 우리 학술집단이 개발하고 있는 언어정보 자료기지구축을 위한 언어정보제품의 구조적특성이 어떤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1. 대용량 언어자료기지의 구성

언어자료기지는 정보학에서 말하는 《자료기지》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정보화된 자료모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보학의 자료기지나 언어정보론의 언어자료기지가 공통성을 가지지만, 그것들의 구조와 성능에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정보학의 자료기지는 주로 서지문헌들을 한계없이 수집하고 정보화한데 기초하여 자료서고, 자료은행, 자료검색봉사체계 등을 구축 리용 한 것으로서 그 기능은 철저히 문헌검색, 축약, 초록 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료기지는 문헌의 어종, 형태, 주제를 제한하지 않으며 리용목적에 따라 주제별, 서지별 체계성을 보장할 뿐이다.

그러나 언어자료기지는 하나의 언어와 문자로 된 문헌자료와 음성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언어체계와 구조해석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언어정보제품의 총체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자료모임이다. 때문에 언어자료기지에서는 언어의 기본구성단위인 어휘와 의미, 단어결합과 문장, 본문과 대화문이 기본구성을 이룬다.

1.1. 어휘의미자료

축적된 방대한 정보자료,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현대과학기술자료들에 담긴 지식을 습득파악하기 위한 첫 공정은 사회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분야의 술어들을 정확하고 체계성 있게 학습하는 것이다. 우리가 접촉하는 정보, 과학기술, 지식자료의 언어수단은 크게 4개층으로 이루어져있다. 그것은 언어교제의 기초에 놓이는 일반어층, 과학기술적개념을 표현하는 용어층, 대상을 지시하는 명칭어층, 특정의 대상을 재지시하는 기호층이다.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4개층의 언어수단은 서로 구별된다. 일반어층은 어휘론적의미를 가진 자연어수단이라면 용어층은 과학기술적개념만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술어 집단이고, 명칭어층은 언어적의미도, 개념도 아닌 순수한 지시기능만을 수행하는 언어수단이며, 기호층은 지시대상을 부호화한 기호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일반어휘와 의미

어휘층에서 기초를 이루는 것은 일반 어휘층이다.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언어교제도 실현될수 없다.

일반어휘의 기본특징은 고유한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단위라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여러가지 어휘층에서 언어적의미를 가진 어휘부류는 본질상 일반어휘뿐이다. 때문에 언어의 다의성이나 의미색채 등과 같은 민족어어휘의 고유한 특성은 일반어에서만 나타난다. 일반어휘의 집합체는 주로 언어학사전(국어사전)이나 속담성구사전, 동의어사전, 어원사전 등으로 묶어진다.

- 술어와 개념

과학기술용어, 전문용어, 직업어 등 여러 갈래와 분야의 술어들은 정보처리에서 주요한 어휘층을 이루며 그의 어휘량은 대단히 방대하다. 술어의 언어학

적 특성은 언어적 의미대신에 학술적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이며, 그의 매 어휘단위는 다의성이나 의미색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의성, 개념의 정밀성을 기본특성으로 하는 술어는 해당한 학술분과소속을 전제로 한 개념 확정과 인공적인 작용에 의한 술어와 개념의 제정,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다. 술어집단에 대한 실체는 여러가지 전문어사전, 백과사전 등에 의해 묶어진다.

- 명칭어와 지시

인간의 언어정보전달에서 명칭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명, 지명, 동식물명, 상품명, 제품명과 같은 명칭어가 없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언어정보의 전달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명칭어는 언어학의 어휘론에서는 그닥 중시하지 않지만 그것이 언어정보 자료처리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대상으로 된다. 명칭어는 언어적의미도, 학술적개념도 충분히 가지지 않으나 그것은 대상, 현상에 대한 지시적 기능은 매우 높은 것이다. 명칭어는 자료처리관점에서 보면 거의 끝이 없이 많다고 할 정도로 방대하다.

- 기호어와 표식

략어, 약자, 국제공용어와 표식 등이 기호어에 속한다. 이러한 기호어들은 약호, 약자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술어적, 명칭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식의 표현물인 4개층의 언어수단은 글말형태와 입말형태로 정보를 전달보급한다. 글말형태는 주로 도서, 신문, 잡지를 비롯한 문헌자료에 담긴 본문류형들이며 입말형태는 자연언어상태의 입말교제와 《준구어》형식의 담화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언어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본문정보자료와 음성정보자료로 구분하고, 음성정보자료는 다시 준구어자료(방송원, 배우, 연설자의 언어자료), 방언자료(일상 언어교제 자료)로 묶어진다.

여러가지 유형과 형태의 언어자료들을 종합가공하여 특대형언어자료기지를 구축하는것은 그 자료들에 담겨진 지식정보들을 비교분석하고, 요약개괄하여 임의의 장소와 시각에 능동적으로 검색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끊임 없이 쏟아져나오는 과학기술자료와 이미 축적한 정보자료들을 종합비교하여 체계화한 지식정보들을 빠른 시간안에 습득하고 활용할 때에만 첨단돌파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오늘 세계적으로 특대형 언어자료기지구축을 위한 언어정보과학발전에 힘을 넣고있으며 지어 언어문자 자료를 기반으로 음성, 도형, 그림, 사진, 동영상까지를 합성한 높은 급의 정보제품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용량 언어자료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언어정보처리와 정보제품개발에서 우리가 선차적으로 힘을 집중하면서 주목을 돌리고 있는것은 어휘자료단계에서 어휘, 술어, 명칭을 총집대성한 술어백과사전을 편찬하는것이다.

1.2. 문법적형태자료

조선어에서 문법적형태는 토인것만큼 토의 쓰임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문법적형태자료이다. 문법적형태자료에는 조선어 토 그자체와 함께 그것이 어떤 단어와 어떻게 결합하여 어떤 의미적관계를 나타내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것이 기본이다. 조선어의 문법적형태자료에서 기본은 단어결합자료, 구문자료이다. 어떤 단어에 어떤 토가 붙는가(가결합성), 같은 단어에 서로 다른 토가 붙는 경우에 구문 또는 문장구조에 따라 어떤 관계적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는데 대답을 줄수 있는 자료는 바로 단어와 단어가 토에 의해 결합할 때 얻어지는 단어결합자료와 구문자료이다.

자연언어상에서 교제과정에 얻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단어결합과 구문자료를 최대한 많이 조사분석할수록 그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 정밀성이 보장될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한히 많은 본문량에서 출현하는 형태단어들의

련접빈도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것은 문법적형태자료를 얻어낼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중의 하나이다. 련접 빈도수조사에 따르면 1g에서는 토 그 자체의 자료만이 얻어지지만 2g~Ng까지 증가시키면 그 정확도는 점점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볼 때 조선말 토는 다음의 류형에 따르는 단어결합을 이룬다.

— 종속적결합

- ①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속격형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체언부류의 형태부이다.
레: 혁명의 성산, 심장속의 결의
- ②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규정토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체언부류의 형태부이다.
레: 붉은 마음, 가는 사람
- ③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관형적쓰임의 체언부류이면 뒤요소는 명사부류의 주도적형태부이다.
레: 우리 말, 전체 인민, 두 사람
- ④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이음토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용언이다.
레: 크게 생각하라, 갈수록 험산이다.
- ⑤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체언토라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용언형이다.
레: 집으로 간다, 혁명에 이바지한다.
- ⑥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관형사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체언이다.
레: 온 나라, 모든 근로대중
- ⑦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부사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용언이다.
레: 멀리 떨어지다, 매우 많다.
- ⑧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불완전명사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명사이다.
레: 평양행 열차, 제5차 선수권대회

- 병렬적결합

⑨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규정토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앞요소의 형태부와 같다.

례: 말과 글, 군대와 인민

⑩ 앞요소의 내적형태가 이음토이면 뒤요소의 주도적형태부는 앞요소와 같다.

례: 먹고 잔다, 잡아 당긴다.

⑪ 중간요소가 접속부사이면 앞, 뒤요소의 주도적형태가 같다.

례: 어음 및 글자리론, 도시 그리고 농촌

이러한 대표적인 단어결합유형을 비롯한 모든 단어결합은 어떤것인가에 관계없이 우리 말 토의 가결합성과 관계적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그러한 성질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세밀히 밝힐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최대한 많은, 다양한 문장들에 대한 어휘-문법적형태의 련접빈도를 얻어내는것이다. 어휘-문법적련접빈도가 어느정도 정확한가 하는것은 빈도조사대상으로 되는 문장들의 량에 관계된다. 초보적으로 수천만개이상의 올림말련접빈도수가 얻어지면 자연언어상에서 조선말에 고유한 문법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문법적 형태자료로 리용할 수 있다.

1.3. 본문자료

조선말 본문자료에는 문자표기로 된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문헌자료와 소리말로 된 발화, 대화 본문자료들이 있다. 정보학에서 이러한 본문자료는 주제별, 서지별 정보검색을 위한 《자료기지》를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지만 언어자료기지에서의 본문자료는 그와는 다르다. 언어자료기지에서의 본문자료는 어휘, 문법적특성이 구체적인 언어생활환경과 문맥조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밝히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그러한 대표적 자료모임이 본문코퍼스와 음성자료코퍼스이다.

언어정보제품에서 대용량의 본문코퍼스와 음성자료코퍼스를 개발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료의 다양성, 균형성을 잘 보장하면서 부가정보제시를 섬세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언어의 형태론적특성과 의미문법적특성을 뚜렷하고 체계성있게 나타내도록 그 해석정보를 바로 제시하면서 논리정보를 잘 표식함으로써 코퍼스의 언어학적 질과 리용도를 높여야 한다.

대용량 언어정보자료기지구축에서 어휘의미, 문법적형태, 본문자료의 용량을 수천만이상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언어정보학에서 언어처리기술을 어느정도 응용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2. 대용량 언어자료기지구축을 위한 언어정보제품의 구성

2.1. 조선어본문코퍼스

조선어본문코퍼스는 전자화된 조선어본문자료에 대한 정보들을 표기화하여 놓은 대규모의 자료모임으로서 조선어자동처리에서 제기되는 언어학적문제들을 정량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자료기지이다.

조선어본문자료기지에서 본문코퍼스구축은 문서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정보를 표기하여 문서구축, 자료교환과 같은 자동처리에서 논리정보 부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구조의 량적특성, 형태부, 단어들의 결합관계, 문장의 구조적특성, 모호성 등 언어적현상들을 대량의 실례속에서 학습할 목적으로 형태정보를 부가한 형태정보 부가코퍼스, 문장정보를 부가한 문장정보 부가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에 따르는 어휘들의 주석의미를 비교조사할 목적으로 많은 전문용어사전들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부가한 사전정보 부가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 조선어본문코퍼스 구축대상

- 도서
 - 정치도서 140권
 - 소설 342권
 - 과학기술도서 160권
- 잡지
 - 27종의 3년분
- 영화문학
 - 장편예술영화 22부
- 신문
 - 3종 4년 6개월분
- 사전류
 - 백과사전부류 60권
 - 과학기술용어사전부류 25권
 - 편람, 총서부류 20권

△ 조선어본문코퍼스 구조형식

- 론리정보부가코퍼스
 - 본질
 - 본문이 가지는 론리적구조 즉 문서의 구조적정보, 문서의 서지적정보를 정보표기화하여놓은 코퍼스.
 - 태그모임(TAG SET)
 - Header title, p. list, body, content ...
 - 실례로, 론리정보에는 도서, 잡지, 신문, 자료명, 발행년월일, 출판사명, 필자명, 제목명, 차례, 소제목명, 장르 등을 부가한다.

– 언어정보부가코퍼스

언어학적정보 즉 형태정보, 문장정보, 의미정보들을 정보표기화하여놓은 코퍼스.

태그모임: NP, N, V, K, n, m, p, q, k ...

실례: 형태정보부가코퍼스

| 식별번호(ID) | 형태단어(KEY) | 형태분석태그결과(Analys) |
|--------------|-------------|------------------------|
| 111300040002 | 조선로동당 | Np(조선)N(로동당) |
| 111300040004 | 총비서이시며 | N(총비서)b(이)j(시)e(며) |
| 11130004000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 ... | ... |
| ... | ... | ... |
| 111300040042 |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 Np(조선인민군)N(군부대)k(를) |
| 111300040044 | 시찰하시였다. | V(시찰하)j(시)q(였)m(다)s(.) |

– 구문정보부가코퍼스

SS(BP_INT(어째서/D+ㄴ지/e)

NP_SBJ(유상철/NP+은/i)

VP_PRD(VP_LNK(NP_ATT(SS_MOD(NP_Sbj(취기/N+가/k)

BP_ATT(말끔히/D)

VP_MOD(가셔지/V+ㄴ/cp))

NP_ATT(VP_MOD(밖/J+ㄴ/cs)

NP_ATT(목소리/N+로/k))

VP_PRD(NP_OBJ(NP_MOD(한창수/NP+의/k)

NP_OBJ(팔소매/N+를/k))

BP_ATT(슬그머니/D)

VP_PRD(끌어당기/V+였/q+다/m+./s))))))

– 의미정보부가코퍼스

동음이의어처리단계에서 우선 조선말대사전의 어깨번호에 따라 동음이

의어들을 명기해놓은 상태에서 점차 다의어처리로 심화시킨다.

－ 사전정보부가코퍼스

해당 시대의 술어에 대한 주석을 정보표기화하여놓은 2차원자료기지형식의 코퍼스.

실례:

{#0}도서출처 {#1}올림말 {#2}전문어(학명) {#3}원어 {#8} 첫풀이시작 {#9} ...

{#0}대중과학백과-02-211 {#1}프레온가스 {#2}(preon gas) ... {#8}(주석)

2.2. 조선어음성코퍼스

음성인식이나 음성합성과 같은 음성응용분야들에서 제기되는 언어학적인 제반 문제들에 리론 실천적 해명을 주기 위한 분석자료들을 마련하지는는데 최종 목적을 두면서도 우리 말의 특성을 자연언어상태에서 밝히는데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당면하여 음성코퍼스구축의 기본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에 집중시키고 있다.

○ 조선어입말에 담겨져있는 말소리결합 3g모델을 확률통계적방법으로 도출하고 자료기지화하며 균형음성코퍼스구축을 위한 발성본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 각 말소리결합단위들에서 나타나는 다종다양한 변화현상들을 분류처리하여 본문코퍼스의 해당 단위들에 대입시키는 리론적 및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문화어뿐만아니라 개인적방언입말자료들도 분석처리하여 문화어에 해당하는 개인적 및 방언적인 요소들의 언어적특성을 반영하여 연구하기 위한 리론적 및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하며 자료 기지화하는 것이다.

△ 음성코퍼스구축의 대상

- 표준적인 입말자료

문장발음, 단어발음, 랑독음성, 방송음성

- 비표준적인 입말자료

자연발화음성, 대화음성

△ 음성코퍼스의 구조형식

음성코퍼스는 크게 거시층과 미시층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매 층마다
에 놓인 음성자료들은 또 그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계층적으로 갈라배
치하고 있다.

① 표준적인 입말자료의 구조형식

- 거시구조

발성환경/발성자/발성내용(랑독, 대화, 문장발음, 단어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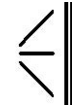
- 미시구조

문장억양(문장류형)/구(문장성분)/단어 및 단어결합(품사, 소리마루)

서사어

어음변화/소리마디/말소리결합3g/음운

음성파일



입말어

② 비표준적인 입말자료의 구조형식

- 거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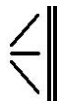
시는곳/이름/성별/나이/학력/직업/경력/선대거주지/발성내용

- 미시구조

서사어

문장/구/단어/음운/문법

음성파일



입말어

지금까지 진행한 음성코퍼스구축량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적인 입말자료

- 남자 3명, 여자 1명의 랑독음성자료(600시간)
《로동신문》 2003년 1월 20일분(200시간)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 약 500페이지(400시간)
- 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들의 문장 및 단어발음음성(55시간)
남자 2명, 여자 2명
문법구조적으로 분류된 200개의 문장 (35시간)
고유어단어 5000개(20시간)

2) 비표준적인 입말자료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의 8개 구역에서 70대의 지방토배기들을 대상으로 입말자료를 녹음수집하였다.

강원도: 안변, 법동, 통천 3지점에서 4명 90시간

황해북도: 신계, 곡산, 봉산 5명 110시간

황해남도: 삼천, 신원, 재령 5명 90시간

평안남도: 룡강, 온천 4명 50시간

평안북도: 구장, 향산, 철산, 선천 5명 110시간

함경남도: 정평, 금야, 홍원 6명 100시간

함경북도: 명천, 회령, 경원 5명 80시간

개성시: 4명 70시간

8개 구역 21개 군지점에서 38명을 대상으로 약 700시간분의 방언음성을 녹음하여 자료기지화하였다.

2.3. 조선어술어백과사전

과학기술지식을 연구보급하는 언어자료에 쓰인 일반어, 술어, 명칭어, 기호

등 4개층의 언어수단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을 주는 지시정보가 아니면 무엇을 무엇이라는 개념정보를 담고있다.

이 4개층의 언어수단을 통칭하고 그것을 통합체계화한 대용량의 어휘자료 목록이 바로 《술어백과사전》이다.

술어백과사전의 본질적특성은 4개층의 《술어》를 언어정보적인 등기물의 기준에서 전면적으로 등록서술하는데 있다.

종래의 사전들에서는 주로 언어학사전은 일반어층 하나만을 위주로 하면서 나머지층에서 극히 일부를 선별등록했다면, 백과사전이나 전문용어사전에서는 일반어층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명칭어층과 기호층 언어수단은 극히 일부를 선별 취급 했을 뿐이다.

종래 사전편찬의 이러한 틀은 매우 굳어진것이지만 정보산업시대 인간들의 지식활동에 그것이 편파적이고 일면적이 불편을 주는만큼 4개 술어층을 꼭같은 정보적가치를 가진 언어수단으로 취급하는 새형의 술어백과사전을 편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어술어백과사전》은 새로 편찬한 표준화, 규범화한 《조선어학술용어사전》(32만)을 기반으로 하여 수백만개 《술어》를 대상으로 개발되는 대용량의 어휘자료 목록이다.

《조선어술어백과사전》의 초기자료는 각종 부문사전이며 점차 전문도서, 문헌자료에로 확장된다.

(1) 일반어사전(의미사전)

- ① 우리 말 대사전
- ② 한자말대사전
- ③ 방언사전
- ④ 속담, 성구사전

(2) 학술용어사전(개념사전)

- ① 과학기술기초용어사전

- ② 전기, 금속, 기계, 광업, ... 전문어사전
- ③ 수학, 물리, 생물, 화학, ... 기초과학사전
- ④ 의학, 농학, 경공업, ... 부문사전
- ⑤ 정치, 철학, 경제, 법학, ... 사회과학사전
- ⑥ 문학, 음악, 무용, 미술, ... 문학예술사전
- ⑦ 불교, 그리스도교, ... 종교사전
- ⑧ 민족전통사전

(3) 명칭사전(지시사전)

- ① 인명사전
- ② 지명사전
- ③ 동식물사전
- ④ 기구, 단체명사전
- ⑤ 제품명사전
- ⑥ 서지명사전
- ⑦ 유적유물사전
- ⑧ 사건명사전

(4) 약호사전(기호사전)

- ① 기술약호사전
- ② 기구, 단체약호사전

2.4. 조선어련접빈도수전자사전

조선어련접빈도수전자사전은 문체별특성에 따라 균형을 맞춘 여러가지 정치도서, 론설, 신문보도, 소설, 잡지, 과학기술도서, 영화문학 등의 본문들에 출현하는 어휘들의 어휘-문법련접빈도 1g, 2g, 3g, 4g, 5g을 통계낸 전자사전이다.

△ 조선어련집빈도수전자사전편찬의 목적

개별적어휘나 의미련집관계 < 토들의 현 사용실태, 어휘와 토, 어휘와 어휘들의 결합관계, 공기관계 등 언어학적인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서술하지는 데 있다.

△ 조선어련집빈도수전자사전의 용량

2가지 원칙을 고수하였다.

균형성

대량성

균형성은 선택한 표본이 언어모집단과 유사성을 띠게 하되 목적을 두고 대량성은 선택한 표본이 믿음률을 높이지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균형성을 위하여 문학예술본문, 사회정치본문, 신문보도본문, 과학기술본문으로 구성하였다.

- 문학예술본문

○ 122권의 장편소설, 단편소설, 력사소설, 고전소설, 동요, 동시, 동화, 과학환상소설, 신화전설, 번역소설, 패설집, 시가집, 기행문집

○ 잡지

아동문학, 조선문학, 청년문학 21개월분

○ 영화문학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1~11부)

- 사회정치본문

○ 40건의 로작, 문헌, 혁명력사, 력사, 정치상식, 정치용어해설집

- 신문보도본문

《로동신문》 26개월

《평양신문》 3개월

－ 과학기술본문

- 100권의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전문도서
- 13종의 과학기술잡지 2년분
- 25권의 사전류, 편람류

모두 5천 7백 6십만 9백 8십개(57 600 980)의 어휘, 형태부, 부호이다.

△ 조선어빈도수전자사전의 구조형식

－ 자소빈도

- 24자안 2백 34만 5천 708개
- 40자안 2백 18만 1천 968개
- 60자안 2백 17만 7천 379개

40자안 실례

| 그램(Gram) | 올림말(key) | 빈도(count) | 프로(%) |
|----------|------------|-----------|----------|
| 1g | 중ㅣ | 947602 | 9.903855 |
| | 중ㅏ | 832827 | 8.704285 |
| | 초○ | 753446 | 7.77012 |
| | 중ㄴ | 488795 | 5.108637 |
| 2g | 초○중ㅡ | 221797 | 2.31811 |
| | ... | ... | ... |
| | 중ㅏ중ㄴ | 117819 | 1.231384 |
| 3g | ... | ... | ... |
| 4g | ... | ... | ... |
| 5g | 초○중ㄴ중ㅡ중ㅏ중ㄴ | 18598 | 0.194377 |

－ 음절글자빈도

용량 4백 22만 7천 114짜리 실험을 5번 진행하여 매 빈도값들의 합평균, 곱평균을 계산하여 그 값으로 빈도추정을 하였다.

| 그램(Gram) | 올림말(key) | 빈도(count) | 프로(%) |
|----------|----------|-----------|----------|
| 1g | 의 | 93715 | 2,216997 |
| | 이 | 81109 | 1,91878 |
| | ... | ... | ... |
| 2g | 에서 | 18498 | 0,437604 |
| | 였다 | 18054 | 0,4271 |
| 3g | ... | ... | ... |
| 4g | ... | ... | ... |
| 5g | 하였다.() | 7294 | 0,172553 |
| | 고있다. | 7265 | 0,171867 |

－ 어휘 및 형태부빈도

○ 토를 제외한 어휘 및 형태부빈도

목적은 문장안에서 어휘적의미들이 어떤 상관성을 띠고 나타나는가, 어떤 공기, 런접관계에 놓이는가를 밝혀내기 위한다 있다.

| 그램(Gram) | 올림말(key) | 빈도(count) | 프로(%) |
|----------|------------------------|-----------|----------|
| 1g | 동(하다) | 165094 | 0,820177 |
| | 대(그그) | 143915 | 0,714961 |
| 2g | ... | ... | ... |
| 3g | ... | ... | ... |
| 4g | ... | ... | ... |
| 5g | 명(동지1)공()명(다음)공()부(같이) | 4079 | 0,020264 |

○ 토를 포함한 어휘 및 형태부빈도

어휘와 토들의 결합관계 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 그램(Gram) | 올림말(key) | 빈도(count) | 프로(%) |
|----------|----------|-----------|----------|
| 1g | 규(ㄴ) | 912059 | 2,902985 |
| | 격(의) | 844107 | 2,686701 |
| | ... | ... | ... |

| | | | |
|----|------------------------|--------|----------|
| | 대(우리3) | 122374 | 0.389503 |
| | ... | ... | ... |
| 2g | 형(위대하다)규(ㄴ) | 61901 | 0.197024 |
| 3g | 동(경애하다)규(ㄴ) | 55387 | 0.176291 |
| | 존(시)시(였)맺(다) | 41677 | 0.132653 |
| 4g | 명(다음)적(다)공(1부(같이)공(0 | 18673 | 0.059434 |
| 5g | 바(기)공(0)동(위하다1)규(ㄴ)공(0 | 9126 | 0.029047 |

대용량 언어자료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와 류형의 언어정보제품을 개발활용하는데서 언어정보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제기된다.

자료수집의 전면성과 다양성, 균형성과 표준성을 보장하면서 언어정보적관련성, 체계성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대용량 언어자료기지구축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제이다. 이와 함께 자료기지의 과학성, 유효성을 보장하려면 우리 말 구조에 대한 어휘-문법적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어문법구조의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형태해석모형연구, 어휘, 문맥 의미를 의미소에 따라 체계성 있게 밝히기 위한 의미구조해석 규칙, 본문과 구문정보처리를 위한 담화문해석과 구문해석원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주요한 언어정보적 과제이다. 우리 말의 어휘-문법적특성을 해석한 전통언어학의 연구성과와 함께 현대의미론 연구결과들을 전면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언어정보제품개발에 적극 리용하는 것이 대용량 언어자료기지구축을 과학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언어학적 과제라고 본다.

형태의 발달과 술어의 위치에 대하여

- 언어의 유형적 측면으로부터 고찰

태 평 무

중앙민족대

1. 머리말

언어란 사유의 도구이며 교제의 가장 주요한 도구로서 서로 다른 민족들
간에 교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인류 사유의 메커니즘이 같고 언어의 총적 기
능이 같기 때문이다.

사유도구로서의 언어는 또한 민족성을 띠며 민족어로 실현되는 사유형식
역시 민족적 성격을 반영하게 된다. 언어의 민족성과 사유의 전 인류성은 통
일되면서도 또 모순된다.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의 교제에는 언어
형식의 전환과정이 필요하며 번역이 필요하다. 형태변화가 활발한 교착어는
보통 SOV형식을 취하며 활발한 형태변화로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고 형태변화가 활발하지 못한 고립어는 보통 SVO형식을 취하며 어순과 허사
에 의해 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교착어로서의 조선어와 고립어로서의 중국어를 중심으
로 기타 일부 언어들과의 대비 속에서 언어의 형태변화와 언어유형에서의 술
어의 위치 관계를 거칠게나마 고찰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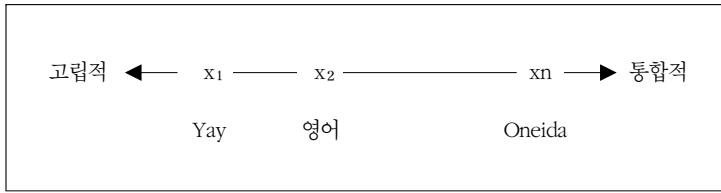
2. 언어의 유형과 형태

언어의 유형적 측면에서 보면 보통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함어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교착어의 대표적인 예로 조선어를 들 수 있고 굴절어의 대표적인 예로 노어를 들 수 있으며 고립어의 예로 중국어를 들 수 있고 포함어로 필리핀 타가르어나 일본의 아이누어, 아프리카 인디안의 치누쿠어 등을 들 수 있다. 문법적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문법적 수단의 통일체로서의 문법적 형태는 언어유형의 고찰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바 먼저 형태론적 유형론에 대한 선인들의 연구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2.1. 언어의 유형과 형태변화유칙

19세기에 발전한 형태론적 유형론은 Edward Sapir(1921)에 의해 언어가 두 가지 원인에 의해 형태론적으로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 첫 번째 원인이 통합의 지표이고 다른 한 가지 원인이 융합의 지표라고 하였다. 통합의 지표란 개별언어에서 발생하는 접사화의 양을 가지고 언어의 연속체인 부동한 언어들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 사이의 형태변화의 양으로 언어의 성격을 확정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며 형태변화의 기본 원리를 밝히고 언어유형의 전환조건을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Lindsay.J.Whadey의 『언어유형론』으로부터 통합의 지표를 보기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의 지표란 고립어를 그 한 극단으로 하고 포함어를 다른 한 극단으로 하는 언어유형의 연속체에서 그 형태론적 표현들의 양에 따라 그들 활성의 순을 배열하고 고찰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필자가 일부 수정)



통합의 지표¹

여기서 말하는 왼쪽 극단의 “고립적”이란 아무런 형태변화도 없는 순수한 고립어를 뜻하고 오른쪽의 “통합적”이란 순수한 포함어를 뜻하는데 사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고립어나 교착어나 굴절어 그리고 포함어가 없다. 어느 언어나 다소 얼마간 기타 유형언어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된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언어유형들이란 주류의 측면에서 고려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도표에서의 “고립적”이라는 말은 이상적인 고립어의 위치를 말하고 Yay는 묘요어군(중국-디베트어족)의 아이어를 말하고 그 오른쪽으로 오면서 점차 형태변화를 가져오는 영어를 말하며 오른쪽 끝은 고립어와 상반되는 포함어를 의미한다. 고립어란 모든 단어가 단일 형태소(어휘적 의미)인 언어로서 문법적 형태소가 거의 없는 언어를 말한다. 중국어와 같은 언어가 우리에게는 제일 익숙한 고립어이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형태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도 아이어처럼 연속체의 고립적인 쪽에 가까운 언어이다. 현대중국어에는 많은 전치사(개사), 후치사 그리고 전후치사가 있고 “我们”, “他们”하는 굴절표현 “们”이 있으며 어근합성법이 발달하였고 고정된 어순이 있다. 또한 고립어로서의 공통적인 특징인 성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언어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과의 접촉과 역사적 변이를 거쳐 변화하게 된다. 그 방향은 점차 고립적인 단어들로부터 단어 안에 접속사를 사용하고 굴절접사가 동사에

¹ Lindsay J. Whadey, 김기혁 역(2008) 『언어유형론』, 소동, 1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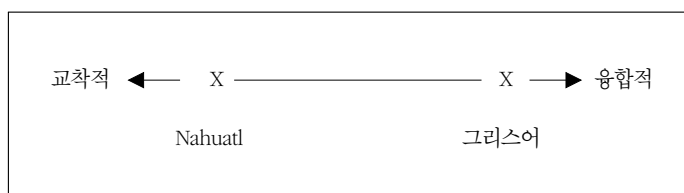
쓰이며 문법적 범주에서 복잡한 일치체계를 가지며 태, 시제, 시상을 단어안의 한 형태로 나타낸다. 교착어나 굴절어와 같은 문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립쪽으로부터 통합쪽으로의 변화과정은 각종 형태의 증가와 함께 점차 교착적 성격을 띠게 되며 포함어의 쪽으로 나아간다. 그 포함어의 특징을 일례로 간단히 보기로 한다.

동서의 Southem Tiwa(Tanoan:United States)의 예에서 보면

○ a. Tikhwianmuban --- Ti - khwian - mu - ban,²

나는 개를 보았다 --- 1단수 - 개 - 보다 - 과거

이 예문은 문장이 아니라 포함어로서 여기에서 조선어와 대응되는 여러 문법적 단위들은 문장론적 관계가 아니라 한 단어형식 내에서의 형태적 표시이다. 포함어에서 이때 각 형태적 성격은 복잡한 일치체계를 가지게 된다. 다음에는 융합의 지표를 보기로 한다.



융합의 지표³

융합의 지표란 역시 언어 유형의 연속체로서 한쪽 끝에는 이상적인 교착어가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이상적인 융합어가 있다. 여기에서의 교착어란 단어안에 나타나는 형태소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선어에서와

2 동상서, 171쪽.

3 동상서, 173쪽.

같이 상, 존칭, 시칭, 계칭, 법, 식, 등 문법적 범주들을 나타내는 형태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이며 그들 사이의 계선이 뚜렷한 것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형태소들 간의 경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언어는 융합적이다. 이를테면 노어에서 “читать”(“읽다”의 기본형)는 그 인칭과 단복수에서 교착어와 전혀 다른 동사의 어미로 각종 변화를 가져온다. 이때의 변화가 융합적이고 이러한 언어가 굴절어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인칭 \ 수 | 단 수 | 복 수 |
|--------|---|---|
| 1인칭 | Я читаю.(내가 읽는다) | Мы читаем.(우리들이 읽는다) Вы читаете.(너희들이 읽는다) |
| 2인칭 | Ты читаешь.(너가 읽는다) | |
| 3인칭 | Он (양성) } читает.(그가 읽는다) Она(음성) } Оно(중성) } | |
| | | Они читают.(그들이 읽는다) |

○ 먹-이-시-였-다 는 조선어에서의 상(이), 존경(시), 과거(였), 하대와 진술(다)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며 그들은 각각 문법형태인 토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계선도 뚜렷하다. 이 경우 노어에서는 кормил과 같이 그 계선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корми ○ ○ л ○
 먹 -이 -시 -였 -다

이때 노어에는 조선어에서의 상의 문법적 의미의 대응형태가 없지만 기타 여러 가지 어휘적 표현 혹은 다른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현하게 된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릇 교착어나, 굴절어나 혹은 고립어나 포함어들은 완전히 이상적인 것은 없으며 다소 얼마간 기타 언어들과의 접촉과 또 자체의 원인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립어는 점차 형태가

생기면서 교착적인 성격을 띤 통합으로 나아가게 되며 교착어는 점차 융합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Lindsay.J.Whadey의 『언어유형론』의 이 견해를 다 수긍할 수는 없지만 세계 언어들은 모두 여러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Lindsay.J.Whadey는 형태론은 모두가 보충적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⁴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표현 형태일 지언정 그 표현기능은 같다는 것이다.

Lindsay.J.Whadey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상기한 고립어와 융합적 지표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통합적 지표와 융합적 지표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통합적 언어는 문법적 정보들을 접사 안에 두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정보(동사-논항들의 인칭과 수, 격, 성, 시제, 시상 등)들은 많은 수의 어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표시하는 형태소를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다른 접사나 어근에 따라 바뀌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동사에 필수적으로 시제, 태, 그리고 그것들의 주어의 인칭이 표시되는 언어의 경우를 가정적인 예로 보여주기가 가장 쉽다… 결국 교착적 형태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언어는 고도로 경제적이다.”⁵ 이와 같이 언어의 유형과 형태변화 사이에는 많은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2.2. 디베트-버마어군의 형태변화

중국어-디베트어족에 속하는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하며 고립어였을 중국어-디베트어족에서의 디베트-버마어군의 변화과정은 또 우리에게 재미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중국어-디베트어족의 식구들을 보기로 한다.⁶

4 동상서, 175쪽.

5 동상서, 177쪽.

6 范丽君(2011) 「汉藏语因果复句研究」, 11页 201页.

① 디베트-버마어군(藏緬語族)(25):

디베트분지언어(藏語支)(4) : 디베트어(라싸어)(藏語-拉薩話)、마취디베트어

(瑪曲藏語-安多牧區話)、취나먼바어(錯那門巴語-錯那縣勒布區麻瑪)、

빠이마어(白馬語-平武)

창분지언어(羌語支)(6) : 창어(羌語-桃坪話)、창어(羌語-曲谷話)、푸미화(普

米語-蘭坪白族普米族自治縣河西區箐花鄉)、다양춘푸미어(蘭坪河西大

羊村)、자룽어(嘉戎語-馬爾康克基話)、짜바어(扎巴語-道孚縣)

징괴분지언어(景頗語支)(3) : 징괴어(景頗語-盈江縣銅壁尖區)、뚜룽어(獨龍語

-貢山縣獨龍河)、거만어(格曼語-察隅縣)

이분지언어(彝語支)(7) : 이어(彝語-喜德)、리쑤어(傈僳語-碧江)、하니어(哈

尼語-綠春縣大寨話)、라구어(拉祜語)、빠이어(白語-劍川)、빠이어(白

語-鶴慶)、투자어(土家語-仙仁)

버마분지언어(緬語支)(5) : 짜이와어(載瓦語)、짜이와어(潞西縣西山 載瓦話)、

아창어(阿昌語-隴川縣戶撒朗光)、랑쑤어(浪速語-潞西縣三台山允壩

寨)、빠라어(波拉語-潞西市三台山鄉孔家寨)

② 묘요어군(苗瑤語族)(6):

묘분지언어(苗語支)(5) : 쉐동묘어(黔東苗語)、첸동위랑묘어(黔東魚糧苗語)、쌍

시(아이짜이)묘어(湘西矮寨苗語)、부누어(布努語)、썬어(畲語)

요분지언어(瑤語支)(1) : 쌍룡맨어(雙龍勉語)

③ 푹타이어군(侗台語族)(8):

파이분지언어(壯傣語支)(5) : 쩡어(壯語)、뤄버쩡어(羅波壯語)、쩡핑부이어(貞

丰布依語)、파이어(西傣語)、파이어(德傣語)

푹수이분지언어(侗水語支)(2) : 푹어(侗語)、모난어(毛難語)、

리분지언어(黎語支)(1) : 리어(黎語)

④ 치양어군(仡央語族)(1) : 치로어(仡佬語)

이와 같이 중국어-디베트어족 40여 개 언어를 분석해보면 다 같은 어족이
라도 언어의 형태론적 유형이 꼭 일치한 것은 아니며 디베트-버마어군 23개
언어에서 21개 언어가 SOV형식을 취하고 2개 언어가 SVO형식을 취했으며
전자가 형태가 발달하고 후자가 형태가 발달하지 못했다. 중국어-디베트어
족의 원인-결과복문과 가설복문에서의 언어유형과 전후치사적 관계를 통계

내보면 재미있는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우선 중국어는 SVO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사실상 중국어도 SVO형식에 SOV형식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언어이다) 디베트-버마어군 23개 언어에서는 21개가 SOV형식을 취하고 2개만 SVO형식을 취하였으며 18개 언어가 원인부문 후치사를 취했다. 반면에 묘요-짱둥어군 15개 언어가 몽땅 SVO형식을 취했으며 13개 언어가 원인부문 전치사를 취하고 7개 언어가 전후치사를 취했다.

가설복문에서도 디베트-버마어군에서는 19개 언어가 원인부문 후치사를 취했으며 5개 언어만 가설전치사, 결과주문 전후치사를 취했다. 바로 중국어-디베트어족도 언어유형에서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점차 형태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구체 통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원인 결과 복문 | | | 원인부문 전치사 | 원인부문 후치사 | 결과주문 전치사 | 전후치사 |
|----------------|--------------|--------|-------------|-------------|-------------|------|
| | 중국어 | VO | + | — | + | + |
| 디베트- 버마어군 | VO(2) | 2 | 1 | 1 | 1 | |
| | OV(21) | 2 | 18 | 8 | 3 | |
| 묘요, 짱둥어 | VO(15) | 13 | 0 | 9 | 7 | |
| 가설 복문 | | | 가설구 전치사 | 가설구 후치사 | 전후치사 | |
| | 중국어 | VO | + | + | + | |
| | 디베트- 버마어군 | VO(2) | 1 | 2 | 1 | |
| | | OV(21) | 5 | 19 | 5 | |
| | 묘요, 짱둥어군 | VO(15) | 15 | 2 | 2 | |

* 여기서 “+”는 그 란의 내용이 존재함을 의미, “—”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

이와 같이 VO형 언어는 대부분 전치사 언어이다. 예를 들면 중국어나 묘요, 짱둥 언어가 그러하다. OV형 언어는 대부분 후치사적 언어이다. 예를 들면 디베트-버마어군이 바로 그러하다.

원인결과 복문관계접사

| | OV(21개 언어) | VO(18개 언어) |
|-------|------------|------------|
| 전치사표기 | 9(42.9%) | 18(100%) |
| 후치사표기 | 18(85.7%) | 1(5.6%) |

가설복문관계접사

| | OV(24개 언어) | VO(22개 언어) |
|-------|------------|------------|
| 전치사표기 | 5(20.8%) | 17(77.3%) |
| 후치사표기 | 19(79.2%) | 5(22.7%) |

3. 언어유형과 형태론적 특징

3.1. 교착어와 조선어의 형태론적 특징

전형적인 교착어로서의 조선어는 문법적 형태들을 체언이나 용언어간에 규칙적으로 교착시키는 방법으로 의미전달을 한다. 조선어 토는 또 용언어간에 직접 맞붙지만 굴절어처럼 녹아 붙는 식으로 어간과의 개선이 희미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교착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선어에서의 체언이나 용언어간과 토 사이가 굴절어의 경우보다 성기며 그로 인하여 그것들을 임의로 가르거나 교착적으로 붙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어는 어근과 접사 등 모든 형태소들이 순수 어음론적 조건에 따르는 변화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굴절어와는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을 가진다. 동일한 문법적 의미라도 서로 다른 문법적 형태로 나타낸다.

굴절어의 대표적인 언어라 할 수 있는 노어도 형태변화가 활발하며 단어와 단어사이의 결합관계에서 성, 수, 격에서의 형태변화가 여러 가지로 활발하지만 조선어에서처럼 문법적 형태의 교착적인 변화로 그들 사이의 결합관계와 위치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 그는 흥미로 책을 읽는다.

에서 주어 “그”는 3인칭으로서 그 자체의 형태에는 변화 없이 도움토 “는”에 의해 문장에서의 주자를 나타내며 또 주제를 대표한다. 부사어 “흥미로”도 명사 “흥미”에 조격토 “로”를 붙여 “읽는다”의 방식을 나타내고 목적어 “책”도 그 자체의 형태에는 변화가 없이 대격토 “을”을 붙여 목적어를 나타내며 서술어 “읽는다”도 기본형 “읽다”의 어근에 현재형을 나타내는 “-는다”를 붙여 그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의 여러 가지 형태변화는 체언에서는 그 단어의 기본형에 그대로 붙어서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용언들도 그 어근에 교착물이 질서 있게 붙으며 그 계선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어와 같이 형태변화가 활발한 굴절어는 그 변화가 교착물이 아니라 단어내부에서의 자체의 여러 가지 변화로 나타내며 그것은 단어의 기본형태에 변화가 일어나 그 계선을 똑똑히 나눌 수 없게 한다. 이를테면 상기의 예문을 노어에서는

(1) Он с интересом читает книгу.
그(주격) 로(전치사) 흥미(명사, 조격) 읽는다(동사, 3인칭) 책(대격)

과 같이 대응시킬 수 있는데 이때 노어에서도 형태변화가 활발하지만 그 변화는 교착적이 아니라 굴절적이다. 우선 주어 “Он”은 명사 기본형으로 3인칭 남성, 주격, 단수를 나타내며 “с”는 전치사로서 뒤에 조격형태의 명사를 요구하여 술어에 대한 행동 방식을 나타내고 “интерес”(재미, 흥미)는 명사, 남성의 기본형으로서 전치사 “с”에 의해 조격형태 “интерес+ом” 즉 “интересом”를 취하며 “читá -ет”(타동사 읽다)는 주어 3인칭과 조용하여 3인칭 동사 “읽는다”를 이루며 “кни́га”(책, 명사, 녀성, 기본형)는 타동사 “читáет(읽는다)”에 의해 대격형태 “кни́гу”를 취한다. 심지어 고유명사인 사람 이름도 언어환경에

따라 그 기본형태를 바꾸게 된다.

- (2) Коля вернулся домой.(주격)
 꼴라는 집으로 돌아왔다.
- (3) Коли не было дома.(생격)
 꼴리는 집에 없었다.
- (4) Коле было жарко.(여격)
 꼴레는 더웠다.
- (5) Колей написана работа.(조격)
 론문은 꼴레이에 의해 씌여졌다.

이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노어에서는 “꼴라”라는 이름도 그 격변화를 하게 되며 부동한 언어환경에 따라 사람의 이름조차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어에서는 각 품사들 간의 결합관계에서 품사들의 기본형태가 품사 자체에서의 내부 변화로 이루어지며 교착어와 같지 않다. 따라서 주어 “Он”은 그 자체가 주격토 “가/이”를 취하는지, 아니면 주체토 “는/은”을 취하는지, 부사어 “интересом”도 문법적으로 조격을 취했을 뿐 그것이 조선어에서처럼 “-로”인지 “-으로”인지 똑똑하지 않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다 같이 형태가 발달한 언어라도 교착어로서의 형태발달과 굴절어로서의 형태변화가 다르며 교착어로서의 문장성분들 간의 관계가 굴절어보다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어에서는 교착물인 토의 품사통용성이 또한 넓어서 단어가 아닌 대상화된 일정한 단위도 형태조성의 단위로 될 수 있으며 문법적 형태조성이 품사적인 한계를 초월한다. 이를테면 서술토가 동사, 형용사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며 바꿈토 “이”, “口”, “기”를 이용할 때는 대상토도 용언에서 쓰이며 서술토도 체언에서 쓰이는 것이다. 이러한 품사를 초월한 형태조성상의 공통성은 조선

어에서 문법적인 표현가능성을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높여준다. 이런 현상은 바로 조선어토가 굴절어처럼 단어의 어간에 밀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강한 독자성을 가지며 필요할 때에는 자유롭게 외부로부터 교착되어 들어간다는 바로 그 교착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면

- 우리 + 0(령형태) + 왔다.
- 우리 + 가(주격토) + 왔다.
- 우리가 + 에(여격토) + 중심이 온다.
- 우리가에 + 가(주격토) + 뭐야!
- 우리가에가 + 라는(도움토) + 말 + 도(도움토) 있나?
- 우리가에가 라는 말도 + 있나?

에서처럼 “우리가에가 라는 말도”...와 같은 경우 대명사 “우리”에는 무작정 많은 여러 가지 토들이 자유로이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어에는 교착물이 또한 아주 풍부한 바 이것도 형태론적 현상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조선어에서 형태조성에 쓰이는 토는 보통 300여 개로서 역사적으로 변화하여 온 여러 시기의 토들이나 특수한 뜻빛갈 및 사용상의 기능 제한을 가진 토들까지 하면 도합 500여 개가 훨씬 넘는다. 이처럼 교착물이 많은 언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⁷

조선어에는 교착물의 문법적 의미가 특별히 다양한바 하나의 문법적 형태라도 수많은 문법적 의미를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소밭에”와 “아침에”에서와 같은 위격토 “에”를 썼지만 앞의 것은 위치를 나타내고 뒤의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의범절을 나타내는 존경범주와 말차림범주 및 서술형의 이음형을 갖고 있는 것도 조선어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조선어는 단어와 단어사이, 문장과 문장사이의 관계를 활발한 형

7 태평무(1993) 「형태의 발달과 술어의 위치」, 『朝鮮學』, 民族出版社.

태적 표식으로 나타내며 그 언어적 단위들의 위치적 관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문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는 주로 형태변화에 의해 표현하고 풍부하고 활발한 형태변화로 여러 가지 문형생성이 가능하다.

조선어의 문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 (1) 조선어는 교착어로서 주로 문법형태에 의해 문법관계를 나타내며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 (2) 조선어는 S O V형 언어이며 후치사적 언어이다.
- (3) 조선어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오며 관계절이 명사의 앞에 온다.
- (4) 조선어는 형태가 발달하였으며 단어결합에는 병렬적 결합, 규정적 결합, 상황적 결합, 서술적 결합, 주술적 결합, 동격적 결합 등 6개가 있어 중국어보다 그 종류가 적다.
- (5) 조선어는 주제, 주어가 모두 분명한 언어이다.
- (6) 조선어는 격, 상, 존칭, 시칭, 계칭, 법, 식 등 문법범주가 발달한 언어이다.
- (7) 조선어의 부정법은 용언의 어간에 “-지”를 붙여 이루어진다.

3.2. 굴절어와 노어의 형태론적 특징

교착어인 조선어와는 달리 노어는 형태소들의 변화가 외부굴절과 내부굴절 그리고 모음교체에 의해 나타내며 접사들이 보통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어 내에서의 형태소들의 연결이 단어의 형태를 바꾸면서 이루어지며 그 형태들의 계선을 교착어처럼 가릴 수 없고 어미 없이 어간으로서만 독자적으로 쓰일 수도 없다.

굴절어에서 문법적 의미의 표현수단으로는 어미의 역할이 가장 적극적인 수단의 하나로 된다. 노어에서의 어미의 문법적 표현수단으로는 명사, 형용

사, 대명사의 성, 수, 격의 변화, 그리고 수사의 격 변화, 동사의 인칭, 성, 수, 시칭의 변화 등이다. 노어에서의 어미는 하나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문법적 의미를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다. 이를 테면 “но́вое зда́ние”(새로운 건물)와 “моя сестра”(나의 누나-언니, 누이동생)에서는 하나의 어미가 성, 수, 격을 동시에 나타낸다.

노어에는 어미 외에 문법적 의미의 표현수단으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는데 접두사는 형용사의 최상급형태를 이루면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사의 완료태를 이루며 완료태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접미사는 동사과거시간의 형태를 이루어 과거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사의 완료태와 미완료태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테면

чита́ть-읽다(단어 기본형)

에서 과거형은 чита́л(양성), чита́ла(음성), чита́ло(중성), чита́ли(복수)와 같이 동사기본형에서 어미 “ть”를 떼고 과거의 접미사 “-л”을 붙이되 그것들도 성, 수에 따라 각기 달리 쓰이는 것이다. 이러한 변이형이 노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며 복잡하다.

노어에서는 또한 전치사가 발달하여 명사, 수사 및 대명사의 격의미를 나타내는데 아주 활발하게 쓰이며 그 결합면에서의 음운변이는 조선어와 비슷한 점이 있다. 즉 자음 앞에 모음이 오고 모음 앞에 자음이 온다.

- о вас (당신에 대한)(전치사 “о” 뒤에 자음 “в”가 올 때)
관하여 당신에
- о докла́де(보고에 관한) (전치사 “о” 뒤에 자음 “к”가 올 때)
관하여 보고에
- об исто́рии(력사에 관한) (전치사 “о” 뒤에 모음 “и”이 올 때)
관하여 력사에

- на море(해면에서, 바다가에서)
우에서 바다

노어의 문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 (1) 노어는 굴절어로서 활발한 굴절형태로 각종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 (2) 노어는 어순이 자유로우면서도 서술형에서는 S V O형 형식을 취하며 전치사와 굴절적 형태의 후치사를 가지고 있다.
- (3) 노어는 성, 수, 격, 시칭, 범, 식 등 문법범주가 발달한 언어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태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 (4) 노어는 굴절형태가 발달하였으며 단어결합에는 병렬적 결합, 규정적 결합, 상황적 결합, 서술적 결합, 주술적 결합, 동격적 결합 등 관계가 있어 중국어보다 그 종류가 적다.
- (5) 노어에서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어결합의 유형과 그에 들어가는 성분에 따라 그 순서가 달라진다. 이를테면 객체적 결합에서 V O형식을 취하며 상황적 결합에서는 V P(서술어-부사어)형식을 취한다.
- (6) 노어는 규정적 결합에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격관계가 일치한 경우에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놓인다.
- (7) 서술어순 안에 들어가는 단어결합의 순서는 달라질 때도 있다. 이를테면
 - новый директор завода(공장의 새 지배인)
새 지배인 공장의
 - сразу поступил к работе(즉시에 사업에 착수하다)
즉시 착수하다 사업에
- (8) 어떤 대상을 나타내거나 장기간 변화가 없는 행동 또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문장에서는 술어부가 문장의 앞부분에 오고 주어부가

뒤에 온다.

○ было три часа ночи.(밤 3시였다)

였다 3 시 밤

특히 노어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주어부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 Что это?(이것은 무엇인가)

무엇 이것

○ Что случилось?(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무엇 발생하다

○ Кто это?(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 이 사람

(9) 노어의 부정법은 용언의 앞에 부정사를 붙여 이루어진다.

3.3. 고립어와 중국어의 형태론적 특징

교착어나 굴절어와는 달리 고립어는 형태변화가 활발하지 못하고 문법적 관계를 주로 어순과 허사에 의해 나타내며 일부 간단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고립어로서의 중국어는 어음과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의음절 문자 언어로서 성조가 있고 보통화인 경우에는 또 “儿化”가 있으며 인도구라 파어나 기타 동방언어들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또한 조선어와 같은 순 표음음소문자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지금 현대중국어에서 보면 자음이 23(v와 ng를 포함)개이고 단모음이 10개이며 이중 모음이 13개, 비운모가 16개하여 도합 39개의 운모(韻母)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서로 결합하여 현유 현대중국어 음절수는 약 1,332개가 된다.(현대한어사전) 이에 비해 조선어에는 19개의 자음에 21개의 모음과 27개의 받침이 있으며 이 삼자의 관계는 또 중국어에 비해 그 결합관계가 훨씬 자유롭다. 그 수학적 결합관계는 $19 \times 21 \times 27 = 10,773$ 개이다.

중국어의 상술한 특징은 그의 많은 언어적 현상들과 법칙들에 결정적 영향

을 준다. 이를테면 중국어는 어음과 의미의 호상 제약으로 하여 조선어처럼 활발한 형태소들이 어간에 규칙적으로 붙을 수 없고 교착물의 품사통용성이 또한 넓지 못하며 교착어에서와 같은 문법적 범주들이 풍부하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어는 표의음절문자로서의 어근적 단어조성법이 발달하였으며 어근적 단어들이 전체 단어들 속에서 대다수를 차지한다. 단어의 형태적 변화도 극히 적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사이의 문법적 관계는 조선어에서와 같이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순과 허사로 나타낸다. 그것은 중국어는 절대다수의 단어들이 어근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부가적 성분이나 형태적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적기 때문이다.

조선어에서와 같은 활발한 형태적 변화를 중국어에서는 주로 어순과 허사의 종합적 기능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를테면 조선어에서의 주격과 대격은 보통 중국어에서의 어순으로 표현하고 속격은 조사 “的”이나 절대격으로 표현하며 여격, 위격, 조격은 개사 “给”, “在”, “用”, “以” 등으로, 피동상과 사역은 개사 “被”, “叫”, “让”, “使” 등으로, 구격은 “和”, “与”, “跟” 등 연사로 표현한다. 또 조선어에서의 범범주를 중국어에서는 종조사 “了”, “着”, “过” 등으로 나타내며 용언수식은 “地”, “得” 등으로, 또는 절대격이나 어순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중국어에서의 이와 같은 특성은 과중한 문법적 부담을 어순과 허사가 맡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어의 허사에는 부사, 개사, 연사, 조사 등이 있는데 실제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허사들로는 개사, 연사와 조사들이다. 이러한 허사들은 조선어에서처럼 체언이나 용언어간에 직접 붙어 형태적 변화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근적 언어로서의 그 단어의 원래형에 직접 붙어 추상적인 문법적 기능으로 문장에서의 위치를 결정해주며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조선어에서처럼 형태적 변화로 쓰이는 것은 극소수이다.

현대중국어에서의 허사는 약 8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상용허사가 약 500여 개 된다. 『현대중국어상용허사사전』(1987)에서 보면 그 허사들의 구성

비례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상용허사 구성집계

| 품사명 | 개수 | % |
|-----|-----|------|
| 부사 | 219 | 43.7 |
| 개사 | 91 | 18.2 |
| 연사 | 131 | 26.1 |
| 조사 | 60 | 12 |
| 합계 | 501 | 100 |

이상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중국어 허사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허사가 부사를 제외하고 282개이다. 거기에서도 단어나 문장성분들의 위치적 기능의 표현을 담당하는 허사가 239개이고(개사 91개, 연사 131개, 구조사 17개) 감탄사, 종결조사가 33개이다.

중국어에서는 바로 어순과 이 230여 개의 허사로서 과중한 문법적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연사가 절반이상 되는바 이것은 고립어로서의 중국어에서 어근적 단어들의 연계를 맺어주는 단순 연결의 비중이 가장 큼을 말해준다. 문자의 위치적 기능의 표현을 담당하는 개사는 91개로서 이것은 형태적 변화로가 아니라 직접 단어 앞에 붙어서 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진짜 조선어에서처럼 단어의 뒤에 붙어서 형태적 변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허사는 17개로서 이것은 조선어에 비하면 그 숫자적으로 전혀 비교가 되지 않으며 그 사용빈도도 조선어에 비할 바 못된다. 조선어 형태적 변화의 표식을 『조선어토의 분류』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토 유형 | 격 | 복수 | 도움 | 이음 | 맺음 | 상 | 존경 | 시칭 | 바꿈 | 합계 |
|------|----|----|----|-----|-----|----|----|-----|----|-----|
| 토 개수 | 39 | 1 | 28 | 110 | 145 | 13 | 1 | 151 | 3 | 494 |

이상에서 보다시피 맺음토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토가 346개로서 그 형태적 표식이 아주 풍부하다.⁸

중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주로 어순과 허사에 의해 문법관계를 나타내며 허사가 발달하였다.
- (2) 중국어는 S V O형 언어로서 전후치사적 언어이며 S O V형 언어의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 중국어는 피수식어가 수식어의 앞에 오며 관계절이 명사 앞에 온다.
- (4) 중국어는 형태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단어결합이 발달했는데 거기에는 병렬적 결합(聯合結構), 규정적 결합(修飾結構), 상황적 결합(狀動結構), 보충적 결합(動補結構), 서술적 결합(動賓結構), 주술적 결합(主謂結構), 동격적 결합(復指結構), 적자적 결합(的字結構), 개사적 결합(介詞結構), 런던동적 결합(聯動結構), 겸어적 결합(兼語結構) 등이 있다.
- (5) 중국어는 주제가 명확한 언어이다.
- (6) 중국어는 시제, 식, 태가 있는 언어이다.
- (7) 중국어의 부정법은 용언 앞에 부정부사가 붙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의 형태론적 특징과 그들의 결합적 특징을 대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아래에서는 형태변화의 특징과 술어의 위치관계 및 그 유형적 특징을 진일보 고찰하려 한다.

4. 언어의 유형과 술어의 위치

4.1. 언어의 고립적 성격과 술어의 위치

중국어의 발전과정을 보면 문장구조가 복잡해진 주요한 표현은 주어, 술어,

8 동상서.

목적어, 규정어, 상황어, 보충어 등 성분이 구전해진 기초에서 주로 동사술어와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로 되는 명사적 결합이 특히 발달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수식어들이 발달한 것이다. 특히 동사술어와 그 전후의 수식어는 문법발달에서의 가장 활약적인 요인으로서 동사술어를 발달시키는 것은 문장유형을 늘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며 중국어문법의 핵심이다.

그것은 조선어에서는 형태의 발달로 하여 술어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여도 그 앞에 주어, 목적어, 상황어, 규정어 등을 토에 의해 똑똑히 나타낼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형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어의 앞에서 그러한 복잡한 관계를 어순으로써 나타내기 어려우며 허사를 가지고도 불가능하다. 형태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SOV, VSO, SVO 세 가지 유언어 중 술어가 중간에 위치하는 SVO형 언어가 문형을 늘이는 데서 가장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여 술어가 맨 뒤에 위치하면 문형을 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술어를 가운데 놓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이를테면 S(주어), P(상황어), O(목적어), V(동사술어) 네 문장론적 단위들에서 V가 제일 앞이나 뒤에 놓이는 경우의 배열은 $A_3^2 = 6$ 가지, 즉 ①SOPV, ②OSP, ③SPOV, ④PSOV, ⑤OPSV, ⑥POSV이다.

V가 가운데 오는 경우는 $A_3^3 = 24$, 즉 ①SPVO ②SPOV ③SVPO, ④SVOP, ⑤SOPV ⑥SOVP; ⑦PSVO, ⑧PSOV, ⑨POSV ⑩POVS ⑪PVSO, ⑫PVOS, ⑬PVOS; ⑭OSPV, ⑮OSVP, ⑯OPSV, ⑰OPVS, ⑱OVSP, ⑲OVPS; ⑳PSVO, ㉑PSOV, ㉒POSV, ㉓POVS, PVSO, ㉔PVOS이다. 문형형성의 가능성으로 말하면 두 번째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의 4배나 된다.

중국어의 문법관계는 대체로 어순과 제한된 허사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문장에서의 어순과 허사의 역할이 아주 크다. 특히 문형을 늘이기 위한 어순의 이용률이 높다. 그리고 어순의 이용률을 높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술어의 중간위치를 차지하는 S V O형식이다.

언어에서 어떤 문법적 의미의 소유자(표시자)로서의 형태소의 변화발전과

그 복잡한 호상작용을 보여주는 실례가 하나 있다.

라틴어의 어미 “s”가 그것이다.

고대 로마 문헌자료에 의하면 한때 이 어미 “s”를 떼버리는 강한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경향은 결국 어미 “s”를 밀어내지는 못하였고 퍼질 수가 없었다. 그것은 라틴어문장에서 어미 “s”를 모조리 떼버린다면 많은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즉 어순이 고도로 자유로운 라틴어에 있어서는 문장에서 명사나 동사의 어미로써 그 위치를 규정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놓고 있는 형태부 “s”를 떼버린다는 것은 곧 문장의 의미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그리하여 “s”를 보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라틴어가 로마제언어로 분열된 다음에 또다시 어미 “s”를 경시하는 경향이 생겨났을 때는 사태가 달리 변저갔다. 즉 어미 “s”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와 로므니아에서 다음에는 프랑스어에서 없어지고 말았으며 에스빠냐어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어에서는 이 “s”가 중세말까지 보존되었다.⁹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문장 속에서 단어들은 언어발전의 처음단계에는 그것이 쓰일 때마다 임의의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그때에는 단어들의 호상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단어들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규칙적인 어순이 정해져서 엄격히 지켜지게 됨으로써 어순에서 보편성이 이루어지자(어순적 상수의 형성) 매 단어가 지니고 있던 문장에서의 기능표시의 수단들이 의의를 상실하게 되고 드디어는 한낱 “짐”으로 전환되자 없어졌던 것이다. 단어자체를 놓고 볼 때는 단어의 구조에서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담당한 부분만이 남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던 부분(형태부)들은 어순의 규격화에 반비례적으로 미미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되면서 점차 퇴화해버렸던 것이다.

9 박재용(1985) 『일반언어학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6-137쪽.

이러한 변화는 일부 경우에 문장에서 단어들이 노는 기능을 식별하는데 모호한 점을 남겨나 “뜻같은말”과 같은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치사나 후치사와 같은 보조어들의 도입으로 그 빈구석을 메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4.2. 언어의 교착적 성격과 술어의 위치

술어의 위치란 주로 어순문제라 할 수 있다. 어순이 문법적 의미의 표현에 널리 쓰이고 있는 중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어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조선어나 일본어에서도 어순문제가 흥미 있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어순문제는 형태의 발달정도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형태가 발달한 언어일수록 여러 가지 언어적 단위를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형태변화가 적을수록 그들 언어적 단위들의 문법적 관계를 어순에 의해 나타내게 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오랜 시일을 거치면서 점차 취사선택되고 상대적인 변종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언어에 고착되게 된다.

이를테면 주어 S(명사)와 술어 V(동사)의 상대적 위치를 놓고 보면 SV형식의 언어도 있고 VS형식의 언어도 있으며 SV형식의 언어가 VS형식으로 쓰이면 정상적인 어순을 벗어난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형식으로 된다. 물론 “주어-술어”(명사-동사)의 위치가 처음부터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 유 세계의 언어를 3000여 종이라고 한다면 SV형식의 언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VS형식의 언어가 절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주어(명사)가 앞에 오고 동사(술어)가 뒤에 오는가 하면 반대로 동사(술어)가 앞에 오고 명사(주어)가 뒤에 놓이기도 하던 것이 점차 주어를 처음에 놓는 경향이

10 Lindsay J. Whadey, 김기혁 역(2008) 『언어유형론』, 소통, 109쪽.

강화되어 갔다. 이것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인간사유의 특성 그 자체와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Lindsay J. Whadey의 『언어유형론』에 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가 있다.

기본 성분 순서의 빈도¹¹

| 언어유형 | 언 어 | |
|-------|-----|----|
| | 수 | % |
| 단어 순서 | | |
| SOV | 180 | 45 |
| SVO | 168 | 42 |
| VSO | 37 | 9 |
| VOS | 12 | 3 |
| OVS | 5 | 1 |
| OSV | 0 | - |
| 합계 | 402 | |

출처: Tomlin (1986,22) 자료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주어가 앞위치에 오는 SOV형식의 언어와 SVO형식의 언어가 90% 가까이 되며 술어가 앞위치에 오는 VOS형식의 언어와 VOS형식의 언어가 10%, 목적어가 앞위치에 오는 OVS형식의 언어가 5%, OSV형식의 언어가 0%로 된다.

동서의 다른 한 통계 SO형식과 OS형식의 통계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언어유형 | 언 어 | |
|------|-----|----|
| | 수 | % |
| 어 순 | | |
| SO | 385 | 96 |
| OS | 17 | 4 |
| 합계 | 402 | |

11 동상서, 107쪽.

이와 같이 주어와 술어의 앞에 위치시키거나 목적어의 앞에 위치시키는 것은 아주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인간사유의 기본 특징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reenberg(1966)는 성분순서의 보편성 원리 1에서 명사어인 주어와 목적어를 가진 평서문에서 주어가 목적어를 앞서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순서라고 하였다. 『언어유형론』¹²에서는 또 저자가 “정보의 깊은 인지적 구조가 이 패턴의 기저에 있다는 것이다. 타동사절(주어와 목적어를 가진 절)에서 주어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의해 표현된 행위의 시발자이며 그 행위를 통제하는 실체인 반면, 목적어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실체이다. 주어의 이러한 특질은 인간의 인지 관점에서 목적어보다 주어가 더 현저하며 주어를 목적어 앞에 성분의 순서를 발전시켜 이 현저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자는 또 위의 견해에 대한 익명독자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더 붙였다. “언어에는 주제를 절의 문두에 배치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의 주어는 담화의 주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주어가 주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적어(또는 다른 핵심 성분)보다 절의 앞자리에 나타난다. 많은 언어에서 이러한 절의 선두 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어의 표준적인 자리가 된다”고 했다.¹³

이것이 상수적인 것으로 굳어지게 되자 동사를 주어(명사)의 앞에 놓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동사 앞에 “가주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놓아야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주어-술어”(명사-동사)의 어순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자 “동사-명사”의 어순은 많은 언어들에서 ‘의문, 희망, 권유 등’을 나타내는데 널리 쓰이게 되었다.

12 동상서, 109쪽 주석.

13 동상서, 109쪽 주석.

어순문제에서 또한 학자들마다 자기의 연구방법과 통계결과로 SVO형 언어는 보통 명사중심어가 앞에 오고 형용사 수식어가 뒤에 오며 SOV형 언어에서는 형용사 수식어가 앞에 오고 명사중심어가 뒤에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도 그 통계방식과 고찰방법에 따라 꼭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Lindsay.J.Whadey는 『언어유형론』(김기혁 역)에서 “Greenbeg는 ‘OV의 어순을 가지는 언어는 형용사를 명사 앞에 두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Dryer 1988a,1989b) 사실, 이러한 경향이 참인 곳은 유라시아라는 넓은 지역뿐이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OV언어들이 명사 뒤에 형용사를 두는 것이 더 보편적이다. Greenbeg가 제안한 것과는 반대이다.’”라고 했다.¹⁴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통계언어 선정의 객관성과 그 접촉과 변이의 조건이 배제된 발생학적, 지역적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사유의 민족적 형식으로서의 언어는 사회의 진보와 인류사유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며 인간교제에서의 언어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보다 복잡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생동한 언어형식의 출현을 요구한다.

복합한 사유형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민족마다 자기의 독특한 표현 수법과 방식이 있는바 형태가 발달한 조선어에서는 주로 그 발달한 형태를 이용하여 복잡한 언어형식을 표현하고 형태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에서는 주로 어순과 허사에 의해 그 복잡한 언어형식을 표현한다. 때문에 조선어에서는 그 발달한 형태변화로 하여 어순이 자유로우며 토의 역할이 크다. 중국어에서는 그 형태가 발달하지 않음으로 하여 어순과 허사에 의해 문장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어순과 허사의 역할이 크며 특히 문장유형을 늘이기 위한 어순의 이용률이 높다.

여기에서 어순의 이용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동사술어의

14 동상서, 50쪽.

위치문제이다.

『언어유형론』에서 보면 접미사화와 접두사화는 둘 다 언어에서 검증되지만, 범-언어적으로 접미사를 선호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Bybee, Pagliuca, and Perkins(1990)에서는 거의 3분의 1의 비율로 접미사가 접두사보다 더 보편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중요한 점은 접미사화의 우세성은 기본 성분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동사가 문말에 오는 언어들에서는 접미사와 접두사의 비율이 거의 5 대 1, 동사가 중간에 나타나는 언어(주어, 동사, 목적어-SVO), 그리고 목적어, 동사, 주어(OVS)는 2 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가 문두에 오는 언어들에서는 비율이 1 대 1로 같다. 접미사를 선호하고 또 그것들이 성분순서에 관계되는 원인은 언어 자체의 변화에 의한 것과 인간의 정신에 의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¹⁵ 여기서 언어 변화에 의해 생긴다는 것은 자립 형태소가 문법화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문법화에서 자립형태소는 의미적으로 일반화되고 음운론적으로 축약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의존적 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이것은 동사 문말 언어이면서 뒤로 미루어진 문법적 요소의 비율이 최고인 성분 순서의 언어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문법화의 과정에서 의존적 접사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소들은 그것들이 꾸미는 단어 뒤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접사가 되면 접미사가 될 것이다.

『언어유형론』에서 보면 또 언어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서 신호화되기 때문에 단어(또는 구 또는 문장)의 처음 부분이 나중 부분보다 먼저 청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단어들 전체가 발화되기 전에 뇌는 그것이 받은 음향 자료를 이미 해석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뇌는 실제로 단어가 가진 모든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단어가 될 것인지 ‘추측’을 시도하는 것이

15 동상서, 149쪽.

16 동상서, 149쪽.

다.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를 처리하는 것은, 언어 처리를 시도하기 전에 발화 되는 전체의 단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른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있다.

이러한 언어 이해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단어의 정보가 그 단어의 시작 부분에 나타날 경우에만 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제안한다. 더군다나 적당한 양의 실험적 증거를 근거로 그들은 단어의 어간에 들어있는 정보가 단어의 접사들에 들어있는 정보들보다 해석에 있어서 더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단어들의 처리는 어간이 단어의 처음에 나타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¹⁷ 파생적 형태소들은 확고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고(예: 영어 un-, re-, -tion-, 그리고 ly), 굴절적 형태소들은 근본적으로 문법적 정보를 공급한다(예: 영어 -s, -ed, 그리고 -ing).

따라서 S O V형식은 형태가 발달한 교착에서의 적당한 언어형식이다.

4.3. 언어의 굴절적 성격과 술어의 위치

교착어인 조선어와 굴절어인 노어는 모두 활발한 형태변화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우며 고립어처럼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순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로조대비 언어학연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창룡)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 ① 노어와 조선어는 병렬적 결합에서 성분의 배열순서가 완전히 일치하다.
- ② 주술적 결합에서 노어나 조선어는 그 어순이 일치하다.
- ③ 객체적 결합에서는 조선어는 OV형식을 노어에서는 VO형식을 취하게 된다.

17 동상서, 151쪽.

- ④ 상황적 결합에서는 서술성을 가진 단어가 앞에 오고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뒤에 온다. 조선어와 반대된다.
- ⑤ 규정적 결합에서는 중심어와 규정어의 격이 일치할 때는 조선어와 순서가 같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조선어와 반대로 된다.
- ⑥ 조선어에서는 서술문에서 주어와 술어가 앞에 오고 오지만 노어에서는 어떤 대상을 나타내거나 장기간 변화가 없는 행동 또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의 문장에서는 술어가 앞에 오고 주어가 뒤에 온다.

5. 결론

이상에서 조선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일부 기타 언어들과의 대비 속에서 형태의 발달과 술어의 위치 문제에 대하여 몇 개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간단히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에서 S V O형식의 언어가 문형을 늘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언어 형식이다.
2. 문법적 범주가 발달하고 형태변화가 활발하면 술어의 위치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지 않으며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3. S O V형식의 언어는 형태가 발달하였으며 S V O형식의 언어는 형태가 발달하지 않았다.
4. S O V형식의 언어가 형태변화가 적어지면 S V O형식의 언어로 전환하고 S V O형식의 언어가 형태변화가 많아지면 S O V형식의 언어로 전환할 수 있다.

* * *

이상으로 언어의 유형적 측면으로부터 형태의 발달과 술어의 위치 문제에

대하여 거칠게나마 고찰하였다. 본인의 수준의 제한과 시간상의 촉박으로 문
제점이 많으리라 믿으면서 여러 학자님들의 기탄없는 비판지적이 있기를 기
대한다.

참고문헌

- 戴庆夏 等(1997) 『中国民族语言论丛』 2, 云南出版社.
리창룡(1992) 『로조대조언어학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박재용(1985) 『일반언어학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范丽君(2011) 「汉藏语因果复句研究」, 中央民族大学少数民族语言文学院 博士论文.
徐晶凝(2008) 『现代汉语话语情态研究』, 北京昆仑出版社.
中央民族学院少数民族语言研究所(1987) 『中国少数民族语言』, 四川人民出版社.
中国民族语言学会(1986) 『中国民族语言论文集』, 四川人民出版社.
志村良治 著, 江蓝生·白维国 译(1995) 『中国中世纪语法史研究』, 中华书局.
陈国亭, 韩爱国(2007) 『俄语初级实践语法』,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Lindsay J. Whadey, 김기혁 역(2008) 『언어유형론』, 소통.

『오래된 정원』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 인식

김 춘 선

중앙민족대학교

1. 서론

황석영에 대해 한국 문학사에서는 그를 1970년대에는 「객지」(1971), 「삼포 가는 길」(1973), 「돼지꿈」(1973) 등의 중·단편소설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비관적 사실주의 작가로, 1980년대에는 『장길산』(1984)과 『무기의 그늘』(1988)로 독재시대를 우회적으로 증언하고 분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룬 작가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사회운동가로서 활약을 하다가 20세기 말인 1999년에 이르러서는 『오래된 정원』(1999)을, 21세기에는 『손님』(2001), 『강남몽』(2010)을, 왕성하고 정력적인 창작활동으로 시대의 문제작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¹(1999)은 1980년대 이후 격동했던 한국사회와 구라파에서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겪은 세계사회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파란 만장한 삶과 사랑을 그려낸 장편소설로, 1999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오래된 정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인 오현우, 한윤희, 송영태, 최미경, 이희수, 한정희 등은 모두 지식인이다. 1980년 광주 항쟁이 계기가 되어 오현우

1 본 논문에서는 황석영, 『오래된 정원』 상·하권, 창비, 2000년 판본을 텍스트로 삼는다. 이하 인용문은 상·하권과 페이지수만 밝힌다.

는 1980년 초겨울 무렵에 구속되고, 또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 이후 1980년대의 삶은 갈피에서 서울로 올라가 대학원에 진학한 한윤희의 시선을 통해 기술되며, 1980년대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정리된다. 서사의 중심은 하권으로 올수록, 감옥 안에서 오현우가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을 벗어나 한윤희의 주위 사람들, 송영태와 최미경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의 삶으로 옮겨온다. 1970년대 반유신의 선봉에 섰던 오현우의 정신을 이으면서 1980년대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젊은이들의 삶이 전경화되어 있다. 작가는 8·15광복 이후 미군정기 시절과 자유당 정권 초기의 한국사회에서 좌익 지식인이 감내해야 했던 상황을 한윤희의 아버지를 통해 그려내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전후의 상황을 오현우를 통해서, 그 이후의 6월항쟁을 비롯한 노동자 투쟁 등의 사건들과 동구권의 붕괴, 독일 통일 등의 사건들은 한윤희를 통해서 묘사하였다. 작품은 1970~80년대에서 출발하여 2000년에 가까운 20여 년의 한국 현대사가 현우와 윤희의 시각으로, 감옥 안팎의 시선으로 펼쳐지고 있다. 오랜 공백기 이후에 나온 이 작품은 황석영의 전반기 작품들과 연속성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이 드러난다.

황석영의 많은 작품들이 직간접적으로 삶의 체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이 시대의 전체적 삶의 연관관계를 긴밀하게 추적하여 자신의 체험을 시대의 문제의식과 접목시키는 성숙한 작가적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래된 정원』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작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사건 전개의 시간적 배경으로 되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작가의 현실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황석영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변모 및 그 원인을 해명함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오현우, 한윤희, 송영태, 최미경을 중심으로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양상을 분석함으

로써 작가의 현실인식을 고찰하기로 한다.

2. 1980년대 - 독재정권하의 암흑한 현실, 그에 대한 정당한 투쟁

『오래된 정원』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인 오현우, 한윤희, 송영태, 최미경 등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직면해야 할 1980년대 한국 사회 현실은 독재정권의 잔혹한 통치하에 자유와 평등이 결여된 불합리한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수수방관할 수 없었고 그로 하여 그들은 비참하고 고통 많은 삶을 살게 되었다.

1970년대 오현우는 대학시절에는 운동을 했고, 강제징집으로 전방에서 군대생활을 했다. 그리고 시골 중학교 선생을 하면서 유학 준비를 하는 평범한 삶을 산다. 그러던 오현우가 유신이 선포되면서 실천가로서 거듭난다. 온 한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유신체제가 반포되었을 때 오현우는 시월 투쟁 유신반대 첫 번째 테이프를 끊고 감옥 체험을 하게 된다. 유신 끝 무렵에 오현우는 조직에 가입하고 현우네는 30여 명의 조직원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는 광주 항쟁을 맞는다. 작품 속에서 1980년 광주항쟁의 모습은 전경화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등장인물의 기억을 통해 제시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1980년 오월 광주는 큰 의미를 띠고 있다. 광주에서의 양민학살을 보고 들은 그는 사회운동가로서 혁명을 꿈꾸기 시작했고, 노동대중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 곧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세상이었다. 오현우는 광주에서 마지막 전투와 도청 진압이 끝날 무렵에 광주를 떠나 서울로 도피한다. 광주항쟁을 직접 체험한 뒤 오현우는, 마치 작가의 실제 모습처럼, 유학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의 꿈마저 접어버리고 조직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서울로 올라간 그는 체포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신군부의 만행과 광주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전달을 만들고 그것을 뿌리는 일을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세상이 올바르게 변화할 장래를 믿었다. 마치 돌벽에 부딪치는 작은 물결이 시간이 흐르면서 벽을 금가게 하고 돌이 빠져나오고 구멍이 나서 드디어 무너지듯이. 우리는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서울의 여덟개 구역을 분담하기로 했다. (상: 98)

광주에서의 양민학살을 보고 들은 오현우는 어중간한 생각이나 행태로는 막강한 폭력을 이겨낼 수 없고 또한 민중에 의한 권력의 장악은 한 세대가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혁명을 꿈꾸었고, 노동대중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좌경이라는 말이 원면으로 기울었다는 말일 텐데 당신과 당신의 벗들이 책을 읽고 저면 생각에 대해서 학습하기 시작한 건 학살 이후부터였어요. 여긴 우리의 고향이 아니게 된 거였지요. 고전적인 혁명의 세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그렇지만 생각은 다시 새로워지고 세상이 지어놓은 풀만큼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 나는 당신의 선택을 말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상: 215)

작품의 후반부의 서술자 한윤희의 음성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 ‘광주항쟁’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현장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광주를 도피하여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책감을 갖게 만들었다. 광주항쟁의 실패 후 이런 자책감은 자연스럽게 그들로 하여금 혁명의 전위를 키워가기 위한 사상학습으로 치닫게 된다. 급진적인 경향은 절망과 치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금기를 깨는 게 거듭나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저면(이북)의 책을 학습한다.

물론 금기를 깨려는 그들의 시도는 당시의 군사독재 정권에게 있어서 용납될 리가 없었다. 오현우는 광주항쟁의 주모자 급으로 지목되어 사회불안 불순

조종자로 지명수배자의 신세가 된다. 그러자 오현우는 예전 군대 상급자였던 임중사가 운영하는 목공장의 노동자로 도피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점점 수배망이 좁혀오자 조직원과의 선을 끊는다. 오현우는 “혼자서 지내는 도시의 겨울은 더욱 삭막하고 추웠다”고 말한다.

그자들은 막강한 무력과 폭력을 쥐고 번성해가는 데 죽은 벗들은 가족의 숨죽인 울음에 둘러싸여 얇은 땅 아래서 몰래몰래 썩어가고 있었다. 무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통제할 조직이 있어야만 한다.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누군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그 길은 남수가 말하던 산정예로의 지름길이었다. 끝까지 살아남아 민중의 권력을 쟁취하지는 봉한이의 멀고먼 길이기도 했다. 동우는 민족 내부의 새로운 연대를 꿈꾸었다. 그래서 오월은 나와 나 아닌 것이 갈리는 갈림길이었다. (상: 216)

군사독재 시절에는 오로지 '나와 나 아닌 것'의 이분법만이 존재한다. 젊은 이들이 독재냐 반독재냐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었던 것처럼, 정통성이 없었던 군부 독재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젊은이들을 빨갱이나 빨갱이가 아니냐는 이분법으로 몰아간다. 그러면서 당국에서는 간첩사건들을 무더기로 엮어낸다. 독재에 항거한 젊은이들을 '빨갱이'면으로 가라고 조장한 형국이다. '빨갱이'의 누명을 쓰면서도 시민들의 학살을 목격한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현우의 도피행각은 조직원 최동우가 검거 되면서 더욱 피 말리는 것이 된다. 최동우의 검거는 '간첩단 검거'가 되고, 최동우의 고문 수사를 통해 오현우는 수배자 명단에 간첩단 사건의 조직책임자 주범으로 조작된다. 수사망이 한결 더 좁혀지자, 한윤희와의 갈피 생활을 접고 서울로 떠난다. 서울로 올라간 오현우는 학림장 여관 임검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오랜 도피생활은 이렇게 끝나게 된다. 체포된 그들은 모진 고문을 겪어야 했으며, 동우는 이십년, 오현우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 동우는 결국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해 결국 정신질환 병동감옥으로 가게 되고 무

기정역을 선고 받은 오현우는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윤희와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18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감옥에서 오현우는 도피시절의 ‘김전우’, 가짜 신분증의 주인공 ‘장명구’가 아닌 이제 수인번호 ‘1444번’으로 살게 된다. 오현우는 엄중 독거수가 되어 정치범들이 있는 특사에 수감되지 않고 일반수 사동의 복도 끝 면에 칸막이를 하고 한 평도 채 못 되는 징벌방 크기에 갇히게 된다. 광주항쟁으로 검거된 많은 이들이 1981년 광복절부터 특별사면과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지만, 풀려난 그들조차 십여 년을 목숨 값을 빚지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막 출범한 정권의 선심과 맞바꾼 인질이었다면, 오현우와 그 조직들은 또 다른 정권안보와 억압현실을 합리화 할 수 있는 희생물이 되어 석방의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

내가 빨갱이인지 퍼랭이인지는 나도 잘 몰랐다. 나는 이 땅에서 무력으로 양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일부 군부와 그에 붙어서 온갖 이권과 특혜를 누려온 독점자본을 반대했다. 유신시대와 오월의 학살을 겪으면서 나와 타자를 알게 되고 여러 번의 좌절감에 시달린 젊은이들은 복면이 타자가 아니라는 너무도 뻔한 사실에 눈을 떴다. 육십년에는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이라던 문건들이 바다 밖에서 들어왔는데 숨을 죽이고 그런 자료들에 접하기 시작한 게 팔십년대 초반의 일이다. 동우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내부 문건에 반영했던 것은 좌편향이었을까. 내가 줄곧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이 바뀌어갔던 길을 돌이켜보면 그런 따위는 차츰 보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갔다. 세월은 저절로 균형을 잡아간다. 그것 봐라, 별일도 아니었잖아. (하: 128)

위의 글은 회상 속에서 자신이 부딪쳐왔던 지나온 삶에 대한 오현우의 의식의 추이와 회한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오현우는 자신을 ‘빨갱이와 퍼랭이’로 나누어진 분단의식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한윤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두 면으로 갈라져 있는데 천지개벽이 없는 한 그는 세상구경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잇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현우는 자신이 걸어온 지난날을 정당하다고 여긴다. 양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부도덕한 군부에 저항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복을 타자가 아닌 ‘우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들의 일련의 희생적 행위들을 통해 한국 사회는 좌우 편향을 극복하고, 균형을 잡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현우는 자신의 삶이 정당했다고 믿지만, 악성 중이염으로 감옥 밖을 나선 외출에서 냉랭한 시민들의 눈과 겹친다. 병원 대기실에서 흰 이송복과 뒤축이 잘린 고무신을 신고 포승줄에 묶인 오현우를 보고 두 여학생이 말한다. “어머, 저거 뭐지? 애, 탄테루 가자”라고 말한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린다. 나는 비도덕적인 국가권력에 대들었을 뿐 죄인이 아니다. 나는 쫓겨난 자가 아니다. 거부하고 스스로 나온 자다. 그러나 갈아입은 호송복에는 아무런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아서 천사백사십사번으로마저도 나는 인식되지 않는다. 나를 인식해줄 대상에 의해서 부정된 나는 여기 없다. 그야말로 말살되었다. (하: 147)

죄는 비도덕적인 국가권력에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몰아간다. 세상은 쫓겨난 자와 거부하고 나온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오현우는 1444번의 기표로도 존재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그를 이중삼중으로 소외시키고 타자화시킨다. 부당한 국가 권력에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국 국민들에게까지 잊혀지고 소외되었던 것이다. 온몸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고 온 말없는 민중들과 그들을 이끌었던 소수의 헌신자들은, 망월동에 누워있거나 불구가 된 몸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버리고, 수수방관 했던 약삭빠른 자들이 시세를 잘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한몫 챙겨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 암울한 폭력의 시대에 죄 없는 민중을 무참히 살상한 자들도 단죄되지 않고 책임도 규명되지 않은 채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현우는 자신이 말살되었다고 말한다.

오현우의 도피처였으며, 오현우와 함께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윤

희 역시 오현우와 같은 시대의 아픔을 겪은 인물이다. 한윤희는 원래는 미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전라도의 한 고등학교 미술선생으로 발령받은 초임교사였다. 그러던 그가 시대의 급류를 타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1980년 5·18항쟁의 비디오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경계로 그는 시대의 아픔 한복판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한윤희는 이전부터 시대의 비극과 관련이 있었다. 한윤희의 아버지는 동경 유학생 마르크시스트며 건준에 들었다가 조선공산당이 성립되면서 입당한 인물이며, 시월 항쟁이후 검거되었다가 도피하여 빨치산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리고 검거된 이후, 사상검사인 외삼촌의 도움으로 전향서를 쓰고 나와 당국의 감시 하에서 세상을 술로 마감한 인물이다. 성장과정에서 그녀는, 좌익운동가였고 현실에서는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이처럼 독재정권의 잔혹한 통치로 인해 한윤희는 그녀의 성장과정에서 현실에 무능하고 밖에 나가 사랑할 건 없어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갖지 못했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한윤희는, 먼 훗날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해서야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윤희는 아버지가 식민지 지식인으로 고민했으며, 해방된 조국을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활동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나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아버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오현우를 사랑하게 된다.

시대와 적극적으로 조우하지 않았던 한윤희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겪으면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선배 작업실에서 5·18 비디오를 녹화해 와서 참극을 확인하면서, 그 기간에 전라도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한윤희는 강한 자책감에 시달린다. 자책 속에 광주항쟁과 관련된 방면의 책들을 닦치는 대로 읽는다. 이 무렵에 오현우가 나타난 것이다. 한윤희는 교사라는 신분을 무릅쓰고 기꺼이 수배자 오현우의 도피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대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자책감이 그로 하여금 이처럼 주저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현우가 신군부의 지명수배자가

되고 체포된다. 그리고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독재정권의 잔혹한 통치는 이렇게 그녀와 애인을 갈라놓았다.

한윤희는 오현우와의 6개월의 동거 끝에 ‘은결’을 가지게 된다. 오현우가 검거된 뒤, 그녀는 감옥 속의 현우의 삶에 스스로를 구속시키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간다. 그녀는 현우와 만날 수 없었던 첫 면회의 경험으로부터 감옥 안의 현우와 감옥 밖의 자신의 삶이 각자의 몫으로 꾸려져야 함을 알고 감옥 속의 일상은 현우의 것으로 맡겨둔 채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정신적으로나마 당신에게 기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부터 나 자신 스스로의 삶을 열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의 그림을 위해서 하다못해 내 손가락 끝에서 피 몇방울이라도 흘려야 한다고도 생각했구요. 나는 과감하게 혼자서 그 길을 갈 거예요. (하: 35)

이런 생각을 한 한윤희는 교사를 그만둔다. 오현우의 ‘내연의 처’로 도피처를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이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지고 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직을 한 한윤희는 혼자서 ‘은결’을 낳는다. 그리고 혼자 은결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한윤희는 1983년 봄 서울에 있는 가족의 곁으로 올라온다. 원래 한윤희에게 소중했던 것은 소시민적 평화와 일상의 삶이었다.

우리가 바라던 세상,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갈피의 단조롭고 평화로운 일상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나는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당신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루어 낼 세상은 결코 단조롭거나 평화스런 고장은 아니겠지요. 평등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계급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긴장된 소용돌이의 공간이 되겠지요. 혁명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이 생활이 자유주의자의 공간이라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겨우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요. 그 어떤 체제라 할 지라도 당신과 나의 이 초라한 피난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념은 아무런 문젯거리도 아니겠지요. 당신만 곁에 있다면…”(상: 216)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원래 한윤희가 꿈꾸었던 세상은 이렇듯 단조롭고 평화로운 일상이다. 그러던 한윤희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애인인 오현우가 연달아 잔혹한 독재정권의 피해를 받게 되자 그녀의 내심 역시 변혁운동을 찬성하고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한윤희는 송영태와 최미경의 활동을 지켜보는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하는 협조자의 모습을 보인다. 한윤희의 화실은 이들 운동권의 토론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화실에 복사기와 전동 타자기를 들여놓고 유인물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한다. 이후의 한윤희의 삶은 송영태와 최미경이란 인물들과 밀접하게 연계되게 되는데 그로부터 1980년대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중요한 세력이었던 대학가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오현우가 구속된 이후의 작품의 서사 시간은 5·18 이후 뜨거워지기 시작한 대학의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한윤희가 다시 대학에 적을 둔 무렵은 감옥과 사회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복학생이 되어 막 학교로 돌아온 무렵이었고, 오월의 충격에서 서서히 깨어나 사회적 역량들이 힘을 모으는 중이었다. 오현우의 삶은 변혁운동의 모델로 남아, 1980년대의 운동권에게 이어진다. 오현우가 검거되어 구속된 이후 사회 변혁 운동은 송영태, 최미경 등에 의해서 지속되었다.

한윤희는 동생 정희의 매개로 송영태라는 인물을 알게 된다. 송영태는 “긴 세월 동안 독재에 봉사한 집권당 국회의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첫 구속자로 3년 반 동안의 수감생활을 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해나갔던 사람이었다.

그는 직업활동가 양성소에서 쓸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으며, “인간은 자신의 힘에 관한 지식을 획득해서 이들 힘을 사회적 힘으로 조직하고, 그러한 사회적 힘을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분리시키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해방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맑스의 입장을 견지

하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집권당 당사를 돌입하거나, 광주학살 내용을 책으로 편집해 배포한다.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며 미국 문화원에 돌입하기도 한다. 이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의 배후로 송영태는 다시 수배자 신세가 된다. 그리고 송영태는 노학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선반 기능자격을 따고 공장 기능공이 된다. 그는 ‘노동자의 친구’로서 구로동과 영등포에서 노학연대투쟁 시위를 주도한다. 하지만 그는 공장에서 철야를 하다가 각혈을 하고 쓰러진다. 이처럼 송영태의 형상에서 사심이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가 전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해방이다. 민중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송영태의 자아헌신적 투쟁은 성스럽기까지 하다.

송영태가 토론을 지도한 후배 최미경은, 말단에서 시작해서 과장에까지 오른 공무원을 아버지로 둔, 씩씩하고 쾌활하며 별명이 ‘콩자반’인 법대 학생이다. 미경 역시 노학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전자기술을 교육받고 공장에 들어간 인물이다. 특히 이 작품은 최미경이 한윤희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노학연대, 학출 노동자와 기존 노동자들의 유대와, 이를 통해 성취된 노동현장의 진전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선배들이 숨을 죽이고 고독하게 작업하면서 한두 번 행동에 옮기려다가 현장에서 해고되고 검거 당하던 사오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전이지요.”(하: 185)라는 단락은 단적인 실례이다.

최미경은 자신이 “겹질을 깨고 나온 그 두텁고 어리석은 미몽의 알 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학교까지 그만 둔 뒤 공장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다져간다. 여자란 이유로 일당 삼천칠백 원 만 주고, 한 달 평균 잔업시간이 백 시간이고 철야는 일주에 두번이나 되며 월차나 생리휴가가 명목상으로는 찾아먹을 수 없는 열악한 공장 노동자들의 삶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경은 주말철야작업 철폐와 노동현장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내걸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 정당하게 돌려받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천만 노동자의 단결투쟁 승리 만세!” 등의 구호도 만들고, 기층 노동자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인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군사대의 폭력 속에서 시위는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미경은 파업주동자들과 함께 연행되어 한 달 만에 석방된다. 미경은 해고철폐를 위한 출근투쟁을 벌여 나가던 중에 공장 정문 건너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신나를 뿌리고 난 뒤 분신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한윤희는 최미경의 이러한 비극적인 생을 “표현할 시간도 없었던 너의 젊음”이라고 규정한다. 1980년대 중반에 지속되었던 송영태와 그 친구들의 정치투쟁을 지켜보며, 그들이 혁명을 위한 희생양이 되든가 일상에 지친 토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짐작 속에서의 윤희의 사회 변혁에 대한 전망은 흔들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된 선풍’이 되더라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 어둠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서 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세상과 대결해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한윤희에게 성스러운 사업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미경이의 분신 자살을 회상하면서 더욱 확인해진다.

이처럼 오현우, 송영태, 최미경은 한결같이 독재의 폭압을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안일과 개인적 행복을 자각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고상한 인간들이다. 작가는 이들의 형상을 통해 1970~80년대는 독재정권의 잔폭한 통치로 인해 암흑하고 불평등한 시대,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였음과 이를 저항해 나선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성스러움을 재환기 시키고 있다. 아울러 80년대의 그같은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한국 사회가 좌우 편향을 극복하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었다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3. 1990년대-소시민적 평화와 일상성의 지배, 그에 대한 긍정

1989년을 기점으로 ‘세계사의 반동’이 시작된다. “유럽에서 시작했던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른바 국가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빠른 속도로 이행되어 간다. 동구라파 급변, 소련의 해체로 인한 세계 정세의 변화는 한윤희, 송영태, 오현우가 직면해야 할 1990년대 현실이다. 작가는 한윤희로 하여금 서울에서 대학원을 마친 뒤 대학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베를린에 유학을 가게 만들며 작품의 중반부에서 사라졌던 송영태가, 한윤희가 유학하고 있는 베를린을 찾도록 만든다. 한윤희는 1989년 독일에서의 유학 체험을 통해 이맘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냉전체제의 붕괴를 지켜보게 된다.

1980년대의 가장 적극적인 이데올로그이면서 실천가였던 송영태는 이북을 비롯한 동구의 해체를 한윤희와 함께 지켜보며 큰 충격에 빠진다. 송영태는 평양을 방문한 뒤 한윤희를 찾아와서 ‘감동과 절망이 반반’이며, “어렵지만 버티며 견뎌 낸 생활력이 눈물겹고 물샐 틈 없는 통제가 절망적”이라고 말한다(하: 271). 그들이 한때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이북’에 대해 송영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 한국 사회가 억압되어 있었듯이, 그곳 역시 인간을 억압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사회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진술은 방북체험을 가진 작가 황석영의 음성을 겹쳐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베를린체험과 방북체험을 대변하는 인물로 한윤희와 송영태를 내세웠다. 송영태와 한윤희는 소련해체 직후인 1991년 9월 초에 베를린을 떠나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올라 모스크바에서 아무르까지 대륙횡단 여행을 떠난다. 그들은 우선 모스크바의 ‘음울한’ 풍경에 실망한다.

한윤희에게 모스크바의 풍경은 “음울, 비틀거리는 주정뱅이, 거만한 표정의 관리들, 무뚝뚝한 봉사원”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긴 줄을 이룬 입을 꼭 다문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곳이 행복한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님을 보여준다. 송영태 역시 소련에 대해 “세계의 육분의 일이라는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영성할 사실”에 놀라며, 사람을 이렇듯 아무렇게 관리한 처사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

송영태는 무너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직접 겪으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지만, 그 자신이 지향했던 이념과 그 이념의 실체로 생각했던 ‘저면’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송영태의 우려는 ‘동면’이 완전히 옳은 사회는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서면’에 대한 반성적 거울의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면’이 사라진 ‘서면’은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 시장의 논리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송영태는 이제 시장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그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사람은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한윤희는 보호(통제)가 싫다고 ‘시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영태와 달리 ‘경쟁’도 나쁘지만, ‘통제’도 그에 못지 않게 나쁘다고 말하며(하: 296), 영태의 생각에 수긍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윤희는 송영태와 달리 오히려 지나온 시대의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이제 지친 삶을 쉬고 싶다고 한다. 이제 서정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시대의 희생자이자, 자신의 연인이었던 오현우와의 삶에 대해서도 보다 자유로워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윤희의 일련의 행동들은, 오현우가 감옥 안에서 지극히 미시적인 삶, 예컨대 국 속의 작은 건더기나 정량이 지켜지지 않은 고깃점 하나, 그리고 운동시간을 늘리는 일, 서신검열을 완화하거나 금지된 책을 공식적 절차 없이 반출입하는 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고 간부들에게 항의하는 일, 기념일마다 항의의 행사를 벌이는 일 따위의 최소한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거나, 감옥 안에서 비둘기를 기르다 죽이면서 깨닫는 무상함에 대응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윤희는 동구권의 몰락을 통해, 아니 그들이 오랫동안 대안으로 생각했던 저면의 실체를 보면서,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한윤희 역시 그 새로운 출발선을 ‘서면’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소외될 것이 확연한 힘없고 가난한 민중과 더불어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출발선 앞에서 시작을 다짐하던 한윤희는 오현우가 감옥을 나오기 전 3년 전에 자궁경부암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 이제 이 새로운 출발은 오현우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다.

1998년에 출옥한 후 오현우는 한윤희와 6개월 동안 생활했던 감회를 방문하면서, 당신이 살고 겪어온 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오현우의 남은 몫은 송영태의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한윤희가 견고자했던 새로운 출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윤희가 발견한 모성의 세계이며, 일상을 인정하는 세계이다. 그것은 오현우가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아마도 일이 남아 있다면 그건 바로 일상과의 씨름”(하: 310)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오래된 정원』의 오현우, 최미경, 송영태 등 사회운동가들의 노학연대, 사상학습, 조직 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사회 변혁 행동은 한윤희의 부문에 와서는 일상성과 개인을 중요시 하는 모습으로 변모된다. 그리고 감옥 내의 오현우나, 형기 만기 출옥 후의 오현우나 모두 다 일상성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모 원인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석영은 1960, 70년대 하층민의 생활을 경험했으며, 유신체제의 폭력을 경험했고 1980년대는 ‘광주항쟁’에서의 양민학살을 보고 듣게 된다. 이러한 막강한 군사독재에 맞서 그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게 되며 이것은 또 나중에 방북으로 이어진다. 방북으로 인해 귀국 할 수 없어 독일에서 머무는 동안 독일의 통일을 목격하게 되고 구라파에서의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게 된다. 1993년 귀국하자마자 안기부에 의하여 체포된다. 이 시기에 와서 황석영은 지난 시기 거친 저항의 담론을 펼치는 동안 개인과 일상성의 훼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특히 『오래된 정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 사회주의가 일제히 몰락했을 때 나는 이십세기가 끝나는 현장을 보면서 이러한 이행기를 냉전과 분단의 시대를 살아온 작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도 삶을 통하여 기록해두어야 하겠다”(하 후기: 318)는 창작의

도 속에 집필된 작품이다. 또한 “이제는 시대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물결 속에 휩쓸리며 헤엄쳐가던 하찮고 가냘픈 개인의 나날을 통해서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하 후기: 318) 반성적 사유는 이러한 개인과 일상성의 깨달음 뒤에서 가능한 것이다.

작품에서 일상의 소중함은 서사의 한축을 맡는 오현우의 애인 한윤희에 의해서 강조된다. 동구의 해체, 소련의 몰락한 전경을 보고 “영태는 베를린에서 처럼 다시 시대의 주제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매우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이 여정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지쳐 있었을 거예요”(하: 295)라는 말이나, “근대는 수컷들의 삭막하고 쓸쓸한 갈등과 번민의 시대였어요. 어느 밀폐된 방에서 숨어 지내는 비밀 경찰 출신의 늙은 고문자처럼 그것은 황폐하고 외로워요.(하: 304)”라는 말이나 “나는 사생활을 탈환하고 싶었어.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조용한 생활을”(하: 273) 회구하는 한윤희의 음성에서 드러나듯 작가는 이제 개인을 통해, 개인을 옹호하며, 나아가야 할 세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한윤희 외에도 오현우의 모습에서도 일상성은 강조된다.

오현우는 감옥 안에서 침잠하는 동안 사소한 일상성에 눈을 떠간다. 무엇보다 밖에서는 먼지처럼 하찮고 아주 작은 일이 감옥 안에서는 목숨을 걸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작가의 삶과 겹쳐지는 주인공 오현우의 감옥 체험 설정은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바쳤던 1970~80년대와 진부한 일상성이 지배하는 90년대의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다.

제도를 부숴버리는 동안에 그것을 부수는 제도가 만들어지겠지. 누구나 언제든 투쟁하는 전사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혁명위원회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내는 아이를 낳거나 식량배급이 늦는다고 투덜대고 좀 일찍 들어올 수 없냐고 바가지를 끊고 생활비가 거덜이 났다고 하소연하고, 식구들은 모두들 끊임없이 먹어 대고 마셔대고 싸우다가 성교도 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새옷으로 갈아입고 출근하고 다시 토론해야 한다. (하: 109)

이제 오현우는 일상성에 눈을 떠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현우의 태도는 작품 속에 그의 반성적 거울로 존재하는 한윤희가 거듭해서 강조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살림의 단순한 일상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상: 233)라는 언술에서 보다시피 작가는 일상 역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옥 후 몇새 만에 18년의 삶을 돌아본 50세의 오현우는,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 아마도 일이 남아 있다면 그건 바로 일상과의 싸움”(하: 310)이라고 말한다.

이 개인과 일상성 속에 두드러지는 것은 ‘육망’의 긍정이다. 『오래된 정원』에서 한윤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윤희는 아버지의 대체물, 또는 역사의 대체물인 오현우가 아니라, 육체로서 원하는 이희수를 받아들인다. 그녀는 자신의 이념적 동질성을 오현우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10년 전 그를 사랑할 수 있었고,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희수에게서 삶의 안식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의 사랑을 통해서 사적인 생활을 ‘탈환’하고자 한다.

우리가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어왔던 가치들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아직도 속세의 먼지 가운데서 빛나고 있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외롭고 캄캄한 벽 속에서 무엇을 찾았나요. 혹시 바위틈 사이로 뚫린 길을 걸어 들어가 갑자기 환하고 찬란한 햇빛 가운데 색깔가지의 꽃이 만발한 세상을 본 건 아닌가요. 당신은 우리의 오래된 정원을 찾았나요? (하: 308.)

오현우의 느낌으로 보더라도 1990년대 한국 사회는 1980년대와는 다르게 변한,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사회이다. 80년대 오현우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아직은 속세의 먼지속에 빛나고 있으나 살아있는 한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윤희의 유언은 90년대 한국의 현실은 80년대와는 확연히 다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윤희의 인식이자 오현우의 새로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색깔가지의 꽃이 만발한 세상”이라는 표현은 의미하는 바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한윤희의 편지에서 나오는 ‘오래된 정원’은 한편으로는 오현우와 한윤희가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지냈던 갈피의 시골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혁명가들의 이상향인 동시에 새로운 가치가 잉태되는 모태이기도 하다. 오현우가 이곳에 내려와 자기 반평생의 역정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은 한윤희의 자취를 더듬는 과정에서 새로운 각성을 얻기 때문이다.

4. 결론

『오래된 정원』에서는 오현우를 비롯한 사회운동가들의 노학연대, 사상학습, 조직 및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는 독재 정권의 잔폭한 통치로 인한 민중의 암흑기였음과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성스러움을 재환기시키며 그 역사적 의의가 말살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윤희와 오현우의 감옥에서의 삶과 출감 후의 삶의 변모를 통해 1990년대는 이미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좌우의 편향이 극복되고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사회로서 소시민적 평화와 일상성, 개인적 욕망이 존중되어야 할 시대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모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작가의 체험 및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된다고 본다. 군사독재의 폭력은 황석영으로 하여금 사회개혁 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방북 및 망명 체험은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투옥 체험은 그에게 거대한 담론에서 벗어나 일상성을 깨닫게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 2』, 서울: 민음사.
- 임기현(2007) 「황석영 소설 연구—탈식민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논문.
- 황석영(2000) 『오래된 정원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 _____(2000) 『오래된 정원 하』, 서울: 창작과비평사.

灾难映畫에 대한 거시학적 연구

- 한, 중, 일, 미의 경우를 중심으로

임 향 란

중국사천외대

1. 들어가는 말

재난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다. 재난은 크게 자연적인 재난과 인위적인 재난 두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물론 재난의 구체적인 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종다양한 줄로 안다. 그리고 재난은 인간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거늘 그것은 충격적이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재난은 문학예술의 좋은 제재, 더 나아가서 주제가 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가장 대중성을 띠고 있는 영화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줄로 안다. 이른바 제재 차원에서 분류한 영화의 한 갈래—灾难映畫는 그것의 좋은 보기가 되겠다. 실제로 灾难映畫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창작되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세기교체 시기에 입해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창작되었다.

灾难映畫는 대개 1970년대부터 선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세기말로부터 세기초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1972), 『타워링』(1974), 『火星人玩转地球』(1996), 『独立日』(罗兰—艾默里奇,¹ 1996), 『哥斯拉』 시리즈(罗兰—艾默里奇), 『타이타닉』(詹姆斯—卡梅隆, 1997), 『天崩地裂』(1997), 『哥

斯拉』 시리즈, 『天地大冲撞』, 『鸟』, 『龙卷风』, 『인디펜던스데이』, 『아마겟돈』, 『화성침공』, 『우주전쟁』, 『极度恐慌』, 『트위스터』, 『볼케이노』, 『딥임팩트』, 『ID星际终结者』, 『军刀牙』, 『世界末日』(일명 『绝世天劫』, 1998), 『纽约大地震』(1999), 『完美风暴』(2000), 『地心毁灭』(2003), 『超强台风』, 『后天』(艾默里克, 2004), 『先知』, 『10.5级大地震』(2006), 『日本沉没』(2006), 『海神号历险记』(2006), 『水啸雾都』(2007), 『동경괴물』, 『한강괴물』(2007), 『首蓆地』(2008), 『超强台风』(2008), 『南京! 南京!』(2009), 『해운대』(윤제균, 2009), 『先知』(『神秘代码』, 2009), 『月殒天劫』(2009), 『2012』(2009), 『感染列岛』(2009), 『唐山大地震』(冯小刚, 2010), 『全城戒备』(2010), 『阿凡达』(2010) 등은 经典적인 灾难映畫는 그 보기가 되겠다. 여기 인터넷상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灾难映畫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2012』, 『后天』, 『타이타닉』, 『独立日』, 『哥斯拉』 시리즈, 『地心毁灭』, 『完美风暴』, 『先知』, 『唐山大地震』, 『타워링』이 되겠다.

이런 灾难映畫는 인간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만큼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왔다는 말이 되겠다. 물론 이런 灾难映畫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겠다. 본고는 이런 灾难映畫에 대해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문화해석학적 차원에서 접근해보도록 한다.

2. 灾难映畫의 분류

灾难映畫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 재난의 형성원인 및 제재내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런 灾难映畫에 대한 분류는 중첩되기도 한다. 예컨대 인위적인 灾难映畫와 실제사실적인 灾难映畫 사이가 그렇다.

1 확인된 감독은 밝히도록 한다. 艾默里克은 미국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灾难映畫 감독.

2.1. 자연적인 灾难映畵

여기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재난을 제재로 한 영화를 말한다. 『天地大冲撞』, 『龙卷风』, 『超强台风』 등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天地大冲撞』의 재난은 홍수, 『龙卷风』과 『超强台风』의 재난은 태풍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2.2. 인위적인 灾难映畵

여기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재난을 제재로 한 영화를 말한다. 『南京! 南京!』 등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南京! 南京!』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중국인의 실제재난을 다루고 있다.

2.3. 실제사실적인 灾难映畵

여기에는 이미 발생한 실제사실을 제재로 한 灾难映畵를 말한다. 『唐山大地震』, 『타이타닉』, 『纽约大地震』 등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唐山大地震』은 1976년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을 제재로 한 灾难映畵이고 『타이타닉』은 1912년 북빙양의 빙산에 부딪쳐 호화여객선 타이타닉이 침몰된 사실을 제재로 한 灾难映畵이다.

2.4. 미래예측적인 灾难映畵

여기에는 미래에 일어날 재난을 제재로 한 灾难映畵를 말한다. 『独立日』, 『后天』, 『2012』, 『地心毁灭』, 『火星入玩转地球』, 『阿凡达』, 『해운대』, 『화성침공』, 『우주전쟁』, 『동경괴물』, 『한강괴물』, 『ID星际终结者』, 『军刀 牙』 등이 이에 속한다. 예컨대 『地心毁灭』은 지구 자기마당이 변화를 가져와 전자마당

에 영향을 주어 지구 각 곳에서 벼락 등 재난이 인간을 덮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后天』은 미국을 대표로 하는 지구가 하루 내에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빙하기에 들어서 인간에게 준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2012』은 이 때까지의 인간재난의 집대성을 보여주면서 인간말세를 펼쳐 보이고 있다.

3. 灾难映畵에 대한 문화해석학적 접근

灾难映畵는 인간의 현 단계 문제점 및 위기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슬로건하에 과학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에 무진장 횡포를 휘둘러왔고 즐기차게 자연을 파괴해왔다. 이로부터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생태환경파괴 등 자연과 인간의 모순은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오고 말았다. 그래서 세계 각 곳에서 자연재해가 인간을 덮치고 있다. 지진, 쓰나미, 홍수, 가뭄, 화산... 인간은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위생조직의 연구에 의하면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매년 16만 인구가 온실효과 때문에 죽을 것이고 2020년에 이르면 기하급수로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평면이 상승하여 2500만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제3세계는 홍수, 기근, 가뭄 및 흉작 때문에 대량 이주하게 되고 유럽의 노인들은 뜨거운 기류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로부터 인간은 어떤 불행이 언제 나한테 떨어질지 모르는 황황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환기되기도 한다. 『唐山大地震』을 비롯한 사실적인 灾难映畵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류의 灾难映畵도 바로 인간의 이런 실제적인 재난 및 위기의식을 기저로 하여 산생된 것이다. 『后天』은 바로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양극의 빙하가 녹아 하천과 바다에 영향을 주어 결국 새로운 빙하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열대야열대를 제외한 전반 지구를 휩쓸게 되는 것이다. 자유여신, 에필탑, 런던시계탑이 하루아침에 얼음기둥이 되어 버리고만

것은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영화제목 『后天』 자체가 급박한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동경괴물』, 『한강괴물』을 비롯한 괴물灾难映畫도 이상기후, 이상재난 연장선상에서의 인간의 위기의식의 한 표출에 다름 아니다. 丹尼斯-奎德이 『后天』에 대해 ‘영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지질학자의 지적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지구상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인간에게 영향이 가장 큰 新仙女木사건이었다.

灾难映畫가 세기말 세기초에 많이 산생된 데는 세기말적인 말세 기운을 탄상술을 부린데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기말은 인심이 흥흥할 때가 많다. 이른바 ‘말세론’은 그것을 말해준다. 여기에 종교적인 신비색채가 가미되면 ‘말세론’은 배가 된다. 세계 각 곳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자연재해 및 테러, 전쟁 등은 어찌면 이 ‘말세론’의 확실한 증명으로 안겨오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온통 ‘세기말’증후군에 사로잡히며 예의주시하게 된다. 이런 灾难映畫는 바로 인간의 ‘세기말’증후군을 자극하며 호기심을 끌기에 족하다. 그래서 灾难映畫는 관객몰이에 성공하여 이윤창출에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世界末日』 灾难映畫는 아예 세기말적인 그 이름 자체로 관객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丹尼斯-奎德은 ‘그것(『后天』을 가리킴. 필자주)은 『獨立日』과 『世界末日』와 같은 상업영화다’고 했다. 그리고 『2012』는 고대 마야인의 예언을 통해 세계종말을 이야기함으로써 심히 충격적이다.

灾难映畫는 인간성에 대한 적나라한 전시로 되고 있다. 인간은 동물성과 인간성, 악마와 천사의 이중적인 존재로서 재난이란 극한상황에 처할 때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인다. 나만 살겠다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을 벌리기도 한다.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살겠다고 밀치고 닥치고 하는 장면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唐山大地震』의 경우 ‘23초, 32년’의 이야기, 이를테면 지진은 23초에 불과했지만 그것의 충격은 32년 동

안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주인공 方登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동생을 구한 어머니에 대한 고까운 생각에 마음이 비비꼬인다. 그러다가 자기도 아이를 갖고 사천 문천대지진 구출에 참가하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唐山大地震』은 어떤 의미에서 方登의 차원에서는 인간성의 회복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에 임하더라도 짐승 같은 너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는 멋진 모습을 보인다. 『타이타닉』에서 잭이 살 기회를 사랑하는 연인한테 주고 자기는 죽음을 택하는 모습,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선장, 배의 침몰을 자기의 설계 잘 못으로 돌리는 기사, 침몰하는 배에서 계속 연주를 하는 연주가들, 첫 날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노부부 등은 죽음을 초월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 직업의식, 예술의식, 생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后天』에서 노과학자와 두 조수가 위스키를 마시며 안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실로 인간의 죽음을 초탈하는 생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山姆를 비롯한 도서관에 갇힌 사람들이 합심하여 추위를 이겨나가는 모습도 사랑, 믿음 등 인간승리의 쾌거에 다름 아니다. 『2012』의 학자 杰克逊이 비행기를 타고 지진에 함몰된 로스안젤스로 달려가 전처와 두 아이를 구하는 모습, 『先知』의 남주인공 尼古拉斯·凯奇가 전력을 다 해 아들을 구해내고 자기는 희생되는 모습도 父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父情은 『后天』에서도 나타난다. 『后天』의 잭은 기상과학자로서 재난에 임해 인명구조계획을 짜면서도 전반적인 국면을 고려하여 위기에 처한 자기 아들 山姆를 구할 고려를 안중에 두지 않은 고상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뉴욕으로 아들 山姆를 구하러 간다. 그리고 山姆를 비롯한 도서관에 남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리는 모습도 인간의 이타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강괴물』의 경우를 보더라도 괴물의 횡포 앞에 무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보여주었으며 아버지가 딸에의 끈끈한 사랑에 기초한 용감한 싸움은 실로 감동적이다. 『唐山大地震』도 보면 元妮는 목숨으로 자기를 구해준 남편을 위해 수절하며 죽은 친인들의 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사를 하

지 않는다. 그녀에게 있어서 친인은 죽어도 영원히 친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천 문천대지진에서 지진구출에 나선 관병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딸의 다리를 자르게 하는 어머니는 위대하다. 한마디로 『唐山大地震』은 가족 간 깨닫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영화 总监制 陈国富가 ‘이 영화(『唐山大地震』을 가리킴, 필자주)의 핵심은 그래도 정감의 힘, 가정의 힘, 인간성의 힘이다’고 한 것도 바로 그간의 사정을 말해 준다. 『해운대』의 해상구원대원 홍식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고상한 인격은 돋보인다. 『아마겟돈』에서 그토록 절절하게 사랑하는 애인을 우주의 소행성 폭파 프로젝트에 보내게 된 그레이스는 지구에 남아서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린다.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어린 연인들인 제니퍼와 크리스천은 배 안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의 힘으로 재난의 상황을 극복해 간다. 그리고 벨르는 탈출의 리더격인 목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마지막에 외계인의 거대 우주선에 스스로 자폭하여 지구를 외계 생명체들로부터 구해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딥 임팩트』에서 제니가 아버지와 함께 서로 겨안은 채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삼킬 때까지 꿋꿋이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다. 灾难映畵는 어디까지나 이런 아름다운 인간성에 대한 노래를 주선물로 하고 있다.

灾难映畵는 그 灾难의 근원을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돌리고 있어 충격적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다. 『军刀牙』를 보면 인간 과학자들의 야심과 호기심에 의해 만들어낸 육식동물 剑齿虎가 달아나 인간에 해를 끼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后天』에 보면 杰克 박사가 한 차례 국제과학포럼에서 미국 부통령 및 정부관원들에게 재난을 경고하며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부통령은 여전히 경제와 공업을 제1발전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책의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무단적으로 반박하며 그 어떤 건의에 대해서도 무시해버린다. 책이 위급한 연구결과를 정부에 보고

했을 때에도 보통령은 재차 무리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통령은 반년 후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는가하면서 책임을 책에게 떠넘기려 한다. 또한 정부는 통상적인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한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과학자 데이비드가 외계인의 이상하고도 미세한 신호가 지구에 곧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그 사실을 백악관에서 일하는 이혼한 아내에게 알리지만 대통령 비서인 그녀는 그의 말을 무시한다. 『해운대』도 보면 국제해양연구소의 지질전문가 김휘가 수차 한국에도 쓰나미가 일어나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재난방어청은 무시해버린다. 灾难映畵의 이런 인간의 문제는 재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灾难映畵는 인간 스스로의 반성의 계기가 된다. 灾难映畵의 주요 모순충돌의 하나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다. 그러면서 人定胜天, 자연 앞에서의 자고자대의 미몽에서 깨어나게 한다. 灾难映畵는 우리에게 자연의 위력을 알려준다. 『타이타닉』, ‘침몰하지 않는 배’가 침몰하지 않았던가? 사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도 무력한 존재인 것이다. 이로부터 자연은 인간의 어머니, 적어도 인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천인합일의 조화로운 경지를 창출할 대상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灾难映畵는 인간이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던 많은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 『唐山大地震』을 보더라도 인간은 생명을 앗아간 대재난을 통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더 절실히 느낀다. 어머니 元妮가 ‘없어지고 난 후에 없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겠네’의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여주인공 方登이 학업과 생명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하여 미혼모가 된다. 总监制 陈国富가 『唐山大地震』이란 영화는 사실 지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친지들과 가정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확립하겠는가하는 문제다’고 한 것은 그간의 사정을 얼마간 말해주고 있다. 『해운대』에서 쓰나미를 통해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유진, 이혼한 부부가 각기 딸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상봉하는데, 인류의 힘으로는 당해 낼 수 없는 자연의 대 재앙 앞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들

은 서로 화해를 하며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준다. 『트위스터』에서 이혼 수속을 밟으려 했던 조와 빌리 커플은 갑작스럽게 닥쳐든 토네이도인 『트위스터』의 재난을 함께 헤쳐 나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성숙한다.

灾难映畫는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족하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인간은 아직도 지구에 대해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우주자연에 대해서는 더구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 호기심은 이 우주세계로 날아친다. 달나라로 날아가고 위성을 띄우고 우주탐험을 한다. 그리고 외계인을 상정해본다. 외계인의 비행접시 UFO를 ‘보기’도 한다. 미래예측적인 灾难映畫는 바로 인간과 우주 및 가상의 적—외계인들의 대립 및 싸움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못 떠나는 이상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미래예측적인 灾难映畫는 인간의 이런 호기심에 만족을 준다. 『独立日』과 『ID星际终结者』는 지구를 궤멸하려는 외계인의 침입을 설정하여 인간을 경악케 한다. 『世界末日』은 외계행성의 비행선이 최후의 비상무기로 인간을 궤멸하려고 한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외계인들은 지구에 있는 인간의 중요한 건축물들을 신통히도 잘 파악한다. 뉴욕의 마천루와 워싱턴의 백악관,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화성 침공』의 외계인들도 전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만 골라 파괴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灾难映畫는 과학환상적 색채가 진하지만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는 많다.

灾难映畫는 인간의 재난을 보여주었으되 재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世界末日』을 보면 지구에 부딪쳐 인간을 궤멸할 운석을 발견한 미국우주총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운석을 폭파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재난대책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인공 布鲁斯·威利斯는 평범한 인간이 혼자 힘으로 그 계획을 실현하여 지구를 구하는 ‘英雄

本色'을 보이기도 한다. 『后天』에 보면 책은 기상과학가로서 재난에 임해 인명구조계획을 짠다. 그리고 대통령이 부통령의 환경을 무시한 경제제1주의를 비판하고 곧 바로 책의 철수계획에 따르고 될 수 있는 한 북쪽의 사람들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으로 백궁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선언 및 희생은 인간리드들의 자아희생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책과 霍尔 등 과학가들의 헌신적인 과학연구 및 인간재난에 대한 안타까움 및 자아희생적인 구출노력도 인간두뇌들의 희망적인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后天』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과 멕시코지 간에 협의가 달성하여 살아남은 미국인들이 멕시코난민영에 수용되고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부통령이 대사관내에 만든 임시국무원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책적 잘 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정부가 새롭게 잘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것은 인상적이다. 『后天』의 감독 艾默里奇가 '그것(『后天』을 가리킴. 필자주)은 한 부의 경전적인 灾难映畵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끝나는 날 세계는 이미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을 보면 杰克逊은 위험을 무릅쓰고 화산이 곧 폭발하는 怀俄明州의 黄石公园으로 달려가 이번 재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MC를 찾아 비행선에 관한 지도를 얻어낸다. 그리고 『2012』는 세계종말을 이야기하면서도 신성한 새 생명의 탄생을 구가하고 있다. 『일본침몰』에서 일본열도가 이제 곧 침몰한다는 田所雄介 박사의 충격적인 과학적 논증이 제시되자 다른 과학가들이 쉬쉬하지만 山本 수상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곧바로 특별재해대책본부를 세우고 鹰森에게 총책임을 맡도록 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 일본난민을 받아줄 것을 설복한다. 鹰森의 영도하에 교도대학교 지진연구소 田所雄介 박사가 연구소조를 데리고 지각변화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일본을 구할 방안을 내온다. 일본이 침몰하는 마당에 동경소방구원대의 阿部玲子는 위험한 시각에 여자아이 美笑를 구한다. 그리고 田所 박사 아래의 두 젊은 잠수원 小野寺俊夫와 结诚慎司가 7000미터의 바다 밑에 내려가 일본열도를

분리시키는 폭파를 하여 자기의 생명으로 일본의 위기를 구한 것도 그 보기가 된다.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로버트 램지는 소방관 출신의 전직 뉴욕 시장으로서 이혼과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포세이돈호에 오른 사람이나 소방관 시절에 익혀두었던 구조 능력과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트위스터』에서 회오리바람에 아버지가 날아가는 것을 목격한 아픔을 지닌 이혼녀 과학자 조는 평생 토네이도를 쫓아 이를 연구, 분석하며 확실한 예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명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볼케이노』에서 지질학자인 에미이는 LA 경찰국의 비상대책위원장 마이크와 함께 LA 중심가로 흘러 내리는 화산으로부터 인명 구하기에 나선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데이비드는 외계의 신호를 분석할 줄 아는 천재적인 과학자로 등장한다. 『아마겟돈』에서는 비록 실현에 실패하지만 혜성의 위험에 임해 폭탄을 쏘아 올려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獨立日』에서 외계행성의 진공을 받은 지구인들은 생사판 가리를 벌인다. 미국대통령은 결전의 의지를 보이며 전 세계 인류 군대의 단합을 호소하며 제1선에서 전투를 지휘한다. 인간은 결국 컴퓨터바이러스를 퍼뜨려 외계행성의 보호마당을 파괴하고 결국 승리를 거둔다. 『타워링』에서는 그 건물을 직접 설계한 건축가가 재난 탈출의 중심이 된다. 이외에 『唐山大地震』에서 한 해방군 전사가 ‘당과 국가에서 여러 분을 도와 꼭 새 집을 일떠세울 것입니다’고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웬만한 灾难映畵 속의 주인공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재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는다. 灾难映畵의 지식인들도 나약한 형상이 아니라 대개 과학연구에 충성하면서도 그것을 재난에 대응하고 인간구제의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용감성을 보인다. 그래서 灾难映畵는 무서운 것이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낙관적이다.

4. 나가는 말

灾难映畵는 투자가 대단하다. 1997년 『타이타닉』의 1억 불 투자를 계기로

하여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대형 투자가 진행된다. 피곳 보아도 『해운대』는 150억 한화, 『后天』은 1.25억 불, 『일본침몰』은 20억 엔이 투자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인기도 대단하다. 『타이타닉』의 경우 북미에서 연속 281일 최고 상영기록을 나타냈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흥행수익이 18억 불에 달했는데 12년이나 최고 위치를 확보하다가 2010년 1월 『阿凡达』에 추월되었다. 그리고 『2012』는 상영 9일만에 흥행수익 2.1불에 2010년 9월 10일까지 6.6억 불에 달했고² 『后天』은 흥행수익 7억 6970만 불에 달했으며 『唐山大地震』은 아시아 최고 흥행수익 1130억 인민폐에 달했다. 그리고 『独立日』은 전 세계범위에서 흥행수익 8억 불에 달했고 『世界末日』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흥행수익 8억 1740억 불로 상영 해당연도 세계최고에 달했다.

灾难映畫의 이런 화려한 성공적인 내면에는 헬리우드 초창기 灾难映畫의 특수효과 및 화려한 화면 등 형식이 내용보다 큰 것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灾难映畫는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리얼티 등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트위스터』, 『아마겟돈』, 『타이타닉』, 『포세이돈 어드벤처』, 『딥 임팩트』, 『인디펜던스 데이』, 『后天』과 같은 할리우드의 대형 재난영화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특수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리얼하게 거센 파도, 무섭게 지구 위로 떨어지는 혜성의 조각들, 거대한 회오리바람, 전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이 폭파되는 장면들에는 마치 마법과 같은 특수효과가 입혀졌기에 스펙터클한 관람이 가능했다. 그래서 처음 기술적인 제한으로 단순하고 밋밋하게 찍은 灾难映畫를 새롭게 찍는 경우도 있다. 『日本沉没』의 경우 1973년 찍었던 것을 2006년 다시 찍어내고 『타이타닉』을 새롭게 찍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 보기가 되겠다. 그런데 灾难映畫는 이런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심각한데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고난, 불행, 비극을 보여줌으로써 충격적이면서 심사숙고하게 하

2 『2012』은 세계 105개 국가와 지구에서 상영되었다.

고 성숙되게 해야 한다. 경전적인 灾难映畫는 인간의 재난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심도있게 밝히고 있어 실로 경세서가 되기도 한다.³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 여름의 청량영화로 상영되기도 하는 恐怖映畫와 다르다. 적나라한 인간의 피를 둘러싼 자극은 공포는 불러일으키되 음미할 여지는 없다. 미국식 血漿映畫는 전형적인 보기가 되겠다. 이에 비해 일본의 심리적 惊悚恐怖映畫는 한 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물론 수준급 恐怖映畫는 역시 극한 상황하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리얼한 표현으로 灾难映畫와 같이 가기도 한다. 사실 수준급 恐怖映畫와 灾难映畫는 서로 통한다. 灾难映畫의 경우 역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灾难映畫는 재난 및 공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줄렬한 灾难映畫는 여기서 끝나고 만다. 그래 일반 恐怖映畫의 수준에 떨어지고 만다. 사실 수준급 灾难映畫는 인간, 자연, 우주에 대한 심사숙고로 이어진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동경괴물』, 『한강괴물』이 비록 恐怖映畫적인 괴물을 다루었으되 灾难映畫로 취급하게 된다.

灾难映畫는 인간의 불행을 보여주어 침울하지만 한 것 같지만 흥행성도 잘 고려하여 현대예술의 성공적인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艾默里奇가 『后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는 될 수 있는 한 오락성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경고의 가치를 내걸어야 된다’고 한 것은 흥행성과 교육성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灾难映畫의 본령을 지적한 것으로 된다. 『唐山大地震』의 경우도 중국 상업영화의 왕으로 꼽히는 감독 冯小刚이 상업성만 추구해서 성공할 수 없었다. 冯小刚은 광고 直入과 같은 상업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인간성의 깊이를 파고 들어 성공하고 있다.

3 물론 어떤 灾难映畫는 표피적인 시각적 자극과 충격으로 상업성만 노린 경우도 없지 않다 있다.

참고문헌

김성근(2004) 『영화 속의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흡(2008) 『영화가 정치다』, 인물과 사상사.

영화 〈대지진〉.

영화 〈해운대〉.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45321>

윤선도의 시조창작과 개성적면모

전 인 철

조선사회과학원

고산 윤선도(1587-1671)는 17세기에 시조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대표적인 시인이다. 시조시인으로서의 그의 공적은 시조형식의 형상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시인의 사상감정을 매우 생동하게 표현함으로써 시조문학의 예술적형상수준을 높은 경지에 끌어올린데 있다. 그는 표현력이 풍부한 우리말의 우수성을 훌륭하게 살려낸 조선어구사의 명수였으며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일치시킬줄 아는 시적묘사의 대가였다. 실로 그의 시조작품에 그려진 자연현상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말그대로 생명이 약동하는듯한 생동한 형상으로서 그것은 시인의 인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윤선도는 가시문학의 1인자인 정철과 같이 시조문학의 1인자로 꼽을수 있는 시인이다.

윤선도가 시조와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것은 불행하게 시작된 그의 사회생활과 그 후의 파란많은 인생행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선도가 사회생활에 첫발을 들여놓던 때는 광해군의 폭정으로 인민들의 생활이 극도의 곤궁에 빠져있었고 정계는 자기 세력의 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리이첨일파의 란동으로 어지럽기 그지없던 시기였다. 성품이 대바르고 나라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에 넘쳐있는 젊은 선비였던 윤선도는 도탄에 빠진 민생과 통치배들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참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직 벼슬하는 몸도 아니었으나 리이첨일파의 그릇된 행위를 날카롭게 폭로한 상소문을 올리였다. 이로 말미암아 윤선도는 집권파관리들의 미움을 사서 함경도 경원으로 류배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이로써 그의 파란많은 정계생활이 시작되었다. 윤선도는 벼슬살이를 하는 전기간에 자기의 고지식하고 대바른 성미로 하여 반대파의 터무니없는 모해를 입군하였는데 이로하여 경원에서의 1차 류배생활 후에도 두차례나 류배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처럼 반대파들의 시끄러운 시비중상을 피해 산수간에 외로이 노니는 고독한 심회를 간곡한 서정으로 노래하는데는 풍부한 표현력과 깊은 서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말 시가인 시조외에 그 어떤 다른 형식도 대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윤선도의 시조문학세계에는 작가자신의 세계관과 생활태도의 긍부정면이 그대로 비껴있다. 그는 자기의 창작에서 봉건사회의 어지러운 정치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고 어떠한 시비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갈 의지도 표방했지만 보다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산수속에서 깨끗이 살아가는 자기의 청렴한 생활을 옹호했고 그러한 생활에서 얻은 즐거움을 많이 노래하였다. 이것은 반동적통치배들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타매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무관심을 표시했던 그의 생활태도와 직접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사회정치적주제의 작품을 별로 남기지 못하였으며 날로 높아가고 있던 인민들의 반봉건적 지향도 작품에 옹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선도의 시조작품들에는 작가의 고상한 인품과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지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생활에 대한 열정으로 하여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과 애국적인 서정이 차넘치고 있다. 특히 그는 애국심을 지니고 당시 량반사대부들이 천시하던 국어시가를 적극적으로 창작하였으며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에 립각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서정시가형식인 시조문학의 발전에 아낌없는 정력을 바치였다.

윤선도는 원래 왕자를 가르치는 사부의 책임을 맡았던 경력이 있어 유교경

전에도 정통하고 천문, 지리, 의학, 음악 등 여러 분야의 학문에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시문에 또한 밝아 적지 않은 한시와 다양한 산문작품들도 창작하여 문집을 남기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 문학사에서 윤선도가 이룩해 놓은 가장 중요한 공적은 시조문학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린 것이다.

윤선도는 음악예술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으로 하여 음률을 전제로 하는 시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 당시 고루한 량반 선비들은 음악을 접잡은 량반들이 가까이 할 것이 못된다고 간주하고 있었으나 윤선도는 류배지에 가있는 기간에도 언제나 현금과 노래를 즐기었다. 언젠가 한번은 조동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지나치게 즐기는 윤선도에게 충고를 주자 그는 배우는자에게 음악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답조룡주별폭》에서 음악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만약 늘 가무를 즐기어 음란한데 빠진다고 하면서 그것을 폐한다면 목이 벤다고 밥을 안먹고 국에 덴다고 양념까지 안먹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좋은 음악을 조용히 청취하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음미하며 노래하되 음란하지 않고 처량하되 상하지 않으며 조급하고 게으르지 않은 뜻을 얻으면 예나 지금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고산유고》 5권)

이처럼 그는 음악예술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해남에 있을 때에도 현금명수인 권해와 깊은 우정을 맺고 함께 음악을 논하면서 즐기었다 한다.

윤선도의 시조유산은 그의 문집 《고산유고》와 가첩에 실려 전하고 있다. 시문집인 《고산유고》 초판본은 1790(신해)년 6월에 정조가 전라감사 서유린에게 지시하여 편찬한 것인데 이것은 상, 하 두권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그 후 1798(병진)년 3월에 또 정조가 당시 전라감사로 있던 서정수를 보내여 윤

선도의 본가에 있던 옛 판본에서 잘못되었던 것을 고치고 빠졌던 것을 보충하여 전6권 6책으로 된 재판본을 간행하게 하였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 재판본이다.

《고산유고》 제1권에는 5언 및 7언절구와 고시체로 된 한시가 들어있고 2권부터 5권에는 상소문, 편지, 제문, 축문, 서, 기 등 여러가지 형태의 산문들이 들어있다. 제6권은 상, 하 두편으로 되어있는데 상별집부에는 시, 부, 론, 책, 표전 등이 실려있고 하별집부에는 시조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홍우원이 쓴 윤선도의 전기가 부록으로 실려있다.

가첩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윤선도의 본가에 보관되어 전하는것인데 이것은 윤선도가 자필로 쓴 순 국문으로 된 시조집이라고 한다. 이 가첩은 《산중신곡》과 《금쇄동집고》라는 표제를 단 각각 2첩으로 되어있는 시조집이다. 《산중신곡》으로 표제를 단 가첩에는 《만홍》, 《조무요》, 《하우요》, 《일모요》, 《야심요》, 《기세탄》, 《오우가》, 《고금영》 등 각편 도합 19수의 시조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금쇄동집고》라는 표제를 단 가첩에는 《중반금》, 《추야조》, 《춘효음》 등 3수의 시조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한시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품의 창작년대가 밝혀져있기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크다. 이 두 첩의 시조집은 문집에 비해 볼 때 시조작품들을 순 국문으로 표기해 놓았다는데 특색이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 현재 문집과 가첩에 전하는 윤선도의 시조작품으로는 《일모요》, 《야심요》 등 35수와 련시조 《어부사시사》 1편이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어부사시사》의 매 편을 한수씩 계산하여 그에게 시조 75수가 있다고도 하나 대비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고산의 시조문학은 그 가치와 의의를 결코 수량으로 계산할 수 없다. 우리 시가사에서 윤선도의 창작이 가지는 주되는 가치와 의의는 정력적인 시적탐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매 작품들의 높은 예술성과 작가적개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윤선도의 시조작품들은 사상적내용의 견지에서 볼 때 현실부정의 립장과

은일적경향이 관통되어있다. 이것을 통하여 윤선도의 사상과 창작의 긍정면과 부정면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즉 당쟁으로 어지러워진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립장과 소란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연속에서 근심걱정없이 한가로이 지내려는 현실도피적인 생활태도가 그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인의 초기작품인 《시름의 노래(견회요)》로부터 말기작품인 《어부사시사》에 이르기까지 그의 창작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나타났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닭고닭을 뿐이언덩
 그 밖의 녀남은 일이야 분별할줄 이시라
 (《시름의 노래》중에서)

물가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하고
 배 매여라 배 매여라
 머흔 구름 한치 말아 세상을 가리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파랑성을 엮치 말아 진환을 막난도다
 (《어부사시사》중에서)

* (《정철 박인로 윤선도 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년. 이하 작품출처는 같음.)

보는것처럼 노래들에서는 당파싸움의 소란스러운 시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옳다고 믿는것은 굽히지 않고 해나가려는 정신상태와 복잡한 현실을 멀리하려는 피동적인 립장이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그의 시조작품들에 반영되어있는 이러한 사상적경향은 이전시기 다른 량반유학자들이 지은 은일시가 작품들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서 윤선도의 시조문학의 가치와 의의를 별로 더해주는 것은 없다.

윤선도의 시조문학에 나타나고있는 보다 중요한 개성과 그 가치는 작가의

사상과 생활체험을 자연환경에 대한 생동한 시적묘사와 정서적으로 밀착시켜 깊이있게 노래한 서정의 진실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것이 필요하다.》

시의 서정은 감정과 사상적인 지향이 결합된 형상적사유의 산물이다. 때문에 시창작에서 서정의 진실성을 보장하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인의 사상적지향과 정서를 잘 밀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윤선도의 경우에는 시인의 사상과 생활체험이 자연환경에 대한 정서적인 묘사를 통하여 직접 흘러나오고있다. 이러한 특성은 벌써 그의 초기 창작인 《시름의 노래》(1618)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츄성 진호루밖에 울어네난 더 시내야
무슴호리라 주야에 흐르난다
님 향한 내 뜰을 좇아 그칠뉘를 모로나다
(《시름의 노래》 제3수)

피한 길고길고 물은 멀고멀고
어버이 그린 뜰은 많고많고 하고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난 울고울고 가나니
(《시름의 노래》 제4수)

머나먼 북방류배지에서의 체험을 읊은 이 노래에서는 시인의 나라 위한 충정과 부모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진호루밖에 주절대며 흘러가는 시내물과 멀리 뻗어간 산밭우로 울며 날아가는 외기러기에 대한 시적묘사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다. 《주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내물》과 《높은 산밭우로 울며 날아가는 기러기》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대하군 하는 평범한 자연

현상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평범한 자연현상에도 자기의 감정을 담을 줄 알았고 그를 통해 사상을 말하려고 하였다. 시의 감화력은 바로 정서적으로 포착된 시적대상을 통하여 사상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때 생기는 것이다. 윤선도의 시조작품들이 다른 유학자들의 시조작품들에 비해 오랜 세월을 두고 시적감흥을 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처럼 시인의 사상과 체험이 짙은 정서를 통하여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시조창작에서 윤선도의 이러한 작가적개성은 《다섯개의 노래(오우가)》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시인이 55살때인 1642(임오)년에 영덕류배지에서 석방되어 금쇄동에서 은거생활을 할 때 지은 것이다. 작품은 도합 6수로 되어있는데 산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시인의 가장 가까운 《벗》인 물과 바위, 소나무, 참대, 달 등 다섯가지의 자연풍물을 노래한 일종의 자연풍물시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한 풍물시가 아니라 시인자신의 인생관과 사상적립장을 심오하게 일반화한 형상성이 강한 작품으로서 자연에 대한 정서적묘사를 통하여 사상을 말할 줄 아는 윤선도의 작가적개성을 뚜렷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야 머엇하리

이것은 작품의 머리시에 해당한다. 시인은 여기에서 물, 바위, 소나무, 참대, 달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벗임을 노래하면서 이것외에는 더 다른것을 꼽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다섯가지에 자기의 리상이 다 담겨있음을 암시하고있다. 계속하여 시인은 이 다섯벗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각각 한수의 시조에 담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구름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소래 맑다하나 그칠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출늬 없기는 틀뿐인가 하노라
...
더우면 곳피고 치우면 낚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에 불희 끈은 줄을 글로하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것이 풀도 아닌것이
곶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였는다
더렁고 사시에 프르니 그를 도아하노라

작은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취니
밤둥의 광명이 너만한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벌인가 하노라

보는것처럼 이 노래들에서는 매개 대상의 자연적속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도 그것을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노래함으로써 자연 그자체의 속성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리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시에서 묘사된 매개 풍물의 속성은 그대로 인간생활의 심오한 교훈을 이야기하고있다. 즉 낮과 밤 이 따로없이 그칠줄 모르고 흐르는 시내물은 무슨 일에서나 게으르지 않고 꾸준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온갖 자연의 변화속에서도 변태를 모르고 자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바위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심을 모르는 신념을, 또한 모진 눈서리속에서도 푸르른 기상을 버리지 않는 소나무는 인간의 강의한 의지를,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언제나 곱음을 버리지 않는 참대는 인간의 굳은 절개를, 밤하늘에 높이 떠서 온 천지를 비치는 달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남의 일에 끼여들어 시비를 하지 않는 넓은 도량과 소박함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형상에 구현된 인간의 품모는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통하여 시인 자신이 체득한 생활의 교훈이며 미학적리상이기도 하였다. 윤선도는 이 작품을 경상도 영덕에서의 두번째 류배생활에서 풀려나온지 3년만에 지었는데 이때는 그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황혼기에 들어선 시기였다. 때문에 그는 이 작품에서 자기의 인생체험을 총화지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윤선도는 이 《다섯벗의 노래》에서 자기의 정치적 리해관계에 따라 지조 없이 신의를 저버리는자들에 대한 증오를 표시했으며 옳은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위협과 유혹에도 굽히지 않는 곧은 절개와 굳센 의지를 찬양하였다. 그리고 빈말공부에 그치지 않고 한생을 꾸준하고 실속있게 수양하는 고상한 인격과 말없이 만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넓은 도량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였다. 실로 《다섯벗의 노래》는 시인 윤선도의 고상한 인생관의 시적일반화이며 자연과 인간생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사색의 예술적 구현이었다.

자연에 대한 정서적묘사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한 윤선도의 시창작적개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것은 서경묘사에서의 시인의 뛰어난 감각과 기교문제이다. 왜냐하면 그의 시에서의 서정의 진실성은 자연과 사물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면서도 살아숨쉬는것과 같이 생동하게 그려내는 서경묘사의 기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바와 같이 윤선도는 중세기에 있어서 보기 드문 서경시의 능수였다. 그의 시조작품들은 《아침안개의 노래(조무요)》, 《장마비의 노래(하우요)》, 《봄새벽의 노래(춘효음)》 등의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몇수를 내놓고는 다 서경시이다. 이것은 정치적반대파들의 비난을 피해 산수속에 은거하여 많은 기간을 보내야 했던 윤선도의 생활경로와도 관계되지만 보다는 남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인간의 심미를 느낄줄 알았던 그의 시인적 개성과 많이 관련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윤선도의 작품에서 서경묘사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생동한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작품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수 있는데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월출산이 높더니마난 미운것이 안개로다
련왕 데일봉을 일시에 가리와다
...

(《아침안개의 노래》중에서)

...
앞에는 물빛이 유리같고
뒤에는 겹겹이 옥산이라
...

(《어부사시사》중에서)

보는바와 같이 윤선도의 시조에서는 시적대상을 매우 간결하면서도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극히 작은 용적으로 많은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조형식의 특성에 맞게 시적대상가운데서 전형적인 세부를 정확히 포착하여 그리려고 노력한 시인의 남다른 탐구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은 마치도 화가가 인물속사를 할 때 인상특징을 살리는데 력점을 찍고 기타는 대담하게 생략하는 수법과 비슷하다. 이러한 기교는 단순한 노력으로써만 해결되는것이 아니며 깊은 탐구와 열정이 안받침될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다. 그만큼 윤선도는 시조의 한글자, 한구절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것을 정히 다듬었다.

윤선도의 시조작품들에서 서경묘사의 간결성과 생동성은 그자체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심오한 사상감정과 정확히 밀착되어있었다는데 있다. 윤선도는 시가의 인식교양적의의에 대하여 《시란 ...읽어서 교양에 리로워야 하고 인정물태를 말한것은 보아서 식견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옳은 견해를 가지고있었으며 창작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시인이었다. 때문에 그의 시조는 항상 자연 그자체를 생동하게 그려내는

데 머무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데 바
쳐졌다.

꽃은 무스 일로 퀴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하야 프르난트 누르나니
아마도 변티 아닐산 바희뿐인가 하노라

이 노래에서는 시적대상인 꽃, 풀, 바위가 마치도 따스한 인정미를 지닌 존
재처럼 정답고 소중하게 안겨온다. 이것은 시인이 그 《딱딱하고 무감각한》
바위와 같은 시적대상에도 인간의 감정을 결부시킬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처
럼 윤선도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마치도 한쪽의 풍경화처럼 생동하게
그려내면서도 거기에 인간의 숨결과 지향이 약동하게 하였다. 바로 여기에 시
인으로서 윤선도의 자질과 능력이 있으며 그의 시문학의 개성적면모와 가치
가 있다.

윤선도의 시조작품들에 나타나고있는 다른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민족적색
채와 향취가 강하게 풍기는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의 작품들의 소재와 시적
묘사, 시어 등 내용과 형식의 량면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 윤선도에게서는
다른 시조시인들에게서는 느낄수 없는 민족적인것에 대한 열렬한 애착과 민
족적인것에서 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즐겨 노래하군 한 남다른 개성을 볼수 있
다. 그는 자기의 작품에서 《련잎에 밥 싸두고 갈대꽃 불붙여서》 낚은 고기
를 구워먹기도 하고 《배전을 두드리며》 민요 《배따라기》를 불러보기도
하는, 또 《옥토끼 찢는 약을 토객에게 먹인》다는 향토전설을 즐겨 이야기
하는 서정적주인공(《어부사시사》)을 형상하였으며 누룩으로 빚은 술과 양
념을 잘한 토장국을 무엇보다 좋아하는(《잔치시작의 노래-초연곡》) 민족
적인 성격과 향취를 노래하였다. 그는 또한 조국의 자연과 우리 민족의 소박
한 풍속세태를 깊은 애착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작품에 소중히 담아
보려고 애쓴 시인이였다. 특히 윤선도는 소박하고 근면한 인민들의 생활에 접

근하여 그들의 취미와 습관, 생활방식을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작품에 진실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때문에 그의 시조를 읽어가느라하면 당대 농민들의 생활체취가 아무런 꾸밈도 없이 그대로 안겨오는것을 느낄수 있다.

비오난대 들희가라 사립닫고 소먹여라
마이 매양이라 잠기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사래 긴 발 갈아라
(《장마비의 노래》)

석양 넘은 후에 산기는 도다마는
황혼이 가까오니 물색이 어둡난다
아해야 범 뜨셔온대 나단니디 말아라
(《저물녘의 노래(일모요)》)

보는것처럼 이 시조들에서는 부지런하고 순박한 산골농민들의 생활정서가 그대로 안겨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그의 시조작품들 가운데는 《홍년 든 해의 탄식(기세탄)》과 같이 환자를 타서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들의 가난한 생활에 깊은 동정을 표시한 작품도 있다.

환자 타 산다하고 그를사 그르다하니
이제의 높은 줄을 이렇구러 알판디고
어즈버 사람이야 외랴 해운의 탓이로다

윤선도의 시조에서 민족적색채가 강한것은 또한 시어구사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지난 시기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윤선도는 시조창작에서 누구보다 고유조선어를 많이 쓴 시인이였으며 우리 말의 감칠맛을 섬세하게 살려쓴 조선어구사의 명수였다. 우리의 시가문학사를 돌이켜보면 시조

는 고유한 민족시가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어구사에서 한자어휘가 적지 않게
 람용되어왔다. 어떤 작품들인 경우에는 그것이 한시에 토를 단것인지 시조인
 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도 있었다. 특히 그것은 17세기이전 시조작가의
 기본구성이 량반유학자들이었던 시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리고 17세기이후에
 도 량반유학자들의 시조에서는 이러한 폐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
 은 당시 량반유학자들속에서 범람하였던 유교의 성리학과 한문숭배의 사대주
 의적풍조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윤선도는 시조를 창작함에 있어서 어디
 까지나 고유조선어를 살려쓰려고 노력하였다.

우는거시 벽구긴가 푸른거시 버들숨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 두어집이 내속에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한 기픈 쇠희 온간 고기 뛰노나다
 (《어부사시사》중에서)

보리밥 푼나말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회긋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른 녀남은 일이야 부랄줄이 이시라
 (《느낀대로》중에서)

바람 분다 지게 다다라 밤 들거다 불앗아라
 벼개예 히즈려 슬카지 쉬여보자
 아해야 새야오거든 내 잠 와 깨와스라
 (《깊은 밤의 노래(야심요)》중에서)

보는것처럼 윤선도의 시조들은 《푼나말(푼나물)》, 《슬카지(실컷)》, 《부
 랄줄이(부러울줄이)》, 《히즈려(기대여)》, 《불앗아라(불을 끄거라)》, 《새
 야오거든 (밝아오거든)》 등과 같이 인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고유

한 조선어를 적극 살려쓰고있다. 뿐만아니라 그의 시조에서는 고유한 우리 말을 예술적으로 잘 세련시켜 그의 언어적효과를 최대로 발양시킨 우수한 경험을 찾아볼수 있다. 가령 《우는거시 벽구긴가 푸른거시 버들습가》에서 《버들습가》는 《버들숲인가》의 준말로서 시구의 운률미를 살려주는 역할을 높고있다. 《부랄줄이》도 역시 《부러울줄이》의 준말로서 같은 경우이다. 그런가 하면 《피한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뜰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와 같이 반복과 대조의 수법으로 예술적효과성을 높인 실례도 있다. 이처럼 윤선도는 언어구사에서 고유조선어를 적극 살려쓰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세련시킴으로써 시조의 형상창조에서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려낸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였다. 시어구사에서 윤선도의 성과와 경험은 가사창작에서 정철이 이룩한 경험과 함께 이후시기 시조를 비롯한 국문문학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18세기에 활동한 재능있는 시조시인인 로가재 김수장이 자기가 편찬한 《해동가요》에 윤선도의 작품을 올리면서 《이 늙은이의 창법은 때를 벗어 맑고 아름다우니 내가 이것을 보건대 오르기 어려운 높은 봉우리와 같이 우뚝하다》고 높이 평가한것은 바로 윤선도의 창작적경험이 후세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되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윤선도의 시조는 시가양식의 면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침안개의 노래》, 《저물녘의 노래》, 《흥년든 해의 탄식》, 《깊은 밤의 노래》, 《봄새벽의 노래》, 《가을밤의 노래》, 《낮은 가야금의 노래》와 같이 한수로 된 평시조양식의 작품도 지었으나 보다는 하나의 표제밑에 여러수의 평시조를 잇대여짓는 련시조양식을 주로 리용하였다. 《다섯번의 노래》(6수), 《느낀대로》(6수), 《장마비의 노래》(2수), 《잔치시작의 노래》(2수), 《잔치끝냄의 노래》(2수), 《꿈하늘의 노래》(3수), 《시름의 노래》(5수), 《어부사시사》(40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침안개의 노래》나 《저물녘의 노래》같이 개별적인 표제아래 한수로 지은 작품도 총체적으로는 《산중신곡》과 《산중속신곡》이라는 큰 표제안에 묶여져 있는것만

큼 이것들 역시 련시조양식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결국 그의 시조작품들은 다 련시조양식으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시조작가들에게서 거의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윤선도의 시조의 독특한 양식적특성과 창작적개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련시조양식을 처음으로 개척했던 맹사성이나 그후의 리이, 리현보, 권호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선도가 시조창작에서 련시조양식을 리용한것은 생활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려는 미학적요구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미 언급한것처럼 윤선도는 누구보다도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노래한 시인이었다. 그는 다른 시인들처럼 생활과정에 있었던 이리저리한 사말사를 즉흥적으로 노래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시조는 곧 생활의 거울이었으며 길동무였다. 때문에 그는 시의 소재를 선택하는 일로부터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심오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는 때로는 하나의 소재를 통하여 많은것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또 때로는 여러개의 소재를 통하여 하나를 말하려고도 했다. 이러한 윤선도에게 있어서 시조의 양식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는 양식을 택해야 했다. 이런데로부터 그는 련시조양식에 주로 의거하게 되었다고 본다. 윤선도에게 있어서 련시조양식은 맹사성이나 리현보, 리이의 경우와 같이 노래하려고 하는 대상 즉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만 설정된것이 아니였다. 가령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계절을 노래해야 했으므로 4수로 지었고 리이의 《고산구곡가》는 해주 고산의 9개 계곡을 노래해야 했으므로 머리시까지 10수로 지었다. 그러나 윤선도가 련시조양식을 택하게 된것은 이 경우와는 달리 작가의 미학적리상을 보다 심오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부터 주동적으로 설정한 것이였다. 따라서 윤선도에게 있어서 련시조양식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가의 예술적탐구정신과 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련시조양식의 진정한 본보기를 창조한 시조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윤선도의 시조작품가운데서 《어부사시사》는 시조작가로서의 그의 창작적개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작이며 총화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인이 64살되던 해인 1651(신묘)년 가을에 창작한것인데 시조작품으로는 그의 창작에서 마지막 두번째로 지은것이다. 윤선도는 이 《어부사시사》를 끝낸 다음해인 1652(임진)년에 마지막 시조작품으로 《꿈하늘의 노래》(3수)를 지었으나 이것은 그 높이에 있어서 《어부사시사》에 비하지 못한다. 《어부사시사》는 그 규모나 사상예술적성과에 있어서 윤선도의 창작적능력이 집대성된 작품으로서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결정해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작품은 시인이 1649년에 새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벼슬을 사퇴하고 다시 보길도 부용동에 들어가 강호생활을 하던 시기에 지은것인데 그 창작동기에 대하여 작품의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옛날 우리 나라에 〈어부사〉가 있었다. 어느때 누가 지은것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사람의 시들을 모아 노래를 만든것이다. 이를 읽으면 마치도 산뜻한 강바람과 시원한 바다비가 입안에서 나오는듯 문득 몸이 가벼워지며 세속을 잊고 그 어떤 별천지에서 홀로 노는것만 같았다.

그러므로 룡암선생은 이 〈어부사〉를 언제나 좋아하였고 퇴계선생 또한 감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음조가 어울리지 않고 그 뜻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이는 대개 옛시들을 모아 맞춘것이기때문에 부자연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보태고 또 알기 쉬운 우리 말(리어)을 써서 〈어부사〉를 개작하여 춘, 하, 추, 동 사계절을 각각 1편으로 하고 또 매 편을 10장씩으로 하였다. 그 곡조와 음률에 있어서는 내가 감히 스스로 론할 수 없으며 더우기 강호의 어부생활에 대해서는 잘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맑은 강, 넓은 호수에 쪽배를 타고 한가히 놀 때 소리를 어울려 이를 부르며 서로 노래 저으면 이 또한 유쾌하지 않겠는가. 후세 강호의 은사들도 나의 이 마음과 서로 맞아 백천년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 감흥이 통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단정하라. 신묘년 9월에 부용동 고기뉘는 늙은이는 세연정의 락기란아래 배우에서 이 글을 써서 아이들에게 보인다.》

이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윤선도는 《어부사시사》를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어부사》에 기초하여 지었다. 그러나 윤선도는 이 작품을 단순히 과거의 《어부사》를 개작하는 방법으로 지은것이 아니라 본래 작품의 주제 사상에 기초하면서도 자기식의 《어부생활》을 새롭게 탐구하고 구성과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을 민족적인것으로 재창조하였다.

윤선도 자신이 작품의 발문에서 지적한것처럼 그는 리현보나 리황이 개작한 《어부사》는 《옛시들을 모아 맞춘것》이기때문에 《음조가 어울리지 않고 뜻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사실상 리현보가 《어부가》를 지을 때도 옛 《어부가》에서 불만을 느끼고 그것을 자기 식으로 고쳐보려고 하였던것은 사실이였으나 그때까지도 아직 한시작품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윤선도는 거기에서도 다시 불만을 느끼고 완전히 자기식의 《신곡》- 《어부사시사》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어부사시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의 시가형식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기에 이 작품을 혹은 련시조로 혹은 가사로 취급하기도 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시학적전지에서 볼 때 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자신도 이것을 《단가》나 《장가》라고 따로 밝혀두지 않았고 그저 《〈어부가〉를 개작하여 춘, 하, 추, 동 4계절을 각각 1편으로 하고 매 편을 10장으로》맞추었다고 하였을뿐이다. 리현보의 경우에는 과거의 《어부가》를 개작하여 《단가 5결을 지었다》고 밝혀둠으로써 5장으로 된 어부가는 단가 즉 시조였음을 명백히 알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당시의 관념대로 한다면 이 작품은 장가 즉 가사라고 볼수 있겠으나 또 《청구영언》이나 《해동가요》에서는 이 작품의 매편을 시조로 수록하고(이때에는 매 분절에서 조흥구를 빼버렸다.)있는 조건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는 이것을 단정하기 어렵다. 어떤 연구자들은 《고산유고》에서 《여음(끝맺는 노래)》이라고 하고 《산중신곡》중 《만홍(느낀대로)》의 마지막편(제6수)을 다시 올리면서 《…(이를) 어부사여음으로 하였다.》고 한 자료를 근거로 《어부

사시사》는 가사창으로 불렸는데 긴 노래를 한가지로만 부르기가 단조로웠으므로 여음 즉 단가형식도 섞어 부르는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가곡은 고려때부터 시작하여 당시까지 내려오면서 참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때문에 이렇게만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우리가 보건대 이 작품을 시학적견지에서 판별한다면 련시조로 보는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그것은 우선 가사는 무분절 장가형식인데 《어부사시사》는 분절로 나뉘어져있고 매 분절이 시조에서처럼 3분단구성원칙이 적용되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정읍사》나 《동동》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분절로 되어있는것이 곧 시조로 되는 근거는 아니지만 이 노래는 매 분절이 시조에서와 같이 함축된 3행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분절마다 《베세여라 베세여라》와 같은 조흥구가 삽입된것은 전통적인 《어부사》의 관례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시조로 보는데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어부사시사》를 시조로 보게 되는것은 3행으로 되어있는 분절의 기본내용에서 대체로 1행과 2행은 시적환경을 노래하고 3행은 시인의 생활적지향 즉 사상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조의 서정구조적 논리와 일치한다.

또한 《어부사시사》를 시조로 보게 되는 이유는 시와 음률에 정통하고 있던 김천택이나 김수장이 이 작품을 시조로 취급한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여 김천택과 김수장은 《어부사시사》의 시적구조가 시조창으로 부를수 있게 되어있기때문에 《청구영언》과 《해동가요》에 다른 시조작품들과 나란히 올렸다고 본다. 이밖에도 윤선도자신이 이 노래의 매편을 10장으로 구분한 사실과 기타 운률문제를 비롯하여 좀 더 논의할 문제들이 있지만 이상의 조건만으로도 《어부사시사》를 시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부사시사》는 그 내용의 견지에서 볼 때 4계절이 바뀌는 자연환경속에서 배를 띄워 바다나 강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어부의 생활체험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기본정서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근로하는 어부의 생활정서가 아니라 소란스러운 현실에서 시원히 벗어나 외딴 바다가에서 한적하게 살아가는 《강호은사》의 생활정서이다. 윤선도 자신이 작품의 발문에서 《더우기 강호의 어부생활에 대해서는 잘 표현되었다고 말할수 없으나 맑은 강, 넓은 호수에서 쪽배를 타고 한가히 놀 때 소리를 어울려 이를 부르며 서로 노를 저으면 이 또한 유쾌하지 않겠는가》고 한 것처럼 이 노래는 어디까지나 정계를 떠난 량반선비의 은일적생활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앞개에 안개 걷고 뒷피에 해 비친다
 배 떠라 배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낮물이 밀어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 온갖 곳이 먼빛이 더욱 도다

날이 덥도다 물우회 고기 떴다
 닻들여라 닻들여라
 갈머기 둘씩셋씩 오락가락 하나고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낮대는 쥐여있다 탁주병 실었나냐

동풍이 건듯 부니 물결이 고이닌다
 돛 달아라 돛 달아라
 동호를 돌아보며 서호로 가자스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앞피히 지나가고 뒤피히 나아온다

... ..

고운 별이 쪼였난대 물결이 기름같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두라 낚시를 놓을일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탁영가에 흥이 나서 고기도 잊을로다

석양이 빗겨시니 그만하야 돌아가자
돛지어라 돛지어라
안류덩화난 고비고비 새롭고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삼공을 불리소냐 만사를 생각하라

이것은 노래의 《봄》편의 일부인데 작품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1편씩하고 매편을 각각 10수(장)의 시조로 묶어 도합 40수의 편시조를 이루고있다. 그리고 매수의 1행과 2행, 2행과 3행사이에 《배 떠라 배 떠라》, 《닷 들어라 닷 들어라》, 《돛 달아라 돛 달아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와 같은 조흥구- 먹임소리를 반복하여 삽입해주고 있다.

노래에서는 철마다 모양을 바꾸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바다가의 자연에서 고기잡이의 흥을 이기지 못하는 《어옹- 고기잡이할아버지》의 즐거운 생활 감정을 아름다운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작품의 서정적 주인공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어부가〉에 흥이나서 고기잡이도 잊》는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3정승의 생활보다도 낫다고 여기는 은일처사이다. 때문에 이 노래에서는 전편을 통하여 량반선비들의 은일 사상이 시종 강조되고 있다. 가령 여름편의 마지막 수에서 《고기잡이 한가하냐 이것이 구실이라》고 한것과 가을편의 첫수에서 《세상밖에 좋은 일이 어부생애 아니러냐》라고 어부의 생활을 세상에 더없이 좋은것으로 미화한것은 그러한 실례이다. 실제상에 있어서 과거에 근로하는 어부들의 생활이란 참으로 고달프고 비참한 것이었다.

어이여라 배 띄워라
우리 인생 죽어지면
모든것이 허사로다
어기여차 배 띄워라
호의호식 못해보고
수중에서 성장하여
수중으로 다니기는
륙지같이 다니면서
해중풍파 다 겪다가
아차실수 하게 되면
고기밥을 면할소나
...

우리 팔자 기구해서
어부몸이 되었구나
이놈 팔자 기박하여
정처없이 다니다가
아차 실수 하고보면
부모형제 못보고서
수중혼이 되나보다
어아디야 어아디야
...

* (《어부노래》. 《가요집》1, 문예출판사, 1983년)

이 노래는 근로하는 어부들의 생활을 반영한 민요인데 보는것처럼 여기에서 어부들의 생활이 그야말로 사자밥을 지고 만경창파에 정처없이 몸을 던진 가없는 인생으로 묘사되고있다. 이것은 같은 어부의 생활을 노래했다고 해도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에 따라 시의 정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것을 말해준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봉건사회에서 량반선비들이 유교적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높은 벼슬이나 사치한 생활을 멀리하고 산수나 전원애 은거

하여 《청렴》하게 사는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른바 전원취미를 형상적으로 구현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전원취미를 노래한 《어부가》는 이미 고려시기부터 량반선비들속에서 유행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때의 시인인 리제현(1287-1367)의 문집 《익재집》 4권에 실린 어느한 시작품의 주석부분에 《본관이 취하면 매번 기생더러 〈어부가〉를 노래부르게 하였다.》고 쓴것과 17세기의 학자인 리수광이 《지봉류설》에서 《장가로서는 〈감군은〉, 〈한림별곡〉, 〈어부가〉가 가장 오래다.》라고 지적한 사실 등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16세기에 활동한 리현보(1467-1555)와 리황(1501-1570)도 《어부가》가 이미전부터 전해오던것이며 그것을 개작하여 새로운 《어부가》를 지었다는것을 밝히었다. 중세기에 량반선비들속에서 유행되어오던 《어부가》는 시대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에서 일련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정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량반들의 전원취미를 노래한데 지나지 않았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도 여기서 레외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선행한 노래들에 비하여 시적서정의 참신성과 진실성 그리고 예술적 형상수법에 있어서 대비도 할수 없는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부사시사》는 어부의 생활을 노래함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근로하는 인민의 생활정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여도 어부생활자체를 매우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시적정서의 진실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만류록음 어된 고대 일편태기 기특하다
 이어라 이어라
 다리에 다단거든 어인쟁도 허물 마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학발로용 만나거던 퇴택양거 효측하자

(《여름편》중에서)

은순옥척이 몇이나 걸렀나니
이어라 이어라
로화에 불붙어 갈해야 구워놓고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덜병을 거후리여 박구기에 브어다고

(《가을편》중에서)

이처럼 시는 시인 자신이 일상적으로 직접 체험한 사실 그리고 직접 보고 듣고 느낀것을 아무런 과장도 없이 그대로 노래하였기때문에 서정이 매우 진실하다. 특히 이 시를 읽어가느라면 서정적주인공이 량반선비가 아니라 마치 진짜 근로하는 어부인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어부들의 바다생활이 그대로 안겨온다. 이것은 시인이 거의 한생을 어촌에서 지내면서 인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생활방식과 취미, 기분, 언어 등을 잘 알게 되고 그 영향을 직접 받은것과 관련되어있다.

《어부사시사》는 작가의 시조문학전체에서 발견되고있는 뛰어난 서경묘사의 솜씨와 조선말의 표현적효과를 놀라울 정도로 살려쓴 우수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아주 예리한 관찰에 의하여 조국의 해변가 자연풍경의 정수를 포착하여 그려냈으며 비유와 반복, 대조, 반문 등의 시적 수사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그 형상의 생동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윤선도는 홍우원이 그의 시를 평가하여 《선배 시인들의 낡은 수법을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인 새 경지를 창조했다.》고 정당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당시 량반사대부들이 시가창작에서 도식주의에 빠져있을 때 부단한 창조적탐구와 사색으로 시조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우리 시가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시조작품인 《꿈하늘의 노래》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바와 같이 윤선도는 자기의 창작에서 봉건유교적인 세계관의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로하여 그의 시조는 봉건사회의 기본모순을 정확히 들추어내지 못하였으며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옹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선도의 시조창작과 창작적경험은 우리 시가사에서 지울수 없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는 시조시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조국의 자연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려냈으며 시조의 생활반영에서 심오성을 보장하고 인민적입말로 시의 언어를 창조함으로써 시조문학창작에서 오래동안 남아있던 한자어휘의 랍용을 없애버리는데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놀았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아동지원 문제점

백 승 국

일본 도시사대학

1. 연구목적

현대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가정에만 머무르고, 낮은 수준의 종속적이던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남성들도 가사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손쉽게 가정 밖에서 해결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 내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개방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많은 문제들과 과거 인내해야만 했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부정, 가정폭력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가족해체 현상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40대 남성의 사망률도 세계적인 수위를 차지하면서 사별에 의한 여성 한부모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현상으로 등장한 새로운 가족유형이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성 한부모가족으로 불리게 된다(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 통계청(2011)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9.4%, 2005년 11%, 2010년 12.3%로 증가하였다. 이

들 중 80% 이상이 여성 한부모가족이며, 특히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형성 원인 중 사별이(29.7%), 이혼(32.8%), 미혼모/부가(11.6%)의 순으로 나타나 사별 외의 요인으로 인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혼·혈연·친족 중심의 핵가족, 가부장적 가치관과 부계중심 가족관계로 양부모를 전제한 공식적 가족제도,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보는 암묵적 시선, 사회생활에 따라다니는 낙인 등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성별역할분업의 존재 등은 여전히 여성 한부모가족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더라도 여성 한부모들은 경제적 빈곤 및 과중한 교육비 부담문제,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역할수행상의 혼란과 사회적 위축문제, 상실감이나 우울, 분노, 자존심의 저하 등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재혼문제,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등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사회의 부정적 편견 등으로 한부모가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도 정서적 문제와 친구관계, 학교생활에의 적응 등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권복순 2000; 김경신 2002; 김영희 1996; 옥선화·성미애·허정원 2001; 옥선화·성미애·이재림·이경희 2002; 장혜경 외 3인 2001; 차경옥 2003).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 한부모가족이 이혼이나 사별 후 적응해나가는데 있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모-자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여전히 이 사회가 여성 한부모가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장혜경·민가영 2002). 이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한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며, 단순히 한부모가족을 역기능적인 가족유형으로 간주하여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사별이나 이혼이 좌절이나 실패 등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성공이나 성취 혹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들

이 간과되어왔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에서의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그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려워 사회 최하위계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반가족에 비해 심리적인 복지수준도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있다(엄미선·전동일 2006). 그러므로 이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에 대해 이들이 생각하고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 내에서의 모-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지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여성 한부모가족의 복지현황 및 문제점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주택의 우선지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생업자금융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주로 절대 빈곤층인 요보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서비스도 몇몇 기관들에서만 제공되고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지역의 여성 한부모들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을 총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나 아직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양해경(2000)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위해 기타 사회 복지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센터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강기정·이무영·김영희 2002). 이에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2009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손병돈(2007)은 이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이혼 부부들을 위한 부부관계 교육, 이혼예방과 결과에 대한 교육, 이혼에 대한 조정 및 법률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 부모역할 및 자녀교육, 재혼에 대한 정보와 기회마련에 대한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장혜경·민가영(2002)도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양육비 관련 법 조항을 마련하고, 구직활동이나 자녀학비 지원 및 임대주택 보급, 상담과 부모교육, 양부모 중심의 학교활동 개선 등을 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법을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정책과제로 남겨져 있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8.8%로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옥선화(2003), 장혜경 외 3인(2001)의 심층면접 조사결과에서 여성 한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문제이며, 특히 교육비 부족과 학습지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계 주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변화순·송다영·김영란(2000)도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일반가구의 49.1%에 불과하며, 이중 생계비 지출은 18%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출은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정책 비교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공공지출 중 가족급여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금, 서비스, 조세수단을 통해 가족급여형태로 제공되는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것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공공지출 중 가족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8%)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0.3%)으로 약 1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공지출을 통해 가족이 빈곤에 처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가족정책 지표들 (단위: %, 일)

| 국가명 | 가족급여 (GDP대비) | 출산 및 육아휴직 최대 휴가일 수 | 3세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 3~5세 아동의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 |
|------|-----------------|-----------------------|-----------------------|-------------------------|
| 호주 | 2.9 | 52.0 | 29.0 | 71.5 |
| 덴마크 | 3.2 | 50.0 | 61.7 | 89.7 |
| 핀란드 | 3.0 | 173.5 | 22.4 | 46.1 |
| 프랑스 | 3.8 | 159.0 | 26.0 | 101.9 |
| 독일 | 3.0 | 162.0 | 9.0 | 80.3 |
| 일본 | 1.3 | 58.0 | 15.2 | 86.4 |
| 한국 | 0.3 | 67.0 | 19.9 | 60.9 |
| 네덜란드 | 2.3 | 29.0 | 29.5 | 70.2 |
| 스웨덴 | 3.2 | 84.0 | 39.5 | 86.6 |
| 영국 | 3.6 | 52.0 | 25.8 | 80.5 |
| 미국 | 1.3 | 12.0 | 29.5 | 62.0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05).

다음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생활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산 및 육아휴직의 최대급여를 비교해 본 결과, 휴가기간이 긴 국가는 핀란드(173.5일), 독일(162일), 프랑스(159일) 등 유럽 국가인 반면, 유급휴가기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미국(12일)으로 나타났다. 특히 핀란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성휴가도 8일로 긴 편이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만3세 미만의 영아의 존재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경력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비공식적인 보육 담당자가 없으

면 시장에서 얻는 소득에 자녀에 대한 교육비용이 역진적 조세의 역할을 하므로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거나 시간제 혹은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에 있어 가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만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독일과 일본, 한국에서 만3세 미만 자녀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나,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 육성의 관심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의무연령 시기에 접근할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프랑스에서 3~5세 아동의 경우 전적으로 유아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핀란드, 한국, 미국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 특히 핀란드와 한국은 동일한 연령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과소추정 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은 비공식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한부모가족정책 관련 요인의 비교 (단위: %)

| 국가 | 한부모가구 비율 |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구 비율 | 여성고용률 | 모의고용률 |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
|------|----------|-----------------|-------|-------|------------|
| 덴마크 | 5.1 | 18.2 | 54.6 | 77.0 | 6.8 |
| 스웨덴 | .. | 19.6 | 53.5 | 83.0 | 7.9 |
| 핀란드 | 7.6 | 23.0 | 51.3 | 76.0 | 13.7 |
| 프랑스 | 8.0 | 19.7 | 59.7 | 60.0 | 19.3 |
| 독일 | 5.9 | 18.1 | 55.5 | 55.0 | 41.5 |
| 미국 | 9.2 | 28.3 | 53.2 | 67.0 | 47.5 |
| 네덜란드 | 5.8 | 15.9 | 57.4 | 69.0 | 39.0 |
| 호주 | 5.8 | 20.7 | 55.7 | 63.0 | 38.3 |
| 일본 | 8.5 | 6.8 | 50.9 | 53.0 | 58.7 |
| 한국 | 9.4 | 12.7 | 56.4 | 51.6 | 26.7 |
| 영국 | 9.8 | 26.4 | 56.3 | 62.0 | 23.7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05).

〈표 3〉 한부모가족 비율과 자녀양육비 비교 (단위:US\$, %)

| 국가 | 한부모가족의 비율 | 자녀부양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 가구당 평균자녀부양비 | 아동1인당 평균 자녀부양비 | 순 가치분 소득대비 자녀부양비 | 총 이전소득 대비 자녀부양비 |
|-----|-----------|------------------|-------------|----------------|------------------|-----------------|
| 덴마크 | 15.7 | 98.8 | 197.0 | 131.6 | 9.2 | 26.3 |
| 스웨덴 | 21.9 | 100.0 | 196.2 | 128.0 | 10.1 | 28.3 |
| 핀란드 | 13.0 | 83.4 | 206.9 | 133.4 | 10.7 | 29.5 |
| 미국 | 21.5 | 33.7 | 502.2 | 333.3 | 19.4 | 53.3 |
| 호주 | 21.2 | 36.9 | 283.2 | 176.7 | 14.2 | 26.1 |
| 영국 | 24.6 | 22.8 | 416.3 | 295.7 | 16.9 | 32.6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05).

〈표 2〉에서는 25~44세 여성 고용률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50% 이상 60% 미만으로 나타난다. 프랑스가 59.7%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 영국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이 5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5~44세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어머니의 고용률은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즉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75%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50%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어머니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어머니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한국은 모성고용률이 낮은 반면에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역시 26%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OECD국가들에서 실제로 아동부양비를 받는 비사별 한부모가구는 50% 미만이다.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자녀부양비를 받는 가족의 비율은 낮은 반면,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낮은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자녀부양비를 받는 가족의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스웨덴은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자녀부양비를 받는 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부양비는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미흡한 미국과 영국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족수당 체계가 잘 갖춰진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한부모가족에서 자녀의 영향은 매우 크다. 먼저 한부모가족에서 아동의 존재는 가구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숙련도와 재직기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가구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빈곤에 처할 위험을 높인다. 다음으로 아동의 존재는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아동을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 등 자녀의 존재로 인한 경제적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이용우, 2006). 특히 부양자녀와 미취학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가구의 빈곤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 논의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국가별 가족정책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가족수당 등 보편적인 소득정책의 영향으로 일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일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의 빈곤 위험은 매우 높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각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족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양한 가족구조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실제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들은 다음의 3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한 빈곤의 위험에 직면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가 매우 미약하고, 어린 영아를 대신 양육해줄 비공식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노동시장 진입은 매우 어렵다.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고용보험 체계에서 운영되므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여성 한부모가족 정책의 과제

한국의 가족정책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일-가족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했는가 하면, 취학 전 자녀의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어린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공급은 매우 낮은 편이며 취학 전 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즉, 가족 이데올로기로는 전통적인 1인 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2인 소득/부양자 모델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선택은 가구 내 2인 소득자 중 한 명은 여전히 어린 영아에 대한 돌봄을 책임져야 하므로 파트타임 혹은 시간제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한부모가족이 처한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하다. 2007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19.0%로 양부모 가구의 빈곤율 5.3%의 거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남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13.7%)에 비하여,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20.7%)이 매우 높아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여성 한부모가구가 더욱 더 빈곤에 취약하다(고은주, 김진옥 2009).

4.1. 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적 이전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비(아동 1인당 월 5만 원)와 자녀학비(고등학생 대상 입학금 및 수업료)가 유일하다. 오히려 한부모가족이 빈곤해지면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공적이전액이 더 높다. 실제 2005년 기준 한부모가족은 1천5백만 가구로 이 중 0.8%만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과 국민기초수급 대상, 국가보훈대상으로 지원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따라서 대다수 한부모가족은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양육 사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며 언제든지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적 이전의 확대는 오히려 한부모가족의 형성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전소득은 한부모가족의 빈곤 확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의 공적이전 급여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주로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소득 역시 공적이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은주·김진욱 2009). 윤홍식(2004) 또한 결혼해체 유형과 관계없이 사적이전,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 사적이전의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컸음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공적이전에 비하여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크다는 국내 실증연구들의 결과보고가 나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은 먼저 사적 소득보장체계를 이용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최근 이혼률의 급증¹으로 가족간 이전에 의한 자녀양육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성립은 개인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혼 및 배우자가 있으나 가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7년 513건, 2008년 543건의 법률구조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 총 325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이러한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혼시 자녀양육에 대한 결정, 양육비 결정 책임, 양육비 강제 의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진 국가(주로 북유럽)에서는 양육 결정과 양육비 결정 책임은 상당 부분 부모에게 권한이 있다. 이때 양육비 결정 역시 대부분 재량권에 맡기지만 일반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조세혜택이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자녀양육결정이 부모의 권한이라고 해도 양육비 결정

1 한부모가족의 형성 원일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는 사별(52.2%)과 유배우자(30.0%)가 대부분인 반면 2005년에는 사별(36.6%)과 이혼(29.1%), 유배우(23.9%)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09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과 양육비 결정 규칙은 매우 엄격하게 지침을 정하고 있다. 영국을 제외한 이들 국가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조세혜택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사적 소득보장체계의 역할은 사실 제한적이다. 실제로 사적 소득보장체계가 발달한 국가 중 영국과 호주, 덴마크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미국은 사적소득 보장체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47.5%로 매우 높다. 오히려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잘 발달된 덴마크(6.8%)와 스웨덴(7.9%) 등 북유럽과 핀란드(13.7%)와 프랑스(19.3%) 등 유럽국가에서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네덜란드(39.0%)와 미국(47.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2〉 참고). 한부모가족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가족수당과 아동수당 등 공적소득 보장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모(母)의 고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3~5세 유아교육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들로 가족 정책의 하위영역이 고루 발달한 국가들이다. 한국 역시 민법에 의거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민법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협의이혼 한 경우 양육비 지급에 대한 규정은 법원에서조차 조사되지 않는다(이혼신고서 기준). 또한 양육비에 대한 강제징수의 규정도 없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전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반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다.

4.2. 한부모가족의 일가족양립

다음으로 한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거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고용에 가장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은 1987년부터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자녀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² 그러나 2007년 여성취업자 인구 대비 산전 후 휴가 이용자수는 0.4%,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0.2%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표 4〉 모의 연령별 산전 후 휴가급여 수급인원 비중 추이 (단위: %, 명)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체 | 32,133 | 38,541 | 41,104 | 49,539 | 60,964 |
| 25세 미만 | 4.7 | 4.0 | 3.5 | 3.3 | 3.3 |
| 25~30세 미만 | 56.9 | 55.0 | 51.3 | 48.1 | 46.4 |
| 30~35세 미만 | 34.7 | 36.9 | 40.3 | 42.5 | 43.4 |
| 35세 이상 | 3.7 | 4.1 | 4.9 | 6.0 | 6.9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표 5〉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단위: 천명, %)

| 종사상 지위 | 취업자 수 | 비율 |
|---------|-------|-------|
| 계 | 9,874 | 100.0 |
| 비임금근로자 | 3,006 | 30.4 |
| 자영업주 | 1,776 | 18.0 |
| 무급가족종사자 | 1,230 | 12.4 |
| 임금근로자 | 6,868 | 69.6 |
| 상용근로자 | 2,954 | 29.9 |
| 임시근로자 | 2,935 | 29.7 |
| 일용근로자 | 979 | 10.0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 산전 후 휴가급여는 급여 개시 후 30일간은 사업주가 지급하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간 (이 중 30일은 고용보험) 지급. 급여액은 통상임금상당액(상한액 월 135만 원)에 준해서 지급하나 통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 임금액 지급.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때 매월 50만 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여성의 최대 휴가기간은 유럽 국가(핀란드, 프랑스, 독일)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고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의 가정 내 보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짧지만 영국, 호주,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휴가일수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고용보험체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휴가일수를 누가, 얼마나 실제로 이용하는 것 이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파트타임 근로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여성 취업자 9,874천 명 중 무급가족종사자 12.4%, 일용직근로자 10.0%, 주당 17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 5.3%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인구는 약 30%에 이른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출산 크레딧을 도입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부담하던 전통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하고 사회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 갖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연금법 개정으로 출산 크레딧제도³를 도입하였으나 현재의 소득상실을 향후 연금 형태로 보상하므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곧바로 빈곤에 직면할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에게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상해줄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나 아주 어린 영아부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육 체계가 요구된다.

3 출산크레딧제도는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4.3. 한부모가족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ECEC service)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에게 어린 자녀의 존재는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해야 한다. 기혼여성의 임금에는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음으로써 지불되어야 하는 조세성 지출이 있으며,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화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김현숙·성명재 2006; 장지연 외 2005). 고은주·김진욱(2009)의 분석에서도 부모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아주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자녀부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가되는 1자녀로 인하여 한부모가 빈곤에 빠질 공산(odds)은 2.23배로 전체 가구와 부부가구보다 훨씬 더 크며, 3세 미만의 어린 자녀의 유무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한부모가족 모형에서는 매우 강력한 설명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부담에 대한 역진적인 조세 성격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한다는 실증분석들이 행해지면서 한국에서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는 급격하게 확대되었다(김현숙·성명재 2006). 특히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의 공공화는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아 대상 학원 등)에 대한 수요자 비용 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8년기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약 45.8%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종전보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조 282십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표 6〉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3~4층)의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결혼이민자의 자녀

○ 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의 영유아

자료: 보건복지부, 2009 보육사업 안내.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은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아동이 잘 자랄 권리를 사회가 인정하는 것(Esping-Andersen et al, 2002)이며, 육아 지원기관 이용의 문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장지연 2005)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실제로 육아에 대한 욕구가 가장 절실한 한부모가족은 빈곤에 처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는 높으나 저소득층이 아닌 다수의 한부모가족은 이들의 욕구가 맞벌이 가족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후 순위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문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아래의 <표 7>에서 보듯이 만 5세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시설 이용률은 88.8%이나 0세 아동

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3.0% 미만으로 매우 낮다. 특히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겨우 30% 수준인 현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 보다는 비공식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표 7〉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이용률 (단위: 명, %)

| 연령구분 | 전체아동 ⁴ | 육아지원시설이용아동 ⁵ | | 이용률(B/A) |
|----------|-------------------|-------------------------|---------|----------|
| | | 보육시설 | 유치원 | |
| 총계(0~5세) | 2,744,597 | 1,052,650 | 537,822 | 57.9 |
| 소계(0~2세) | 1,331,110 | 426,899 | - | 32.1 |
| 0세 | 446,738 | 58,128 | - | 13.0 |
| 1세 | 445,796 | 129,629 | - | 29.1 |
| 2세 | 438,576 | 239,142 | - | 54.5 |
| 소계(3~5세) | 1,413,487 | 62,575 | 537,822 | 42.5 |
| 3세 | 448,625 | 242,187 | 99,499 | 76.2 |
| 4세 | 475,449 | 203,204 | 184,178 | 81.5 |
| 5세 | 489,413 | 180,360 | 254,145 | 88.8 |

(A)(B)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08);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현황(2008).

최근 보건복지부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사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주로 보육시설·학교 등 식사 및 간식 제공,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로 제한되고 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모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4 전체 아동은 2005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한 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한 것임.

5 보육시설은 2008년 12월 기준, 유치원은 2008년 4월 기준임.

5. 결론

한국은 호주, 일본, 영국과 더불어 다원화된 가족 이데올로기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된 국가유형에 속한다. 즉 정책은 전통적인 가족과 최근 등장한 다양한 가족 유형을 동시에 지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쪽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다 더 잔여적이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협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제도는 매우 미약하고, 어린 영아를 대신 양육해줄 비공식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노동시장진입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부문을 이용하기에는 입소우선순위와 보육비지원에서 특별히 한부모가족에게 표적화된 지원이 없고, 특히 여성에게 조세성 경비로 작용하는 보육비를 부담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소득을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사적이전에 의한 자녀부양비 지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고용보험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그 혜택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많은 여성 한부모들은 영아를 양육하면서 근로할 수 있는 파트타임 혹은 일용직 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 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가족간호휴가와 자녀의 입학 및 상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교방문휴가를 도입하는 방안, 탄력근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충분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 느끼는 보육시설의 부족은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다양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특수보육시설의 부족, 비공식부문의 보육제공에 대한 지원의 부족 때문이다. 실제로 만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의 공급률은 30% 수준으로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보육시설 입소 우선 순위에서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거나 비공식부문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친인척 혹은 이웃에 대한 보육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이나 이웃에 자녀를 맡기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장혜경·민가영(2002)의 연구결과, 이혼 여성의 상당수가 고졸이며, 이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였으며, 한달 소득이 100만 원 이하(57.5%)이며, 응답자의 7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가족이 빈곤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던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많이 갖게 되지만 양육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전남편들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이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원 자체가 불충분하였다(김미숙 외 5인 2000; 김영희 1996; 변화순·송다영·김영란 2000; 성정현 외 4인 2001; 옥선화 2003; 장혜경 외 3인 2001). 결국 이런 결과들은 여성 한부모가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로 여성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고용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정책입안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참고문헌

- 강기정, 이무영, 김영희(2002)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체계로서의 가상 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41-159.
-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2008)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

- 정책 비교』,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강지원(2009)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유형화와 한국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148, 110-126.
- 고은주, 김진옥(2009) 「한부모가구의 빈곤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219-236.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현황』.
- 권순복(2000)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40, 5-37.
- 김경신(2002) 「한부모가족 아동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아동학회 2002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93-110.
- _____ (200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정보전달체계 연구」, 『대한학회지』 41(7), 73-89.
-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김미숙, 박민경,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2002)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김순옥(1993) 「이혼대책에 관한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105-154)』,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오남(1999) 「편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족복지학』 4(2), 63-80.
- 김경신, 정민자, 라휘문, 진미정, 박정윤(2007) 『통합적 가족정책을 위한 과제 및 가족지표 개발』, 서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김은정, 이재인(2006)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빈곤 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253-278.
- 김현숙, 성명재(2006)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나 정(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변화순(1996) 「이혼 가족을 위한 대책」,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0)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배화옥(2007) 「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28,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3-87.
- 보건복지부(2008) 『2008 보육통계』.
- _____ (2009) 『200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2001) 「재판이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18, 29-58.
- 손병돈(2007) 「가족형태별 사적 이전소득 비교-사별가족과 이혼가족을 중심으로-」, 『사

- 회복지연구』 35, 267-290.
- 송다영, 성정현, 한정원(2003)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273-299.
- 송다영(2006) 「한부모가족과 여성사회권」, 『사회복지정책』 27, 171-199.
- 양혜경(2001)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하여」,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 옥선화(2003) 「여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관계망 지원」,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5-31.
- 옥선화, 성미애, 이재립, 이경희(2002) 「빈곤 여성가장이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55-78.
-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3.
- 이소영, 옥선화(2002) 「자녀의 정서적 지원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특성 지각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감」, 『대한가정학회지』 40(7), 53-68.
- 이종숙(1997)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사회심리적, 발달적 이해」, 『한국인간발달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엄미선, 전동일(2006)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51-73.
- _____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_____ (2006a) 「부모부성휴가를 통해 본 남성 돌봄 노동 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223-249.
- _____ (2006b)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 _____ (2007)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327-354.
- 이용우(2006)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아동의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2(2), 105-131.
- 장혜경,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책보고서』.
- 장혜경, 송다영, 김영란, 김정훈(2001)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정책자료』.

- 정수경(2001) 「편부모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288-317.
-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경(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연택(2007) 「가족정책의 국제비교—동아시아와 남유럽 복지체계비교의 시작에서」, 『사회복지연구』 34(2), 79-106.
- 조병은(1998) 「편부모가족의 지원이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 36(1), 13-21.
- 조홍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2000)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차경욱(2003) 「가계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행동 분석: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61-73.
- 최혜경(1997) 「사회적 지지망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모의 연령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이용자 수. <http://edi.work.go.kr>에서 2011.11. 4. 인출.
- 국민연금관리공단. 출산크레딧 제도. <http://www.nps.or.kr>에서 2011.11. 4. 인출.
- 통계청. 혼인, 이혼 통계결과. <http://www.ngo.go.kr> 2011.11. 4. 인출.
- 통계청.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수. <http://www.ngo.go.kr>에서 2011.11. 4. 인출.
- 통계청. 근로시간별 여성 취업자 수. <http://www.ngo.go.kr>에서 2011.11. 4.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한부모가구 비율과 유자녀 한부모가구 비율, 아동빈곤율, 한부모가구의 빈곤율, 가구주 근로에 따른 빈곤율.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2011.11.4.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가족급여, 육아휴직율, 유아교육보육이용률, 아동양육비체제, 아동양육비 수준.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2011.11. 4. 인출
- OECD. Labour Statistics, 여성 고용율과 모의 고용율. <http://www.oecd.org>에서 2011.11. 4. 인출.
- Simon Chale (2009) Child well-being and sole-parent family structure in the OECD: An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2.

The Construction of 'Safe House' and Social Imaginary through Korean Popular Culture: the Cas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Canada

Jeeweon Shi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1. Introduction

In today's language classroom, transnationalism has helped to produce an increasingly diverse group of learners from different ethnic, racial and first language backgrounds. The presence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post-secondary Korean language classroom in Canada is a good example of this transnational movement. The steady increase in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rolment in the Canadian Korean language classroom has been attributed to two phenomenon; the internationalization policy that many Canadian post-secondary institutions have adopted in recent years, and the so-called 'Korean wave' (*Hanryu*) that carried South Korean popular cultural products and celebrities to fame in many parts of Asia in the early 2000s. According to the report published by World Education Services (2010), the number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rriving in Canada increased from just under 8,988 in 2006, to 13,668 in

2008. Meanwhile, students from Korea, the top source country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Canada, declined from 15,597 to 13,941 during the same time period.

During this period of growth many Chinese students chose to come to Canadian universities in B.C or Ontario (WES, 2010), and many of these chose Korean to fulfil their language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surveys that I collected from my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See Appendix A), their main purpose was functional and practical - that is, to watch a Korean drama without Korean subtitles or to understand the lyrics of Korean pop songs.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hoice of Korean language thus reflects their fascination with Korean popular culture, and should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wave' that had a strong influence on Chinese youth in the 2000's. The aim of this paper, therefore, is to examine how the 'Korean wave' influenced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vestment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n a Canadian university, and how Korean popular culture enabled them to construct a space where they can safely enact their identity and develop their cultural capital. My analysis includes the ways in which male and femal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nnect with and utilize Korean popular culture in the context of Korean language learning. In the next section, I will provide a brief overview of how 'Korean Wave' has developed in China. Then I will present the data of this study, and finally analyze the findings of this study.

2. Korean Wave in China

The term 'Korean Wave' (*Hanryu*) was coined by the Chinese mass

media in 2001 to describe the rising popularity of South Korean pop culture products and stars (Jang, 2004). According to Lee (2008), it refers to the varied and uneven reception of South Korean cultural/media products and images in Asia as well as particular forms of media and cultural representations in the transborder flows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Nevertheless, Shim (2008) explains that the Korean Wave started in Taiwan and then moved to the Chinese mainland where China Central Television (CCTV) broadcast the Korean television drama “What is Love All About?” in 1997, and then again in 1998. In the decade that followed many Korean dramas such as “Winter Sonata”, “Autumn Story” and “Jewel in the Palace” were enthusiastically received by Chinese audiences (Han, 2007). Beyond television dramas, *Hanryu*’s popularity extended into various other cultural genres such as popular music, film, games, etc. (Jang, 2004). Korean movies such as “My Sassy Girl”, “Shiri” and “TaeGukGi: The Brotherhood of War” were highly popular in parts of China, and Korean pop groups such as “HOT” were highly successful in presenting an image that many Chinese youths aspired to emulate (Han, 2007).

To date, a number of studies have reported on why Korean television dramas were so popular among Chinese audiences (Choe, 2001; Chon, 2001; Heo, 2002; Lin and Tong, 2008; Shim, 2006). The common finding of these studies is that Korean television dramas touched on the subjects appealing to Asian sentiments such as family values and respect for elders, thereby preserving values that are not evident in Japanese or Western television dramas. At the same time, these Korean television dramas appealed to modern life styles and projected images of Asian men and women who skillfully and fashionably negotiated a rapidly changing society. To sum up,

the Korean W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way that Chinese youths perceived modernity and tradition.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this phenomenon on their investment in the Korean language during the period of 2006-7 when the Korean Wave was near its peak.

3. Data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journal writing. I conducted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ive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three of whom were females (Yan, Ming and Melissa¹), and two of who were males (Ping and Shan). Melissa was from Hong Kong, but went to high school in Toronto where her father worked as an electrical technician. The other four finished high school in China, mainly in Shenzhen and Guangzhou, and came to Canada to get a university degree. They were mostly from economically affluent families, and their parents (or at least their fathers) had stable white collar jobs. Their age ranged from 19 to 23. All five participants took the intermediate Korean 200 course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UWO) in the school year 2006-7.

In addition to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I collected bi-weekly journals from the participants, which I had assigned as part of their regular assignment in the course. They were free of a specific format, and I requested that they be submitted either in English or Korean, whichever they preferred. In the journals, the students were asked to record any new observations that they made about Korea, Koreans, Korean culture and society in

¹ Please note that all names used in this study are pseudonym.

general, and any changes that they experienced, either personally or with respect to their linguistic or sociolinguistic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see detailed instruction for written journals in Appendix B).

4.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in Canada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made up one third of my Korean 200 class were all from economically affluent families. They had come to Canada on a student visa, and most subsequently attended a private school to study English and to earn the credits that they needed enter a Canadian university (e.g. grade 12 English). Many of thes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suffered from the self-perceived lack of English skills, and perceived their lack of such skills as an obstacle to achieving academic success and to forming a broader social network. Shan describes his university life as an international student as follows:

J: What was your experience as international students like?

Shan: I think to be an international student is quite hard. We need to consider our study, need to work hard on our school, need to find a job to // to // finance our life. We don't have many Canadian friends here.

J: Did you try to make friends with Canadians or was it your choice of not making friends?

Shan: It's half and half. We don't have time because we go to school and at the school, we need to work. And of course our language is not that good to make friends with Canadians. I think that's the main two reasons.

While describing how hard an international students' life can be academically and financially, Shan expressed his wish to make Canadian friends. Nevertheless, such a wish does materialize due to his perceived lack of English proficiency. Shan's status as a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speaker comprised a layer of identity that he never had in China. How this new identity functions for each international student varies depending on their personalities, experiences, and English proficiency. Nevertheless, virtually all of my Chinese focal participants found their less than perfect English to be a negative force that held them back and narrowed their social network. As Zhu's (2005) study of Chinese immigrants' struggling to transform their capital in a Canadian context shows, my participants had lost their linguistic and cultural capital (Bourdieu, 1991) as a Chinese language speaker when crossing the border from China to Canada. Instead, they were positioned as an incompetent speaker who cannot deliver themselves in English as efficiently as other Canadians who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Interesting to note is that the construct of Canadians, for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s one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assimilated to the English medium speech community. My Chinese international focal participants felt that although they spoke and wrote English on a level sufficient to carry on a conversation and to compose an academic paper, they remained outcasts and strangers in Canada due to their unfamiliarity with Canadian culture, not to mention the self-perceived lack of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Canadian holidays were one of the examples that showed their unfamiliarity of this Western culture, as suggested by Ming:

Oct 9th is Western's Thanksgiving Day. I usually don't celebrate on that day even if I am staying in Canada because my family is not here and I still feel unfamiliar with Western's festivals. I always feel myself like outsider in this country. Maybe I can't get accustomed to live here or I innerly dislike living here. I don't mean it's a bad here. Just it's not the place I belong to (written journal on October 17).

Her statement of being an outsider in Canada was deeply tied to her family's absence from this new country. This is related to the fact that Chinese holidays are, after all, family gatherings where all the extended family members get together, share the holiday foods and practice Chinese customs such as eating moon cakes and enjoying the full moon. Thus, Canadian holidays that she had to spend without her family's presence only compounded her isolated and alienated feelings. A similar alienation was also witnessed in Shan's journal:

Next Monday will be Thanksgiving day in Canada. I don't know actually what kind of holiday the Thanksgiving day is, but I still feel good that school are close at that day. That's the only reason I love Thanksgiving day. I hope one day in the future that all the countries share their own holidays together in the year. That must be a good news rather than a news that world is in a peace. Anyway, Happy Mid-Autumn Day and Thanksgiving day (written journal on October 17).

Shan still showed his isolated feeling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by stating that he was not familiar with Canadian Thanksgiving day, and yet he turned his lack of familiarity into a positive force whereby he still felt good about not having to go to school. As a way of extending his positive

thinking, he hoped that the world would celebrate the same holidays in the future so that he can participate in any speech community. This in turn shows Shan's hopes for a globalized world where he can cross the borders without going through the feelings of uncertainty or isolation he experienced while writing this journal. Still, Shan concluded his journal entry with the phrase 'Happy Mid-Autumn day', referring to the nearest Chinese equivalent, which suggests that his world was still based on his Chinese identity.

5. The Construction of 'Safe House' through Korean Popular Culture

In relation to thes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rginal position in Canadian university, I would argue that the fantasy world that they constructed through Korean popular culture served as a 'Safe House', to use Canagarajah's (2004) term. Canagarajah uses this term to describe the underlife of an institution, as a site of unofficial, off-task, or extrapedagogical activity relatively free from surveillance and authority figures. The fantasy worlds that m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built through watching Korean TV dramas were an example of a 'Safe House' where they could construct more complex subjectivities and enact their agencies as modern and urban Chinese youths.

Although born in Hong Kong, Melissa spent much of her youth in the Greater Toronto Area. With one of the largest Chinese populations in North America, Toronto provides ready access to all sorts of Asian commodities and media products. As Huat and Iwabuchi (2008) note, it was this massive global ethnic Chinese consumer market that made dubbing, translating and

subtitling a promising profitable investment. Texts of imported Korean television dramas were regularly dubbed and subtitled in China, and subsequently re-exported to other ethnic communities in the global Chinese diaspora. As a member of that ethnic Chinese community in Toronto, Melissa was one of the Korean TV drama consumers, and was so taken with them that she was motivated her to go to Korea and learn the language. Let us look at the following excerpt:

J: When did you start watching Korean dramas?

Melissa: Grade 9. My mom brought home 가을동화[*Autumn Story*]. I started to watch more and more.

J: Where did your mom go and rent dramas?

Melissa: It was a Chinese mall. It was big back then. For a while, it (Autumn Story) was really big, and then it went China Hong Kong area so all the Chinese people buy it and watch it. My mom enjoyed it so she kept buying more and more.

J: So there was your mom's influence.

Melissa: Oh yeah. She still watches Korean dramas once in a while.

J: When did you go to Korea?

Melissa: In summer last year. After the first year.

J: Why did you choose to go to Korea?

Melissa: I went to travel. I was not really into Korea until university cause // I thought there was a Korean course, but I didn't take it. I didn't know if it fits into my program. But I was like I want to learn Korean now and I want to be really good at it. I wanted to learn another language. Cause back in high school, I wasn't sure. I watched Korean dramas and I liked it a lot but it wasn't like I didn't meet enough Koreans I guess or it didn't really influence me to learn the language yet. At that time I guess. Like really learn it. But after start watching more and more Korean dramas, I started falling in love with characters and country,

like I wanted to visit all the scenes in the dramas, I wanted to travel as well and I thought Korea is a really good place. And then I searched on line. Later I thought going with a program and learning something is better than going by myself and not knowing. That's why I joined the program to learn Korean.

An equal fascination with Korean dramas could be observed amongst the othe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language class. Yan explained why she became interested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J: So what was your experience like, having Korean friends in China? Were you close to them?

Yan: Not that close. If we meet each other, we will just say hi to each other. Or we can go out for dinner, or lunch.

J: So you picked up the Korean language from them?

Yan: No, I think the dramas and the songs and the T.V. shows make me REALLY REALLY like Korean.

J: Can you remember any phrases? Do you remember any of the phrases that you learned at that time?

Yan: Korean? Oh uhm, because they (Yan's Korean friends) lent me some CDs from Korean singers, fashions. Maybe they live close to Korea, so they receive some knowledge, some fashion, some CDs from there. The first drama I saw was //겨울 연가(*Winter Sonata*). Uh // 배용준 (*Bae Young Jun*) and 최지우 (*Choi Jee Woo*) were the main characters. This is the first drama I saw. It is really good and then I love Korean language and want to study Korean.

Yan's interview excerpt shows how the *Hanryu* first impacted Chinese youths while residing in China, and then in later years this continued to influence their investment in Korean language. Owing to the Korean

friends that Yan met in China, she was introduced to Korean dramas and pop songs, which later became a motive for her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The popularity of South Korean dramas in China was due both to South Korea's ways of packaging traditional values with modern aesthetics, and to its relatively close cultural affinity with China. Many Chinese found Korean dramas appealing because they presented enduring Confucian-rooted values² in their emphasis on family relations, love and filial piety while offering Chinese both a reminder of what was los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and an example of an Asian country that has modernized and retained its tradition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2, 2006).

Interestingly, Korean fashion was one of the reasons Yan fell in love with Korea. Korean actresses, singers and other celebrities in Korean TV shows were, to Yan, symbols of sophistication and prototypes of the beautiful and modern women that she wanted to identify with in a socially and economically changing Chinese society. The image of the Korean woman as beautiful, fashionable and modern helped to redefine the beauty standard of many Chinese women, in some cases even prompting them to pursue a 'Korean look' through cosmetic surgery. Ming, one of the Chinese participants in my study, expressed her wish to go to Korea and have surgery in order to fit into this imaginary of modern and beautiful women that she internalized through Korean dramas and TV shows. Ming wrote in her written journal below:

2 Confucianism defines women's social positions according to the submissive relationship with their male family members, the principle of 'thrice Following' - a woman should follow her father when young, her husband when married, and her son when old (Ko, 2004).

Several days ago, I talked with my mother through phone and was told that my brother's girlfriend went to Korea for doing the plastic surgery!!! I surprised for her action, actually she is a very pretty girl. I don't know why she still feels unsatisfied with her looking. — Although I decided to go to Korea for doing the plastic surgery many years ago, I am hesitant for that decision for a long time. I am a kind of person who has no confidence. I always consider my nose is too ugly and my face is too wide. — It's true that the beauty of your interior or your spirit is the most important. Nowadays, not all people but most of them will judge a person by his/her looking, especially when you are applying a job. — I eagerly want to become more beautiful and confident, so I will probably go to Korea to do the plastic surgery after I graduating from university. It's my long-standing dream. (Written journal on January 23)

Ming's journal showed a desire to better represent herself in this modern world where, in her opinion, one's appearance is more and more important and has the potential to make a difference in a competitive job market. To respond to a modern society that emphasizes appearance, she wanted to go to Korea for cosmetic surgery and so pursue the imaginary of modernity and beauty that she had developed, in part through exposure to Korean dramas and TV shows.

Here the term 'modern' needs to be considered further.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term 'modern' has often been used as a code word for 'Western', Asians cannot emulate the practices of Western societies without considering their own needs. Ang (2004) argues that Asian idealized cultural modernity is associated with material affluence, consumerism, female emancipation and individualism. Lin and Tong's (2008) study of Chinese women's Korean drama consumption practices shows that the kind of 'Asian modernity' desired by Chinese women seems to be based on a hybridization of both

modern and traditional values while representing a dream of alternative modernities that can embrace both modern and traditional values. Based on such a concept of 'Asian Modernity', it can be understandable that the imaginary of modern and beautiful women observed and projected through Korean dramas was absorbed by young Chinese women such as Ming and Yan, thereby redefining their beauty standards.

Interestingly, the investment in Korean popular culture by Chinese students showed a certain gendered pattern. Whereas Chinese female students expressed their fascination with Korean dramas or TV shows, Chinese male students preferred watching Korean action movies. My male students were interested in Korean popular culture products that exhibited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pertaining to Korea or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Ping and Shan, the Chinese male participants in my study, expressed their 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as follows:

J: (to Shan) you said that you don't like to watch Korean dramas (laughing)

Shan: No, Sometimes I have many friends who watch Korean dramas and they told me that one is very good. You can watch it. So I tried to watch some, but too long for me. I can't wait for twenty four periods (episode, I think) of the dramas. But we watch some Korean movies like sueidao (in Chinese pronunciation) How do you say it? (to Ping)

Ping: I don't know how to say it in English.

J: Is that a name of the Korean drama?

Shan: No, it's a movie. Sueidao is talking about forty soldiers. They are forced to go to North Korea and kill the //

J: Oh, 실미도 (Silmi Island).³

Shan/Ping: Yah 실미도 (Silmi Island).

J: So you are not really into love stories or romantic stories...

Shan: ...Oh, no no. It's nothing about culture. It's a love story. It doesn't make sense for us. Yah // For men, we don't need to, I mean, pay more attention to romantic stories. For Ping and me, we just want to know Korean culture. So we have our own choice of Korean movies. We don't watch romantic dramas. Just watch movies, the one you showed us, that was really good...

J: 축제 [Festival]?

Shan: ...Yes. About the funeral. It was really good to know because we have the same thing, the similar thing in China. I mean Korea and China they almost have the same history period. We are moving together. That's why we watch. Since now, many Korean companies they go to China many Korean people in China. I mean it's better to know Korean culture how to communicate with those people. Probably in future, we will do some business with Korean people.

First of all, Ping and Shan thought that Korean dramas were too long to watch. They did not have enough patience to watch more than twenty episodes to follow the storyline. Second, plots of Korean TV dramas that often centre on love relationships or family matters were not appealing to them. Instead, they preferred Korean popular culture through which they were able to gain some knowledge of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issues pertaining to Korea. For these reasons, they enjoyed watching movies dealing with traditional Korean cultural topics such as a funerals or Korean historical events such as *Silmido*. This may be because, at least in popular

3 *Silmido* is a 2003 South Korean film directed by Kang Woo-suk. It is loosely based on a military uprising from the island of *Silmido* in the 1970s. At the end of its run, the film was the most watched film ever in South Korea, and the first film to attract an audience of 10 million viewers in the country.

perception, Korea has retained many traditional and Confucian customs and practices that were once shared, but which have since disappeared in China. Although their circumstances differed, these male students, like their female counterparts, also developed their knowledge and 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to construct a safe house where they can increase their cultural capital.

6. The Construction of Social Imaginary through Korean Popular Culture

Beyond seemingly different gendered approaches to Korean popular culture, I argue that both male and female Chinese students built a space wherein they could safely perform their identity as urban and modern youths, increasing their cultural capital and turning their marginal positions as ESL speakers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to their advantage. Furthermore, as will be demonstrated,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constructed their ideal social imaginary through Korean popular culture. The social imaginary that they constructed by watching Korean TV dramas, movies or sports, served as a reminder of what was forgotten by their rapidly changing society. Media representations of Korean popular culture satisfied the Chinese youths' interest in modern, global and urban consumerism and materialism, while also appealing to their longing for a sense of tradition, custom and national identity that seemed to have been lost in China. Ping and Shan expressed their opinions about the Korean soccer team in FIFA World Cup Soccer:

J: What is your general impression about Korean people?

Ping: In China we just know Korean football.

J: Korean football? You mean soccer.

Ping: Yes, soccer team. You know Korean soccer team is very strong. Korean people, how do you say? Same as Japanese people. Very love their country.

Shan: I think Korean people keep their tradition very well. Now in some field they are doing better than Chinese. First, traditional. Second, [very teamwork]. And their // (looking for words) their more, I don't know how to say //

Ping: They are more comfortable by their culture

Shan: (agreeing) by their culture. Just like, I mean, to your country. They love their country so much. They see their country and themselves as one.

J: like collective national identity?

Shan: Yah, collective national identity.

J: Does China have that?

Ping: Some. Now China is an open market so lots of people want to make money. They don't care about country or people.

The Korean soccer team that Ping and Shan got to know from the FIFA World Cup soccer symbolizes Korean national identity to many Koreans. During the World Cup the team performed well and the Korean people seemed to unite behind them as one nation/country. By contrast, China's national team was the subject of embarrassment owing to poor international performance and ongoing scandals - Ping and Shan were to a certain extent envious of Korea's soccer success and despaired about the perceived loss of a Chinese collective national identity. Ping's last statement "China is an open market so lots of people want to make money. They don't care about country or people", was a comment on the Chinese free economic market that has shaped the contemporary Chinese youths' mentalities by centering on materialism and consumerism, which contrasts with the ideal

social imaginary of a collective national identity that should, in Ping's opinion, rise above individual identity or profit.

On the other hand, my female students constructed their social imaginary in relation to the sentiment of compassion that was skilfully projected through Korean dramas. Melissa talked about her fascination in Korean romantic comedies as follows:

J: What kind of American TV dramas do you enjoy watching?

Melissa: Oh, well, I like the show "Sex and The City". I think it's really funny it's really good. I like to watch that. But all other ones, Western dramas, I don't watch any of them. "24", "Prison Break"? All kinds of stuff, like survivors, Lost, I never saw any episodes of it. I don't watch any of it. The only thing I see is the "Sex and the City".

J: Do you think you like romantics?

Melissa: I like romantics. Dreaming me? Got the guy, loving the girl so much, girls don't know what to do with other guys. I love watching that.

J: Like in the drama "Desperate Housewives"?

Melissa: No, I don't watch it. I don't watch any Western dramas at all.

J: So when you watch dramas, do you only watch romantic comedies?

Melissa: I usually watch a romantic comedy one. I haven't watched the really serious one so I don't know. I never tried one. Back then, it was really popular, girl dying, everyone is sad. Really sad melodramas. Back then, those were the popular ones so I watched them all the time. 천국의 계단 [*Steps to the Heaven*]. Those are so sad. 가을동화 [*Autumn Story*]. What was it? 겨울연가? [*Winter Sonata*]? Those were all the sad ones in that period of time. And then you did 풀하우스 [*Full House*], which is a romantic comedy. And from then on, everything was a romantic comedy. I think I like a romantic comedy because it's funny, it's sweet, it's dreamy. It's sad, but not too sad, it's not like sad that I stop crying //

J: Do you relate yourself to one of the characters in the drama?

Melissa: I don't think I relate to them, I wish my life is like them, Some super guy, some hot looking guy likes me or something.

In line with Lin and Tong's (2008) findings about Chinese women's preference for Korean dramas over Western dramas, Melissa showed a preference for the former. The only Western drama she watched was 'Sex and the City', a romantic comedy about four young New York single women and their ever changing and confusing sex lives. This show appealed to Melissa's imaginary of modern and liberal women and their love relationships, a similar feature that she found interesting in Korean dramas. But other Chinese participants in the study such as Ming and Yan did not enjoy any Western dramas, and had little interest in the liberated sex lives of the characters in 'Sex and the City'.

Lin and Tong (2008) argue that Chinese women's preference for Korean dramas over Western dramas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notion of *qing*, a Chinese word referring to compassion for family members, friends, spouses, colleagues and people of different relations,. Many Chinese women appreciate the description of *qing* in Korean dramas which was not confined to heterosexual love but also extended to *qing* of a family, *qing* between friends, and *qing* between teacher and student, 'Asian' ways of expressing various kinds of relationships and emotional attachments among the characters. In this regard, it is perfectly understandable why South Korea's homegrown version of the American television show 'Sex and the City', titled 'The Marrying Type' about three single professional women in their 30s looking for love in Seoul became so popular in China that episodes were illegally downloaded or sold on pirated DVDs. In a way, the Korean

drama 'The Marrying Type' filters out all the alien elements that can be found in 'Sex and the City' such as Western values, dating practices, making the drama more palatable to Chinese women who are yearning for *qing*.

Another important interpretive practice of drama audiences is personalization - that is, putting oneself in the drama scenario and identifying with the situation and characters (Baym, 2000). This process of identification or personalization implies a sense of fantasy that expresses the desire for fullness, bridging the gap between reality and wish (Hinderman, 1992). In the interview, Melissa stated that the attractive male protagonists and the plots dealing with casual love relationships were the primary reason she enjoyed watching Korean romantic comedies. By watching Korean romantic comedies, Melissa fantasized about having the male protagonists hit on her, fall in love with her and pursue her. Through this personalization process, Melissa bridged the gap between men in reality and her ideal male imaginaries embodied in Korean romantic comedies. As Lin and Tong's study (2008) examines the Chinese female viewers' personalization process in connection with the female characters in Korean dramas, I would argue that a similar personalization process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male characters in the dramas. To put it another way, watching Korean dramas enabled my Chinese female participants to embody some idealistic masculinities desired by them, and to constitute a kind of desirable male image.

He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deal male imaginaries that my Chinese participants envisioned were neither liberalized ones as seen in many Western TV dramas, nor were they the dominant types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valued in East Asian countries where Confucian attitudes regarding women's subordinate position to men have been deeply inscrib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true that the binary of women's roles as domestic subordinates and men's roles as leaders promoted by Confucian ideologies has been somewhat destabilized in present day East Asian societies, especially in urban, cosmopolitan Asian cities such as Hong Kong. But as Lin and Tong (2008) show in their study, the female Chinese participants simultaneously wished to recover the lost traditional feminine virtues evident in the female protagonists in Korean dramas. In other words, the female protagonists characterized as being attractive, soft, tender, humble, considerate, delicate and touching reminded the modern Chinese women, whose identities were no longer dependent on or derivative of men's identities, of what had been lost in the representation of modern Chinese women. The same applies to love relations. Many of the Chinese participants in Lin and Tong's study described the female protagonists as 'single-minded', 'faithful to love', and 'willing to sacrifice' for their partners. They always put their lovers first and oriented themselves to their male partners. In this regard, the female protagonists in the Korean TV dramas affirmed the traditional femininities as well as the sentiments of *qing* that had been forgotten and lost amongst Chinese women and Chinese culture respectively.

Male protagonists in the Korean TV dramas were a perfect male imaginary for Chinese women who had moved beyond the traditional division of labor and gender roles ascribed to them, but who at the same time wished to recover traditional feminine virtues. Put it simply, they seemed to have fulfilled the criteria of 'good men', who Fiske (1989) describes as caring, nurturing and sweet, rather feminized and unlikely to express their masculinity in direct action. Melissa talked about the qualities of the male protagonists

in Korean romantic comedies as follows:

J: Do you think you will date a Korean man one day?

Melissa: Who knows? Most Korean guys that I meet, they don't really match the Korean guys in the dramas, I always imagined them to be,

J: Like 권상우 (Kwon Sang-Woo, one of famous male Korean actors)?

Melissa: Yah, 권상우 (Kwon Sang-woo) or someone like sweet, All the guys in Korean dramas are so sweet and caring, you know. But I haven't met any Korean guy like that so I don't know if Korean dramas are lying to me. Maybe, I am looking for too much, Asking for too much, Some of them try to be, but they don't really // (laughing)

J: Do you like Korean men?

Melissa: I don't know, If it is Korean, I will be listening to them more to see if they are like real Korean drama kind of guys. But if not, then I am disappointed.

J: Do you think you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Korean men?

Melissa: Not all of them, Some of them, Some of them can be very rude and male chauvinistic like I am a guy and I am the powerful, I don't like it, But it's same for Chinese culture too, A lot of guys are like I am the male, I dominate you know.

As Melissa explained in the interview, sensitivity and sweetness observed in male characters in Korean dramas were most appealing and attractive. Of course such male imaginaries were only alive and real in a fantasy world represented through the TV programs, but this was the key to the appeal of the dramas. Korean dramas offered channels through which women could express their desires – desires for a pure society, for pure romance, for being pampered and loved by men. For Melissa, this was seen as an escape from the every day school environment. By constructing ideal male

imaginaries through male protagonists in Korean dramas, Melissa constituted an imaginary space that provided an alternative to the Western modern male imaginary, and affirmed the commitment to certain traditional values in a White dominant Canadian society.

7. Conclusion

In this paper, I examined how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n Canada used their 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to construct 'Safe House' wherein they could safely perform their identities and increase their cultural capital.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disadvantageously positioned in the Korean language classroom due to their ESL speaker status compared to Canadian students of European backgrounds, and also as Korean language learners, compared to Korean heritage language learners. To them, developing an interest in Korean popular culture meant being able to gain the symbolic resources pertaining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to construct a space in which they could turn a marginal status to their own benefit, i.e. where their marginal position was not questioned or ridiculed, and where their subjectivities could be performed and activated in full motion.

One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re was a differential gendered approach to Korean popular culture; female students showed a strong preference for Korean television dramas whereas male students preferred watching Korean movies that touched on political or historical issues. Beyond this seemingly different gendered approach to Korean popular culture,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constructed an ideal social imaginary that used Korean popular

culture to fill a vacuum created by a rapidly changing Chinese society. The sentiment of compassion was found to be a salient social imaginary for female students whereas the traditional customs and collective national identity were equally important to the male students.

References

- Ang, I. (2004) The Cultural Intimacy of TV Drama, In K. Iwabuchi (Ed.), *Feeling Asian Modernities: Transnational Consumption of Japanese TV Dramas*, 303-310.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Baym, N. K. (2000) *Tune in, Log on: Soaps, Fandom, and On-line Community*. Thousand Oaks, London and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Oxford: Polity Press.
- Canagarajah, A. S. (2004) Subversive Identities, Pedagogical Safe Houses, and Critical Learning. In Norton, B. and Toohey, K. (Eds.), *Critical Pedagogy and Language Learning*. 116-1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e, Yong-shik (2001) Asia Dreaming of Korean's pop Singers and actors. *Korean Herald*, August 31.
- Chon, Gina (2001) Golden Summer. *Asiaweek*, October 26, 46-49.
- Fiske, J. (1989)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oston: Unwin Hyman.
- Han, Xiao (2007) A Research on China and Japan's Korean Phenomenon (Hanryu). *Korean Studies for New Generation*, 1, 1-18.
- Heo, Jin (2002) The "Hanryu" phenomenon and the acceptability of Korean TV dramas in China.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16, 1, 496-529.
- Hinderman, S. (1992) 'I'll Be Here with You: Fans, Fantasy and the Figure of Elvis', In L. Lewis (Ed.),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107-134. London: Routledge.
- Huat, C. B. and Iwabuchi, K. (2008) Introduction East Asian TV Dramas: Identifications, Sentiments and Effects. In Chua Beng Huat & Koichi Iwabuchi (Eds.), *East Asian Pop culture: Analyzing the Korean Wave*. 1-12.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6) A Rising Korean Wave: If Seoul Sells It, China Craves It. Retrieved on August 3, 2008 from <http://www.ihf.com/articles/2006/01/02/news/korea.php>
- Jang, S. (2004) *Why China Receive Hanryu*, Seoul: Hakkojae.
- Ko, Y. F. (2004) 'The Desired Form: Japanese Idol Dramas in Taiwan', In K. Iwabuchi (Ed.), *Feeling Asian Modernities: Transnational Consumptions of Japanese TV Dramas*. 107-128.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Lee, Keehyeung (2008) Mapping Out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Korean Wave" in Contemporary South Korea. In Chua Beng Huat & Koichi Iwabuchi (Eds.), *East Asian Pop culture: Analyzing the Korean Wave*. 175-190.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Lin, A. & Tong, A. (2008) Re-imagining a Cosmopolitan 'Asian us': Korean Media Flows and Imaginaries of Asian Modern Femininities. In Chua Beng Huat & Koichi Iwabuchi (Eds.), *East Asian Pop culture: Analyzing the Korean Wave*. 91-126.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Shim, Doobo (2008) The Growth of Korean Cultural Industries and the Korean Wave. In Chua Beng Huat & Koichi Iwabuchi (Eds.), *East Asian Pop culture: Analyzing the Korean Wave*. 15-31.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Shim, Doobo (2006)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and Society*, 28, 1, 25-44.
- World Education Services (2010) Retrieved Nov 10, 2011 from <http://www.wes.org/ca/events/FactSheet.pdf>
- Zhu, Hong (2005) *Capital transformation and immigrant integration: Chinese independent immigrants' language and social practices in Canada*. Ph.D. dissertation, OISE/University of Toronto.

Appendix A:

Background Survey

Korean 200 (06-07)

1. Name:
2. Email:
3. Major/Department:
4. Year of your present program:
5. Years that you attended a Korean Saturday School (Hangul Hakkyo), if applicable (specify the number of years attended)
6. Years that you took OAC (Ontario Accredited Credits) Korean in high school, if applicable:
7. If you were not born in Canada, specify when you moved to Canada.
8. Note any previous experiences with learning Korean language (e.g. tutoring, living in Korea...)
9. Circle the language skills you want to improve through this course?
Listening Reading Grammar
Speaking Writing Other Skills (specify)

10. Other languages that you can speak, read or write:
11. What motivated you to take this course? What is the main purpose of your learning Korean?

Appendix B:

Instruction for a Written Journal

The written journals are part of the course assignments. In the journal,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write any changes in their lives, whether it is campus or family life, related to learning Korean. Recommended subjects for the journals are (1) their observations or feelings in the Korean class (2) changes in their feelings or attitudes toward Korean people, culture, language (3) any changes in their identity pertaining to their experience in learning Korean (4) any changes that they noticed in their Korean language skills (5) any changes that they noticed in their desire or motivation to learn Korean. The students can choose their own style (i.e. essay, diary...) in writing a journal. The journal can be written either in English or in Korean, whichever the student prefers, and the length of the journal is about one page (8 x11 paper). Each journal will be collected bi-weekly on Sept 19, October 3, 17, 31, November 14, 28, 2006, January 23, February 6, 20, March 6, 20, 2007.

재가노인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이지희 · 나카시마노조미 · 후토유요시코 · 나카지마카즈오
오카야마현립대학 · 오카야마현립대학 · 오카야마현립대학 · 오카야마현립대학

1. 서론

한국에서는 수명의 연장과 함께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7년에 불과하여 고령사회로의 전환기간이 세계 1위였던 일본의 24년보다 앞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10). WHO(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수명은 수명의 양적측면을 의미하는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과 질적 측면을 의미하는 건강수명(healthy adjusted life expectancy)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WHO 2000), 최근에는 후자의 중요성, 즉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질 높은 상태로 자립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명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평균수명은 80세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은 71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평균수명이 83세, 건강수명이 76세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WHO 2009, 2012) 평균수명과 건강수

명의 차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최근의 한 조사(노인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2001)에서는 한국 노인의 약 87%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ADL저하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9%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여 2009년 조사에서는 요개호자 혹은 요지원자로 판정받은 노인은 노인인구의 16%에 이르고 있다(공생사회정책통괄관 2009).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질병의 치료나 개호 등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노인을 둘러싼 환경은 노인이 지역에서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과 관련하여 ‘장수유전자’가 노화나 수명을 조절한다는 연구보고(副典之 2010)처럼 유전적 요인이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의 좋고 나쁨이 건강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Belloc N et al. 1972; 이명선 1995; 森本 외 2001; 이가영 외 1998; 조현숙 2006; 김정원 외 1997)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건강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 혹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행동을 멀리하는 방향의 조직적인 지원은 21세기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증진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이나 모델이 응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Transtheoretical model(범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Prochaska J et al. 1983, 1992). 범이론에서는 특히 ‘행동의 변화단계’가 중심적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및 현재의 실제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준비성의 양 방향의 성질을 통합한 개념이다(岡 2003). 범이론에서의 행동의 변화단계에 대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계획전 단계(precontemplation)’, ‘계획단계(contemplation)’, ‘준비단계(preparation)’, ‘행동단계(action)’, ‘유지단계(maintenance)’라는 총 5단계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Marcus B et al. 1992). 여기서 ‘계획전 단계’는 예측

가능한 장래에 행동을 바꿀 의도가 없는 단계를, '계획단계'는 장래에 행동을 바꿀 의도는 있으나 실제로 현재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단계를, '준비단계'는 예측 가능한 장래에 행동변화를 할 의도가 있는 단계를, '행동단계'는 행동변화를 시작한지 별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단계를, 마지막으로 '유지단계'는 바람직한 수준의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 변화단계를 얼마나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로 간주하여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범이론에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써 '자기효능감'을 들고 있다(Prochaska et al. 1992).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 그 개인이 느끼는 수행가능한 정도'(Bandura A 1977)로 정의되어 개인의 선택이나 사고, 정동적 반응, 행동 등에 영향을 미쳐, 건강증진행동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北田 외 1997).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미 개인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거나 나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개선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자기효능감이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橫川 외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을 건강생활습관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건강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이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齊藤 외 1997, 조유향 외 2003). 이와 관련하여 인구동태 통계가 정비되어 있는 국가 간에는 사망률 및 평균연령 등을 요인으로 한 국제비교도 실시되고 있다(杉沢 외 1995). 그러나 인구학적 요인에 포함된 성별이나 연령은 불변적인 변수로,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같이 가변적인 변수를 가지고, 변수 간 정도의 차이나 유의성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국제비교를 진행하는 것은 그 변수의 영향에 대한 보편성이나 그 변수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의

건강증진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공통점이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은 동아시아형 복지모델의 개발을 비롯하여, 자국 노인의 특징이나 정책적 과제를 살피는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동아시아형 지역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지침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의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과의 관계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 A시·B도·C시에 거주하며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0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본은 A현(県) B시(市)·C정(町)·D현(県) E시(市)에 거주하는 노인 494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우편조사를, 한국에서는 집합조사를 통해 응답을 얻었다. 조사는 한국에서는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1개월, 일본에서는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노인의 기본적 속성(성별, 연령, 학력),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은 林(2000)가 개발한 건강생활습관 21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21항목은 신체적 측면을 의미하는 ‘식사’, ‘운동’, ‘휴양’, 정신적 측면을 의미하는 ‘심리적 안정’, ‘생활의 활기’, 사회적 측면을 의미하는 ‘사회참가’, 환경만들기 측면을 의미하는 ‘생활환경의 정비’의 7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건강생활습관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로 ‘하

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 (1점), ‘하고 있지 않으나 6개월 이내에는 시작하려고 한다 (2점), ‘하고 있지 않으나 1개월 이내에는 시작하려고 한다 (3점), ‘하고 있으나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4점), ‘현재 하고 있으며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다 (5점)’의 5점 척도로 응답을 구하였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横川 외(1999)가 개발한 ‘지역노인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측정척도’의 15항목 중에서 6항목을 발췌하여 측정하였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자신없다 (1점), ‘별로 자신 없다 (2점), ‘조금 자신있다 (3점), ‘매우 자신있다 (4점)’의 4점 척도로 응답을 구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첫째,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에 대해서는 ‘식사’, ‘운동’, ‘휴양’, ‘심리적 안정’, ‘생활의 활기’, ‘사회참가’, ‘생활환경의 정비’를 1차 요인,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을 2차 요인으로 하는 7요인 2차 요인모델로 가정하였고,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1요인모델로 가정하여 각각의 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 2개의 모집단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을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 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구조방정식모델에 의한 다모집단 동시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모든 모수추정치에 등치제약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노인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일반화된 인과관계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이 같은 방향으로 건강유지에 관련한 지역복지학적인 정책개입을 고안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가정한 인과관계모델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자기효능감 및 건강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1점: 남성, 2점: 여성), ‘연령(연속변수), ‘학력 (1점: 미취학~6점: 대학졸업이상)’을 통제변

수로 사용하였다(조유향 2000; 조유향 외 2003; 서기순 2008). 위의 모델에 대한 적합성은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RMSEA)과 Comparative Fit Index(CFI)로 판단하였고, 측정법으로는 최우법을 사용하였다.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에서 뺀 값(t치)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절대치가 1.96(5% 유의수준) 이상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척도 항목의 내적일치성(신뢰성)은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통계해석에는 SPSS12.0J 및 Amos5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검증은 회수된 조사표 (한국: 1,008부, 일본: 295부) 중, 통계 해석에 사용하는 모든 항목에 결손치가 없고, 본인이 응답한 것으로 확인된 916명(한국: 694명, 일본: 22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속성분포

대상자의 속성분포는 <표 1>에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한국이 74.8세(표준편차 5.9, 범위: 65세~94세), 또한 일본이 72.9세(표준편차 5.5, 범위: 65세~93세)로 한국이 다소 평균연령이 높았다. 대상자를 전기고령자(65세~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구분하면, 전기고령자는 '한국: 358명(51.6%), 일본: 148명(66.7%)', 후기고령자는 '한국: 336명(48.4%), 일본: 74명(33.3%)'으로 양국 모두 전기고령자가 많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한국: 284명(40.9%), 일본: 106명(47.7%)', 여성이 '한국: 410명(59.1%), 일본: 116명(52.3%)'으로 양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학력은 양국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한국: 177명(25.5%), 일본: 116명(52.3%)'이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n=916)

| 연령 | 한국:평균74.8세(표준편차5.9,범위 : 65-94세) | | 일본:평균72.9세(표준편차5.5,범위 : 65-93세) | |
|----|---------------------------------|--------------|---------------------------------|----|
| | | 한국 | | 일본 |
| | 전기고령자 | 358 (51.6) | 148 (66.7) | |
| | 후기고령자 | 336 (48.4) | 74 (33.3) | |
| 성별 | 남성 | 284 (40.9) | 106 (47.7) | |
| | 여성 | 410 (59.1) | 116 (52.3) | |
| 학력 | 미취학 | 161 (23.2) | 0 (0.0) | |
| | 초등학교졸업 | 165 (23.8) | 4 (1.8) | |
| | 중학교졸업 | 86 (12.4) | 64 (28.8) | |
| | 고등학교졸업 | 177 (25.5) | 116 (52.3) | |
| | 전문대학졸업 | 22 (3.2) | 25 (11.3) | |
| | 대학교졸업이상 | 83 (12.0) | 13 (5.9) | |

단위:명(%)

3.2.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의 응답경향 및 측정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의 응답분포는 표2에 나타났다.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의 응답범주 ‘하고 있으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에 주목하면, 한국은 ‘매사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가 404명(58.2%), ‘긴급연락처를 언제나 찾기 쉬운 곳에 놓아두고 계십니까’가 390명(56.2%)의 순으로 많았고, 일본은 ‘지역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가 175명(78.8%), ‘취미나 오락을 가지고 계십니까’가 167명(75.2%)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식사’, ‘운동’, ‘휴양’, ‘심리적 안정’, ‘생활의 활기’, ‘사회참가’, ‘생활환경의 정비’를 1차 요인,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을 2차 요인으로 하는 7요인 2차 요인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한국에서는 CFI가 0.901, RMSEA가 0.072, 일본

에서는 CFI가 0.905, RMSEA가 0.076으로 통계학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었다.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는 21항목 전체가 한국에서는 0.907, 일본에서는 0.916이었다. 인과관계모델 분석시에는 하위인자의 합계득점을 사용한 1요인모델을 사용하였다. 21항목에 대한 합계득점의 평균은 한국 70.0점(표준편차 20.5, 범위: 21~105점), 일본 83.9점(표준편차 19.4, 범위: 21~105점)이었다.

〈표 2〉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의 응답분포

| 질문항목 | 응답분포 | | | | | | | | | | |
|-----------------------------------|----------|-----------|-----------------------------------|---|---|--|----------------------------------|----------|----------------------|------------|----------------------|
| | 한국 | 일본 | 한국 있지 않으나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 | 한국 있지 않으나 6개월 이내에 시작하려고 한다 | 한국 있지 않으나 1개월 이내에 시작 하려고 한다 | 한국 있으나 시작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 | 한국 있으나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다 | | | | |
| 「식사」에 관한 항목 | | | | | | | | | | | |
| X1 설탕이나 소금, 지방, 커피(카페인)을 줄이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214 46 | (30.8) (20.7) | 67 15 | (9.7) (6.8) | 78 11 | (11.2) (5.0) | 59 9 | (8.5) (4.1) | 276 141 | (39.8) (63.5) |
| X2 영양에 신경을 써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83 37 | (26.4) (16.7) | 92 9 | (13.3) (4.1) | 88 7 | (12.7) (3.2) | 59 15 | (8.5) (6.8) | 272 154 | (39.2) (69.4) |
| X3 간식이나 야식을 줄이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208 39 | (30.0) (17.6) | 70 10 | (10.1) (4.5) | 71 14 | (10.2) (6.3) | 71 20 | (10.2) (9.0) | 274 139 | (39.5) (62.6) |
| 「운동」에 관한 항목 | | | | | | | | | | | |
| X4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27 37 | (18.3) (16.7) | 65 26 | (9.4) (11.7) | 102 11 | (14.7) (5.0) | 79 18 | (11.4) (8.1) | 321 130 | (46.3) (58.6) |
| X5 가벼운 운동(산책) 등을 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17 30 | (16.9) (13.5) | 61 15 | (8.8) (6.8) | 80 14 | (11.5) (6.3) | 82 15 | (11.8) (6.8) | 354 148 | (51.0) (66.7) |
| X6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267 84 | (38.5) (37.8) | 80 20 | (11.5) (9.0) | 86 10 | (12.4) (4.5) | 81 18 | (11.7) (8.1) | 309 90 | (25.9) (40.5) |
| 「휴양」에 관한 항목 | | | | | | | | | | | |
| X7 무슨 일이나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58 38 | (22.8) (17.1) | 49 4 | (7.1) (1.8) | 58 11 | (8.4) (5.0) | 77 27 | (11.1) (12.2) | 352 142 | (50.7) (64.0) |
| X8 무리하게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37 51 | (19.7) (23.0) | 60 7 | (8.6) (3.2) | 60 11 | (8.6) (5.0) | 80 23 | (11.5) (10.4) | 357 130 | (51.4) (58.6) |
| X9 충분한 수면(7-8시간)을 취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10 30 | (15.9) (13.5) | 85 14 | (12.2) (6.3) | 83 11 | (12.0) (5.0) | 77 18 | (11.1) (8.1) | 339 149 | (48.8) (67.1) |
| 「심리적 안정」에 관한 항목 | | | | | | | | | | | |
| X10 매사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99 20 | (14.3) (9.0) | 48 12 | (6.9) (5.4) | 75 15 | (10.8) (6.8) | 68 20 | (9.8) (9.0) | 404 155 | (58.2) (69.8) |
| X11 광풍거리며 고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25 20 | (18.0) (9.0) | 53 9 | (7.6) (4.1) | 62 15 | (8.9) (6.8) | 92 23 | (13.3) (10.4) | 362 155 | (52.2) (69.8) |
| X12 초조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25 19 | (18.0) (8.6) | 45 10 | (6.5) (4.5) | 75 17 | (10.8) (7.7) | 82 20 | (11.8) (9.0) | 367 156 | (52.9) (70.3) |
| 「생활의 활기」에 관한 항목 | | | | | | | | | | | |
| X13 꿈이나 희망,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274 42 | (39.5) (18.9) | 68 9 | (9.8) (4.1) | 69 12 | (9.9) (5.4) | 56 12 | (8.1) (5.4) | 227 147 | (32.7) (66.2) |
| X14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309 51 | (44.5) (23.0) | 90 18 | (13.0) (8.1) | 78 14 | (11.2) (6.3) | 44 28 | (6.3) (12.6) | 173 111 | (24.9) (50.0) |
| X15 취미나 오락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92 30 | (27.7) (13.5) | 64 9 | (9.2) (4.1) | 63 6 | (9.1) (2.7) | 69 10 | (9.9) (4.5) | 306 167 | (44.1) (75.2) |
| 「사회참가」에 관한 항목 | | | | | | | | | | | |
| X16 지역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91 24 | (27.5) (10.8) | 57 7 | (8.2) (3.2) | 55 5 | (7.9) (2.3) | 80 11 | (11.5) (5.0) | 311 175 | (44.8) (78.5) |
| X17 지역의 환경(미화)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311 34 | (44.8) (15.3) | 92 10 | (13.3) (4.5) | 80 9 | (11.5) (4.1) | 62 14 | (8.9) (6.3) | 149 156 | (21.5) (69.8) |
| X18 지역의 동아리나 클럽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276 51 | (39.8) (23.0) | 67 9 | (9.7) (4.1) | 62 8 | (8.9) (3.6) | 67 10 | (9.7) (4.5) | 222 144 | (32.0) (61.9) |
|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항목 | | | | | | | | | | | |
| X19 건담연락처를 언제나 찾기 쉬운 곳에 놓아두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23 21 | (17.7) (9.5) | 52 20 | (7.5) (9.0) | 65 36 | (9.4) (16.2) | 64 12 | (9.2) (5.4) | 390 133 | (56.2) (59.9) |
| X20 필요한 약은 언제나 세겜으로 구비해 두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59 22 | (22.9) (9.9) | 57 11 | (8.2) (5.0) | 79 15 | (11.4) (6.8) | 66 18 | (9.5) (8.1) | 333 147 | (48.0) (70.3) |
| X21 김 주위에 고장난 것은 곧바로 수리하고 계십니까 | 한국 일본 | 170 18 | (24.5) (8.1) | 80 16 | (11.5) (7.2) | 78 24 | (11.2) (10.8) | 53 17 | (7.6) (7.7) | 313 147 | (45.1) (66.2) |

단위:명(%)

3.3.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응답분포 및 측정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대상자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응답분포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응답범주 ‘매우 자신있다’에 주목하면, 한국에서는 ‘필요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다’가 384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가 309명(44.5%)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필요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다’가 102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이웃 지역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가 75명(33.8%)으로 나타났다.

6항목 1요인모형을 가정한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요인구조모델의 데이터로의 적합성은 한국에서는 CFI가 0.983, RMSEA가 0.063, 일본에서는 CFI가 1.000, RMSEA가 0.000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는 6항목 전체가 한국에서는 0.843, 일본에서는 0.854이었다. 6항목의 합계득점에 대한 평균은 한국 18.5점(표준편차 4.4, 범위: 6~24점), 일본 18.7점(표준편차 3.4, 범위: 6~24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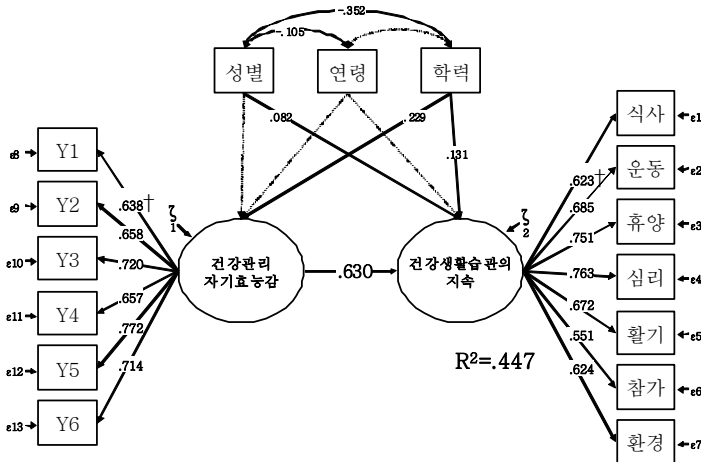
<표 3>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응답분포

| 질문항목 | 응답범 | | | |
|----------------------------------|-------------|--------------|--------------|--------------|
| | 전혀 자신없다 | 별로 자신없다 | 조금 자신있다 | 매우 자신있다 |
| Y1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다 | 한국 (12.4) | 114 (16.4) | 200 (28.8) | 294 (42.4) |
| | 일본 (5.9) | 52 (23.4) | 89 (40.1) | 68 (30.6) |
| Y2 필요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다 | 한국 (7.1) | 58 (8.4) | 233 (29.3) | 384 (55.3) |
| | 일본 (1.8) | 12 (5.4) | 104 (46.8) | 102 (45.9) |
| Y3 보건복지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한국 (9.8) | 111 (16.0) | 205 (29.7) | 309 (44.5) |
| | 일본 (2.7) | 140 (18.0) | 125 (56.8) | 50 (22.5) |
| Y4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 한국 (12.1) | 136 (19.6) | 217 (31.3) | 257 (37.0) |
| | 일본 (0.9) | 32 (14.4) | 119 (53.6) | 69 (31.1) |
| Y5 불안이나 짜증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 한국 (8.1) | 126 (18.2) | 238 (34.3) | 274 (39.5) |
| | 일본 (3.2) | 35 (15.8) | 123 (55.4) | 57 (25.7) |
| Y6 고립되지 않도록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다 | 한국 (7.9) | 117 (16.9) | 224 (32.3) | 298 (42.9) |
| | 일본 (1.8) | 32 (14.4) | 111 (50.0) | 75 (33.8) |

단위:명(%)

3.4.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과의 관계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을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간의 관련성을 다모집단 동시 분석으로 검토하였다(그림 1). 그 결과, CFI가 0.808, RMSEA가 0.069로 RMSEA는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CFI는 좋은 적합도 수준을 의미하는 0.90을 밑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샘플수가 적었다는 것과 등치제약을 가한 모델의 분석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통계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서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630으로 유의하였고, 그 기여율은 44.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양국에 있어서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한 노인일수록 건강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은 여성노인일수록 건강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CFI=.808, RMSEA=.069, n=916 (한국 : 694,일본 : 222)

- 1)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
- 2) †는 모델을 식별하기위해 제약을 가한 부분

〈그림 1〉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과의 관계(표준화 계수)

4. 고찰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노인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동아시아형 지역복지정책 개발의 지침을 얻고자 한국노인과 일본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과의 관계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비교연구란 2개 이상의 대상을 가지고, 대상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일반규칙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국 노인의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현재 한일양국 모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증진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유지에 관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동아시아형 복지 모델 개발로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통계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다모집단 동시분석을 사용하였다. 다모집단 동시분석이 각각 다른 모집단간의 동질성(혹은 이질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宇左 2010), 본 연구의 인과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이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측정척도와 건강생활습관의 지속 측정척도에 대해 요인구조모델의 측면에서 본 구성개념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7요인 2차 요인모델로 가정한 건강생활습관의 지속 측정척도와 1요인모델로 가정한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측정척도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한일 양국 모두 통계학적으로 허용범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건강생활습관의 지속과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각각의 내용이 개념적으로는 일차원성을 갖는다는 점, 즉 양국의 데이터 모두에서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개념이 측정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국의 데이터로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의 내적 일치성을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로 검토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허용범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한일양

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인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인과관계모형을 구조방정식모델에 의한 다모집단 동시분석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과관계모델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서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으로 향하는 경로 계수는 0.630(기여율: 44.7%)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 모두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건강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다는 것과 함께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이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의존하는 정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모수추정치에 등치제약을 가하면, 전체적으로 모델의 적합도는 저하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건 속에서도 모델의 적합도지표가 통계학적으로 볼 때 대체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Bandura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그 과제의 실제 수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Bandura A 1997). 이는 자기효능감이 원인, 그 후에 어떤 행동이 결과로써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竹綱 외 1988).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행동 수행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은 체중조절, 흡연행동의 수정, 알코올 의존병, 거식증 등과 같은 보건행동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北田 외 1997),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통제변수에 주목하면,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은 여성노인일수록 건강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학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나 학력의 차이가 생활습관이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은 여성노인일수록,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고(조유향 2000),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서기순 2008)들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한국과 일본의 노인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건

강생활습관의 지속이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그 의존도가 같은 정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문화나 지역, 국가에 관계없이 자기효능감은 건강생활습관을 규정하는데 공통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건강생활습관의 지속에 대한 영향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건강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애초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는 건강증진법을 기초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에서는 ‘21세기 국민 건강 만들기 운동(건강일본 21)’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Health Plan 2010(2011년부터는 Health Plan 2020)’을 기초로 전개하고 있다(남은우 외 2004). 이러한 사업들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식사나 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의 인력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지역 내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와 연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지역복지관이나 경로당, 일본의 경우 공민관 등의 장소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 자기효능감은 ‘성공체험’, ‘생리적 환기’, ‘언어적 설득’, ‘대리체험’이라는 4개의 자원에 의해 높아진다고 하는 점(坂野 2005)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인 개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인 여러 명이 성공체험을 애

기하는 등의 그룹워크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이나 정책이 정비되고 나서야 보다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문화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증시킨 지역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노인의 수명, 특히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중점을 두었지만 추후에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큰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와 같은 검토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지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원, 김초강(1997) 「일부 노인의 건강행동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4(1), 73-95.
- 남은우, 조은주, 남정자, Hasegawa Toshihik(2004)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정책 비교」,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1(3), 19-33.
-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기획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노인장기요양 보호 종합대책방안」.
- 서기순(2008) 「노인건강행위와 관련요인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28(4), 1201-1212.
- 이가영, 박태진(1998) 「노인에서의 건강행위와 신체적 건강상태의 관련성」, 『대한가정의학회』 207, 538-548.
- 이명선(1995)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건강습관의 관련요인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 12(2), 48-61.
-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2010) 『인구통계자료집』.
- 장명화, 조원섭, 윤난희, 광민선, 유승현(2009)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유형 분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6(3), 125-135.
- 조유향(2000) 「노인의 노화인지 정도와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와의 관계」, 『노인간호학회』 2(1), 72-84.
- 조유향, 박윤창(2003) 「일부지역 재가노인의 연령,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한국노년학』 23(2), 141-153.

조현숙 (2006) 「간호대학생의 건강관련생활양식과 건강상태와의 관계」, 『기본간호학회』 13(3), 493-500.

森本兼巽, 丸山総一郎(2001) 「ライフスタイルと心身の健康」, 『心身医学』 41(4), 241-251.
坂野雄二(2005) 「行動変容プログラムの方法論的背景(認知行動療法と自己効力感)」, 『看護学雑誌』 69(6), 563-566.

斉藤 具子, 櫻木 智江, 上地 勝, 高橋 秀人, 加納 克己(1997) 「中高年者の健康生活習慣の性差について-茨城県里美村における調査研究-」, 『日本公衆衛生雑誌』 44(11), 803-816.

岡浩一郎(2003) 「中年者における運動行動の変容段階と運動セルフ・エフィカシーの関係」, 『日本公衆衛生雑誌』 50(3), 208-215.

杉沢秀博, 中谷湯明, 矢富直美, 高梨薫, 深谷太郎, 柴田博, 野口裕二, 横山博子, 久田満, 杉澤あつ子, 小野寺典子, 西村昌記, Jersey Liang(1995) 「高齢者の健康と生活に関する日米比較(その他 1)」, 『厚生指針』 42(10), 37-43.

横川吉晴, 甲斐一郎, 中島民江(1999) 「地域高齢者の健康管理に対するセルフ・エフィカシー尺度の作成」, 『日本公衆衛生雑誌』 46(2), 103-112.

宇佐美慧(2010) 「探索的なモデル選択過程を想定する多母集団同時分析」, 『日本行動計量学会大会論文抄録集』 38, 184-187.

공생사회정책통괄관(2009) 평성21년관 『고령사회백서』.

北田豊治, 李应喆, 飯倉修好, 朝野聡, 野原忠博(1997) 「中高年者における健康づくり行動の要因分析」, 『民族衛生』 63(5), 288-304.

竹綱 誠一郎, 鎌原 雅彦, 沢崎 俊之(1988) 「自己効力に関する研究の動向と問題」, 『教育心理学研究』 36(2), 172-184.

林仁実(2000) 「地域住民の健康生活習慣と健康状態の関係性」, 岡山県立大学修士論文.

副典之, 田中雅嗣(2010) 「ミトコンドリアゲノム多型と長寿・健康(特集分子伝疫学)」, 『日本公衆衛生雑誌』 74(9), 754-760.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elloc N, Breslow L (1972)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th Status and Health Practices', *Preventive Medicine*, 409-421.

Marcus B, Rossi J, Selby V, Niaura R, Abrams D (1992). 'The stages and processes of exercise adoption and maintenance in a worksite sample', *Health Psychology*, 11(6), 386-395.

Prochaska J, Diclemente C (1983) 'Stage and Processes of Self-Change of smoking: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3), 390-395.

Prochaska J, Diclements C, Norcross J (1992) 'In Search of how People Change.

Applications to addictive behaviors', *American Psychologist*, 47(9), 1102-111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World Health Statistics', 200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World Health Statistics', 2012.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관계

정영조 · 박지선 · 김정숙 · 윤정수 · 나카지마카즈오

오카야마현립대학 · 료비개호연구소 ·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

바이카여자대학 · 오카야마현립대학

1. 서론

2008년 한국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성원에 대한 생활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배경은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여성과 한국 농촌총각의 결혼을 시초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 결혼이민여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이 급증함과 동시에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가정 내 폭력, 가족해체 및 이혼, 살인사건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김재엽 외 2010: 546-572, 조애저 2010: 35)을 들 수 있다. 이후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법적근거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 결혼이민여

성 부부의 이혼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18).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민여성 부부가 결혼생활 속에서 겪는 부부간 갈등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문화(同文化)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혹은 이혼 리스크(Divorce risk)에 관한 연구들이 구미(歐美)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다수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커미트먼트 이론(Rusbult 외 1993; Johnson 외 1999)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커미트먼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의 지속, 즉 가족형성의 지속은 심리·정서적 상태를 반영한 ‘태도커미트먼트’(宇都宮 2005: 209)와 부부의 반려성(Companionship)을 반영한 ‘행동커미트먼트’(岡村益 1982: 9)로 구분된다. 커미트먼트 이론에서는 어떤 현상을 지속하거나 유지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경우, 태도변수와 행동변수는 그러한 현상의 지속성에 중요한 원인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결혼생활에 접목시킨다면, 결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가족형성을 지속해 가는데 어느 정도 관련하고 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의 하위개념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커미트먼트(태도와 행동)요인을 동시에 채택하여 결혼생활 및 가족형성 지속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결혼이민여성 부부의 이혼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족의 가족형성 지속의사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검토하는 작업은 다문화가족 해체 및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가족형성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커미트먼트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가설을 바탕으

로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가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A·B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9개소(A도: 15개소, B도: 14개소) 중, 11개소(A도: 10개소, B도: 1개소)의 협력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580명(A도: 480명, B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저자 중 한 명이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책임자(이하 조사원)를 만나 본 조사에 대해 협력을 구하여 이에 동의를 한 센터에 설문지를 전달하고,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설문 진행은 조사원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내용이나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할 것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약속한 후 직접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그 결과, 363명(A도: 280명, B도: 83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62.6%이었다.

조사내용은 대상자의 속성(연령, 국적, 학력, 결혼지속기간), 결혼생활 커미트먼트(태도커미트먼트와 행동커미트먼트), 가족형성 지속의사로 구성하였다.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기존 연구(宇都宮博 2005; 岡村益 1982)를 참고로 '배우자와 함께 가정생활을 지속해 가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고, 그 가운데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는 Meyer 외(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애착이나 호의적 감정을 의미하는 정서적 커미트먼트(Affective commitment) 4문항, 남편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감을 의미하는 규범적 커미트먼트(Normative commitment) 3문항, 가족해체(이혼)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의미하는 지속적 커미트먼트(Continuance commitment) 3문항의 3요인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제법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하였다.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는 기존의 연구(今江幸子 2003)를 참고로 '부부동반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화영역(4문항), 여가영역(3문항), 가사영역(3문항)의 3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그런 적이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의 3점 척도로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남편이 부상이나 병환으로 수입이 없어져도 스스로 노력해서 가정의 경제생활을 지탱해 가고 싶다', '남편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가고 싶다', '남편과 함께 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다', '남편이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될 수 있는 한 내가 수발하고 싶다'의 4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과 수량화는 '0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점: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2점: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의 3점 척도로 하였다.

이상의 조사를 위해 먼저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설문지를 완성시킨 후, 번역관으로 중국어판, 베트남어판, 타갈로그어판을 번역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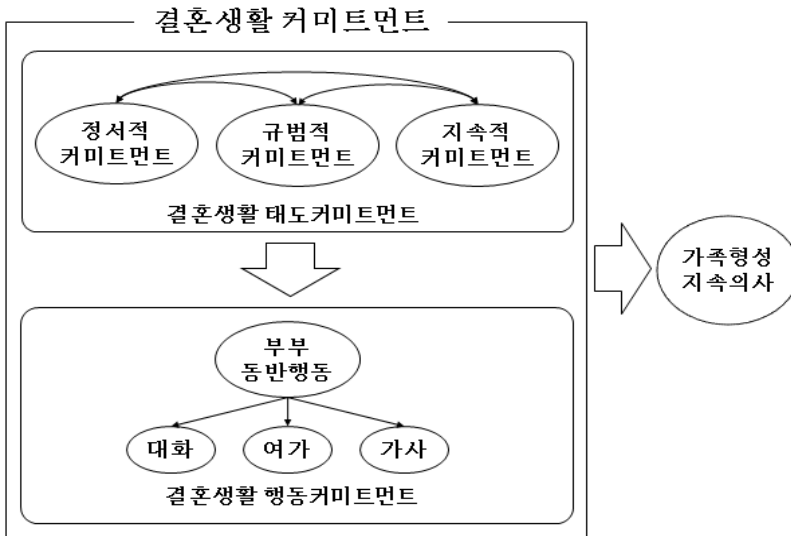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형성 지속의사를 종속변수, 그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에 대해서는 조직심리학 분야의 '조직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를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보다 앞선 요인으로 가정하여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인과관계모형의 분석에 앞서, 가족형성 지속의사,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의

각 척도에 대한 타당성은 구성개념타당성을 통해 검토하였고,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로 척도에 대한 신뢰성(내적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지수를 참고로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요인구조모형 및 인과관계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CFI(Comparative Fit Index)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 이상, RMSEA는 0.08 이하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파라미터 추정에는 최우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채용하였다.

분석에는 회수된 363명의 설문지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197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통계소프트 SPSS12.0J 및 AMOS5.0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6세(표준편차 6.27, 범위 20~54세),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4.6년(표준편차 3.08, 범위 1개월~18년 3개월)이었다. 대상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73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이 60명(30.5%), 필리핀이 44명(22.3%)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8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51명(25.9%), 2년제 대학 졸업이 40명(20.3%)순이었다.

<표 1>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분포(n=197)

| | | 단위: 명(%) | | |
|--------|-----------|----------------|------|--------|
| 연령 | 평균 | 29.6세 | 표준편차 | 6.27 |
| | | 범위 20~54세 | | |
| 결혼지속기간 | 평균 | 4.6년 | 표준편차 | 3.08 |
| | | 범위 1개월-18년 3개월 | | |
| 국적 | 베트남 | 73 | (| 37.1) |
| | 중국 | 60 | (| 30.5) |
| | 필리핀 | 44 | (| 22.3) |
| | 태국 | 12 | (| 6.1) |
| | 일본 | 3 | (| 1.5) |
| | 캄보디아 | 2 | (| 1.0) |
| | 몽골 | 1 | (| 0.5) |
| | 기타 | 2 | (| 1.0) |
| 최종학력 | 미취학 | 3 | (| 1.5) |
| | 초등학교 졸업 | 19 | (| 9.6) |
| | 중학교 졸업 | 51 | (| 25.9) |
| | 고등학교 졸업 | 68 | (| 34.5) |
| | 2년제 대학 졸업 | 40 | (| 20.3) |
| | 4년제 대학 졸업 | 12 | (| 6.1) |
| | 대학원 졸업 | 4 | (| 2.0) |

3.2. 각 측정척도에 대한 응답분포

3.2.1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의 응답분포는 <표 2>와 같다. 각 하위영역별로 응답범주 ‘매우 그렇다’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은 문항에 주목하면, 정서적 커미트먼트에서는 ‘남편은 나의 정신적인 안식처이다’가 103명(52.3%), 규범적 커미트먼트에서는 ‘가족의 분열은 피하고 싶다’가 93명(47.2%), 지속적 커미트먼트에서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이다’가 77명 (39.0%)으로 나타났다.

<표 2>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의 응답분포(n=197)

| 문항 | 응답범주 | | | |
|-----------------------------------|-------------|-------------|-------------|--------------|
| | 그렇지 않다 | 조금 그렇다 | 제법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정서적 커미트먼트] | | | | |
| Xa1 남편이 힘들 때에는 곁에서 지탱해 주고 싶다 | 3 (1.5) | 37 (18.8) | 62 (31.5) | 95 (48.2) |
| Xa2 남편은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 4 (2.0) | 42 (21.3) | 55 (27.9) | 96 (48.8) |
| Xa3 남편은 나의 정신적인 안식처이다 | 4 (2.0) | 42 (21.3) | 48 (24.4) | 103 (52.3) |
| Xa4 남편의 생각이나 기분을 언제까지라도 공유하고 싶다 | 4 (2.0) | 46 (23.4) | 66 (33.5) | 81 (41.1) |
| [규범적 커미트먼트] | | | | |
| Xa5 아이에게 괴로운 느낌을 갖게 하고 싶지 않다 | 32 (16.2) | 30 (15.2) | 45 (22.8) | 90 (45.8) |
| Xa6 가족의 분열은 피하고 싶다 | 28 (14.2) | 34 (17.3) | 42 (21.3) | 93 (47.2) |
| Xa7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다 | 70 (35.5) | 46 (23.4) | 27 (13.7) | 54 (27.4) |
| [지속적 커미트먼트] | | | | |
| Xa8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 67 (34.0) | 58 (29.5) | 27 (13.7) | 45 (22.8) |
| Xa9 남편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27 (13.7) | 60 (30.5) | 58 (29.4) | 52 (26.4) |
| Xa10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 26 (13.2) | 47 (23.9) | 47 (23.9) | 77 (39.0) |

3.2.2.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의 응답분포는 <표 3>과 같다. 각 하위영역별로 응답범주 ‘자주 있다’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은 문항에 주목하면, 대화영역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다’가 105명(53.3%), 여가영역에서는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한다’가 33명(16.8%), 가사영역에서는 ‘부부가 협력해서 식사 후 정리를 한다’가 43명(21.8%)으로 나타났다.

〈표 3〉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 응답분포(n=197)

| 문항 | 응답범주 | | |
|------------------------------|--------------|--------------|--------------|
| | 그런 적이 없다 | 가끔 있다 | 자주 있다 |
| [대화] | | | |
| Xb1 서로가 상대에게 고민거리를 상담한다 | 20 (10.2) | 101 (51.3) | 76 (38.5) |
| Xb2 서로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다 | 14 (7.1) | 78 (39.6) | 105 (53.3) |
| Xb3 서로가 상대방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다 | 16 (8.1) | 92 (46.7) | 89 (45.2) |
| Xb4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다 | 16 (8.1) | 106 (53.8) | 75 (38.1) |
| [여가] | | | |
| Xb5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한다 | 79 (40.1) | 85 (43.1) | 33 (16.8) |
| Xb6 부부가 함께 연극이나 콘서트를 보러 간다 | 106 (53.8) | 69 (35.0) | 22 (11.2) |
| Xb7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 | 95 (48.2) | 79 (40.1) | 23 (11.7) |
| [가사] | | | |
| Xb8 부부가 협력해서 식사 후 정리를 한다 | 53 (26.9) | 101 (51.3) | 43 (21.8) |
| Xb9 부부가 협력해서 빨래를 한다 | 74 (37.6) | 94 (47.7) | 29 (14.7) |
| Xb10 부부가 협력해서 청소를 한다 | 54 (27.4) | 105 (53.3) | 38 (19.3) |

3.2.3. 가족형성 지속의사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응답분포는 표4와 같다. 응답범주 ‘매우 그렇게 생각 한다’의 빈도가 높은 문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남편과 함께 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다’가 99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편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가고 싶다’가 96명(48.7%), ‘남편이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될 수 있는 한 내가 수발하고 싶다’가 82명(41.6%), ‘남편이 부상이나 병환으로 수입이 없어도 스스로 노력해서 가정의 경제생활을 지탱해 가고 싶다’가 63명(3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응답분포(n=197)

| 문항 | 응답범주 | | |
|--|--------------|--------------|-------------|
|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
| Xc1 남편이 부상이나 병환으로 수입이 없어도 스스로 노력해서 가정의 경제생활을 지탱해 가고 싶다 | 16 (8.1) | 118 (59.9) | 63 (32.0) |
| Xc2 남편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가고 싶다 | 7 (3.6) | 94 (47.7) | 96 (48.7) |
| Xc3 남편과 함께 손자를 볼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다 | 7 (3.6) | 91 (46.2) | 99 (50.3) |
| Xc4 남편의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될 수 있는 한 내가 수발하고 싶다 | 12 (6.1) | 103 (52.3) | 82 (41.6) |

3.3.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먼저 3요인 사교모형으로 구성된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CFI=0.932, RMSEA=0.109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수정지수를 참고(‘이혼은 부끄러운 것이다’와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의 오차상관을 허용)하여 모형을 수정한 후 다시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CFI=0.981, RMSEA=0.059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0.920,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0.786,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0.783으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에 있었다. 각 영역별 합계득점을 산출한 결과,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8.9점(표준편차 3.03, 범위 0~12점),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5.3점(표준편차 2.89, 범위 0~9점),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4.8점(표준편차 2.71, 범위 0~9점)이었다.

다음으로 부부동반행동으로 정의한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는 부부동반 행동을 1차요인, 대화, 여가, 가사 3요인을 2차요인으로 하는 3요인 2차요인 모형으로 가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CFI=0.961, RMSEA=0.073으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도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전체: 0.865, 대화: 0.823, 여가: 0.804, 가사: 0.827). 각 영역별 합계득점을 산출한 결과, 대화영역은 평균 5.4점(표준편차 2.03, 범위 0~8점), 여가영역은 평균 2.0점(표준편차 1.77, 범위 0~6점), 가사영역은 평균 2.6점(표준편차 1.82, 범위 0~6점)이었고,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의 전체 합계득점은 평균 10.0점(표준편차 4.46, 범위 0~20점)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형성 지속의사를 4문항 1요인모형으로 가정하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CFI=0.987, RMSEA=0.105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수정지수를 참고(‘남편이 부상이나 병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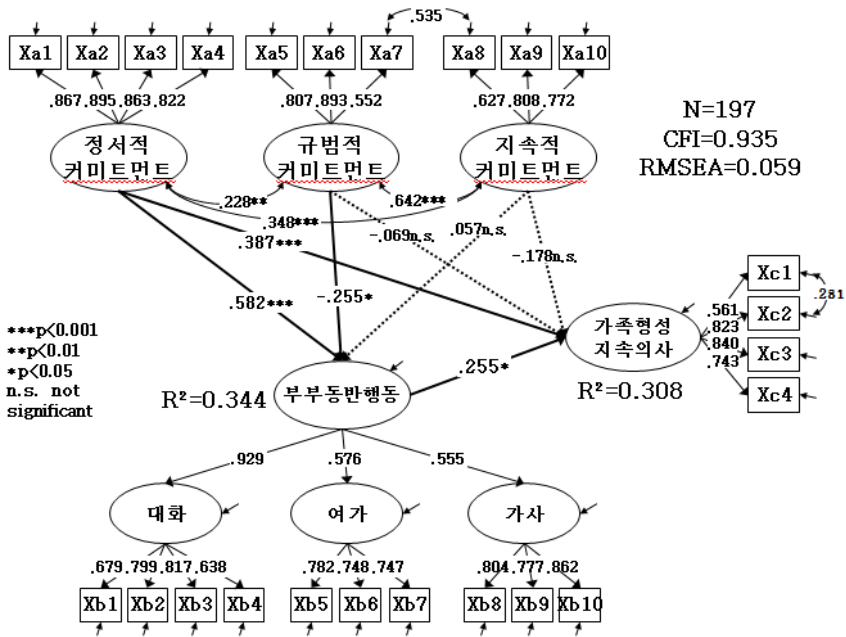
로 수입이 없어도 스스로 노력해서 가정의 경제생활을 지탱해 가고 싶다'와 '남편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키워가고 싶다'의 오차상관을 허용)하여 수정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CFI=0.997, RMSE=0.068으로 통계학적으로 허용수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0.842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에 있었고, 가족형성 지속의사 4문항에 대한 합계득점은 평균 5.5점(표준편차 1.91, 범위 0~8점)이었다.

3.4. 인과관계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가족형성 지속의사를 종속변수, 결혼생활 커밋먼트(태도커밋먼트, 행동커밋먼트)를 독립변수로 배치한 인과관계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CFI=0.935, RMSEA=0.059로 데이터에 적합하였다(그림 2).

각각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대해서는 결혼생활 태도커밋먼트 중 정서적 커밋먼트($\beta=0.387, p<0.001$)와 부부동반행동($\beta=0.255, 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생활 태도커밋먼트 중 규범적 커밋먼트와 지속적 커밋먼트는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부동반행동에 대해서는 정서적 커밋먼트($\beta=0.582, p<0.001$)와 규범적 커밋먼트($\beta=-0.255, p<0.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지속적 커밋먼트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관계모형에 있어서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대한 설명률은 30.8%, 부부동반행동에 대한 설명률은 34.4%이었다.



(그림 2)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관계(표준화계수)

4. 고찰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고, 다문화가족의 형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회복지학적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형성 지속의사와의 관계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가족형성 지속의사를 종속변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태도커미트먼트와 행동커미트먼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결혼생활 태도 커미트먼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각 측정척도에 대한 구성개념타당성과 신뢰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척도의 개발에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척도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수집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요인을 추출하는 관계로 그에 속한 문항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진다(김태일 2003: 259~260). 이에 최근에는 잠재변수에 관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요인 및 문항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출해 주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척도개발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의 요인구조모형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모형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결혼생활 행동커미트먼트를 의미하는 부부동반행동과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요인구조모형에 관해서도 확인적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적합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관계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 때,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구성하는 태도커미트먼트와 행동커미트먼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태도커미트먼트가 행동커미트먼트의 선행요인으로 가정한 후, 이 두 요인이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대해 태도커미트먼트를 구성하는 3요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한 부부동반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미트먼트를 중점적으로 다룬 조직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조직커미트먼트 3요소 중, 정서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이직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정서적 요소는 이직의사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Meyer의 1993; 難波峰子 2009: 22).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커미트먼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에 관한 4요인(존재의 전적수용 및 비대체성, 사회적 압력 및 무효력감, 영속성의 관념 및 집단지향, 물질적 의존 및 효율성) 중, 배우자에 대한 애정을 의미하는 존재의 전적수용 및 비대체성이 결혼생활을 지속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宇都宮博 2005: 215~217). 본 연구도 이와 동일한 결과로 배우자에 대한 애정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usbult(1980)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로 부부동반행동이 많을수록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다면, 부부가 일상 속에서 대화나 여가 등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가고, 이는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가족형성 지속에 대한 의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규범적 커미트먼트는 부부동반행동에 대해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결혼생활에 대한 의무감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양(東洋)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특징을 반영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남편을 가정형성에 모두 참가시키고자 하는 서양의 성역할과는 다르게 '남편은 일, 부인은 가사·육아'라고 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의식이 잔존해 있는 결과로서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부부동반행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의 요인 중,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어느 변수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Stanley외(1992)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의 유지와 재산 등의 물질적 이익과 자녀의 존재 등을 이유로 이혼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런 이유들이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강하게 규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의 가족형성 지속의사를 단순히 득실(得失)의 관점에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부동반행동은 결혼생활 태도커미트먼트와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사이에 위치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매개효과 및 한편으로는 간접효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변수가 행동변수를 매개변수로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도변수와 행동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형성 지속의사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정서적 커미트먼트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실천적인 개입방안에 대해 추가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한 기본방침은 외국인의 인권보장(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충실 등), 국가경쟁력의 강화(전문인력은 적극유도, 단순기능인력은 제한적 도입, 언어 등의 문화동질성을 가지는 외국국적동포의 우선배려), 다문화 포용과 사회통합(다양성에 대한 상호이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을 중시하고, 국익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고,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차별 및 편견 방지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반 만들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을 추진해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 영역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여성이 가족형성을 지속시켜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활문제(복지욕구)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활문제가 빈곤, 이혼, DV, Well-being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

의 결과변수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나아가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원조기술이 유효하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관점을 둔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부부동반행동을 결혼이민여성 부부에게 모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가 해당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조직적이면서 지역밀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미 부부상담사업이나 배우자 이해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과 같은 부부갈등과 가족해체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홍성희 등(2009: 141)의 연구에 의하면, 일회성 행사로서 인식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많고, 프로그램 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 방문 교사들의 경우, 원만한 가족형성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적응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주민의 편견해소를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형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한다면, 가족형성 지속의사에 대해 매개효과와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부동반행동에 주목하여, 특히 부부동반행동의 하위요소 가운데 빈도가 낮았던 여가영역에 초점을 맞춘 부부참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양성과 함께 부부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가의 의무화 등과 같은 강제성을 가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최호림, 이소영(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재엽, 최재성, Clifton R. Emery, 김동구, 박상인, 정윤경, 이정은(2010) 『2010년 가정 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태일(2003) 「행정학분야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측정오차의 문제」, 『한국행정학보』 37(1), 한국행정학회, 249-269.
- 박재규, 이정림(2010)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보건사회연구』 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2-169.
- 송지현, 이태영(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4-192.
- 조애저(2010) 「다문화가족의 결혼 및 가족생활과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6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35.
- 통계청(2012) 「2011년 혼인·이혼통계」.
- 홍성희, 김성숙(2009)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19-146.
- 赤星礼子(1996a) 「中年期における夫婦の伴侶性形成に関する研究(第1報)」, 『佐賀大学教育学部論文集』 43(2), 73-81.
- 赤星礼子(1996b) 「中年期における夫婦の伴侶性形成に関する研究(第2報)」, 『佐賀大学教育学部論文集』 44(2), 23-32.
- 今江幸子(2003) 「夫婦関係におけるコミットメントの規定要因に関する研究—伴侶性、夫婦満足感および投資モデルを中心に—」, 『愛知大学大学院 教育学研究修士課程論文』.
- 宇都宮博(2005) 「女子青年における不安と両親の夫婦関係に関する認知—子どもの目に映る父親と母親の結婚生活コミットメント」, 『教育心理学研究』 53, 209-219.
- 鈴木竜太(1998) 「組織コミットメント研究におけるサイドベットの理論の展開—サイドベット理論のレビューと新たな観点—」, 『経営と情報』 10(1), 11-26.
- 岡村益(1982) 「夫婦の伴侶性に関する研究—共働き夫婦を中心として」, 『福島大学教育学部論集』 34, 9-18.
- 難波峰子, 矢嶋裕樹, 二宮一枝, 高井研一(2009) 「看護師の組織職務特性と組織コミットメントおよび離職意向の関連」, 『日保保健科学学会誌』 12(1), 16-24.
- Amato, P.R.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 Demo, D.H. & Acock, A.C. (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8.
- Johnson, M.P., Caughlin, J.P. & Huston, T.L. (1999) 'The Tripartite Nature of Marital Commitment: Personal, Moral, and Structural Reasons to Stay Marri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60-177.
- Meyer, J.P., Allen, N.J. & Smith, C.A. (1993) 'Commitment to Organizations and Occupations: Extension and Test of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4, 538-551.
- Rusbult, C.E. & Buunk, B.P. (1993) 'Commitment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 Interdependence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2, 175-204.
- Rusbult, C.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2, 172-186.
- Stanely, S.M. & Markman, H.J.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95-608.

지방정부의 시민 거버넌스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카네무라 타카후미(兼村 高文) · 홍만표(洪萬杓)

日本 明治大學教授, 明治大學 市民거버넌스연구소 소장 ·
동 연구소 연구추진원(지역정책학 박사), 충청남도 국제전문팀장

1. 서론

오늘날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은 ‘관’과 ‘민’의 협동 거버넌스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 중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지방분권개혁이 진행되어 관민협동 거버넌스가 실천되고 있다. 최근 주민참여는 행정이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과 정책의 입안 및 결정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의 폭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주민자치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민참여예산(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 CPB)은 주민이 정책결정과 우선순위의 배분이 구체화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실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갖는 자치단체장과 심의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의 범위가 넓어지면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게 되어 대의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의회의 심의권도 침

해할 수 있다.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회의 반발이 있기도 했었다.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 세계 각국의 천 개가 넘는 지방정부에서 도입되었고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주민참여예산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실증일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시작은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크레라는 도시에서 예산편성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참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포르투알레크레시에서는 새로운 예산편성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서 지구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서비스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계기로 브라질의 모든 도시에서 남미, 유럽 등 각국의 도시로 확대되어 갔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거버넌스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립해야 한다. 단, 이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의미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직접 참여의 한계로 인하여 제도화된 대의민주주의가 주민참여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칫 관료제의 전문성, 의회의 대의 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손상시킬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라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회와의 역할 분담과 위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들의 병립은 어렵게 된다.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주민을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에, 어떠한 참여형태로 관여할지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인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주민참여예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부의 거버넌트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과정

정부(Government)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지금까지 통치형태가 변화하여 왔다. 이 변화를 Denhardt, J. V. and R. B. Denhardt(2007)는 대략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¹ 제1기는 1970년대로 그때의 특징을 종래의 계층형 행정관리(Old Public Administration; OPM)로 나타내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정치·행정의 구조 속에 행정은 제도에 충실히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역할은 행정서비스 전반을 생산하는 노 젓는 사람(rowing)이다. 제2기는 1980년대로 시장주의에 의한 행정과 재정의 개혁이 진행된 시기이며, Hood,C(1991)이 이름 붙인 New Public Management(NPM)로 불려진다. 이 시기의 정부는 노 젓는 사람에서 키잡이(steering)의 역할이 강조되고 행정은 성과를 목표로 한 경제합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지향의 정부로 생산자에서 중개역할(catalyst)이 강조된다. 제3기는 2000년대로 지나친 시장주의 개혁을 민주주의의 절차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New Public Service (NPS)로 나타났다. NPS의 정부는 시민에게 봉사자(serving)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주의와 목적합리성을 추구한다. 여기에서 정부, 시민 그리고 NPO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주체가 각각의 기준과 가치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과거 약 30년간 OPM에서 NPM, 그리고 NPS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하였다.

분명히 신자유주의를 논거로 한 슬림화·효율화의 NPM개혁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공공(公共)서비스 가운데 준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과 위탁업체 등에 의해 공급하게 되었고 공익 투자도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로 민간자금이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각국 모두 재정지출은 1980년대부터 2000년에 걸쳐 삭감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¹ Denhardt,J.V. and R.B.Denhardt (2007)의 3구분 해설에 관한 투고 「Public Management의 改革を考える」 『地方財政』(地方財務協会, 2006年 5月) 등을 참조.

매년 세출이 확대 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사회보장서비스 수요증가가 NPM개혁을 웃돌아 증가해 온 것이다. 영국 등은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두터운 사회보장서비스를 가차없이 삭감해왔지만 그래도 세출 감축은 달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NPM 정책에 대해서 OPM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시장주의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온 민(民)과 관민협동(PPP 등)의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를 Denhardt, J. V. and R. B. Denhardt는 NPS로 표현하였는데, NPM이 효율성을 우선 과제로 여겨 온 데에 반해 NPS는 민주성을 중시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봉사자로서 협동의 거버넌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민협동의 New Public Governance (NPG)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예를 들어 Osborne, S. ed. 2010).

지금까지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OPA에서 NPM으로 명확한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거쳐 정부는 민주성으로의 회귀를 진행하면서 관민협동의 연결망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involvement decision-making)가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온 것이다.

〈그림 1〉 OPA, NPM, NPS의 주요 개념과 내용

| | OPM (Old Public Administration) | NPM (New Public Management) | NPS (New Public Service) |
|---|---|---|--|
| Primary theoretical and epistemological foundations | Political theory, social and political commentary augmented by naïve social science | Economic theory, more sophisticated dialogue based on positivist social science | Democratic theory, varied approaches to knowledge, including positive, interpretive, critical and postmodern |
| Conception of the public interest | Politically defined and expressed in law | Represents the aggreg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 Result of a dialogue about shared values |

2 中邨章(2003), 宮川公男·山本清(2002) 등 참조.

| | | | |
|---|--|--|---|
| To whom are public servants responsive? | Clients and constituents | Customers and consumers | Citizens |
| Role of government | Row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cusing on a single, politically defined objective) | Steering (acting as a catalyst to unleash market forces) | Serving (negotiating and brokering interests among citizens and community groups, creating shared values) |
| Approach to accountability | Hierarchical - administrators are responsible to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s | Market-driven- the accumulation of self-interests will result in outcomes desired by broad groups of citizens (or customers) | Multi-faceted - must attend to law, community values, political norms, professional standards and citizen interests |

출처 : Denhardt, J. V. and R. B. Denhardt (2007)에서 작성

3.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현황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는 NPM에서 NPG로 변모하는 양상을 굳혀가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원래 기업통치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서 확대되었는데 이제는 공공부문에서도 퍼블릭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경영자)과 정부(행정관료·정치가) 당사자만으로는 책임 있는 통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협동하여 통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는 논의가 복잡하고 얽혀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점차 정리되고 있다.³ 즉, 위에서 기술한 NPS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정부는 어디까지나 봉사자이고 시민(citizen)과 NPO/NGO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공공가치를 인정하며 네트워크에 의한 협동이 이루어지고 민주적 결정이 존중되어온 것이다. NPM에서 중시된 효율화·유효화는 반드시 우선적인 과제는 아니고 오히려 시민참여의 민주성이 중요시되어 다양한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참여는 시민뿐만 아니라 NPO/NGO의 비영리·비정부단체 및

3 거버넌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Pierre J. and B.G.Peters,(2000)과 Osborne,P.S. edt.(2010)가 정리하였다.

자치단체와 지역조직 등도 포함된다. 이들의 다양한 참가자가 네트워크에 의해 공공 부문의 협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퍼블릭 거버넌스의 '시민'과 '주민'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citizen)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주체자라는 이미지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⁴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특성은 시민과는 달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람과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인 사람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주민에 의해 '주민참여'란 '자발적으로 지역적 공공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행정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⁵라는 특성이 있다. 다음은 시민참여의 구체적 절차로 설문 조사, 시민 모니터, 공청회, 주민 설명회, 자문회의, 심의회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에 의해 전자 매체에 의한 참여도 가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 참여의 절차는 행정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실시하는데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자문기관 등으로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민참여는 일반 주민이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지역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⁶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주민참여제도가 존재했으나 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전의 제도로는 반사회, 공청회, 자문회의, 민원 및 청원 등이 있다. 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민원모니터 제도,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제안제도, 주민의견조사, 주민옴부즈만제도 등 보다 직접적인 방식들이 도입되었다.⁷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보다 적극적

4 시민과 주민에 대해서는 牧田義揮(2007) 『住民参加の再生 空虚な市民論を超えて』, 勤草書房, 第1章 참조.

5 佐藤徹他(2005) 참조.

6 이종수 외(2005) 참조.

7 김광주 외(2006) 참조.

이고 실효성 있는 장치의 하나이며, 제도의 운용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기제(mechanism)가 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어 행정 및 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참획(参画 : 계획에 참여)’과 ‘자치(自治 : 국민 스스로 국가 일에 참여)’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⁸ 여기에서 참획이란 주민이 정책결정 기관에 참가하는 것이고 자치란 결정에 대한 주민의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이 참획과 자치의 관점에서 주민이 행정에 관련되는 정도를 사회학자 아른슈타인(Arnstein, S. R. 1969)은 ‘시민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로 정리하였다.

먼저 주민참여의 단계를 주민의 영향력에 따라 비참여(non-participation), 명목참여(degree of tokenism), 주민권력(degree of citizen power) 으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조작에서 주민통제까지 8단계로 구분하였다. 시민참여의 사다리는 그림2에 나타내듯이 ①에서 ⑧까지의 8개 계단으로 이루어진다. 첫 계단인 ① Manipulation과 ②Therapy은 완전히 비참여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권력자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다. 다음 ③Informing에서 ④Consultation을 거쳐 ⑤Placation까지는 형식적인 참가 상태이다. 이 단계까지는 불참가 형태이다. 그리고 ⑥Partnership에서 ⑦Delegated Power, 가장 높은 단계의 ⑧Citizen Control은 시민이 자치권을 갖는 실질적인 시민 참여이다. 아른슈타인은 시민참여에 대해 ‘시민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권력을 주는 것’⁹이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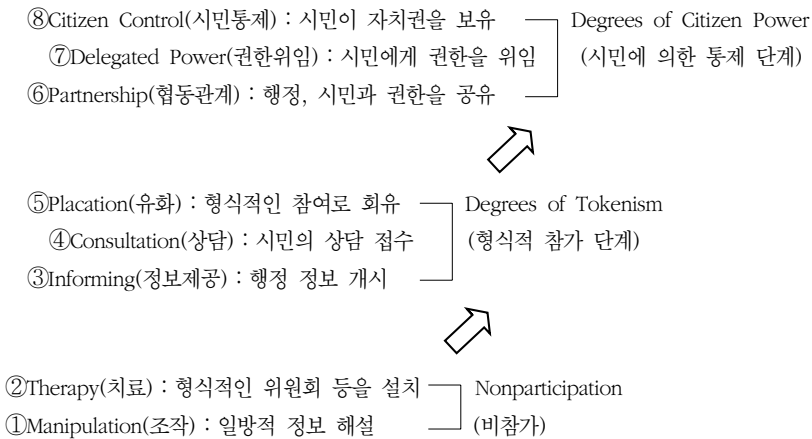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제도와 적용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직 ③에서 ⑤의 형식적인 참가에 그치고 있다고 가정된다. 단,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⑥의 시민에 의한 통제가

8 篠原一(1977) p.115.

9 Arnstein, S.R. (1969).

시행되는 곳도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으로 지방분권이 진행되어 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무가 의무적·형식적이며 실제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시민참여에 한계가 있다. ⑧의 단계는 앞으로 더욱 지방분권(지역주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달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 시민참여의 단계



출처 : Arnstein, S.R. (1969).

4. 선진적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각국의 사례

주민참여 거버넌스에서 주민이 정부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하는 주민참여예산(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 CPB)은 주민참가의 형태 가운데 주민의 의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수법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의 결정권은 주민선거에 의한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방 정부에서는 단체장이 가지며 예산 등 심의권은 의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CPB는 이들과

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의회가 CB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 해도 CPB가 1989년에 브라질 Porto Alegre시에서 시작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어 지금 세계에서 1,200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이들의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생각하였을 때 CPB는 무시할 수 없는 제도이며 한일 양국도 선진적인 사례를 연구하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도입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의회와의 관계도 논의하여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음은 CPB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세계에서 첫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참가:

브라질 Porto Alegre의 주민참가 예산제도

4.1.1. 도입 계기

1989년 브라질 남부 Rio Grande do Sul주의 주도(州都) Porto Alegre시에서는 ‘Orçamento Participativo’라는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주민참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은 매년 많은 주민이 참가하여 시의회가 정하는 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Porto Alegre는 브라질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높고 브라질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회운동이 활발한 도시였다. 또한 좌파의 노동자당(Workers Party)의 세력이 강한 도시이기도 하다.

1988년에 Porto Alegre시의 정권에 대해 노동자당은 정권 공약에서 거론한 생활 조건 개선 등의 공공서비스를 재정난 속에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검토하였을 때,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시민을 참여시켜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의회가 지역의 생활에 관련된 예산 결정에 관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두 번째는 선거에서 뽑힌 좌파 시장에 대해 의회에서는 반대파가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시장은 주민을 끌어들이기 기반을 굳힐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은 시장의 주도권에 의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은 그 후 16년에 걸쳐 노동자당의 시장에게 인계되었고 다른 브라질 도시와 남미 각국에도 도입되었다.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참가주민은 천명도 채우지 못했지만 그 후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5만 명을 넘었다. 2004년에 노동자당이 정권을 잃고, 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시민참가 여지는 점차 감소했지만 그래도 Porto Alegre시는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

4.1.2.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의 목적과 구조

Porto Alegre시에서는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을 도입한 목적을 3가지로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경제적 활동에 참가 기회를 뺏긴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곽에 사는 내팽개쳐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의회의 다수파를 공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패를 근절시켜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Fedozzi 2007)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생각은 시민을 공적 자금 배분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예산편성의 결정권을 주고, 또한 시를 운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민참가'는 아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 전주민평의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주택, 도시 기반, 복지, 교육, 문화, 스포츠, 청소년 육성 등 어느 지역이든 공통으로 갖는 테마에 따라 진행되는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 이 평의회는 주민 전원이 자기 지역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논하고 구체적인 안으로 발전시켜 나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모든 주민이 대표자가 될 수 있

지만 시장(市長)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또한 시의회는 시의 예산안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참여형 예산편성 프로세스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2단계: 지역대표자평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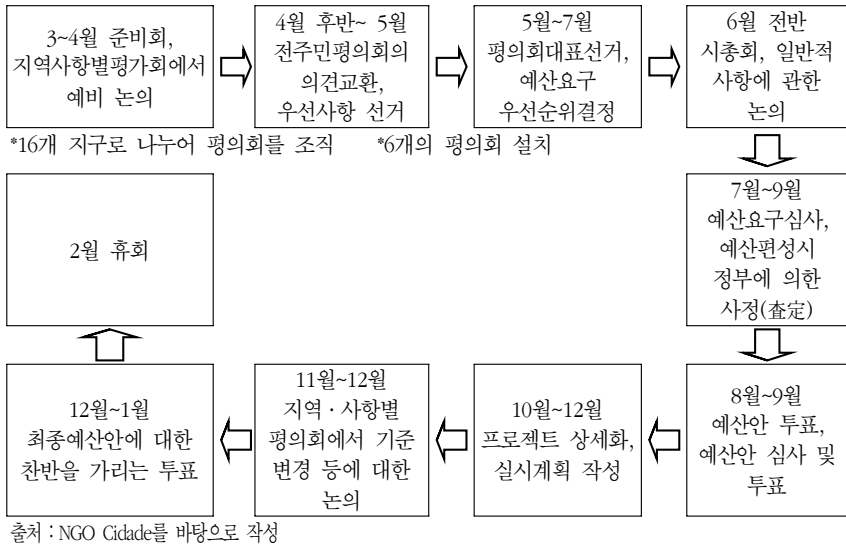
전주민평의회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참가한다. 대표자는 시민에 의해 엄격히 감시를 받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임된다. 대표자의 재선은 한정되며 통상의 시의회 의원 선출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3단계: 시대표자의회

시 차원에서의 참가형평의회는 1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진행된다. 목적은 지역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시에서 독립된 NGO 대표자가 시와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표3과 같이 1년에 걸쳐 진행된다.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시의 연간 지출과 수입, 공무원 급여 등이다. 장기에 걸친 도시와 경제 개발은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2차적인 화제로 돌린다. 예산은 1인 1표제에 의한 다수결에 근거하여 작성된 우선순위 리스트, 주민 수, 현존하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배분한다.(Baicocchi 2005) 즉 사회적 공정의 시점은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3〉 Porto Alegre시의 주민참가예산 프로세스



4.1.3. 많은 연구자가 언급한 Porto Alegre의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의 놀라운 성과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의 임파워먼트 실현

2002년까지 참가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최고점일 때에는 다수가 전주민평의회에 참가하였고 17,200명의 사람들이 지구 대표자 평의회에 참가하였다.

대표는 고졸 학력자와 남성, 고령자 등이 선발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참가는 점점 적어졌지만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빈곤층이 가장 많이 참가하여 스스로의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시와 주민과의 관계성이 향상되었다. (Baierle 2007; Fedozzi 2007)

②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행정서비스와 인프라가 눈에 띄게 개선

빈곤 지역에도 진료소가 설치되어 학교와 보육원이 증가하였다. 빈민가의 많은 길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고 많은 세대가 상수도·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균형 잡힌 도시개발과 유효한 예산 사용이 실현되었다.

③ 행정개혁 실현

평의회와의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협력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한 부서국이 설치되어 부패를 방지하고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시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의 유지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이를 작동시키는 것의 어려움, 세 번째는 참가형 예산 편성 프로세스 가운데 논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Allegretti 2003; World Bank 2008) 하지만 보다 많은 참가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이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4.2. 영국의 주민 참가형 예산편성: Coventry 시스템

4.2.1. 주민 참가형 예산의 시작

영국에서 주민참가에 의한 예산 편성이 시작된 계기는 브라질의 Porto Alegre 과 Recife의 실천이다. 하지만 영국의 참가형 예산편성을 지지한 것은 좌파 정당도 정치도 아닌 쇠퇴한 이웃 지역의 개발에 뿌리를 두고 노력하는 지역 사람들과 NPO/NGO 등이었다. 영국 국내에 참가형 예산편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 첫 '전도자'는 세계적인 자선단체 'Church Action on Poverty'의 지원을 받

은 영국의 도시 Manchester의 작은 NGO ‘Community Pride Initiative (CPI)’ 이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NGO ‘Oxfam’ 영국 사무소의 빈곤 근절 프로그램과 함께 CPI는 Manchester, Salford와 남미 브라질 도시 Porto Alegre, Recife 사이에서 어떻게 지역 사람들을 정책형성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다. 우선 2000년 5월, 브라질 NGO 멤버가 Manchester와 Salford를 방문하여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의 내용과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3개월 후에는 참가형 예산편성프로세스의 실제 운용을 배우기 위해 Manchester와 Salford에서 3명의 멤버가 Porto Alegre와 Recife를 방문하였다. 10일에 걸친 브라질 연수가 끝난 후에 참가형 예산편성은 블레어와 브라운의 노동당 정책 아래에서 검토되었다. 브라질 연수에 참가한 J Hall 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CPI의 멤버는 참가형 예산편성이 노동당 정권에서 실시해오던 ‘쇠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부흥’과 ‘행정 서비스 개선’ 등의 정책에 대해 시민참가에 관한 문제를 보다 구조적,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영국 국내에서도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보급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4.2.2. 국가차원의 시행으로 발전한 주민 참가형 예산편성

2004년 좌파 활동가 H. Wainwright 씨가 쓴 ‘Reclaim the State’가 계기가 되어 Bradford의 기업과 NPO, 행정관계자가 모인 ‘Local Strategic Partnership’에 설치된 이웃지역재개발팀 멤버가 실험적으로 처음으로 주민 참가형 예산편성을 실시하였다. Bradford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쇠퇴 지역부흥을 위한 기금에 관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도입을 시도한 것은 그 후 다른 쇠퇴 지역에도 실험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은 지역정부·지역성(Depart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 DCLG) 담당 대신인 H. Blears 씨에 의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2006년 10월에 공포된 정부백서 ‘Strong and Prosperous

Communities'에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블레이수상은 자신의 정책우선과제로서 주민 참가형 예산편성을 선정하여 2012년까지 모든 지방정부에서 참가형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는 국가전략을 세웠다.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은 현재, 지역 행정서비스에 관한 많은 결정권을 지역 커뮤니티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4.2.3. Coventry의 주민 참가형 예산 편성

Coventry는 영국 전원지대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제도시이다. West Midland에서는 Birmingham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이며 인구는 30만 명이다. Coventry의 기업과 NPO, 행정관계자가 모인 'Local Strategic Partnership'에 설치된 지역재개발팀이 주체가 되어 2008년에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이 실시되게 되었다. Coventry의 빈곤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커뮤니티가 510,000파운드를 준비하여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참가형 예산의 날'에는 처음에 미리 선정된 35개 사업에 대해 각각 2명의 대표가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빈곤 지역에서 파견된 참가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 관한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점부터 10점까지 채점한다. 10점 사업에 관한 발표가 끝날 때마다 채점표가 모아지고 함께 점수가 프로젝트에 반영된다. 채택된 지역 사람들은 받은 예산의 일부를 다른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에 관한 사업에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은 지역 사업에도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 채택사업에 뽑힌 지역사람들의 60~70%가 250~500파운드를 다른 지역으로 돌린다. 이 시스템은 2008년 이후에도 실시되고 있다. Coventry의 주민참가형 예산 편성은 아주 독특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하는 과제가 남는다.

4.3. 미국의 주민참가예산: Chicago의 사례

4.3.1. Chicago와 주민참가형 예산편성

Chicago는 19세기부터 공금 사용처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와 유착으로 악명 높은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주민참가예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사람들의 오랜 시간 지방정부에 대한 분노가 Chicago와 미국정부에 새로운 공금운용시스템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2007년, Chicago시 49th ward의 A.J.Moore구의 장(區長)은 주민참가예산에 관한 사회포럼을 통해 브라질 Porto Alegre에서 1만 명 이상의 사람이 시의 연간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과 주민참가예산은 세계의 120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United Nation에서도 주민참가예산은 민주적인 통치를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공금 사용처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는 시는 없지만 A.J.Moore구의 장은 Chicago의 49th ward는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4.3.2. Chicago 49th ward의 주민참가형 예산편성

Chicago 49th ward는 인구 약 6만 명이지만 80개국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다양성이 풍부하고 활력 있는 지역이다. 독립정신이 투철한 주민은 지방정부에 공금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계속하여 압력을 가하고 Moore 씨가 지역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을 할 경우에는 대립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Moore 씨는 130mil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2009년 4월, Moore 씨는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의 실시를 위해 공정표를 작성하는 ‘키잡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ward의 모든 지역조직 대표를 초청하여 주민참가예산에 관한 가이던스를 진행하였다. 11월부터 시작한 지역집회를 통해 주민은 130mil 달러의 사

용처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한 안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대표자를 뽑았다. 대표자는 키잡이 위원회 멤버와 함께 6개의 테마 별로 설치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4개월에 걸쳐 전문가와 상의하고 조사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복구가 제일 먼저 필요한 인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위원회의 멤버는 ward의 모든 도로를 한겨울에 직접 걸어보았다. 모든 위원회의 멤버는 ward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조사를 하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몇 개월 후, 지역대표자는 36개의 예산안 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에 대해 주지활동을 벌였다. 예를 들어 예술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센터인 Mess Hall에서 열리는 미술전시회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였다. 다음해 4월 10일, 국적 상관없이 16세 이상의 ward 모든 주민이 이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시행하였다. 그 전주에는 428명의 주민이 투표마감일전에 투표를 시행하였다. 이 인원은 2008년 구의 장을 뽑는 선거보다 많은 수였다. 투표 마감날에는 투표장인 고등학교 카페테리아에 사람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예산안을 보고 지역대표자와 의논하여 투표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1652명의 주민이 투표를 하였고 이들은 ward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130mil 달러의 예산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4개 사업에 사용되게 되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인도의 보수였고, 6개의 위원회 모두 1개 이상의 예산안이 채택되었다.

4.3.3. 더 많은 참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49th Ward의 주민참가예산편성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스페인계 사람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민에 대한 불안이 아주 적었다. 또한 몇 개 지역에서는 대표자가 주민과 1 대 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Moore 씨는 주민이 결정권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므로 주민참가형 예

산편성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것이라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또한 지역대표자는 이미 어떻게 주민 참여를 높일 것인지, 130mil 달러 이외의 공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다른 구에서도 다음 구의 장을 뽑는 선거를 위해 주민참가형 예산편성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움직임도 보인다.

4.4. 헝가리의 국민참여예산: 퍼센트법의 구조와 그 후

4.4.1. 퍼센트법의 지원제도란

헝가리정부는 1997년에 퍼센트법을 정하였다. 이 법률은 개인이 납부한 국세소득세의 1% 상당 금액을 납세자가 지정한 NPO/NGO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1%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아래의 2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소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두 번째는 소득세의 1% 상당 금액이 100HUF 이상이어야 한다.

납세자는 지원하고 싶은 NPO/NGO를 한 곳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1%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NPO/NGO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공익법인과 같은 단체로 전국 차원에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여야 하며 지방차원에서 적어도 과거 3년간 한 번은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영화와 박물관, 전시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체여야 한다. 즉, 지원을 받는 NPO/NGO는 치료와 복지, 교육, 문화, 스포츠, 고령자·아이·장애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익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것과 3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고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단체여야 한다.

1%지원제도는 하나의 세금 신고 프로세스이다. 1%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원하고 싶은 단체의 납세자번호 및 납세자 이름·주소를 납세자 번호와 함께 세금 신고시 세무서에 동봉하여 통지해야 한다.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위의 동봉한 서류를 고용주에게 주고 고

용주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한다. 소득세의 1%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진행된다. 납세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소득세의 1% 상당금액은 그대로 정부의 재원이 된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가 1%지원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지불되지 않는다.

4.4.2. 1%지원제도의 효과

1%지원제도는 NPO/NGO의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로 정부에게 자금원조를 받은 NPO/NGO 수는 그때까지 보조금을 받았던 수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의 총액은 보조금의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1%지원제도로 모인 자금의 4분의 3 이상은 지금까지 정부에게 받은 보조금을 반 이하밖에 받지 못했던 교육, 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져 풀뿌리 차원의 작은 단체에게도 자금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배분처로는 종래의 보조금의 경우 수도 부다페스트의 NPO/NGO에 70% 이상이 지원되었지만 1%지원제도에서는 모인 자금의 40% 정도가 부다페스트에 지원되어 지방에게 보다 많은 자금이 배분되었다.

1%지원제도에 대한 2009년에 시행된 국민조사에 의하면 94%의 성인이 1%지원제도를 알고 있으며 86%의 응답자가 NPO/NGO지원 방책으로 유효하다고 답한 걸로 보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의 과제는 어떻게 많은 국민이 계속적으로 이 제도에 참가하게 할 것 인가이다. 1%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성인 30%로 부유층에 해당하며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고령자와 생활지원자, 실업자, 장애자는 불가피하게 1%지원 제도라는 주민참가예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5. 한국과 일본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과제

한국과 일본 모두 주민참여 거버넌스가 정치와 행정의 논의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는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지방자치는 정지되었는데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가 시행되게 되어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동시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사무권한이 점차 이양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조례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2004년에는 주민투표제도, 2005년에는 주민소송제도, 2006년에는 주민소환제도가 각각 도입되었다.

일본에서도 1995년에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이 제정되어 1999년에는 지방분권일괄법이 성립되어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왔다. 두 나라의 지방자치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정부도 제도적으로 공공의 거버넌스 주체로 등장해 왔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두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참여제도의 추이를 정리해 보겠다.

5.1. 한국과 일본의 지방제도와 주민참여 추이

한국과 일본의 지방제도는 중앙정부 아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 2층제이다. 두 나라 각 각 지자체 수는 한국이 228개와 16개, 일본은 1720개와 47개로 일본의 지자체 수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당 인구는 한국이 약 20만 명인데 비해 일본은 약 7만 명이다. 또한 한국의 기초지자체 아래에는 행정구역인 읍, 면, 동 등이 놓여지며 광역지자체의 광역시, 도 등에는 출장기관이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3층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초지자체 수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책적 배경과 요인에 의한 것으로 수의 많고 적음은 지방자치와 거버넌스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림 4) 지방정부의 구조와 수

(2010년 현재)

| | 한 국 | | | | | 일 본 | | |
|-------|-----|-----------|---|-------|-----|-----|-------|-------|
| 광역지자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합 계 | 도 | 도부현 | 합 계 |
| | 1 | 6 | 8 | 1 | 16 | 1 | 46 | 47 |
| 기초지자체 | 자치구 | 자치구·군·시·군 | | | | 특별구 | 시정촌 | |
| | 23 | 44 | 8 | 73 | 81 | 23 | 1,720 | 1,743 |

다음으로 주민참여에 관해 살펴보자. 두 나라 모두 1990년대부터 지방분권 개혁에서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민도 포함하여 “지방자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으로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어 원칙으로 지방사무는 자치사무로 바뀌고 국가에서의 사무는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는 2006년에 국세소득세에서 지방세주민세로 3조엔 세율이 이양되어 재정적인 단체 자치도 확보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도부현에서는 세출의 70~80%, 시정촌에서도 60% 전후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의무화·의무적 사무에 지출되며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무는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본보다 국가에 의해 의무화된 지출이 많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여전히 적다.

지방정부의 자립을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한층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분권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지방정부에서도 행정절차조례와 정보공개조례가 많은 단체에서 제정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주민 의견 공모인 퍼블릭 코멘트가 확대 실시되어 정착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의회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가결하였다. 오사카부(大阪府) 미노오시(箕面市)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조례를 1997년에 제정하여 그 후 많은 단체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이치현(愛知県) 타카하마시(高浜市)는 시정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 결정을 주민 투표로 결정한다

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를 2000년에 제정하였다. 그 밖의 지방정부 헌법이라 불리는 자치기본조례도 많은 단체에서 제정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행정 절차법이 1996년에 제정되어 공개와 참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방정부에서도 주민참여 절차가 진행되고 2003년에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시민참여기 본조례가 제정되었다. 2004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투표가 인정되어 주민의 직접 청구가 확립되었다.

〈그림 5〉 한일 주민참여제도의 정리 현황

| | 일 본 | 한 국 |
|-------|--|--------------------------------------|
| 1990년 | 1993년 : 행정절차법제정 1997년 : 첫 시민참여조례 (오사카부 미노오시) | 1996년 : 행정절차법제정 |
| | 1998년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제정 1999년 : 정보공개법제정 | 1999년 : 비영리민간단체법제정 |
| 2000년 | 2000년 : 첫 주민투표조례 (아이치현 타카하마시) | 2003년 : 첫 시민참여조례 (광주시 북구) |
| | | 2004년 : 주민투표법제정 2011년 : 주민참여예산법제정 |

5.2.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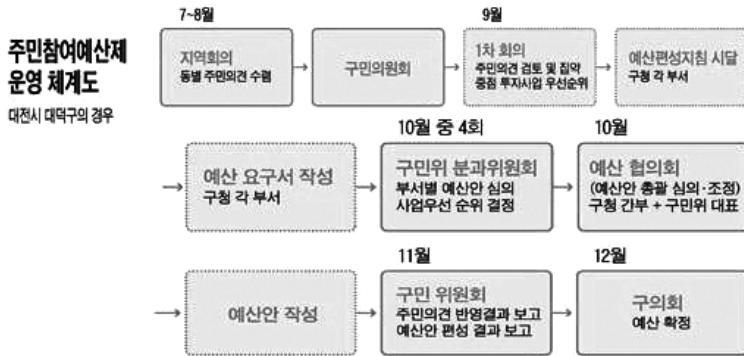
주민 참여가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일본과 같이 주민에게 감사청구나 정보공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무렵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주민은 당초 그렇게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도 주민 참여에 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의회도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2000년경부터 각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확산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주민참여의 하나의 형태로써 주민참여 예산이 선진적인

지방정부가 도입하기 시작했다.

광주시 복구는 2003년에 브라질 Porto Alegre를 참고로 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한국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주민참여 의식이 대체로 높고, 예산에 주민 의사가 비교적 반영되어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2004년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대전광역시가 도입했다. 대전광역시는 2006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추천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예산편성 프로세스 단계부터 관여해 왔다. 그러나 추천 위원은 학식 경험자나 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이며, 일반 주민이 대상이 되지 않았기에, 2008년부터는 위원의 30%를 공모로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시행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서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제정한 주민참여 예산조례에서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했고, 예산편성시 주민을 참가시키고 있다. 조례에는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외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주민대상 예산 연수 실시,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 설치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 밖의 도 차원에서는 충청남도가 2010년부터 참

여와 소통을 테마로 도지사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과 동시에,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주민참여는 보통 기초자치단체가 일반적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도 이러한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전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도 주민과의 직접대화로 주민요구사항(아이디어 및 애로사항 등)을 직접 수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소통 담당부서는 정책마다 테마에 대하여 시민의 아이디어나 요구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실시하고 있다. 참여예산이라는 제도와 절차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현황은 2010년 6월 말 현재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102단체이다. 한국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서 244곳이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봐서 도입이 상당히 진전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을 근거로 모든 지자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2012년에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례 설명이나 도입 절차를 규정하고 3개 모델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의 하나로써 주민참여 및 재정책임성 확보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수렴한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 및 공개하도록 지침을 정하였다(<http://www.mopas.go.kr>).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권장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일반적으로는 주민참여는 주민 발의에 따라서 진행되지만, 주민 자치 의식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행정이 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각국이 도입해 온 사례를 보면 지자체장의 리더쉽이거나 국가의 주도 등이며, 주민이 주체로 되어서 도입이 실현된 예는 없다.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행

정기관에서 주도권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동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그 방법으로서는 i)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ii)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iii)사업공모, iv)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사업공모 외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위 법령에 직접 근거한 토론회·설명회 등은 조례의 제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현재까지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부분이 주민을 배제하고 있 다든지, 참여를 한정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 직접참여는 의회에서의 반발도 강할 것이지만 널리 같은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본질이고, 주민참여 통치를 형성하는 중심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속의 인터넷이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를 권장하는 형태는 향후 주민참여의 큰 성과가 기대 된다. 그렇다고 해서 편향된 계층, 이익집단에 대한 쏠림 현상의 문제점 등이 동시에 해결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공개와 참여만으로 특정소수에게 균형 잡힌 분배와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정한 행정이 행하여 질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진정한 주민참여의 또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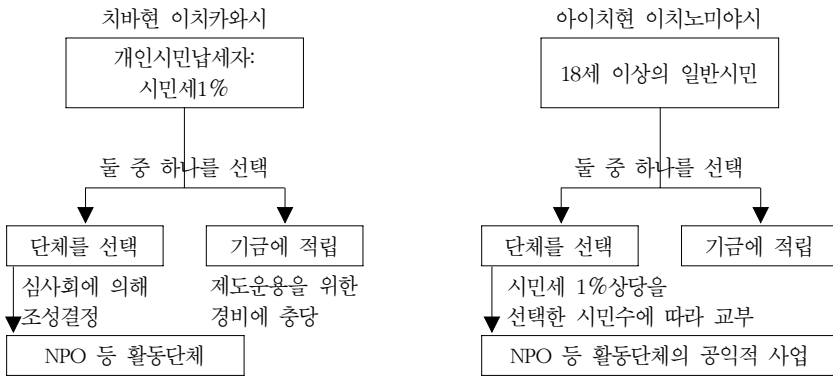
부터 참여가 현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공존하며 그 효과 또는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 가고 있는가는 향후 철저한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민도 행정에 참여하는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 등 주민 자신의 자발적인 행동양식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진화시키기 위한 민관협치 행정시스템의 구축을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삼고 있다.

5.3. 일본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급과 과제

일본에서 주민참여의 움직임은 1995년 지방분권개혁이 시작될 즈음부터 높아져 1997년 오사카부 미노오시가 처음으로 시민참여조례를 규정하면서 확대되었다. 그 후 지방정부의 헌법이라 불리는 자치기본조례가 많은 단체에서 규정되어 제도적으로 주민참여가 정비되어왔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살펴보면 아직 극히 일부의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직접 주민참여를 인정하는 사례는 없다. 주민참여예산의 유형으로 일본에서 첫 도입은 치바현(千葉県) 이치카와시(市川市)의 '시민이 정하는 시민활동단체지원제도'(1%지원제도)이다. 치바시의 전(前) 시장은 헝가리의 %법을 참고하여 2005년도에 '이치카와시 납세자 등이 정하는 시민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치카와시관 %예산은 시민의 세금에 대한 납세의식을 높여 시민활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치카와 시민이 납부하는 시민세 가운데 1%를 시가 인정하는 NPO 등의 공익적 활동 단체에 납세자가 직접 지정하여 활동 자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1%지원제도는 아이치현 이치노미야(一宮)에서도 도입되었는데 이치노미야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을 납세자로 한정시키지 않고 18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림 7〉 1%지원제도



이치카와시 사례의 경우, 제도가 시작된 2005년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6,226명(2.8%), 교부단체가 81개, 지원 금액은 약 1.5천만 엔 정도였다. 그 후 2010년에는 각각 8,893명(4.2%), 138개 단체, 약 1.6천만 엔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이치노미야시의 사례에서는 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이용자는 대상자의 10%이다.

이치카와시의 %예산에 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주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과세자가 처음부터 제외된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아래 평등에 반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같은 %예산을 도입한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서는 납세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18세 이상의 주민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이외에 행정이 책정하는 예산과 별개로 주민의 대표에 의해 예산을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사이타마현 시키시(志木市)에서는 시장(2006년~2009년까지)이 주민을 공모하여 예산책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의 히어링 등을 반영하여 동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책정하였다. 시장은 위원회가 책정한 예산을 참고로 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을 결정하였다.

일본에서는 Porto Alegre와 같은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편성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은 간접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과 의회에서 반발이 많다. 위에서 기술한 시키시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일본에서는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된 지방정부는 거의가 지자체장의 주도권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 참여의 움직임은 주민 사이에도 확대되고 있고 의회와의 논의를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보급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6. 선진사례로부터 배우는 주민참여예산의 전개

- 주민참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언

주민참여예산은 지금까지 선진사례에서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직접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유형'이다. 브라질의 Porto Alegre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자치회와 지역 대표자 회의 등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 프로세스에 직접 관여하여 예산의 10% 이상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간접민주관여형 예산편성유형'이다. 주민참여는 선정된 지식인으로 한정되어 전원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예산을 정하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도입되어온 것이 이 유형에 가깝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모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지식인과 행정관계자 등이 정부의 선정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프로세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되어 결정보다도 관여 정도에 그친다. 세 번째 유형은 '납세자참가형 예산편성유형'이다. 형가리 %법이 그 예로, 납세자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지정 단체에 지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앞의 2개 유형이 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 유형은 예산편성 후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주민에 의한 거버넌스 확립이다. 위에서 분류한 3개 유형은 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예산 규모와 범위가 각각 다르지만 주민에 의한 거버넌스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어느 유형을 선택할지 저마다의 여건과 지방자치의 깊이 등에 따라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에서 어느 유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현시점에서 생각해보자. 주민참여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유형밖에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미 제도로서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2012년도부터 모든 지방정부에 의무화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도입이 진전된 나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에는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문제점은 주민참여의 절차이다. 민주적 거버넌스 단계로는 전원에게 참가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정적인 참여로는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민에게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NPO/NGO 등 제3섹터 육성이 아직 불충분하다. 거버넌스의 주체는 개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공공 거버넌스에서는 개인과 NPO, 공공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요구된다. 공통 이해를 가진 단체와 조직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NPO/NGO는 육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버넌스의 일익을 담당할 주체라고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주민참여는 이러한 참여주체 육성과 함께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진사례로 본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거버넌스에 등장하는 참가자(주민과 NPO/NGO 등)의 특징은 각국의 경제사회, 정치상황 등에 의해 참가자의 양상이 다르다. 특히 군정에서 사회주의정당인 노동자당(Workers Party : PT)으로 정권이 교체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크레에서는 직접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되어 큰 성과를 남겼지만 이

는 주민 측에 선 지자체장의 정치력에 의한 리더가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국가였던 동유럽의 헝가리에서도 민주화로의 움직임 일환으로 국가 주도의 시민참여가 실시되었었다.

한편, 일본에서 주민참여가 조례화되는 등 민주참여 제도는 정비되어 왔지만 주민참여예산까지 추진되지 않은 것은 재정위기가 예산편성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과 최근 자치의식이 낮아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재정위기 일수록 주민의 책임에 의한 예산편성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 의식이 그 버팀목으로, 쇠퇴되어가는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정착이 큰 국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 거버넌스는 현재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닌 지방 자치를 주장하는 학자와 지방정치가, 지방주권자 등에 의해 이상적으로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는 세계자치헌법에서도 제창되고 있듯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민간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고 있고 민주적 사회 형성에서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해 두고 싶다.

7. 맺음

공익 거버넌스 영역은 매일 그 양상을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 양상은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복잡 다양한 요구를 호소하면서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행정학자 누구나가 논의해 왔듯이 여기에는 민주적인 정부, 다양한 개인, NPO/NGO 등 많은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참가 주체가 늘어나면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주민참여는 한정된 참여였지만 앞으로 정부가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등의 참여 의식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되면 조정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거버넌스 영역의 앞으로의 숙제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의 첫 번째 유형이라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에는 지자체장과 의회의 대표제 민주주의와의 조정을 잊지 말아야한다. 누구나 원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는 누구나 원하지 않는 거버넌스가 될 수도 있다. 조정과 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제도설계를 우리는 제안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주 외(2006) 『지방정부와 혁신정책』, 대영문화사.
- 이종수·윤영진(2005)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小池洋一(2004) 「ブラジル・ポルトアレグレの参加型予算」, 『海外事情』 2004年 12月号, 拓殖大学.
- 篠原一(1977) 『市民参加』, 現代都市政策叢書.
- 神野直彦・澤井安勇 編著(2006) 『ソーシャルガバナンス』, 東洋経済新報社.
- 申 龍徹(2007) 「住民参加制度の日韓比較」, 『自治総研』 通巻344号.
- 坪郷 實(2006) 『参加ガバナンス—社会と組織の運営革新』, 日本評論社.
- 中邨 章(2003) 『自治体主権のシナリオ ガバナンス・NPM・市民社会』, 芦書房.
- 牧田義輝(2007) 『住民参加の再生 空虚な市民論を超えて』, 勁草書房.
- 松下啓一・茶野順子(2006) 『新しい公共を拓くパーセント条例』, 慈学社.
- 松田真由美(2006) 「自治体予算編成過程への市民参加」 『トルクレポート』, とっとり政総合研究センター.
- 宮川公男・山本清(2002) 『パブリック・ガバナンス 改革と戦略』, 日本経済評論社.
- 李 憲模(2011) 「韓國の地方自治における住民参加の仕組みと課題」, 『新しい公共と自治の現場』, コモンズ.
- Allegretti, G. (2003) *L'insegnamento di Porto Alegre. Autoprogettualità come paradigma urbano*, AlineaEditrice, Firenze.

- Arnstein, S.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Planning*, Vol. 35, No. 4, July, 216-224.
- Avritzer, L. (2009) *Participatory Institutions in Democratic Brazil*,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Baierle, S. (2007) *Urban Struggles in Porto Alegre: between Political Revolution and Transformism*, NGOCidade, Porto Alegre.
- Baiocchi, G. (2005) *Militants and Citizens. The Politics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Porto Alegr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An Action Plan for Community Empowerment*.
- Community Pride Initiative (2000) *A Citizens' Budget, Regenerating local democracy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in public budgeting*, CPI.
- Cortner, H. & M.A. Moote, eds. (1999) *The Politics of Ecosystem Management*, Island press.
- Denhardt, J.V. and Denhardt, R.B. (2007) *The New Public Service*, M.E.Shape.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1998) Transport and the Regions, *Modern Local Government: In Touch with the People*, DETR.
- Fedozzi, L. (2007) *Observando o Orçamentoparticipativo de Porto Alegre*, Tomo, Porto Alegre.
- Geissel, B. (2009) 'Participatory Governance: Hope or Danger for Democracy? A Case Study of Local Agenda 21',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35, No. 4, August.
- Hood, C (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Vol.69, spring.
- Hwang, Y. (2008) 'Citizen Involvement in Budget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CPB) Experience in Korea'.
- Lovan,W,R.,Murray,M. and Shaffer,R.,edt. (2004) *Participatory Governance-Planning, Conflict Mediation and Public Decision-Making in Civil Society*, Ashgate.
- NGO Cidade in Porto Alegre <http://www.ongcidade.org/site/php/comum/capa.php>
- Osborne,P.S. edt. (2010) *The New Public Governance*, Routledge.
- PB Unit (2008), *Participatory Budgeting. Values, Principles & Standards*.
- Pierre J. and B.G.Peters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St.Martin's Press.
- Salamon, Lester M. and Anheier, Helmut K. (1998):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Voluntas*, 3.
- Schervish, Paul G. and Havens, John J. (1997): Social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a multivariate analysis, *Voluntas*, 3.
- Seibel, Wolfgang (2009): Successfully filing imit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in post-

- communist countries, Manuscript, Konstanz.
- Shah,A.,edt. (2007) Participatory Budgeting, The World Bank.
- Simon, John G. (1987): The tax treat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A review of federal and state policies, In: Powell, Wampler,B.(2007) *Participatory Budgeting in Brazil—Contestation, Cooperation, and Accountabil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okolowski, S. Wojciech (1996): Show me the way to the next worthy deed: toward a microstructural theory of volunteering and giving, *Voluntas*, 3.
- Steinberg, Richard (1990): Taxes and giving: new findings, *Voluntas*, 2.
- Walter, W. (ed.):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World Bank (2008, ed.) *Brazil Toward a More Inclusive and Effective Participatory Budget in Porto Alegre*, World Bank, Washington, D.C.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거점

리 기 성

조선사회과학원

오늘 지역경제협력은 세계경제발전의 주요한 추세로 되고있다. 지역내 경제기술적협력과 련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세계경제발전의 추세에 맞게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지역의 경제발전을 보다 힘있게 추동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내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것은 동북아시아나라들의 일치한 요구이며 지역내 공동의 번영과 리익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지역은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는 커다란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발전 수준도 높다. 해당 나라들의 경제발전 정도를 특징짓는 중요지표의 하나인 국내총생산액(GDP)에서 세계적으로 2위와 3위에 있는 나라도 동북아시아나라들이며 외화보유액순위에서 5위권에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은 지역경제협력의 발전추세에 비해 볼때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력은 아직 원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기 동북아시아지역은 지역의 특수한 력사발전과 동서랭전 관계의 집결점이라는 지역적특성으로 경제협력체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없었으며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조직체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랭전의 종식, 지역내 나라들의 급속한 경제발전,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지역경제 협조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은 두만강 하류지역 특히 조선의 라선지구를 지역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을 통하여 지역경제 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는데 기본초점이 돌려져왔다.

동북아시아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제회의와 토론회들에서는 두만강 지역개발이 지역내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라고 하면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개발과 호상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두만강 하류지역부터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라선지구가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개발하고 이 지역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황금의 삼각주》로, 지역경제 협력의 기본거점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조선과 중국, 로씨야 세나라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방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의 기본거점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들사이에 경제문화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면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힘을 합쳐 빨리 발전 할 수 있으며 정치적단결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동북아시아지역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지목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대가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우선 동북아시아지역경제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좋은 항만조건을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을 위한 거점과 기지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도로, 항만

과 같은 경제의 하부 구조조건이 유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항만 조건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내륙국가들과 해안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은 어느 항을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 되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조선동해면에는 크고 작은 여러개의 항구들이 있다. 그러나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항의 위치, 분포상태, 개발조건 등에서 라선지구의 항들과 같이 유리한 항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50km의 반경권안에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 웅상항이 항무리를 형성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에 호상 교류되는 물동들을 제 때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조건과 함께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인적, 물적요소들의 보다 원활하고도 공고한 결합을 실현 할 수 있는 중심기지로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선지구에 밀집되어 있는 4개의 항들은 중국동북과 로씨야의 하싼과 철도, 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이미 1984년부터 로씨야와는 1960년대부터 중계화물을 수송하는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선의 라진항은 대초도와 소초도가 천연방파제를 이루고 있어 인공방파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도 1억이상까지 항능력을 계속 확장 할 수 있으며 겨울에 얼지 않아 년중 지속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개발경영상 리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선지구 항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잘 리용하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항만조건이 좋을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라선지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로씨야 세나라가 린접하고 있는 분기점이다. 라선지구에서는 비행기로 2시간, 배로는 하루면 동북아시아의 모든 지역들과 나라들에 갈 수 있다. 동북아시아 나라들이 라선지구를 경유하면 무역화물 수송거리와 시간을 최대한

으로 단축하고 교역량을 훨씬 증가 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 동북지방과 일본 사이의 수송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중국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방 특히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조선동해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 지금까지 료녕성의 대련항을 통하여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상의 나라들과 무역거래를 진행하여 왔다. 훈춘에서 대련까지 철도선의 거리는 약1200km이지만 훈춘에서 라진까지는 불과 110km밖에 안된다. 길림성 장춘과 흑룡강성 할빈에서 대련까지의 륙상로에 비하여 장춘-라진, 할빈-라진까지의 륙상거리는 각각 200km, 280km로 단축된다. 해상로와 대비하여 보아도 중국의 대련항에서 일본의 니이가다항까지는 1070mile이지만 라진항에서 니이가다항까지는 475mile로서 600mile이나 가깝다. 그러므로 중국이나 일본이 조선의 라진항과 청진항을 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라선지구는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교의 교두로서도 지목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러 개의 통로중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통로는 라진항을 관문으로 하여 이어지는 대륙교이다. 지금까지 일본과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 수송로들은 로씨야의 올라지보스뜨크항을 거쳐 씨비리 횡단철도를 리용하는 대륙로(1만1000km)와 인디아양-수에즈운하-지중해를 거쳐가는 해상로(2만700km), 인디아양-남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해상로(2만7000km), 일본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본토의 서부에서 동부로 열차 수송하여, 다시 배로 유럽으로 수송하는 태평양-대서양행로(1만9500km)가 있다. 일본의 고베항이나 니이가다항에서 라진항을 시점으로 하는 통로를 리용하여 유럽의 로테르담으로 가면 올라지보스뜨크항을 거쳐 씨비리횡단철도로 가는 것보다 약 3일간, 수에즈운하를 통한 해상항로에 비하여 9일간, 케이프타운을 거치는 해상로에 비하여 18일간이나 수송기일을 단축하면서도 수송비용을 각각 5분의 1과 2분의 1이상 절약 할 수 있다. 지역내 나라들이 해상항구들과 철도, 도로를 리용하여 종전보다 수송기일과 수송비를 단축하게 되면 상품원가와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리익증대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라선지구는 앞으로 늘어나는 중계화물 수송수요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부 구조능력을 전망적으로 확대하는 견지에서라도 투자의 효과성이 높은 개발 대상이다. 이 모든 것은 라선지구가 자연 지리적 위치에서 매력적이며 자연 기 후적 조건뿐만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개발조건을 갖춘 지구로서 동북아시아의 그 어느 지역보다 지역경제 협력의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동북아시아지역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지목되게 된 것 은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유망한 자원배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통로로서의 발전전망은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이 얼마나 크며 그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은을 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라선경제무역지 대가 안고있는 배후지의 방대한 경제적 잠재력은 이 지대가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될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로씨야의 원동과 중국의 동북지방, 몽골을 포괄하는 세 계적으로 가장 자원이 풍부한 동북아시아 대륙을 배후지로 하고 있다. 621만km² 에 달하는 로씨야의 원동지역에는 70종의 천연자원이 무진장하게 매장 되어 있다. 현재 로씨야에서는 원동지역의 이 방대한 자원을 개발, 리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망계획을 세우고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

로씨야는 원동지역의 자원개발을 아시아지역으로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되도록 만들며 로씨야 경제발전의 주요기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을 다그치고 있다. 로씨야의 방대한 자원이 개발되는 경우 조 선의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하여 중계수송되거나 가공수출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라선지구는 또한 로씨야원동지역에 못지 않는 중국동북지방을 배후지로 하고있다. 80만km²에 달하는 중국동북지방은 중국에서 경제적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의 하나이다. 이 지역에는 중국에서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철, 원유, 석탄,

몰리브덴, 망간, 니켈,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몽골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직접 잇닿아있는 린접지역은 아니지만 조선동해로의 출로 개척에서 라선지구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몽골에는 석탄과 린, 형석 등의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목축업이 발전하여 전체 상품 생산액과 수출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로씨야원동과 중국 동북지방, 몽골에서 방대한 경제적자원들이 개발 리용되는 경우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다른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리상적인 중계 수송로로서 기능하게 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이처럼 방대하고 풍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지역개발의 초점으로, 선차적인 개발대상으로 되어 왔다.

라선지구가 동북아시아경제 협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서는 1989년에 라선지대를 경제무역지대로 꾸리기 위한 총계획도를 작성하였으며 1991년 12월에 두만강 연안 3개국 중에서 제일 먼저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지역내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자연 경제조건을 가진 기본거점으로서 이 지대의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에 커다란 경제적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창설과 관리운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실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로가 마련되게 되며 새로운 지역 경제중심의 형성으로 지역경제협력과 개발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된다.

우선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로 동북아시아지역내에서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교통로가 형성되게 되며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게 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활성화되고 이 지역의 경제적기능이 높아지게 되면 동

북아시아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이 지대를 무대로 무역, 인사래왕, 기술이전, 자금교류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중국, 몽골, 일본, 로씨야 등 지역내의 모든 나라들이 대륙으로부터 태평양 상으로, 바다에서 대륙으로 드나들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륙교, 교통로를 가지게 되며 라선경제무역지대를 리용하는 모든 기업들은 수송시간을 단축하고 수송비를 낮춤으로써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대폭 높이고 경제적으로 커다란 리득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생산원가에서 대체로 수송비가 25%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은 수송비를 단축하는데 기업들이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수송비저하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고리인 조건에서 라선지구는 동북아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리상적인 통로로, 공간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교류를 실현하고 지대를 통과, 리용하는 물적 및 인적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라선지구는 동북아시아의 물류의 중심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 나라들사이의 쌍무적이고도 다목적인 협력을 실현하는 지역협력의 중심기지로써 촉진적인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라선지구를 리용하여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무역, 기술, 자원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다목적이고도 효율적인 협력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지역내 나라들은 라선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요소면에서 우세한 분야들 사이의 호상 결합을 더욱 높여나가며 지역내에서 보다 생산적이고도 비교우위적인 효과를 이룩하는 방향에서 협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자금과 기술이 중국 동북지역과 로씨야에로 흘러들고 반대로 중국 동북지역과 로씨야, 몽골로부터 개발된 방대한 량의 원료와 원자재들, 상품들

이 라선지구를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여러 나라들로 흘러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동북대륙에로의 투자는 연안으로부터 대륙으로 점차 확대되고 동북아시아지역 개발에서 새로운 돌파구, 출구가 개척되게 된다.

라선지구를 통하여 방대한 물동이 드나들고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나드는 관문, 입구로서 지대의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라선지역에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중계화물 수송회사들과 지사, 대리점들이 들어왔게 되며 이 과정에 이 지대는 경제무역 및 중계화물수송의 교통로, 관광의 중심지로 되게 될 것이다.

라선지구가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지역협력의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할수록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강화되게 된다. 이로 하여 라선지구는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에 지역적 범위 안에서의 투자와 무역, 기술이전, 금융, 봉사를 실현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지역으로 될 것이다.

라선지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새롭게 일어서는 대륙교는 동북아시아나라들의 주요 공업지대들과 원료원천지들, 소비지들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여 지역 개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과의 교류를 폭넓게 전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 지역내에서 비교우위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유럽이나 아메리카대륙을 압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역내에서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기술과 과잉화된 자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원가를 적게 들고도 질 높은 생산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면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이 지역의 국제경쟁력과 지위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다

른 경제블럭들과 대륙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세를 확고히 차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를 동북아시아지역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 나라의 대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기술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밑에 지대개발을 적극 다그쳐 나갈 것이다.

The Rapid Emergence of Korea's Global Auto Industry

Norman Thorpe
Whitworth University

1. Introduction

In 1953, afte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that ended the fighting in the Korean War, South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on earth, burdened with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from the North and displaced South Korean citizens. The country was devastated, most industry had been destroyed, and few cars or other vehicles existed for transportation.

Reconstruction began, but even in 1966, there were fewer than 50,000 registered vehicles in all of South Korea, population 29 million – only about one vehicle for every 600 citizens.

As time passed, that gradually began to change, but even in 1979 – the year President Park Chung Hee's 18 years in power ended, and 26 years after the war – there still were only 494,000 registered vehicles, or one for every 76 citizens. If someone owned a private car, to most Koreans that

meant he or she was rich – indeed, the car owner probably even had a driver – and people who anticipated the day when they, too, would own a car, were few. It was beyond their expectations. In the countryside, I would learn, it was possible to live many years without even seeing a car.

The number of vehicles didn't pass a million until 1985, when registrations totaled 1,113,000, but only half those vehicles were passenger cars. The rest were freight trucks, minibuses, or other special vehicles. There still was only one passenger car for every 73 people.

At that point, however, Korea's economy was changing, and growth in auto ownership suddenly began to spurt. By 1988, there were 2 million vehicles registered; in 1990, 3.4 million; and suddenly registrations began to grow by a million or more a year until growth was slowed by the economic crisis of 1997. (See Table 1.)

Today, the landscape is very different from the 1980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outh Korea has more than 18 million registered vehicles, of which 13.9 million are passenger cars. That means for Korea's 50 million population, there is one vehicle for every 2.8 people – almost one for each of Korea's 19.9 million households. There's one passenger car for every 3.6 citizens. (See Table 2.)

So, in the 26 years since 1985, when vehicle registrations first passed the million mark, vehicle ownership has jumped by 17 million, and auto ownership – at least a used car – is within reach of almost every South

Korean old enough to drive – although a parking spot might not be. Many of the people who now own cars never anticipated a few decades ago that they would ever own a car in their lives.

Table 1. Vehicle Registrations, R.O.K. 1966~2005 통계자료: 자동차등록대수

| Year | Total Vehicles | Passenger Cars | Trucks | Minibuses | Special Veh. |
|---------|----------------|----------------|-----------|-----------|--------------|
| 2005.07 | 15,199,997 | 10,906,507 | 3,086,385 | 1,159,600 | 47,505 |
| 2005.06 | 15,147,416 | 10,849,504 | 3,082,621 | 1,167,841 | 47,450 |
| 2004 | 14,934,092 | 10,620,557 | 3,062,314 | 1,204,313 | 46,908 |
| 2003 | 14,586,795 | 10,278,923 | 3,016,407 | 1,246,629 | 44,836 |
| 2002 | 13,949,440 | 9,737,428 | 2,894,412 | 1,275,319 | 42,281 |
| 2001 | 12,914,115 | 8,889,327 | 2,728,405 | 1,257,008 | 39,375 |
| 2000 | 12,059,276 | 8,083,926 | 2,510,992 | 1,427,221 | 37,137 |
| 1999 | 11,163,728 | 7,837,206 | 2,298,116 | 993,169 | 35,237 |
| 1998 | 10,469,599 | 7,580,926 | 2,104,683 | 749,320 | 34,670 |
| 1997 | 10,413,427 | 7,586,474 | 2,072,256 | 719,127 | 35,570 |
| 1996 | 9,553,092 | 6,893,633 | 1,962,564 | 663,011 | 33,884 |
| 1995 | 8,468,901 | 6,006,290 | 1,816,582 | 612,584 | 33,445 |
| 1994 | 7,404,347 | 5,148,713 | 1,644,646 | 582,069 | 28,919 |
| 1993 | 6,274,008 | 4,271,253 | 1,448,634 | 527,958 | 26,163 |
| 1992 | 5,230,894 | 3,461,057 | 1,261,522 | 483,575 | 24,740 |
| 1991 | 4,247,816 | 2,727,852 | 1,077,467 | 427,650 | 14,847 |
| 1990 | 3,394,803 | 2,074,922 | 924,647 | 383,738 | 11,496 |
| 1989 | 2,660,212 | 1,558,660 | 768,943 | 323,402 | 9,207 |
| 1988 | 2,035,448 | 1,117,999 | 635,445 | 259,600 | 22,404 |
| 1987 | 1,611,375 | 844,350 | 546,450 | 200,456 | 20,119 |
| 1986 | 1,309,434 | 664,226 | 472,601 | 154,627 | 17,980 |
| 1985 | 1,113,430 | 556,659 | 412,739 | 128,309 | 15,723 |
| 1984 | 948,319 | 465,149 | 360,364 | 108,018 | 14,788 |
| 1983 | 785,316 | 380,993 | 304,158 | 87,282 | 12,883 |
| 1982 | 646,996 | 305,811 | 263,939 | 66,326 | 10,920 |

| | | | | | |
|------|---------|---------|---------|--------|-------|
| 1981 | 571,754 | 267,605 | 243,828 | 50,595 | 9,726 |
| 1980 | 527,729 | 249,102 | 26,940 | 42,463 | 9,224 |
| 1979 | 494,378 | 241,422 | 206,822 | 37,697 | 8,437 |
| 1978 | 384,536 | 184,886 | 161,886 | 30,597 | 7,167 |
| 1977 | 275,312 | 125,613 | 118,150 | 26,710 | 4,839 |
| 1976 | 218,978 | 96,099 | 93,885 | 23,643 | 5,351 |
| 1975 | 193,927 | 84,212 | 82,862 | 21,818 | 5,035 |
| 1974 | 177,505 | 76,462 | 76,833 | 20,060 | 4,150 |
| 1973 | 165,307 | 78,334 | 64,584 | 18,871 | 3,518 |
| 1972 | 145,637 | 70,244 | 55,116 | 17,550 | 2,727 |
| 1971 | 140,269 | 67,582 | 53,405 | 17,411 | 1,871 |
| 1970 | 126,506 | 60,677 | 48,901 | 15,831 | 1,097 |
| 1969 | 106,138 | 50,299 | 40,134 | 14,237 | 1,468 |
| 1968 | 78,763 | 33,112 | 31,582 | 12,786 | 1,283 |
| 1967 | 58,975 | 23,235 | 22,955 | 11,499 | 1,286 |
| 1966 | 48,838 | 17,502 | 19,432 | 10,888 | 1,016 |

Sourc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redecesso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eoul. Received by email, August 30, 2005.

This is a dramatic change in just two and a half decades, and it is linked to some other changes. One is the general growth of South Korea's overall economy, which gave Koreans the purchasing power to buy their cars. Also linked is the stunning growth of Korea's auto industry, which manufactured most of the millions of cars that Koreans have bought in those two and a half decades. While serving Korea's largely protected domestic market, the auto industry also was able to use it as a platform to sell many millions more cars around the world. Today, despite the continued importance of the domestic market, Korean automakers sell many more cars abroad than they do at home.

Table 2. Motor Vehicles Per Population and Household, R.O.K

| Year | Population | Households | Registered Vehicles | People per Vehicle | Vehicles per Household |
|-------|------------|------------|---------------------|--------------------|------------------------|
| '97 | 46,684,069 | 15,075,044 | 10,413,427 | 4.48 | 0.69 |
| '07 | 49,268,928 | 18,687,694 | 16,428,177 | 3.00 | 0.88 |
| '08 | 49,540,367 | 19,005,339 | 16,794,219 | 2.95 | 0.88 |
| '09 | 49,773,145 | 19,261,292 | 17,325,210 | 2.87 | 0.90 |
| '10 | 50,515,666 | 19,865,179 | 17,941,356 | 2.82 | 0.90 |
| '11,1 | 50,534,731 | 19,869,849 | 18,038,828 | 2.80 | 0.91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67762,2011,6,8)

As a result,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leading auto-making nations, and two of its automakers, sister-companies Hyundai Motor Co. and Kia Motors Corp., are together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largest automakers, currently ranking 5th internationally. (See Table 3.)

2. Demand for cars

After many years of modest auto production and purchasing in Korea, how did this surge of auto buying and auto manufacturing come about?

2.1. Let's discuss the rush into auto buying first. As a result of the drive for economic development that began in Korea in the 1960s, Korea's gross national income gradually grew, and Koreans began to have more and more disposable income. This was especially true in the late 1980s and early-to-mid 1990s, when discretionary income gained substantially. Per capita GNP grew from \$797 in 1976 to \$2,503 in 1986, and \$10,548 in

1996. Those were the same years that auto registrations grew so fast. (Table of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in Oh, 1999: 62)

Higher incomes and rising living standards generated a desire for more convenient lifestyles and also spurred conspicuous consumption, and as Korean families became capable of buying cars, they wanted to have them. The new demand for cars mirrored surging demand for bigger apartments and expensive durable goods such as color televisions, big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computers, and other appliances. After decades of privation and government-imposed curbs on consumption, there was pent-up demand for all types of consumer goods.

2.2. In the case of cars, the shift to a shorter work week and shorter school week buttressed this trend because it made it easier for families to go on weekend outings, generating more demand for a family car. Families that had a car felt they should be using it to go somewhere on the weekend, and those who didn't yet have a car wanted to get one so they could go somewhere, too. During the early 1990s, auto ownership increased so fast that when everyone wanted to go on a Sunday outing the number of cars vastly exceeded the capacity of highways, leading to monumental traffic jams. Traffic flow was so frozen that it was said families at times ate their Sunday picnic on the grass median between the lanes while waiting for the cars to move.

Table 3. Global Vehicle Production and Sales by Manufacturer, 2007

| | | Production, in units | Sales, in units |
|----------|-------------------------------------|----------------------|------------------|
| 1 | Toyota Motor Corp. | 9,498,000 | 9,366,000 |
| 2 | General Motors | 8,818,409 | 8,902,252 |
| 3 | Ford Motor Co. | 6,365,456 | 6,191,618 |
| 4 | Volkswagen AG | 6,213,332 | 5,964,000* |
| 5 | Hyundai-Kia Automotive Group | 3,987,267 | 3,961,629 |
| 6 | Honda Motor Co. Ltd. | 3,911,813 | 3,831,000 |
| 7 | Nissan Motor Co. | 3,431,398 | 3,675,574 |

Source: 2008 Global Market Data Book, Automotive News, Detroit, p. 3. © 2008 by Automotive News; used with permission. (<http://www.autonews.com/assets/PDF/CA48781620.PDF>, 2011.4.25)

More recent data was not available.

Note 1: Automotive News's combining of the figures for Hyundai and Kia is consistent with how other automakers' data was handled. For instance, the data for Toyota includes Daihatsu and Hino; General Motors data includes Saab; Ford data includes Land Rover and Volvo Car Corp.; Volkswagen data includes Audi; and Nissan data includes Fiat.

Note 2: Hyundai-Kia Automotive Group moved up to 5th in ranking in 2007 after the breakup of Daimler-Chrysler, which previously ranked 5th. DaimlerChrysler sold Chrysler in August 2007. If DaimlerChrysler had remained as one unit, its combined sales for 2007 would still have exceeded Hyundai-Kia's, leaving Hyundai-Kia in 6th place.

* Automotive News estimate

Table 4. Population Per Motor Vehicle, By Country

| U.S. | Jpn | Chi | Grm | Italy | Russia | Franc | Eng | Brazil | Spain | Mexico | Can | Poland | RoK |
|------|-----|------|-----|-------|--------|-------|-----|--------|-------|--------|-----|--------|-----|
| 1.3 | 1.7 | 22.0 | 1.9 | 1.4 | 3.6 | 1.7 | 1.7 | 6.5 | 1.6 | 4.2 | 1.6 | 2.0 | 2.8 |

출처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10 세계 자동차 통계)

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11. 1 기준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67762 (retrieved 2011.6.8)

2.3. Today, the distribution of cars in South Korea is closely approaching that of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See Table 4.)

2.4. An indicator of how broad-based the increase in driving had become was the increase in driver's licenses. Licenses nearly doubled in the seven years from 1991 to 1998, jumping to 19.5 million from 9.8 million. By 2003, they totaled 22 million. (Korea Annual 2004, p. 248, citing National Police Agency as source.)

Clearly, many households now had more than one driver. What a dramatic change from Korea of the mid-1980s, only two decades earlier, when there were fewer than a million registered vehicles in the whole country. No one could have imagined this future when the first automobile was introduced to Korea sometime shortly after 1900, or 50 years later when motor vehicle production began in Korea.

3. The early stages of the South Korean Auto Industry

3.1. According to the Kor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AMA), the first domestically made passenger car made in Korea was a Jeep-style vehicle called the Shival, which was introduced in 1955 by the company Shinjin. Shinjin then assembled a series of sedans in the 1960s.

Meanwhile, Kia Industries, a maker of bicycles, began making Korea's first motor scooter in 1957 and Korea's first motorcycle in 1961. A year later it introduced Korea's first domestically made truck. In 1970, it began assembling Fiat sedans. Hyundai Motor began assembling Ford Cortina sedans in 1968. (Kor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05: 10-11, 17, 53-55, 101, 303) ('Kia Corporate History,' (<http://www.kiamedia.com/secure/milestones.pdf>,

2011,5,8)

3.2.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series of broad-base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from 1962 until 1998, which charted the country's economic expansion. When the first plan was adopted in 1962, it included the auto industry as one of its targeted industries, and the government, in conjunction with a general effort to limit imports, restricted the import of completely assembled foreign cars. This was intended to save foreign exchange and encourage domestic production.

The auto industry received continuing emphasis in the five-year plans that followed, and the government's economic planning initiativ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stering the early stages of the industry's development during that 36-year period. Each time the government drafted a new plan, past goals and strategies would be revised, adjusted, and updated after taking into account what was succeeding, what wasn't, and new needs and challenges. The overall goal of each plan was to ratchet the economy to a higher level, and over those 36 years, South Korea underwent dramatic change from post-Korean War poverty to relative prosperity.

The Kor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AMA), in one of its annual statistical books, summarizes the auto-related sections of each of thes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including each plan's overall theme and the provisions specific to the auto industry.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se plans weren't all drafted at once. Each plan was drafted several years after the preceding one, taking into account the progress under the

preceding plan. Taken together, however, the steps in the successive five-year plans constitute a primer on how to build an internationally competitive auto industry. KAMA's summary is as follows: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62-1966 - building basic industry

Stage of assembling knocked-down auto kits

- Commence promotion of the auto industry
- Prohibit imports of fully assembled cars

(Note: The knocked-down kits, each of which contains all the parts necessary to build one car, were to be imported. Learning how to assemble kits is a typical way for a country to begin to gain the skills necessary for manufacturing cars. The target country's objective is usually to steadily increase the use of domestically made parts, and thus to build a parts industry, and then to transition to making cars without reliance on imported kits. Today, Korea's mature auto industry itself is supplying kits for assembly in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67-1971 - building basic industry

First stage of developing an industry to produce Korean native (kuk-san) cars

- Establish a basic plan for promotion of the Korean auto industry

- Increase the use of domestically made parts and develop expertise and specialization in different fields.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2-1976 – commenc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Stage of developing our own Korean-made (kuk-san) cars

- Establish a long-term plan to promote the auto industry
- Develop a native Korean (kuk-san) passenger car model
- “Virgin exports” of passenger cars
- Construction of large-scale integrated factories

Fourt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7-1981 –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sophisticated industrial structure

Stage of preparing a structure for automobile mass production

- Execute a plan for rationalization of the auto industry
- Promote industrialization to implement a strategy of full-scale auto exports

Fift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82-1986 – establishing a structure for comparati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Stage of establishing a platform for auto exports

- Establish a mass production system
- Develop front-wheel-drive passenger cars
- Launch exports to the USA

-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Sixth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87-1991 –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ass export stage

- Liberalization of production, for all types of vehicles (lifting of restrictions imposed on 1981.2.28)
- Liberalization of auto imports
- Increased regulation of vehicle emissions and noise

Seventh Economic Development Phase, 1992-1997 – establishing economic order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l structure and efficiency

Stage of improved quality and independ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 Realization of economic scale
- Achievement of Number Five ranking among global auto producing nations
- Completion of independ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important major parts

Eighth Economic Development Phase, 1998-onward – restructuring and globalization

Stage of glob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echnology

- Restructuring the auto industry
- Entrance of advanced overseas automakers into the domestic Korean

market

- Securing the most up-to-date modern technology
- Globaliz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Kor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05: 10-11, 303)

During the first and second five-year plans, the auto industry began to get production under way. In 1966, the last year of the first five-year plan, vehicle production was a mere 3,430 units, but at the end of the next plan, in 1971, annual production had risen to about 23,000 units (12,428 cars, 3063 busses, and 7,511 trucks). In 1969 it had exceeded 30,000 units, but then had slipped back. (Economic Planning Board undated: pp. 63, 203.)

3.3. As Korea moved into the period of the third plan (1972-76), planners noted that auto production still consisted mostly of parts assembly, not making parts, and that the industry was still operating at only half its assembly capacity. Nonetheless, the plan foresaw growth.

“The demand for motor vehicles will continue to rise during the Plan period, reaching 82,500 units in 1976,” the plan predicted, “and it will be met with the expansion of existing plant facilities.

“To make (the) automotive industry an integrated machine industry, plants for the manufacture of parts such as engine, body, axle and transmission gear will be built, thus increasing the domestic production of parts,” the plan sai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71: 54-55, 71-72.)

3.4. Although auto production was still modest, the country's economic planners had a reason for expecting increased vehicle demand. They were busily paving roads and constructing new expressways. They planned to add more than 1,000 kilometers of new expressways during this five-year plan, about tripling the total length of expressways from the 551 kilometers that had been built by 1970. Besides constructing expressways, they also planned on paving many more kilometers of unpaved roads. As a result, the plan predicted highway freight volume would surge from 1.4 billion ton-kilometers in 1970 to about 4 billion ton-kilometers in 1976. Highway passenger volume would more than double, to 49.5 billion passenger-kilometers in 1976. More cars, trucks and busses would be needed to carry the additional passengers and freigh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71: 54-55, 71-72.)

3.5. U.S. automaker General Motors also believed that Korea offered potential. In 1971, it began negotiations to invest in a joint venture with Shinjin Motor Co., which had been assembling Toyotas that were sold in Korea under the Shinjin name. Shinjin had sought investment from Toyota to expand, but Toyota wasn't interested. General Motors stepped in and made a \$23.3 million capital investment to form a \$48 million joint venture with Shinjin called General Motors (Korea). In September 1972, the company introduced its first models, badged as Chevrolets, the Chevrolet 1700 and the Rekor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desire to step up domestic auto parts production, the new Chevrolets would have 40 percent Korean content.

General Motors said it would start construction a year later on an engine plant with a capacity of 50,000 motors a year.

General Motors' \$23.3 million investment was the largest single capital investment made in Korea by any foreign company as of that time. (Thorpe 1972: 37)

(Note: A few years later, GM decided it would be better not to emphasize the Korean joint venture's American partner, and it changed the name of the company and its cars to Saehan, or "New Korea.")

3.6. Korea's economic planners, however, had mixed feelings about how they wanted the auto industry to grow.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capital required for plants and for citizens to buy vehicles, and wanted to allocate the funds to other priorities. Thus growth of the industry was slow. By the late 1970s, however, attitudes were changing.

A study published by the government-fund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in 1978 was frank about how the government had restrained the industry's growth. "Until recent years, Korea's motor vehicle production remained at a very low level, mainly due to the government policy of discouraging automobile demand. As a result, Korea's automobile production in 1976 approached only 50,000 motor vehicles per year," the study said. (See Table 5.)

Table 5. Motor Vehicle Production, R.O.K., 1962-1977, in units

| | Passenger Cars | Buses | Trucks | (3-wheel vehicles) ^a | Total ^b |
|------|----------------|-------|--------|---------------------------------|--------------------|
| 1962 | 1,710 | - | 67 | (67) | 1,777 |
| 1967 | 4,983 | 236 | 1,385 | (1,294) | 6,604 |
| 1972 | 9,952 | 2,581 | 6,115 | (2,486) | 18,648 |
| 1973 | 12,751 | 3,494 | 9,979 | (2,377) | 26,224 |
| 1974 | 9,069 | 3,945 | 17,176 | 30,290 | |
| 1975 | 18,509 | 3,808 | 14,973 | 37,290 | |
| 1976 | 25,605 | 3,468 | 19,219 | 48,292 | |
| 1977 | 42,284 | 5,453 | 35,263 | 83,000 | |

^a Figures in parentheses are three-wheeled motor vehicles.

^b Totals include three-wheeled motor vehicles.

Source: 'Long-Term Prospect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977-91,' (1978) KDI, Seoul, p. 200.

The policy of discouraging demand needed to be re-thought, the study said: "The automobile industry is an integrated assembly industr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almost all industries, especially the steel, machinery, and chemical industries. It is further characterized by its high linkage effects on other industrial sectors and its requirements for highly advanced technology and precision production. For these reasons the automobile industry is important as a strategic industry in promoting industrialization and serves as a major indicator of a nation's level of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strength."

The study noted that Korea had just begun vehicle exports, exporting 31 trucks in 1975, 1,243 vehicles in 1976, and over 9,000 vehicles in 1977, which indicated the industry's export potential. However the industry needed to be made more competitive, it said. (KDI 1978: 199-201)

At that time, Korea was pursuing a policy of export-led economic growth. Promoting exports was the main goal of economic policy. Thus, the KDI study recommended upgrading parts' production and quality, because the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overall quality of a vehicle, and expanding the scale of vehicle production to bring down costs per unit. It noted, however, that technological improvement would be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penetrate sophisticated markets such as North America. (KDI 1978: 200-203)

3.7. In the years that immediately followed, however, exports continued to suffer, due partly to recessions in overseas markets. In 1979, vehicle exports totaled only about 31,500 units, against a goal of 60,000. In addition, the industry was beset by confusion from policy reversals and restructuring by the government as it tried to realign the industry to make it more competitive. (Thorpe, AWSJ, August 13 1980: 1; August 22 1980: 1; October 31 1980: 3?)

4. Unbridled expansion

4.1. Despite the problems of the 1970s, however, the Korean industry continued to try to expand exports, and managed to reach overseas sales of about 350,000 units in 1989 – still only about half the level of domestic sal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industry was wildly expanding production capacity far beyond foreseeable demand. Based on the industry's current plans, wrote Wall Street Journal reporter Damon Darlin in 1990, "By 1996, Korean industry should have the capacity to build as many as five million vehicles – more than Italy, more than Great Britain, more than France. Of course, Korea sold just 1.1 million cars last year." One auto analyst the

reporter interviewed called these bewildering plans, “Delusions of grandeur,” but another said the Korean automakers needed high volume in order to be price competitive. (Darlin 1990: 1)

4.2. It was amid this expansionary bubble that Hyundai Motor Co. had its first experience building cars in North America – and it was a disaster. As a part of the Korean industry’s expansion, Hyundai decided to open its first North American plant in Bromont, Quebec, Canada. The company invested \$400 million in the project in 1988.

Hyundai had entered the U.S. market in 1986, selling entry-level Excel cars, and initially found great success. Sales in the partial first year exceeded 168,000 units, and hit 263,000 units in 1987 and 264,000 in 1988. Then, however, just as the Bromont plant was opening, Hyundai’s U.S. sales began to slump as customers complained about the quality of the company’s cars, and consumer preferences changed. Sales plummeted to not much more than 100,000 units in each of the next several years.

The plan had been for the new factory to make family-size Sonata sedans. When sales of the sedans faltered, Hyundai halted production in 1993. It announced plans to invest another \$66 million to retool the plant to manufacture Elantras. But Hyundai was still having trouble in the U.S. market, and it finally closed the plant permanently in 1995. Although designed to make 100,000 cars a year, the highest production was 28,201 units in 1991.

In 2005, in an interview as Hyundai was preparing to open a second

plant in North America – this time in Alabama – Hyundai Motor CEO Kim Dong Jin reflected on Hyundai’s problems at Bromont. There were many, he said. One was the quality problem which led North American sales to decline. Others had to do with poor planning for the Canadian plant, such as failing to anticipate a weak Canadian dollar, which made imported parts expensive; failing to plan for a high North American content requirement for duty-free trade with the U.S.; scaling the plant with a production capacity that was too low to be profitable; and building the plant in French-speaking Quebec while most of the Korean managers’ second language was English. “It was very difficult to communicate,” he said. (AN 1996) (Chappell 2001) (Thorpe 2005)

4.3. Hyundai’s problems in Bromont were just part of the Korean industry’s difficulties in the late 1980s and the 1990s as it battled overcapacity, exacerbated by the emergence of another Korean competitor. The Samsung chaebol had decided that it needed to enter the auto industry to keep up with the Hyundai and Daewoo conglomerates. It invested in a new auto plant while other chaebol also expanded competitively into fields that their competitors occupied, and soon, Korean industry was adrift in overcapacity in numerous industries. Suddenly, in 1997, Korea found itself caught in an Asian currency crisis, and meanwhile, Kia Motors became insolvent. As Korea’s difficulties expanded, the country was forced to turn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international banks for a \$50 billion bailout to keep its economy from collapsing.

4.4. The IMF extended the bailout with strings attached. Korea would

have to restructure its overcapacity and open its industries to foreign investment.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auto industry was hit hard, leading to a series of takeovers and realignments. After the dust settled, several companies had new owners. Hyundai Motors had acquired a controlling interest in Kia, General Motors of the United States took over operation of Daewoo Motors, and Renault of France bought the new plant built by Samsung. Later, SsangYong Motors would temporarily be acquired by a Chinese company. These five companies - Hyundai, Kia, GM-Daewoo, Renault Samsung, and SsangYong - still comprise the industry today.

5. Hyundai and Kia target the globe

It took several years for the industry to overcome the setbacks of the financial crisis, restructuring, and the recession that resulted in Asia. By the early 2000s, however, Hyundai and Kia had reestablished their focus and were aggressively targeting overseas markets again. They seemed to find the right combination of auto designs, dependable quality, pricing and marketing to get on an upward track, and soon began an amazing bout of expansion by erecting plants abroad. First, they targeted China, which had won the right to host the 2008 Olympics and was undergoing rapid growth.

5.1. China. In 2002, Hyundai formed a 50-50 joint venture, Beijing-Hyundai Motor Co., with Beijing Automotive Holdings, and began operations later that year. By 2005, the company's annual sales in China reached 233,000 units, which Hyundai says made Beijing Hyundai the fourth best selling

brand in China. In 2008, Hyundai opened a second BHMC plant, doubling capacity to 600,000 units, and in 2011 it began adding a third plant slated to boost capacity to 1 million units by 2012. It also began looking at a fourth plant. In 2010, Beijing Hyundai sold 703,000 vehicles in China, still ranking fourth. (Section 5 relies heavily on and quotes fragments from an 'About Hyundai Motor Company,' section published on the Web site of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http://www.hmmausa.com/?page_id=1447, 2011.6.11) (Johnson 2011)

Kia originally had a small joint venture in China of its own, Dongfeng Yueda Kia Motors, that could build 130,000 units a year. In 2007 that venture also expanded, investing \$800 million for a second plant that boosted capacity to 430,000 units a year, (Kia Motors Corp. 2007) and in November 2011 Kia announced plans for a third joint-venture plant in China, which would expand its annual capacity there to 730,000 units. Kia said the plant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its market share in the rapidly expanding China market. (Kia Motors Corp. 2011 - 2)

5.2. The USA. Hyundai, at the same time it was targeting China, was launching another foray into North America. It announced plans to build a plant at Montgomery, Alabama. Hyundai had learned from its mistakes in Quebec, and had invested great effort and expense to improve its quality. But even if its cars were better, it knew that consumer perceptions could still be a problem. To overcome consumer concerns related to Hyundai's past quality problems, Hyundai and Kia began offering buyers one of the longest warranties of any company in the U.S. market - a 10-year, 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hat was twice as long as most of their competitors, and longer warranties for other components as well.

Hyundai's \$1.1 billion Alabama plant began operation in 2006 with a capacity of 300,000 units a year. That same year, Kia announced plans to invest \$1 billion to build a U.S. plant of its own at West Point, Georgia. That plant opened in 2010 with a similar capacity of 300,000 cars a year, but in June 2011 Kia announced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100 million to increase capacity to 360,000 units. (Kia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2011)

The Kia plant in Georgia is about 80 miles from the Hyundai plant at Montgomery, Alabama. Hyundai and Kia use many of the same suppliers, many of which are Korean companies, and one of the two automakers' strategies is to locate their plants near each other so the suppliers can reach both of them easily from one facility, and operate more efficiently. In addition, Hyundai is operating one engine factory, at its Alabama plant, to make engines for both the Hyundai and Kia auto factories.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2011: Manufacturing Process)

5.3. Central Europe. While Hyundai was starting U.S. production by building its plant in Alabama, Kia launched expansion in Europe, building a 300,000 units-per-year plant at Zilina, Slovakia. The plant started production in late 2006, and about the same time it was starting up, Hyundai announced plans to build a Hyundai plant about 60 miles away in the neighboring Czech Republic at Nosovice. Construction began in late 2008

for the Czech plant, which is also have a capacity of 300,000 units per year, and again provides the efficiency benefits of being located near the Kia plant.

5.4. India. Hyundai had begun operations in India in 1998. As growth there picked up, Hyundai invested \$1 billion to open a second plant in 2008, doubling capacity to 600,000 units a year. Besides supplying the Indian market, Hyundai's operations there serve as a center for making small cars for sale in other countries.

5.5. Russia. Hyundai also has invested \$500 million in Hyundai Motor Manufacturing Russia, to build a 150,000-unit plant to make cars for Russia and Eastern Europe. The plant opened in January 2011. Hyundai says its first product, the Solaris sedan, has special features to deal with Russia's demanding climate.

5.6. Turkey. Hyundai had begun operations in Turkey in 1997, and in 2006 it expanded the plant to a capacity of 100,000 units a year.

5.7. Brazil. Hyundai is beginning construction this year (2011) on a plant in Brazil with a capacity of 150,000 units per year, to build small cars for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600 million investment will mean that Hyundai has plants in all four of the BRIC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also that it is positioned to benefit from a likely spurt of growth in another Olympics host country.

Hyundai and Kia's rapid expansion has helped them make stunning gains. In the eight years from 1999 to 2007, the two companies' combined global production and sales almost doubled to nearly 4 million units in 2007, from about 2 million units in 1999, according to figures compiled by Automotive News. (See Table 6.) The two companies' sales have continued to grow strongly since then, to about 5.7 million units in 2010, according to Yonhap News, of Seoul. (Yonhap News Agency 2011: (1) 'S. Korean automakers see record sales in 2010. (2) 'Hyundai, Kia again seek record sales in 2011: chairman'.)

6. Hyundai - Kia strengths and strategies

To achieve such dramatic growth in the highly competitive global auto industry requires a significant degree of sophistication, and a number of signs suggest how sophisticated Hyundai and Kia are.

6.1. Manufacturing, automation, and robotics. Since many of their factories are new, Hyundai and Kia have been able to install highly-automated, state-of-the-art assembly lines. The factories make extensive use of Korean-made robotics that use proprietary technology and increase the dependability of each step in the production process. During plant tours, a visitor sees very few humans working in some parts of the factory, such as the welding shop, because most of the work is done by fast, agile robots that grab parts, position them, and weld them with precision. Hyundai's Alabama plant uses 280 robots in the welding shop and 81 in the paint shop. In assembl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human workers. Numerous quality

checks are built into the process, and at the end of the assembly line, lasers monitor how well parts fit together and check for mistakes.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2011: Manufacturing Process)

Table 6. Hyundai and Kia Combined Global Production and Sales

| | Production, in units | Sales, in units |
|------|----------------------|-----------------|
| 1999 | 2,040,185 | 2,127,685 |
| 2000 | 2,545,958 | 2,533,243 |
| 2001 | 2,548,393 | 2,652,412 |
| 2002 | 2,887,213 | 2,912,315 |
| 2003 | 2,897,796 | 2,883,383 |
| 2004 | 3,181,394 | 3,328,159 |
| 2005 | 3,532,307 | 3,554,126 |
| 2006 | 3,778,166 | 3,756,545 |
| 2007 | 3,987,267 | 3,961,629 |

More recent consistent data was not available, but 2010 combined sales would be in the range of 5.7 million units, according to Yonhap News Agency of Seoul. (Yonhap News 2011: January 3, S. Korean automakers see record sales in 2010)

Sources: Global Market Data Books published by Automotive News, Detroit, for 2002, 2005, 2006, 2007, and 2008.

6.2. Modules. A key element of Hyundai and Kia’s production process involves the use of modules which are assembled off-site by an affiliated supplier, Hyundai Mobis. The modules are big groups of parts that are assembled together for installation in the car as one unit, making assembly-line activity faster and less complicated. For instance, the chassis module includes the engine and transmission, steering and braking systems, fuel tank, suspension, and many related parts. The cockpit module includes stuff that goes right in front of the driver – the instrument panel, heater,

air conditioner, air controls, the audio system, front airbags, glove-box, and other parts. The front-end module includes the bumper, headlamps, radiator, grill, horn, and other parts for the front-end of the car.

What goes into each of these modules can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ar being assembled, and it's Mobis's job to put the right combination of parts together – with the help of computers – so the module is a perfect match when it arrives at the assembly line for mounting in the car. Mobis typically has a plant located within a few minutes of each Hyundai and Kia factory, and it receives orders continuously by computer as production of each car begins. From the time it gets an order it has about two hours to build the module and transport it to the factory for just-in-time delivery for installation in the car. Usually, no two cars in succession on the assembly line are exactly the same, so each module must be customized for each specific car. Mobis's role in production is critical, making it one of Korea's most important auto parts companies. The company also does work for some foreign automakers, and just won an initial \$233 million in orders from Mitsubishi Motors and Subaru. (Thorpe 2005: 24F) (AN 2011: Hyundai Mobis)

6.3. Global mindedness and a sharp eye for markets. Hyundai and Kia both have exhibited a keen sense of potential markets. Hyundai, in particular, focused swiftly on China as that market began to expand, and linked up with a joint-venture partner in Beijing rather than one elsewhere, so it would have visibility in the country's capital. (Hyundai may have had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capital, Seoul, in mind when it made that

choice.) Hyundai also has positioned itself to take advantage of India's growth potential.

Both Hyundai and Kia have also sought to penetrate markets all over the world. In December 2009, when the author visited the Central American country of Panama, he was surprised to find many new Hyundai and Kia cars on the streets, including taxis. Panama has a population of only 3.5 million, but the Korean automakers apparently aren't hesitant about pursuing even such a small market. Kia states in its news releases that its cars are sold in 172 countries.

The two companies' global awareness is also reflected in their overseas manufacturing, discussed above. It is very common for high-volume global companies, especially automakers, to be criticized in their export markets and accused of stealing jobs from those countries' domestic workers. Hyundai and Kia have deftly sidestepped that issue, as Japanese automakers have in the United States, by opening factories that employ thousands of U.S. and other foreign workers in their own hometowns.

International manufacturing also provides some other benefits for the Korean automakers, including reduced exposure to exchange-rate volatility and more stable operation when unions go on strike in Korea, which in years past was almost annually. When choosing sites for new plants, Hyundai and Kia appear to focus on locations with low unionization.

Hyundai now sells more cars that are made abroad than are made in

Korea. In its 2010 global sales, sales from overseas plants totaled 1.88 million units, compared with 1.73 million units made in Korea. (Hyundai Motor Co, 2011: January 28)

6.4. Design. Another important factor is design. Both companies concentrate on creating models that will appeal to consumers in each of their different markets. They also have put great emphasis on designs that emphasize safety, and in recent years their cars have received high safety ratings from testing agencies. Hyundai also has worked to make its models as fuel efficient as possible, for example putting a turbocharged four-cylinder engine in its new Sonata to have better gas mileage than its six-cylinder competitors. To make its exterior designs more interesting, Kia has hired experienced designers from other automakers, and in 2009 it introduced the boxy Kia Soul, which is different from most of its lineup and aimed at the younger market. It was Kia's 5th-best-selling car in 2010, with 135,000 units sold globally.



Kia Soul

Photo: Kia Motors Corp.

6.5. Marketing. Hyundai and Kia have both launched important marketing strategies to compete with other makers. Besides longer warranties, which both Hyundai and Kia continue to offer, Hyundai, in particular, has been including more high-end features on its standard models, while pricing the cars at less than competitors ask for cars with the same or fewer options. Hyundai is doing this kind of marketing not only in the United States, but even in Russia, where the company recently introduced a sedan called the Solaris which it says has been customized for the Russian environment. Hyundai raised the ground clearance to make it easier to negotiate snowy roads and included as standard a four-liter washer-fluid reservoir with a sensor to warn drivers when the reservoir needs refilling. It also provides a more powerful battery for more dependable starting in the cold Russian winter, and a heater duct for rear-seat passengers. (Hyundai Motor Co, 2011: January 19)

Both Kia and Hyundai have invested significant energy and investment into marketing their brands through sports sponsorships, such as the international soccer organization, FIFA, and are major television advertisers for sports events.

Hyundai has also introduced some innovative marketing strategies that make it stand out in its quest to woo U.S. consumers. One such effort it dubbed Hyundai Assurance. Launched in 2009 as consumers hesitated to buy cars because of worries about job security, Hyundai announced that buyers could return a new vehicle to the dealership if they lost their jobs. As Automotive News reported, “The promotion proved to be a major

marketing coup in the industry, and Ford and General Motors quickly copied it.” When Hyundai eventually ended the program in the spring of 2011, it replaced it with a new promotion that guaranteed the trade-in values of cars through their fourth year of ownership. That was also called Hyundai Assurance. (Beene 2011)

6.6. R&D. One of Hyundai and Kia’s operating principles incorporates the belief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done near the target market. To accomplish that, both companies have invest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but have also opened research centers in regions where they manufacture, so the companies can respond quickly to changes or problems and customize new-car development to each market.

Over the past decade, Hyundai says it has invested more than \$200 million in design and testing facilities throughout the U.S., including a \$30 million design center in Irvine, Calif., a \$60 million proving ground in the Mojave Desert in California, and a \$117 million technical center in Ann Arbor, Mich. Hyundai has also invested 50 million euros in a European Design and Technical Center in Russelsheim, Germany, and in 2007 it opened a European sales and marketing headquarters in Offenbach, Germany. In 2009, it also opened a \$25 million R&D center in Hitech City in Hyderabad, India.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2011: About Hyundai Motor Company)

Kia in 2007 opened a \$130 million U.S. corporate headquarters and design center in Irvine, Calif., and in March 2011 it was reported that the

Kia venture in China would invest \$150 million to open an R&D center in China by 2015. (Kia Motors 2007: June 25) (AN 2011: March 11)

7. The other Korean automakers

Hyundai and Kia are Korea's largest automakers, but the country also has three other makers – GM Korea Co., Renault Samsung Motors, and SsangYong Motor Co. – all of which are controlled by foreign automakers.

7.1. Largest of the three is GM Korea Co., previously named GM Daewoo Auto & Technology Co. The company was formed in 2002 to acquire control of the bankrupt Daewoo Motor. General Motors has used the company as a base for manufacturing exports while also selling cars with the Daewoo brand in the Korean market. The Korean operation also produces large quantities of knocked-down kits for assembly in China and elsewhere. Production in 2010 included more than a million exported knocked-down kits. GM Daewoo sold its exports around the world under a number of names, often different for the same car in different markets. In Europe, many of the company's Korean-made cars were sold as Chevrolets, as were the Aveos that were made in Korea for sale by GM in the U.S. Also, some Korean-made GM cars were sold in China as Buicks, in an effort by GM to piggyback on the historic reputation of the Buick brand as a luxury car in China many decades ago.

In early 2011, GM said it was dropping the name Daewoo from its corporate name, and also dropping the Daewoo brand, and would henceforth be

selling its cars in Korea as Chevrolets. It expected those steps to increase its domestic Korean sales. (Greimel 2011)

7.2. Renault Samsung Motors, Korea's 4th-ranked automaker, produces cars for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a growing number of exports, most of which are sold as Renaults. Its plant at Busan has a capacity of 300,000 units a year.

7.3. SsangYong Motor Co. over the last several years went through a tumultuous change-of-ownership struggle in which a Chinese company planned to acquire it. Instead, in February 2011, Mahindra & Mahindra, India's largest maker of SUVs and tractors, bought a 70 percent controlling interest in the company. SsangYong now hopes to expand its exports as well as its domestic sales, according to Automotive News. The company's production facility has a capacity of 240,000 units a year. (Hamprecht 2011)

As this is written, Korea shows every sign of continuing to be a powerhouse in the global auto market. According to industry figures, South Korea's five automakers together sold about 6.8 million cars in 2010, a gain of 25 percent from 5.4 million in 2009. It's notable that about 79 percent of the 2010 sales were in international markets, rather in the domestic Korean market. (See Table 7.) Initial results for 2011 show continued growth.

8. A young industry

When one considers all of the Korean auto industry's achievement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is that it is a very young industry – as are most of Korea’s industries. This was never cast in sharper focus for the writer than in 2005, when I interviewed Jeon Byung Kwon, an auto designer at GM Daewoo Auto and Technology Co. I didn’t know anything about auto design, so to start the interview, I told him how, when I was in grade school, some of my classmates had really loved cars, and whenever they had extra time in the classroom they would draw pictures of cars. I asked: Since he was an automotive designer, had he, when he was in grade school, loved to draw pictures of cars like my classmates?

To my surprise, he answered, “No.” Then he explained why: He had never seen a car! He could vividly remember the first time he saw one. He lived in the countryside and was 13 and in the sixth grade. It was about 1978. He had seen busses, but never an automobile. Then one day he saw one on a country road. “When I first spotted this car, it was so exciting and shocking. I was attracted by it right away,” he recalled, adding that his fascination with the automobile sprang from that moment.

At the time I interviewed him he was manager of the advanced exterior design team in the design center at GM Daewoo Auto & Technology Co., with a leadership role in designing a new SUV. It was amazing to me that the auto industry in Korea was so new that as recently as 1978, someone could grow to age 13 without ever having seen a car – and then he could make a career of designing them. (Thorpe 2005: September 12, 22T)

Table 7. Five Korean Automakers' Sales, 2009 - 2010, in units

| | 2010 Domestic Sales | 2010 Overseas Sales | 2010 Total Sales | 2009 Domestic Sales | 2009 Overseas Sales | 2009 Total Sales |
|-----------|---------------------------|---------------------------|------------------------|---------------------------|---------------------------|------------------------|
| Hyundai | 659,565 | 2,948,877 | 3,608,442 | 702,672 | 2,404,273 | 3,106,945 |
| Kia | 484,512 | 1,647,019 | 2,131,531 | 412,752 | 1,122,271 | 1,535,023 |
| GM Korea | 125,730 | 625,723 | 751,453 | 114,845 | 463,620 | 578,465 |
| Renault | 155,696 | 115,785 | 271,481 | 133,630 | 56,180 | 189,810 |
| Samsung | | | | | | |
| SsangYong | 32,459 | 47,756 | 80,215 | 22,189 | 12,747 | 34,936 |
| TOTAL | 1,457,962 | 5,385,160 | 6,843,122 | 1,386,088 | 4,059,091 | 5,445,179 |

Overseas sales figures include sales of vehicles manufactured in overseas plants, as well as units exported from factories in Korea.

Figures in this chart don't include exports of knocked-down kits, which in the case of GM Korea exceeded 1 million units in 2010.

Sources: Unofficial industry figures compiled by GM Korea Co. and cross-checked against other sources, including: 'S. Korean automakers see record sales in 2010,' Yonhap News Agency, Seoul, January 3, 2011; and disclosure filing by Kia Motors Corp. Investor Relations Department, January 3, 2011.

9. China

Those of us who had the privilege of being in Korea in the 1960s and 1970s – when there were fewer than 200,000 vehicles in the whole country – could never have guessed then what Korea would be like today. Among other things, we would never have guessed that most Korean families would have a car, as well as a nice apartment and a host of appliances. I have to think that at that time even Korea's most forward-looking economic planners couldn't have guessed that the country would someday have 18 million vehicles – one for every 2.8 people.

Today, however, we have that knowledge as we look across the Yellow Sea and observe the rapid changes happening in China, where the auto industry is expanding even faster than Korea's did, with every major automaker in the world descending on the Shanghai Auto Show and trying to carve out a piece of the pie. We will have a ring-side seat to watch, and observe the consequences.

9.1. At the end of 2010, China had about 40.3 million vehicles on the road, a gain of about 28 percent from a year earlier, according to Automotive News China, (Automotive News China 2011) With China's population of 1.33 billion people, that's one vehicle for about every 33 people – about the level of penetration that South Korea had in the mid 1980s. So if we compare with Korea, Chinese auto ownership is just reaching the lift-off stage when demand in Korea really began to surge.

9.2. In 2010, vehicle sales in China totaled about 18 million units, and some forecasts are for sales of 20 million units in 2011. In 1980, annual sales were only 2 million units.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sales could even reach the level of 30 million vehicles a year, said Dieter Zetsche, CEO of automaker Daimler, at the 2011 Shanghai Auto Show. (Yang 2011) (Automotive News Europe 2011)

Just how many annual sales are may not matter too much, because in any case, over time they are going to grow. And if, say, over the next 15 to 20 years, vehicle penetration in China eventually reaches the level that it has reached in Korea, that would mean nearly half a billion more vehicles

on the planet. And then there are India, and a host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ose citizens are poised to start wanting cars as well. That gives us something to think about, for it will pose high global demand for energy and steel and other materials to build cars, and strong global competition as drivers seek the fuel to power them.

9.3. Meanwhile, there's another dimension to China's growing auto industry that we can expect to see as well. Chinese automakers such as Great Wall Motor Co. are learning how to export, just as Hyundai and Kia did. Great Wall, the largest maker of pickups and SUVs in China, already is selling vehicles in developing markets as well as Australia and Italy, according to Automotive News. The company's CEO told Automotive News that the company expects to enter the U.S. market within the next four years. We can expect that other Chinese automakers will have global ambitions, too, so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it probably won't be long before we start seeing Chinese cars, too, on the lots of our local "Auto Row." (Sedgewick, 2011)

Bibliography

- Automotive News (AN) (1996) 'Early Success Didn't Last, But Hyundai is Fighting Back,' April 24, 1996, Detroit. Author and page number not available.
- _____, (2011) 'Hyundai Mobis wins \$233 million order from Mitsubishi, Subaru,' June 8, 2011.
(<http://www.autonews.com/apps/pbcs.dll/article?AID=/20110608/OEM10/110609886/1117>, 2011.6.8)
- _____, (2011) 'Kia to build 986 million yuan R&D center in China,' March 11,

- 2011, citing Bloomberg.
- Automotive News China 2011 'China had 40 million cars on roads by end of 2010,' March 4, 2011. (<http://www.autonewschina.com/en/article.asp?id=6617>, 2011.4.25)
- Automotive News Europe 2011 'Daimler's Zetsche sees potential 30M car market in China,' April 19, 2011, citing Bloomberg. (<http://www.autonews.com/apps/pbcs.dll/article?AID=/20110419/ANE/110419868/1498>, 2011.4.19)
- Beene, Ryan (2011) 'Hyundai to guarantee trade-in values,' Automotive News, April 20, 2011. (<http://www.autonews.com/apps/pbcs.dll/article?AID=/20110420/RETAIL01/110429987/1491>)
- Economic Planning Board (undated) Economic Survey of the 1971 Korean Economy, Seou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p. 63, 203.
- Chappell, Lindsay (2001) 'Once burned here, Hyundai looks at a North American plant through new eyes,' Automotive News, Detroit, April 9, 2001.
- Darlin, Damon (1990) 'All Out Growth - Korea's Car Companies Expand Like Crazy Despite Lagging Sales,'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March 2, 1990, p. 1.
- Global Market Data Books published by Automotive News, Detroit, as follows: (used with permission)
- 2002 Global Market Data Book, Automotive News, Detroit, ©2002 by Automotive News. (<http://www.autonews.com/assets/PDF/CA31831024.PDF>, 2011.4.25)
- 2005 Global Market Data Book, Automotive News, Detroit, p.4. ©2005 by Automotive News. (<http://www.autonews.com/assets/PDF/CA31611024.PDF>, 2011.4.25)
- 2006 Global Market Data Book, Automotive News, Detroit, p.4. ©2006 by Automotive News. (<http://www.autonews.com/assets/PDF/CA7170616.PDF>, 2011.4.25)
- 2007 Global Market Data Book, Automotive News, Detroit, p. 5. ©2007 by Automotive News. (<http://www.autonews.com/assets/PDF/CA21401619.PDF>, 2011.4.25)
- 2008 Global Market Data Book, Automotive News, Detroit, p. 3. ©2008 by Automotive News. (<http://www.autonews.com/assets/PDF/CA48781620.PDF>, 2011.4.25)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71) The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2-1976, Seoul, pp. 54-55, 71-72.
- Greimel, Hans (2011) 'Korea debut of Chevy brand tests global expansion plan,' Automotive News, Detroit, April 18, 2011, pp. 4, 22.)
- Hamprecht, Harald (2011) 'SsangYong mulls U.S. launch; targets Europe as biggest export market,' Automotive News Europe, March 5, 2011.

- Hyundai Motor Co. 2011 'Hyundai Announces 2010 Business Results,' company news release, January 28, 2011 (<http://worldwide.hyundai.com/company-overview/news-view.aspx?idx=332&&nCurPage=2&strSearchColumn=Title&strSearchWord=&ListNum=248>, 2011.6.11)
- _____, 2011 'Hyundai Begins Production at New Russian Plant,' Company news release, January 19, 2011 (<http://worldwide.hyundai.com/company-overview/news-view.aspx?idx=330&&nCurPage=2&strSearchColumn=Title&strSearchWord=&ListNum=246>, 2011.6.11)
-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2011) 'About Hyundai Motor Company,' (http://www.hmmausa.com/?page_id=1447, 2011.6.11)
- _____, (2011) 'Manufacturing Process,' (<http://www.hmmausa.com/manufacturing-plant/manufacturing-process/>, 2011.4.27)
- Johnson, Richard 2011 'Hyundai may build 4th Chinese assembly plant, Automotive News, April 19, 2011 (<http://autonewschina.com/en/article.asp?id=6870>, 2011.4.20)
- Kia Motors Corp. (2011) 'Kia Corporate History,' (<http://www.kiamedia.com/secure/milestones.pdf>, 2011.5.8)
- _____, (2007) 'Kia Motors opens second production plant in China,' company news release, Seoul, December 10, 2007, received by email.
- _____, (2007) 'Kia Motors celebrates grand opening of U.S. corporate headquarters and state-of-the-art design centre,' company news release, Seoul, June 25, 2007, received by email.)
- _____, (2011 - 2) 'Kia Motors signs MOU to build third plant in China,' company news release, Seoul, Nov. 2, 2011, received by email.
- Kia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2011) 'Kia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begins expansion projects to support increased volume starting in 2012,' company news release, Seoul, June 2, 2011. (http://www.kmmgusa.com/news_02_26_10.aspx#, 2011.6.11) (<http://www.kiamedia.com/secure/corporate060211.html>, 2011.6.11)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1978) Long-Term Prospect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1977-91, Seoul, p. 199-203.
- Kor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AMA) (2005) Motors of Korea, Seoul, pp. 10-11, 17, 53-55, 101, 303.
-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redecessor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Seoul, 통계자료: 자동차등록대수, Seoul. Received by email, August 30, 2005.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자동차 1대당 주민등록 인구수 및 1세대 당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67762, 2011.6.8)
- Oh, John Kie-chiang (1999) *Korean Politics, the Quest for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62.
- Sedgewick, David (2011) 'China's Great Wall plans U.S. entry by 2015,' *Automotive News* (online), April 19, 2011. (<http://www.autonews.com/apps/pbcs.dll/article?AID=/20110419/GLOBAL03/110419840/1505>, 2011.4.20)
- Thorpe, Norman (1972) 'GM goes S. Kore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ong Kong, Oct. 7, 1972, p. 37.
- _____, (1980) 'South Korea Mulls Merger Of Two Auto Firms to Boost World-Wide Competitiveness,' *Asian Wall Street Journal (AWSJ)*, Hong Kong, August 13, 1980, p. 1.
- _____, (1980) 'Auto and Power Equipment Sectors Are Restructured in South Korea,' *AWSJ*, August 22, 1980, p. 1.
- _____, (1980) 'GM Seeks Seoul's Help in Talks With Hyundai,' *AWSJ*, October 31, 1980, p. 3?
- _____, (2005) 'Technological acrobatics are Hyundai Mobis' specialty,' *Automotive News*, Detroit, August 1, 2005, p. 24F.
- _____, (2005) 'Quebec mistakes still haunt Hyundai,' *Automotive News*, Detroit, June 13, 2005. (<http://www.autonews.com/apps/pbcs.dll/article?AID=/20050613/SUB/506130710>, 2011.6.10)
- _____, (2005) 'GM Daewoo flexes its styling muscle,' *Automotive News*, Detroit, September 12, 2005, p. 22T.
- Yang Jian (2011) 'China SAE chief: Don't underestimate China market,' *Automotive News*, April 26, 2011, (<http://www.autonewschina.com/en/article.asp?id=6897>, 2011.4.26)
- Yonhap News Agency (2004), *Korea Annual 2004*, Seoul, p. 248.
- _____, (2011) 'S. Korean automakers see record sales in 2010,' January 3, 2011, Seoul. (<http://english.yonhapnews.co.kr/news/2011/01/03/0200000000AEN20110103008800320.HTML>)
- _____, (2011) 'Hyundai, Kia again seek record sales in 2011: chairman,' January

3, 2011, Seoul.

(<http://english.yonhapnews.co.kr/news/2011/01/03/0200000000AEN20110103000600320.HTML>)

The Interaction of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Period of the Second Vietnam War (1964-1967)

SONG Key Young
Ritsumeikan University

1. Introduction

After the US-ROK (Republic of Korea) concluded the US-ROK Mutual Defense Agreement in October, 1953, the US-ROK came to maintain the Security Alliance Relation.

It has regarded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as the asymmetric security alliance relation by reason of the asymmetric national power of both countries. The asymmetric security alliance relation is explained by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and Entrapment-Abandonment Dilemma Model.¹

At the first, a Weak state receives a security of national security from a

¹ S.N.Eisenstadt and L. Roniger (1984) *Patrons, Clients and Frie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Wookhee Shin, *Dynamics of Patron-Clients State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Political Economy in the Cold War* (Seoul: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Powerful state. Instead, the weak nation is subjected to restriction autonomy of domestic policy and foreign policy decision in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² That is the security and autonomy is inverse proportion to each other. According to the Model, because ROK's military force was inferior to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military force in Cold War, ROK could deter provocation of DPRK by USFK and the US-ROK Mutual Defense Agreement. While, the US could have an effect a military police of ROK b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ut according to the model, ROK could secure the autonomy of policy decision by growth of ROK's economy and military force since post -Cold War.

At the second, the weak nation falls into a serious of entrapment-abandonment dilemma about relation of the other alliance nation according to Entrapment-Abandonment Dilemma Model.³

The serious of entrapment is the weak nation is to participate in an alliance nation policy for keeping alliance. And, the serious of abandonment is to be abolished or be become weak by betrayal of the alliance nation. Especially, ROK had the fear of abandonment by a reduction of U.S. Force in Korea policy of the US.

Such like the asymmetric security alliance theory say that policy autonomy of ROK is naturally subjected to restriction. As the result, it says that the

2 Michael F. Altfeld,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Dec., 1984), pp.523-544; James D. Morrow,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5, No.4 (Nov., 1991), pp.904-933.

3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July, 1984), pp. 461-495.

security alliance changing is decisively affected by the policy of the US as a part of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world policy toward ROK. In other words, policy act of ROK that is weak ally cannot influence movement of alliance relation. According to such logic, security alliance police of ROK toward the US is meaninglessness in the period of Second Indochina War.

But, it is possible refutation of two kinds about that theory. At the first, it is fact that the US-ROK security alliance is not simply influenced by system of the Cold War. If it is a by-product that was born of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in system of the Cold War, the system of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should change naturally by the change in system of the Cold War, too. But, the US-ROK security alliance was maintained in Détente in 1970's. And, the US-ROK security alliances have been maintained in spite of ending of the Cold War system. That is to mean the US-ROK security alliance should not be simply analyzed only by the level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At the second,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was influenced by not onl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security alliance policy of the US toward ROK but also security alliance policy of ROK toward the U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document of the US and ROK of the second Indo-China war period. The typical case is decision of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of ROK. At that time, the US was taking the policy of decreasing a foreign financial aid by economic situation of the US, and a lot of the forces were needed by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after August, 1964. A military assistance program grant aid of the US toward ROK was gradually interrupted by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of the US. And the US examined the diversion of a part of U.S.F,K

in the Second Indo-China war. It is thought that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became weakens in the middle of the 1960's if the US executes the Second Indo-China war diversion of U,S,F,K.

But the US took a policy that was to maintain U,S,F,K in stead of the Second Indo-China war diversion of U,S,F,K and to continue military assistance program grant aid toward ROK. It was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decision of ROK why the US took such the policy. A lot of scholars think that participation in the Second-Indochina War decision of ROK is other-directed decision according to the pressure of the US about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of ROK. But, ROK transmitted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of ROK to the US in November 1961 before the US requested participation in the War to ROK.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of ROK was to depend on initiative of ROK as understood from such a fac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the US-ROK security alliance relation in connection with participation in the Second-Indochina War of ROK.

2. Participation in the Second Vietnam War decision background of ROK

A diplomatic relation of ROK started with South Vietnam. ROK examined to dispatch ROK's army to South Vietnam in the first republic period. But, ROK did not execute that. PARK Chung Hee's military government that appeared in a military coup d'etat began to think for military support to South Vietnam. The reason was that the military government expected if

South Vietnam is made communism, Korea peninsula become the next target of the communism power.⁴ A preventive policy that was able to prevent the communism power was necessary for ROK. Therefore PARK chairperson of military government of ROK made a proposition to send troops South Vietnam ROK's army to President John F. Kennedy in the US.

But at that time, the US did not receive PARK chairperson's proposal because it had not considered military intervention to South Vietnam. However, PARK chairperson received the support request from South Vietnam in April, 1962. PARK chairperson officially announced the South Vietnam support to the support request of South Vietnam. ROK military mission of 15 people investigated the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in South Vietnam in May, 1962.

The mission reported that the building goods, Taekwondo teacher, and the medical support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forces support.⁵ ROK declared the support intention to four items of a double march education, a 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 education, a doctor support, and the Taekwondo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reporter to South Vietnam in October, 1962.

South Vietnam sent the answer that requested the Taekwondo teacher to ROK in November, 1962. ROK sent four Taekwondo teachers to South Vietnam for six months because of the Taekwondo teacher request of South Vietnam. And Park chairperson declared that it dispatched soldiers soon if the US requested dispatching soldiers to ROK in August, 1963. Park chairperson

4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of ROK, *the Vietnam War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national development of ROK* (1996), p.162.

5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history of national defense* Vol.3, (1990) p.163.

thought that collapse of South Vietnam related security of ROK that maintains the truce relation with DPRK.

The US sent the fighter and the army by setting up MACV (Military Assistance Command in Vietnam) in South Vietnam in February, 1962 and intervened the Second Vietnam war. But, Ngo Dinh Diem President in South Vietnam was assassinated by the military coup d'état of Dong Van Minh in November, 1963. And, the offensive of Viet Cong became intense toward South Vietnam after establishing Dong Van Minh government. Therefore, Lyndon Johnson President of the US officially declared to dispatch the U.S. military forces of a large scale to South Vietnam on April, 1964. At the same time, the US requested to participation of allies (More Flags). And the U.S. officially requested the anticommunist ally of 25 nations in including ROK to support South Vietnam on May 9, 1964. ROK decided to send non-combat troop to South Vietnam by requesting of the US. ROK communicated to South Vietnam the support prepa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request of the US on May 14, 1964.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OK was decided to take charge of South Vietnam support negotiation on May 16. As follows, ROK formally communicated the support preparation to South Vietnam on May 19. ROK decided to dispatch a non-combat troop to South Vietnam on May 21.⁶

ROK conferred on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South Vietnamese army with the aid problem to South Vietnam in ROK on June 4. At that time,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South Vietnamese army stressed that ROK support the medical affairs group (a medical officer or a private

⁶ MF, G-0002(89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plomatic Record Office, *Negotiation between ROK and South Vietnam for the South Vietnam support* (1964,7,2).

doctor) and the maintenance soldier and the engineer force necessary to South Vietnam.

The reason why ROK decided dispatching soldiers to South Vietnam was that it was thought that the security of South Vietnam was related to the security of ROK. The purpose of core reason why ROK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was to prevent reduction of U.S.F.K. The US officially said welcome to dispatch to South Vietnam one battalion movement surgery hospital south and 10 Taekwondo teachers of ROK on June 30, 1964.

ROK's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was a National crisis-management policy for security of ROK that is maintaining the situation of Defcon (Defense Readiness Condition)⁴, after Korean War(1950-1953). Korean War broke out in June, 1950 after only the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 of 500 people leaves in June, 1949 and 70,000 the U.S. militaries withdraw from Southern province of Korean peninsula.

It becomes a historical case that is withdrawal of U.S.F.K is outbreak of war in Korean peninsula. As the result, Participation in the Second Vietnam War of ROK prevented withdrawal of U.S.F.K. And the withdrawal prevention of U.S.F.K prevented out break of Korean peninsula.

President PARK expressed the reason of participation in the Second Vietnam War on January 26, 1965 as follows.

The first, ROK's support for South Vietnam is to keep Asia's peace and freedom. The second, the forces of communist aggression in South Vietnam is the greatest threat to the security of ROK. And ROK's support for South Vietnam is indirect the National Defense Policy. The third, ROK was able to repel with the support of anti-communism of the 16 countries in the Korea War. So, ROK has obligation for support for South Vietnam from the

forces of communist aggression.⁷

3. Military assistance program grant aid toward ROK increase of the U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ROK submitted the National Assembly a motion sending troops overseas of ROK military corps for South Vietnam support on July 23, 1964. The motion was passed on July 30. According to the mo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ROK organized 34 officers, 96 soldiers in an army surgical hospital on wheels and 10 Taekwondo teachers on July 31. And an alternation cycles of the soldiers that had been dispatched to South Vietnam was 12 months. Thereafter, ROK dispatched a construction support group and a combat troop to South Vietnam. Table 1 shows that from number of soldier of ROK dispatched to South Vietnam 1964 to 1967

〈Table 1〉 Number of soldier of ROK dispatched to Vietnam by year
(unit one person)⁸

| Year | The Total | Army | Navy | Air Force | Marine |
|------|-----------|--------|------|-----------|--------|
| 1964 | 140 | 140 | | | |
| 1965 | 20,541 | 15,973 | 261 | 21 | 4,286 |
| 1966 | 45,605 | 40,534 | 722 | 54 | 4,295 |
| 1967 | 48,839 | 41,877 | 735 | 83 | 6,144 |

7 SHIM Yong Taek, *Will of Self-supporting defense: Quotations from President Park Chung Hee* (Seoul: Halym, 1972), p. 341.

8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Vietnam dispatch of troops and national development* (1996), pp. 166-167.

The US requested additional dispatching soldiers to ROK after Gulf of Tonkin Incident in August, 1964. ROK did the preparation of the second dispatching soldiers by the request of the US and demanded the presentation of a concrete content of dispatching soldiers to the US on December 22, 1964. The US requested the dispatching of 2000 soldiers to ROK on December 30. ROK announced that 2000 noncombatant was dispatched to South Vietnam on January 2, 1965.

The US requested to dispatch of one division to ROK on May 17, 1965. ROK pointed out that the withdrawal of U.S.F.K is made not to be able to do an additional dispatching ROK soldier. The US promised ROK maintenance of U.S.F.K and military equipment modernizations of ROK army in connection with the dispatch of ROK army one division. And the US and ROK agreed to a matters the US support ROK.

1. The US doesn't decrease U.S.F.K without conference with ROK.
2. The US supports necessary military equipment purchase expense seven million dollars to ROK, when ROK three reserve division are converted into a combat division.
3. The US modernizes firepower and military communication equipment, military mobility of ROK

The US and ROK disputed with an operation command problem of the armed forces of ROK in the second Indo-China War. The US insisted that USFV (Headquarters of the U.S. Army in Vietnam) had to command ROK army in the reason on Principle of War of an unity of command. But ROK persuaded the US that if the US military command ROK army, ROK receive

an international criticism that ROK participate in the Second Indo-China War for the US. Finally, ROK succeeded in securing a wartime operation control of the Second Vietnam War.

ROK became to secure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at the same time decided for itself participation in the Second Vietnam War.

The US requested the addition to dispatch soldiers of ROK by reinforcing the communism army in South Vietnam in October, 1965. ROK expected carefulness of the request of the combat division of one in the US of an additional dispatching of troops. But ROK clearly revealed that the South Vietnamese policy of the US.

The US and ROK discussed the problem of an additional dispatching of troops of ROK on January 1, 1966. ROK emphasized that aid of the US had to continue for the additional dispatch of troops toward the US. The US promised the aid to ROK through Brown Memorandum about the emphasis of ROK on March 4, 1966.

The content of Brown Memorandum is as follows, (1) Defense capacity strengthening of South Korea (2) Military equipment modernization of ROK (3) Defrayal of additional the dispatch of troops (4) Support and Cooperation for blocked infiltration of spy of DPRK (5) Military assistance transfer discontinuance to ROK (6) Loan offer (7) The US procures ROK a service and goods ROK aid the service and goods to the South Vietnam (8) Improvement of treatment of ROK troops.

It arrived at the South Vietnam 45,605 soldiers of ROK on October 8, 1966. And, the US discussed the additional dispatch of troops of ROK once more again. But ROK was not friendly about the discussion of the US. In the reason, the US reduced U.S.F,K for the Second Indo-China War on

1966. ROK made clear that it does not an additional dispatch of troops on November 10. As the result, The US converted a part of U.S.F.K in the Second Indo-China war. U.S.F.K decreased after April, 1966. However, U.S.F.K increased after October. Table2 shows that a current state of change of U.S.F.K from January to November, 1966

〈Table 2〉 U.S. Army Strength in Korea (1966.1-11) (unit one person)⁹

| Month | Approval | Appointment | A ground army |
|-------|----------|-------------|---------------|
| 1 | 50,647 | 52,278 | 50,158 |
| 2 | 50,646 | 53,843 | 50,396 |
| 3 | 50,646 | 54,061 | 50,456 |
| 4 | 50,789 | 51,242 | 47,680 |
| 5 | 50,747 | 49,467 | 45,990 |
| 6 | 50,782 | 46,495 | 43,351 |
| 7 | 50,588 | 43,729 | 41,170 |
| 8 | 50,588 | 42,121 | 39,940 |
| 9 | 50,588 | 41,156 | 38,711 |
| 10 | 50,588 | 44,350 | 39,779 |
| 11 | 50,121 | 48,704 | 43,748 |

ROK emphasized to carry out of Brown Memorandum for the additional dispatch of troops of ROK on September 4, 1967. It was emphasized that the additional dispatching of troops of ROK was impossible if defense capacity of ROK was not able to deal with a military threat of DPRK. The US promised Brown Memorandum to be executed immediately in ROK. Judging from the above, ROK was not obey absolutely requirement of the US.

⁹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Vietnam dispatchof troops and national development', 1996, 206.

ROK was able to obstruct the limitation of U.S.F,K the dispatch of troops from 1964 to 1968. And ROK was able to promote the modernization of the ROK army by Brown Memorandum, Table3 shows that aid of the US toward ROK from 1964 to 1967.

〈Table 3〉 Assistant of the US toward ROK (1964-1967)

(unit one million dollar)¹⁰

| section | | FY1964 | FY1965 | FY1966 | FY1967 |
|--------------|----------|--------|--------|--------|--------|
| Economic Aid | subtotal | 104,9 | 118,6 | 143,9 | 112,9 |
| | Loan | 27,6 | 47,9 | 79,0 | 60,3 |
| | Aid | 77,3 | 70,7 | 64,9 | 52,6 |
| PL-480 | | 118,7 | 65,3 | 104,1 | 67,2 |
| Army Aid | | 124,4 | 173,1 | 153,1 | 147,6 |
| Total | | 348,0 | 357,0 | 401,6 | 333,1 |

It explains the state of infiltration toward ROK of DPRK related to the Second Indo-China war participation of ROK. The infiltration of DPRK before 1966 was a small-scale unit. However, the state of the guerrilla warfare was shown in 1967. The reason is that DPRK thought that the US was not able to aid ROK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intervened the Second Indo-China war. But, ROK aid of the US from 1964 to 1967 has not decreased.

ROK could defend the security of ROK from the threat of DPRK through the Second Indo-China war participation policy. Table4 shows that the infiltration tendency of DPRK toward ROK from 1964 to 1967.

¹⁰ Diplomatic Archives (1968) 'Military assistance situation of the US toward Korea', MF, G-0008(2636).

〈Table 4〉 Infiltration tendency of DPRK toward ROK (1964-1967)

(unit one person)¹¹

| Year | Ground | | | | Sea | | | | Total |
|------|----------|-----------|--------------|-----------|----------|----------|----------|-----------|-------|
| | subtotal | East Area | Central Area | West Area | subtotal | East Sea | West Sea | South Sea | |
| 1964 | 1294 | | | | 1 | | | | 1295 |
| 1965 | 136 | 25 | 66 | 45 | 13 | 5 | 7 | 1 | 149 |
| 1966 | 111 | 19 | 36 | 56 | 77 | 29 | 26 | 22 | 188 |
| 1967 | 603 | 60 | 123 | 420 | 167 | 76 | 87 | 4 | 770 |

4. Conclusion

The alliance security policy of ROK toward the US was that ROK absolutely depended on the US from 1964 to 1967. The cardinal factor that influenced security alliance policy of ROK toward America was a military threat of DPRK toward ROK a low deterrent to DPRK of ROK. But the US had to turn on the US military to South Vietnam by intervention the second Indo-China war at that time. The US thought about the second Indo-China war diversion of U.S, F,K for such reasons. ROK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Indo-China War of ROK in connection with the Second Indo-China War diversion of U.S,F,K. The policy of such ROK took the maintenance policy of U,S,F,K at the US.

The US interrupted U,S,F,K withdrawal argument at the opportunity participation in the Second Indo-China war of ROK and promised updating of ROK army Brown Memorandum in March, 1966. Moreover, the US promised to discontinue a transfer of a military assistance program while

11 Diplomatic Archives 'Provocation situation of DPRK (1964-1967)', MF, G-0016(3147).

two division of ROK army that was participating in the Second Indo-China War.

The limitation of U.S.F.K means the war of Korean peninsula to ROK. Because, the Korean War broke out one year after 70,000 soldiers of U.S.F.K withdrew from a Korean peninsula left only by 500 military advisers on June, 1949.

The infiltration activity of DPRK that increases after 1966 improved an uneasy security treaty of ROK. The security policy of ROK was that it was a policy of depending on the US according to low DPRK military deterrent of ROK and the military threat of DPRK. ROK solved the security problem of ROK by the Second Indo-China war participation.

It is a typical case the Second Indo-China war participation of ROK that the Weak state is not always subordinate to the Powerful state by the asymmetric security treaty alliance. Because, the Second Indo-China war participation of ROK was autonomy policy of ROK for the security of ROK.

References

〈Archives〉

Diplomatic Archives (1968) 'Military assistance situation of the US toward Korea', MF, G-0008(2636)

Diplomatic Archives 'Provoc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 (1964-1967)', MF, G-0016 (3147)

MF, G-0002(89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plomatic Record Office, *Negotiation between ROK and South Vietnam for the South Vietnam support*, 1964.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from Jeffrey C.Kitchen, December 27,1961,'Country Annexes to Report of the Military Assistance

Steering Group: Korea-Field Plan'
Memorandum for the Council Members: Draft NSC Record of Action from Bromley Smith, January 18, 1962, 'Guidelines for the Military Aid Program',
NSC Record of Action 2447: Review of the Military Aid Program, January 18, 1962, 'Position Paper: Military Assistance and Modernization'
NSC Record of Action 2447: Review of the Military Aid Program, January 18, 1962, 'Position Paper: Military Assistance and Modernization'
Report to the NSC/Presidential Task Force on Korea, June 5, 1961, 'Appendix E: Department of Defense Assessment of Current Korean Military Situation'

⟨Publication⟩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of ROK, *the Vietnam War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national development of ROK*, 1996.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Vietnam dispatch of troops and national development*, 199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history of national defense* Vol.3, Summer 1990.

⟨Literature⟩

Blackburn, Robert M. (1994) *Mercenaries and Lyndon Johnson's "More Flags"*,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Dong Joo CHOI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 Involvement in the Second Indo China War',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Glenn H. Snyder (1997)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Holsti, K. J. (1988)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es*, 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Hyun-Dong Kim (1990)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volving Transpacific Alliance in the 1960s', Seoul: The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James D. Morrow (1991) 'Alliance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5, No.4, 1991.
Kim, Hyun-Dong (1990)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volving Transpacific Alliance in the 1960s*, Seoul: The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K.J.Holsti (1988)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5th ed. New Jersey:

- Prentice-Hall.
- Kyu Dok HONG (1991) 'Unequal Partners: US ROK Relation During the Vietnam War', Unpublished Ph.D, Dissertations,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Lee, Chae-Jin (2006) '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cdonald, Donald Stone (1992) *U.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The Twenty-year Record*, Westview Press, Inc..
- Michael F. Altfeld (1984)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winter.
- Park, Tong Whan. Ed. (1998) 'The U.S and The Two Korean's.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 Robert O. Keohane (1969)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3.
- Se-Jin, Kim (1970) 'South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Asian Survey', vol,10, no,6, June.
- SHIM Yong Taek (1972) *Will of Self-supporting defense: Quotations from President Park Chung Hee*, Halym.
- S.N.Eisenstadt and L. Roniger (1984) *Patrons, Clients and Friend*, Cambridge University of London.
- Princeton N. Lyman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ORBIS', vol. 12, no.2, Summer 1968.
- Yi Kil J, (1997) 'Alliance in the Quagmir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Vietnam War',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New Brunswick, New Jersey.

Evolving aesthetics of *Kumgangsan Gagukdan** (금강산가극단)

-Korean professional arts troupe 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in Japan

AeRan JEONG

University of Vincennes-Saint-Denis PARIS 8

1. Introduction

The founders of the company, *Kūmgangsan kagūktan* (금강산가극단), are the children of Koreans, some of which arrived to Japan as forced laborers or sought refu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910-1945). Suffering from the attempts of assimilation during colonization, at their liberation, the Koreans in Japan searched to recover their language and their culture. This was the beginning of *Kūmgangsan kagūktan*: research, re-establish, represent the Korean arts and thus, claim their identity as Koreans in Japan. So, the mission of this company is, in their own terms, to “promote the Korean ethnic identity.”

* I follow the McCune Reischauer system, structured in 1939, to Romanize Korean unless to cite the original materials. Translation from Korean to English is my own, any misunderstandings are my responsibility.

One of the founders of the company is Im Ch'uja (임추자), a second generation Korean descendant in Japan. She is called “*Chosŏn* dancer in Japan” following the literal translation from the expression of “North Korea” titled in *Chosŏn minjujuŭi inmin konghwaguk*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hosŏn*.” I will use the terminology “Chosŏn” as equivalent of “Korea.”

It is the path of Im Ch'uja this article will unfold. I will follow her footsteps from early apprenticeship to the moment of becoming a *Chosŏn Dancer*, for her journey is a lived experience, which traces the history of *Kŭmgangsan kagŭktan*. She reveals the choices faced by the arts company and its evolving aesthetics. These aesthetics are now followed by the new generations, being part of the 4th and 5th Koreans descendents born in Japan whose mother tongue is Japanese. That is why I will present the current arts training, systematically institutionalized by the Korean schools in Japan. In this frame of arts education, I hope to open a perspective to re-view the complexities of aesthetics of the artists often categorized “North Koreans in Japan” a collective term dismissed of any individual distinctiveness.

2. *Im Ch'uja* (임추자)¹ (born in 1936)

A Korean girl

Nagoya, Japan

1944

¹ Interview with Im Ch'uja (임추자), one of the founders of *Kŭmgangsan kagŭktan* (금강산 가극단), in Kanagawa, Japan, 9 September 2010.

Towards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1939-1945), with Korea still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 little Korean girl in the city of Nagoya, Japan hid herself in a shelter and listened to the Boeing B29 Super Fortress overhead. Through her eyes the blue-eyed western soldiers, prisoners of War at the Nagoya station, were very “exotic” indeed. This Korean girl was born in Nagoya in 1936. She attended a Japanese elementary school and Japanese was her mother tongue.

Her Korean parents moved to Japan when colonialism worsened on the Korean peninsula. Her parents were one of many Koreans, eventually reaching over two million in 1945,² who fled the occupation leaving Korea in search of a new life. However, Japan having extended its power engaged more into the War and life became uncertain. The Allies battle against Japan intensified. Her parents decided to return to their birthplace, Kyŏngju (경주), a Southeast region of Korea. Carrying their children and belongings they took the seven-hour train ride to Tokyo. On the way, at Kanagawa station, forty minutes from Tokyo, they stopped for a moment intending to wish her great uncle’s family farewell. The bombing escalated and the train station shut down. Having lost their luggage and without any other means of transport, the family had no choice but to stay.³ Since then

2 The mobilization of forced labor becomes obligatory in 1939. This intensifies the migration moving out of Korea towards the Japanese empire and in 1945, the number of Koreans in Japan reaches up to 2 100 000. See more details Park, Soon-Won (1999) ‘Colonial Industrial Growth and Emergence of the Korean Working Class’ in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28-160. For the forced labors of Koreans in Japan, see Norma, Field (1993) ‘Beyond Envy, Boredom, and Suffering: Toward an Emancipatory Politics for Resident Koreans and Other Japanese,’ *Positions*, Vol. 1, No. 3, 640-670.

Kanagawa, where she lives till today, is her home.

The little girl is *Ch'uja Im*, or *Im Ch'uja* (임추자) following the Korean way of naming surname first. She dreamed of dancing Korean dance, a dance she had never seen, only heard about through the fame of legendary Korean dancer during the 1930s and 40s in Japan and throughout the world, Ch'oe Sŭng-hŭi (1911-1969). This little girl became one of the founders of the dance division of *Kŭmgangsan kagŭktan*, the arts troupe established by Koreans 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of Japan.

3. The training years

Kanagawa and Tokyo, Japan

1945-1957

When in 1945 Japan surrendered ending WWII directly leading to the liberation of Korea, nine-year-old Im Ch'uja confessed to her father a desire to dance. Her father thinking of dance not so much as an artistic practice but rather a comfort woman performing before drunken men was not easy to persuade. She was persistent. The story of Ch'oe Sŭng-hŭi finally moved him. It was her uncle who told of a Korean dancer, not a prostitute nor comfort woman, but an artist whose unforgettable dance touched

3 Most Koreans in Japan start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t the moment of the Korean liberation. However,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liberation prevent the return of many Koreans in Japan to Korea: about 600 000 Koreans remain in Japan. See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Westview Press, 6.

people's hearts so deeply that tears of joy fell instilling pride to be a Korean ev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hoever saw her dance was marked forever as if burnt by a soldering iron. Later, Im Ch'uja's father quietly asked if she was ready to become like Ch'oe Sŭng-hŭi. She responded: "Yes. Please send me to the Ishii Baku Dance Academy where Ch'oe Sŭng-hŭi started dancing." From that moment she disciplined herself to be a dancer and in particular to search for a "Korean dance."

In 1945, nine-year old Im Ch'uja started training at the Dance Academy of Ishii Baku (1886-1962), a leading Japanese modern dancer and choreographer. At the same time, she felt a need for classic ballet training and entered the Ballet Studio of Hotdori-Simata, one of the leaders of Japanese ballet in the 1950s. Her search for Korean dance led her to Korean dancer *Cho T'aek-wŏn* (조택원), a pioneer with Ch'oe Sŭng-hŭi of modern Korean danc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Ch'oe Sŭng-hŭi chose North Korea while Cho T'aek-wŏn remained in South Korea. Like several South Korean dancers who often came to Japan at the time, Cho T'aek-wŏn was working with Ishii Baku⁴ and Im Ch'uja remarked how lucky she was to meet him. Her apprenticeship with these three masters, Ishii Baku, Hotdori-Simata and Cho T'aek-wŏn, continued until her early twenties.

If the training with Japanese dance masters shaped the early period of her practical dance education, Korean dance master, Cho T'aek-wŏn, opened

4 Park, Sang Mi (2006) 'The Making of a Cultural Icon for the Japanese Empire: Ch'oe Sŭng-hŭi's U.S. Dance Tours and 'New Asian Culture' in the 1930s and 1940s' *Positions*, Vol.14, No.3, wint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628.

access to a Koreanness, not it should be noted, a divided concept of South or North but something beyond towards Koreanness dancing-ness. This ideal Korean ethnic dance seemed available though she never experienced any live “Korean dance” being a Japan-born Korean descendant and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When *minjok hakkyo* (민족학 교 Korean ethnic⁵ school) opened in 1945 throughout Japan, she entered the school at grade three to learn Korean. No artistic activities were offered at first. In August 1948, under the intensification of the politico-ideological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ern part below the 38th parallel formed its own government followed in September by the north. As many Koreans in Japan at the time Im Ch'uja saw Korea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as an undivided country. Her dilemma, however, to choose either South or North Korean dance came soon.

Master Cho T'aek-wŏn wanted this talented little girl to perform with him in Paris, France. However, for Koreans in Japan had already enough difficulties to travel abroad in the 1950s, the complexity of the social status since their liberation prevented this to happen. All the Koreans obtained the Japanese nationality as the subject of Japanese empire during the colonization and on the contrary, after the Korean liber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dismissed them from the Japanese nationality follow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April 28th 1952. Since then the only option for Koreans in Japan was to declare themselves South Korean nationals because there was no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North

5 The term *Minjok* (민족) can be translated in English such as ‘nation,’ ‘people’ or ‘ethnicity’ and can be used as noun or adjective. I translate it here as ‘ethnic, ethnicity.’

Korea. Yet, this option, due to lack of (or very passive) acknowledgement of their existence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one hand and the other hand their emotional support towards North Korea, was not attractive.⁶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and no other option for their social status, Koreans in Japan were simply a people without a passport. Unless she became a South Korean national, it was impossible for her to travel abroad and return back to Japan. It was only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sulted to the Koreans in Japan in terms of the Human Rights.⁷

Master Cho T'aek-wŏn visited the father of Im Ch'uja to discuss the matter. The father's answer was firm and clear: "We, people of Korea, have barely been liberated retaking our country and our Korean names back. If she has to abandon her own people in order to dance, let her quit dance

6 When the two governments are constructed in the Korean peninsula in 1948, it is the period when the memories of colonial oppression are still very vivid. Most Koreans in Japan see Kim Il-Sŏng, wh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colonization, as more legitimate than Yi Sŏng-Man, educated and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See more explanations Chapman, David (2008) *Zainichi Korean Identity and Ethnicity*, London: Routledge, 29-32. And Ryang, Sonia (2000) 'The North Korean homeland of Koreans in Japan' in Sonia Ryang (ed.)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2-54.

7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means to Koreans in Japan they suddenly become foreigners in the country they have settled for generations. They lost civil servant jobs such as all level of educators and public transportation drivers. They lost property and social welfare rights because of various legal restrictions. Since they do not have any legal documentation like passport, they could not travel abroad or could not return home to Japan from abroad. For these effects of the peace treaty, see Morris-Suzuki, Tessa (2007)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61-68.

right now.” Agreeing with her father’s decision young Im Ch’uja painfully cast aside her dream to dance in Paris. Master Cho T’aek-wŏn knew it was time for her to follow her own path. The arts world was not immune to the nationality convolutions for Koreans in Japan as they faced a split Korea and the intertwined layering of ideological beliefs, political orientations and psychological / emotional yearnings. Im Ch’uja forced into a decisive choice was not an exception.⁸ She was twenty-one years old when the Master Cho T’aek-wŏn opened “Im Ch’uja Dance Studio” in Tokyo in 1957.

4. Studio Years

Tokyo and Niigata, Japan

1957-1972

Master Cho took care of Im Ch’uja Dance Studio giving her support and strength for the first a few years so that she could prepare to be a dance teacher. But seeing herself immature and unqualified to teach, she proceeded despite instability and fear. She quickly crowded over one hundred people into her studio all seeking to learn Korean dance. She realized few in Japan knew anything of Korean dance. She wanted to return what she had learned from her masters even though it was not so-to-speak a “North

⁸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soci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see Ryang, Sonia (2000)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nd particularly the chapters by Sonia Ryang, ‘Introduction: Resident Koreans in Japan,’ p. 1-12 and by Chikako Kashiwazaki ‘The politics of legal status: The equation of nationality with ethnolnational identity,’ p. 13-31. Also see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Westview Press, 117-127.

Korean dance” with which she was now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She referenced two types of dance practices: the daily basic classical ballet training which she believed to transform the body into a refined and cultured base for dance, through for example corporal balance, controlled physical line and hand gestures and the “Korean dance” training learnt from master Cho T'aek-wŏn, a dancer coming from the Korean peninsula, thus considered as a “dance of shared blood.”

Two years before opening her studio, in 1955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abbreviated in Korean *Ch'ongryŏn* (총련) an association claiming their North Korean political orientation in Japan, was founded in Tokyo. *Ch'ongryŏn* at the same time established the “Central Arts Troupe” (중앙예술단). Only a skeleton without competent performers the Troupe sought out Korean artists across Japan from a music student studying Opera in a Japanese university to a trumpet player playing in a nightclub. The Central Arts Troupe approached Im Ch'uja as well. In her studio now with more than a hundred students, reflecting on the importance of working in and for the association rather than in her personal studio, Im Ch'uja decided to respond to the call from the association. In the following years gradually her studio dissolved into the Central Arts Troupe where Im Ch'uja brought her best pupils and was one of the architects of the dance division. Her search for “Korean dance” deepened.

Nonetheless, search for the sources of Korean dance was not obvious due to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tensed situations since 1945. Chapman

explained, “The Cold War context and anti-communist feeling at this point in time played a major role”⁹ and placed extreme travel restrictions on North Koreans entering Japan. In these circumstances, rather than the direct contact between the Koreans in Japan and those i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sought the communication by snail mail. Towards the end of the 1950s Ch'oe Sŭng-hŭi's book *Chosŏn Minjok muyong kibon (Base of the Chosŏn ethnic dance)* published in Pyongyang in 1958 arrived at the Central Arts Troupe in Japan. Almost a didactic manual the book described in detail corporal techniques and rhythms which Ch'oe Sŭng-hŭi systematically and pragmatically developed into “*Chosŏn* dance of North Korea.” Then, around 1960, a dance film demonstrating the “basic twelve movements of Ch'oe Sŭng-hŭi” came from North Korea. It was the first time for Im Ch'uja to see *Chosŏn* dance on a dancer's body. For her, the film and the book became the sources for studies of “Korean dance.” She studied so much the film with the book until the pages wore thin.

Despite the excellence of the book and the film, Im Ch'uja longed to witness live dance performance. She tried to attend live performances coming from at least South Korea. Avoiding any controversy from the *Ch'ongryŏn* community, she spent evenings “disguised in a scarf and sunglasses.” There was already an invisible division among Koreans in Japan according to the regime one supports. The dances of YI Mae-bang (1927-), one of the most important dancers in South Korea attracted her.

⁹ For the political trend of Koreans in Japan and the conflic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supported by the Allies, see Chapman, David (2008) *Zainichi Korean Identity and Ethnicity*, London: Routledge, 25-29.

She observed them tirelessly to study the hand gestures, breath and elasticity between movements.

The pivotal moment for Im Ch'uja to learn directly the “*Chosŏn* dance” was tantalizingly close. It was in the passenger ships docked in Japan in order to repatriate Koreans from Japan to North Korea. The mass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was as unforgettable for Im Ch'uja as for the thousands of returnees themselves. Tessa Morris-Suzuki explains this event in minute detail in *Exodus to North Korea*. Morris-Suzuki questions the apolitical repatriation overseen by the Red Cross Societies stating the event is a humanitarian failure driven by the power politics of Japan, North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¹⁰ The mass repatriation initiated by twenty people in December 1956 was officially launched in August 1959. Lasting eight years until August 1967 (informal repatriations continued until 1984) over 90,000 people departed Japan. *Ch'ongryŏn* was fully engaged in the process strengthening both its internal politico-economic power on Koreans of Japan and external relations with Japan and North Korea.¹¹ During these official eight years of repatriation, especially at the beginning, repatriation ships arrived from North Korea to Japan every week. Im Ch'uja vividly remembers boarding secretly two Russian passenger ships, the *Kryl'yon* and *Tobol'sk*.¹²

10 Morris-Suzuki explains how this repatriation was realized despite many unresolved questions. See more details Morris-Suzuki, Tessa (2007)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35-236.

11 Proceeding repatriation, *Ch'ongryŏn* takes the role of the voice for the Koreans in Japan. Ibid., 157.

12 Ibid., 209.

At the time the passengers of the repatriation were strictly monitored and the only expected-returnees from Japan to North Korea had right to board. Since it was the one-way trip without return, the ships came back to Japan empty except the crewmembers. In the ships arriving from North Korea there were the North Korean artists disguised in the crewmembers as a means to pass clandestinely toward Japan. At first it was almost by accident to have direct communications with North Korea through passenger ships. Acting on the request of *Ch'ongryŏn* who constantly sought closer links to "Korean ethnic arts," it soon became more and more organized these opportunities of clandestine exchange. Well-trained pupils of Ch'oe Sŭng-hŭi from North Korea were sent.

One December night in 1959, finishing her day at the Central Arts Troupe, Im Ch'uja took the night train to the port of Niigata, a northwest region in Japan. In the ships were North Korean artists disguised and waiting for them. Five selected from the Central Arts Troupe rode sleepless in the train. Was it five in the morning when Im Ch'uja left the train with her fellow artists inhaling the sharp morning air and hurriedly entered Niigata port? It was so cold. The dock was covered in frost and "the gigantic repatriation passenger ships were ghostlike, heavy with huge icicles." The young artists surreptitiously entered the ship. The North Korean artists exhausted and seasick by their five-day journey smiled. Im Ch'uja was speechless so emotional and touching was their meeting. How much and how long she had waited to learn "authentic *Chosŏn* dance" from "*Chosŏn* danc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she was resolute and passionate during the apprenticeship.

The North Korean masters of dance and music came in twos or threes. Im Ch'uja was impressed not only by their mastery, but also their “artistic comportment”: their pedagogical skills, their empathy with the difficulties of the Korean artists of Japan and their generous human warmth. The North Korean masters also taught the songs accompanying the dances on the Korean instruments. Knowledge of the songs and rhythms were exactly what Koreans in Japan lacked: withou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usic and rhythms it was challenging to dance. The instruments were eventually gifted to the Central Arts Troupe gradually fully equipping the Troupe into a “*Chosŏn* arts troupe.” Time was of the essence for the fervent young Korean artists of Japan. There was a sense of urgency – the North Korean masters could not leave the ship and Im Ch'uja with her fellow artists were not permitted to stay overnight. They left around mid-night to find the closest Inn only to reenter the ship at dawn.

Im Ch'uja learned many dances among them Ch'oe Sŭng-hŭi's *Munyŏ Ch'um* (*Dance of Munyŏ*), *Hwanhŭi* (*Joy*), *Sadang Ch'um* (*Dance of traveling actors*), *Padaŭi Norae* (*Song of the Sea*), *Sagwa P'ungnyŏn* (*Apple Harvest*). The apprenticeship on the ship lasted three or four days. Returning to the Central Arts Troupe, Im Ch'uja “devoted her energies to transmitting what she had learnt and teaching the freshly acquired exercises with the other dancers” until the next repatriation ship arrived the following week. With each ship the Central Arts Troupe repertoire expanded and the instrumental orchestra grew. Until 1973 Im Ch'uja with the Troupe performed across Japan sharing the *Chosŏn* dances not only in physical form but also with, what she describes, as the “artist’s consciousness.” One crucial experience

remained - to actually witness the *Chosŏn* dance on the stage.

5. A *Chosŏn* Dancer

Across Japan

Pyongyang, North Korea

1973-1974

Mansudae yesuldan (Mansudae Arts Troupe), a most distinguished performance group from North Korea toured Japan in 1973 (July 30-September 17). The artists 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I met during my fieldwork in Tokyo last year (2010) retold me over and over again of this historical event. Im Ch'uja treasured the moment especially since it was an official sanctioned tour, not secret or hidden, but approv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even the NHK broadcast a performance. She was “unabashedly proud.” She saw for the first time “*Chosŏn* dance” reincarnated in performance on the stage.

Im Ch'uja followed the month long tour. Backstage she witnessed the pursuit for perfection, the relentless physical demands, the care in handling costumes and props and the fullness of concentration. These artist's behaviors she describes the “artist's conscience,” the principles of becoming an artist. The practices and trainings did not cease until the techniques of movements become the flash and bones of the dancer. In the spectator's seat she felt the completion of the total form - the music, lighting, costume and dancer in ensemble. It was another part of apprenticeship for Im

Ch'uja to see “*Chosŏn* dance” as a spectator, particularly the artists’ presence during performance, not allowing the tiniest of errors and always in a state of readiness. Unlike rehearsals, watching the performances she learned how trainings transform and present a vision. She witnessed “the power of arts manifesting the dream of tomorrow.”

Touring with *Mansudae yesuldan*, she did not want to miss the chance to learn more dances and interrogated the performers after performance, during the travels, and at mealtime. Some dances she learnt during this period were, *K'i Ch'um* (*Dance of Winnowing Basket*), *Nuni naerinda* (*The Snow Falls*) and *Choguk-ŭi chindallae* (*Homeland's Azalea*). These last three pieces with *Sagwa P'ungnyŏn* (*Apple Harvest*) she had learnt in the repatriation passenger ship and designated in North Korea as the “Four Dance-Masterpieces of *Chosŏn*” (조선4대명작무용). In fact, *History of Chosŏn Dance* describes North Korea developing these Four Dance-Masterpieces from 1960 to early 1970s.¹³ As they were being created in North Korea, Im Ch'uja learnt part of these dances in the repatriation ships. Other parts she learned from the “Mansudae Arts Troupe” during their tour. Such was the process of transmission - snatched in bits and pieces throughout many years.

The next year 1974 April, a thirty-eight year old Im Ch'uja encountered the culminating moment of her dance life. The Central Arts Troupe received special permiss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o visit North Korea,

13 Ri, Yŏnghwan & Jŏng, Namrŏn (1999) *Chosŏn Muyongsa II* (History of Chosŏn Dance), Pyongyang: Yesul kyoyuk Ch'ulp'ansa (예술교육출판사), 191.

Approximately two hundred Korean artists of Japan collected around the Central Arts Troupe to prepare a comprehensive performance of song, dance and poem presenting the life of Koreans in Japan. A collective creation, Im Ch'uja took care of the dance parts. She knew leader of North Korea Kim Il-Sŏng would be at the performance and this created in her a tension and beating of heart. His future presence *à priori* motivated her to orient her comportment to the maximum toward a given goal. Finally landing on the soil of North Korea they were received by a warm and passionate welcoming crowd. She described stepping on the North Korean stage before Kim Il-Sŏng as “overwhelming.” Born in Japan knowing little of “Korean dance” she had hurtled forward like “a train without rails.” In fact, she was “creating the rail tracks” as she journeyed. Her parents suffered financially to support this second daughter out of nine children, the Korean family living in Japan. Dancing on the stage in North Korea was “the dream of dancing in her homeland.” Her head swirled with images of her past. She saw her track and the rails of her dance connected to the homeland. She had now earned and claimed the right to be called a “*Chosŏn* dancer of Japan.”

Both performers and the spectators cried during the performances. All the hardships vanished and Im Ch'uja felt a sense of dignity and pride. As a reciprocal response to the successful performance, Kim Il-Sŏng gifted the Central Arts Troupe to learn the performance *Kŭmgangsān-ŭi norae* (Song of Mountain Kŭmgang). Not fragmented pieces but the totality of the performance taught by the North Korean artists for a month. In honor of this cultural exchange Kim Il-Sŏng re-named “the Central Arts Troupe” to

Kūmgangsan kagūktan literally meaning “Mountain Kūmgang Arts Troupe.” Returning to Japan they performed *Song of Mountain Kūmgang* under their new name across Japan. *Kūmgangsan kagūktan* had earned their status as a representative “*Chosŏn* performance troupe” among Korean communities in Japan consisting of forty performers in the three divisions of song, dance and musical instrument.

6. *Chosŏn* Middle & High School of Tokyo

Tokyo, Japan

2010

I now pause the story of Im Ch'uja forwarding to 2010 and present a snapshot of the current training process. Imagine a girl of today entering one particular Korean school in Japan, *Chosŏn* Middle & High School of Tokyo, possessing the same desire to dance as captivated Im Ch'uja.

These *Minjok hakkyo* (민족학교), “Korean schools in Japan,” founded in 1945 and one hundred and fifty-three schools are under the *Ch'ongryŏn* (총련) Department of Education.¹⁴ These schools follow the established curriculum for “The Activitie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Yesul sojo* (Arts Clubs) and *Ch'eyuk sojo* (Sports Clubs). In *Yesul sojo*, there are *Muyong sojo* (Dance Club), *Norae sojo* (Singing Club) and *Ch'wijuak sojo* (Wind Band Club).

¹⁴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Westview Press, 3.

Chosŏn Middle & High School of Tokyo has a three-year middle school program followed by three years of high school and I observed the dance activities of high school. Six hundred and seventy students have just completed their final exams of the first term on Saturday, July 17th 2010. A summer heat between 32-40 degrees oppresses the city. Nonetheless on Monday, the 19th of July, the dance club at school starts at 10 AM.

The fifty-four female students in dance club of high school look very uniformed from head to toe. They wear a black top and wide, long black skirt. The hair is tied back with a white colored headband and hairpins and all have white colored ballet toe-shoes.

Three female teachers are in charge. Ri Kyŏng-hŭi¹⁵ (born in 1959) is a part-time instructor for the dance club. The other two are full time teachers responsible as well for Japanese and English instruction. Ri Kyŏng-hŭi came to the school in 2001 as a dance teacher replacing the previous dance instructor dismissed after a scandal for receiving bribes from parents demanding their daughters to be protagonists in the dance performances. Ri Kyŏng-hŭi underwent a careful screening and was selected for her artistic quality and integrity as an educator. She majored in *Chosŏn dance*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Chosŏn* University of Tokyo” where upon graduation she worked as a dance researcher for eight years. She took a leave of absence to care for her three children returning to work this time at the high school.

¹⁵ Interview with Ri Kyŏng-hŭi (리경희), a dance instructor at *Chosŏn Middle & High School of Tokyo*, Tokyo, Japan, 10 August 2010.

The 54 dance students place themselves in a particular way to dance. They are divided into five small groups of ten students mixed equally of each different grade. Each group forms two lines, which makes all five groups in ten rows of five. The upper year students take the front row of each group, followed by the middle and beginning years. The expectation is to learn from the more experienced seniors. The groups rotate places everyday in order to distribute equal chance to be in front of instructor Ri Kyŏng-hŭi.

The regular training starts with basic exercises from classical ballet. The composed elements from the ballet positions of arms and feet such as the pliés and turning are accompanied with a recorded piano music. These are rather elementary beginners' level focusing on the stretching and straightening bodyline. Then, it continues to the basic elements from *Chosŏn* dance which follow the rhythms of *puk* (북), Korean drum, by Ri Kyŏng-hŭi. The exercises of arms and feet, sitting and turning again focus on stretching and body positions but with the Korean rhythms. The thirty-minute warm-up from ballet to *Chosŏn* dance practices concentrates on stretching, strengthening and relaxing of the muscles.

The introductory *Chosŏn* dance comes next. The two parts from Ch'oe Sŭng-hŭi's base of *Chosŏn dance*¹⁶: "The Preliminary Movements", isolation exercises for the upper and lower body. This part has a series of repetitive practices accentuating each part of the body. For example, the feet walking

16 Ch'oe Sŭng-hŭi (최승희) (1991) *Chosŏn minjok muyŏng kibon (58Pyongyang)* (Base of the *Chosŏn* ethnic dance), Seoul: Tongmunsa.

on the spot touching the floor from heel to toe as if the undulation of wave, the shoulders shaking out rhythmically in the directions of up and down, open and close, or the rotation of the waist to arch back. All these preliminary movements are accompanied by “Korean rhythmic music” which Ch'oe Sŭng-hŭi defined as the 13 rhythms for *Chosŏn* dance.

The second part is “The Basic Movements”, a series of actions compiled from the preliminary movements but the upper and lower body within an ensemble such as walking, turning and jumping: to understand, know-how the movement paths of arms with the legs simultaneously embodied in the corporal breath that follows the Korean rhythms; all the movements within the totality of the body. These set of movements become the core choreographic elements of *Chosŏn* dance. These basic movements again are accompanied by Korean rhythms.

These both preliminary and basic movements from *Ch'oe Sŭng-hŭi's base of Chosŏn dance* seem to prepare and familiarize the body to Korean rhythms and a particular way of operating the body parts. In other words, they are to learn the corporal terminologies to learn *Chosŏn dance*; the way of lifting arms and leg movements to do walking in *Chosŏn dance* or the way of sitting and running. Also all danced movements in the Korean rhythms are generated by particular rhythms of breathing. The embodied physical vocabularies of *Chosŏn* dance are shared among students under the constant instructions from the teacher.

The morning training ends with a series of group jumps and turns, the

whole group circling, rotating and revolving. By the time, students are exhausted from the daily intensive physical training, they replace themselves observing each other. By watching other dancers jumping each is encouraged to extend their limits. Usually the upper grade students try not to show any tiredness in order to give support for the younger students. It happens time to time though a student fell unconscious or crying on the floor. Ri Kyŏng-hŭi helps the student take a rest while the training continues. Lunch break goes from 12:30 to 13:30. The students have only sweet jellies or juices for lunch. It was explained to me that it is too hard for their body to take any food during the training so they eat a full breakfast and supper.

After lunch break, the afternoon is committed to learn the assigned dances for the “Student Arts Competition” that will take place in November. A yearly competition for students in the arts clubs from *Chosŏn* schools was started in 1967¹⁷ from the elementary to high school level across Japan. The dance division has three sections; solo dance, less than 5 dancers and group dance. Each part has an assigned dance and a created dance, which in this case Ri Kyŏng-hŭi is the choreographer.

During the afternoon, in groups consulting the video students teach and learn from each other the sequence of movements with which later the teacher will shape in details: each posture, the transitions of movements, breathing and displacements of weight. While the grade one students are

17 Pak, Chŏngsun (박정순) (2000) *The cultivation of ethnicity and dance education in the Korean students in Japan*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성교양과 민족무용교육), Pyongyang: Munhak Yesul Chonghap Ch'ulp'ansa, 75.

responsible for the props and costumes as a period of backstage learning, other students work hard watching and stopping videos with serious discussions and demonstrations. Still not satisfied by videos having more questions on each movement, they do not leave Ri Kyŏng-hŭi even beyond 4 pm dismissal.

The day is over, sending them home Ri Kyŏng-hŭi reminds the students to wear their physical education uniform rather than the school uniform. In 2003 on the way to school one of the female students from this school was attacked in the metro by “the knife of an anti-North Korean Japanese”.¹⁸ She was wearing the school uniform *chima-jegory* (Korean costume) which was visibly Korean-Japanese particularly from the North Korean related school. According to Sonia Ryang, Professor of Anthropology at one of the American universities, born and grown up 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in Japan, the Koreans in Japan have been subjected to physical and verbal harassments from the right-wing Japanese.¹⁹ And even more this got worsened after North Korea admitted responsibility for the abduction of thirteen Japanese citizens in 2002.²⁰ One of their own students skirts was

18 Minjok21 (민족21) (2003) ‘Going to school wearing chima-jegory even the next day of the incident (사건 다음날에도 치마저고리 입고 학교에 다닙니다),’ No.24: March 1, 2003, Seoul: Minjok21 Press
(<http://www.minjok21.com/news/articleView.html?dxno=1359>, 7 June 2011).

19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Westview Press, 182.

2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1)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3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abduction/pdfs/abductions_en.pdf, 7 June 2010).

torn by a knife. Since then, the school has alerted students to wear the physical education uniform or the Japanese school uniform outside the school.

During the summer vacation from ten till four six days a week, except for an one-week break, this schedule is repeated. In August, Ri Kyōng-hŭi organizes a three-night four-day intensive training camp at the youth center of Tokyo. At this time students earnestly enter into a preparation for the November “Student Arts Competition.”

7. Options

Tokyo, Japan

August 2010

During high school, since 1984, selected arts students go to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three-week program, “Pyongyang distance education” (평양통신교육).²¹ The students wishing to be a teacher or to audition for *Kūmgangsān kagŭktan* have first priority for the program. The selection is for the first grade high school students and those selected to travel for their education every summer for three years. This year it was July 28 to August 19 and all six dance students, three in grade one, one grade two and two grade three went Pyongyang.²² Cost for each student is 210,000 Yen (about

21 Pak, Chōngsun (박정순) (2000) *The cultivation of ethnicity and dance education in the Korean students in Japan*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성교양과 민족무용교육), Pyongyang: Munhak Yesul Chonghap Ch'ulp'ansa (문학예술종합출판사), 91.

22 Interview with the students of the program “Pyongyang distance education” (평양통신교

1,800 Euros/ 2,600 USD) airplane ticket (Tokyo-Beijing-Pyongyang), hotel and meals all included. From 10 am to 5 pm six days a week with Sunday free students take classes: a class of “the written symbols of dance” (무용표기법) developed in North Korea in the 1980s in order to write dances, a class of “the basic exercises from classical ballet,” a class of “*Chosŏn Jangdan*” (Korean rhythmic music) and a class of “*Chosŏn* dance.” In the class of “*Chosŏn* dance” the North Korean professors from “Pyongyang University of Dance & Music” (평양무용음악대학) work to refine the preliminary and the basic movements that students already learn in Japan and gradually select a solo dance suited for the student.

When those Pyongyang distance students return to Tokyo in August, the dance club of *Chosŏn* high school of Tokyo organizes the intensive training camp in the youth center of Tokyo (August 22-25, 2010). The dance instructor Ri Kyŏng-hŭi has remembered difficulties finding a place for the summer training camp. It is rare but the youth center of Tokyo was open and friendly aware of the tension towards the Korean ethnic schools in Japan. Three years ago when dance students came to this place for the first time, the staffs of the youth center of Tokyo were very impressed with the disciplined commitment of such young high school students. A visiting parent of a student shared the story of many refusals to reserve space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ethnic school. Since then the youth center of Tokyo has cooperated in advance to negotiate dates and availability for these students. That is why Ri Kyŏng-hŭi believes to teach the importance

육) of 2010, *Chosŏn Middle & High School of Tokyo* (도쿄조선중고급학교), Tokyo, Japan, 22 August 2010.

of not only *Chosŏn dance* but also student comportment. Whether they want or not they become the face of the Korean ethnic schools. Thanks to their seniors the current students enjoy well-equipped facilities. The teacher also knows how fragile the generosity of the center could be depending on political situations. Does not this given environment that can be brittle and uncertain motivate all the fifty-four students with the three dance teachers to enter into the vigorously organized life of the camp for the same goal? From 7:15 am starting a day till 10 pm they are completely drenched from their sweat in the dance practice and the summer heat.

Once the second semester starts in September, the dance club shifts from 4:30 to 7:30 pm including weekends with Monday free. For the grade three students, the month of September is crucial to prepare for their last competition and equally to discuss their career options. When I asked some easily answered having decided to enter Japanese universities while others chose the “*Chosŏn University of Tokyo*.” Some whose parents have Chosŏn South Korean nationality plan to visit South Korea to study Korean whether for a short or long period. Some of the North Korean nationality clearly see their path in the North Korean community for example, going to the *Chosŏn University of Tokyo* to become a teacher at a Korean ethnic school. Regardless of South or North Korean nationalities, as Japanese permanent Residents, those who are going to the Japanese universities intend to integrate into the Japanese society though keep their link to their communities.

Talking about their career options, I turned to the student W, outstanding

in her presence and dance quality, always caught my eye. She hesitated to answer and looked intense as if searching for something. She was however silent. Her teacher later shared the reason for the shadow on her face. The destiny of this eighteen year-old girl of a new generation and the path of Im Ch'uja about sixty years ago are quite parallel. Student W started dancing in grade three at the Korean ethnic school. She pursued her physical condition and passion for dance. After ten years of training she desires to continue her dancer's path yet, the available options are limited: attend "Chosŏn University of Tokyo" or audition for *Kŭmgangsan kagŭktan*. Her parents approve neither choice. They themselves attended "Chosŏn University of Tokyo" and strongly discourage their daughter from entering such a "dehumanized place." Forced to prepare for Japanese universities means giving up *Chosŏn dance* since no Japanese schools including the university level teaches a course of 'Chosŏn dance' and student W cried for weeks.

8. Smell Of The Soil

Im Ch'uja watches the new generations grow. She was for many years a jury member for both the "Student Arts Competition" and the *Kŭmgangsan kagŭktan* auditions. *Chosŏn dance*, the art form she researched, reestablished and represented "in order to find her existence as a Korean descendant," has its own life. Since 1998 after retirement from *Kŭmgangsan kagŭktan* she teaches at her own dance studio to perpetuate the "tradition" of this dance. *Kŭmgangsan kagŭktan* has also invited her dance studio to perform at their 55th anniversary stage in Tokyo, 2010 "for honoring and recognizing her significant path in this community".²³ The comparisons to her path in

becoming a *Chosŏn dancer* in Japan and the systematic training found in *Chosŏn Hakyo* (schools) are obvious. The grassroots decisions she took searching for a “Korean dance”: from her locality of Japan, the Japanese modern dance and ballet trainings until the dan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hich transcend the politico ideological frontiers between the two Koreas are her well trodden path. She brought her whole life, her whole experience, her whole sufferings and joys - everything on the path which led her to a concrete soil upon which she can dance. She responds to my question of what *Chosŏn dance* means to her:

“... conceived as Koreanness, the smell of the soil. Each ethnic or nation has its own soil smell. I don't believe there is any ethnic dance without the smell of the soil. It's a matter of ceaselessly digging. Of course there is a form, a corporal technique and daily training but that's not all. If my leg can be lifted this much and that much, is this Koreanness, the smell of the soil? The dance must transcend the form. The artists must go beyond what it is visible. The smell of the soil, it's indescribable, immaterial, very personally embodied, within the breath and within the soul.”

She lived through specific historical, political and ideological turbulences especially being a foreigner in the land of her birth. She was an unwelcomed stranger. She lived labeled, sometimes willingly and other times resisting the identification with all the inherent political/ideological burdens, a “*Ch'ongryŏn dancer*.” For herself she was simply a dancer. Maybe the only path for her life's journey was the smell of the soil. The smell of the soil

23 Interview with Kang Su-Nae (강수내), current choreographer in *Kŭmgangsan kagŭktan*, Tokyo, Japan, 10 September 2010.

was the only concrete truth for her to tread in order to dance. From 'soil' she found 'soul.' Searching for the smell of the soil was in fact, the process of transforming her 'i' (of soil) into 'u' (the soul) letting her soul free from what it is visible and dance over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the peninsula of two Koreas.

The path of Im Ch'uja and the dance education at the Korean schools in Japan are like a window I found to understand the cultural complexities of Koreans in Japan. What is "culture" speaking about the transplanted artistic company? Eugenio Barba, himself a theater director of an international company in a foreign country and practitioner of Theater Anthropology, says: "culture is a group of people who are capable of having and creating relations based on norms and criteria, who have knowledge and can apply it, and are capable of transmitting it."²⁴ Im Ch'uja, the dance education in Korean schools and *Kūmgangsan kagūktan* are a micro-culture. The apprenticeship and the dance practices transmit all the criteria and the values of the *Chosŏn* dancers elaborated by the cognitive embodiment to the new generations.

The dancing bodies are in fact not only work on physical muscles but also muscles of the imagination. As Jean-Marie Pradier underlines, the liaison between the artistic apprenticeships and "its specific entry into the life and the community"²⁵ allows the new generation to follow the system of

24 Barba, Eugenio (2011) 'Fragments from Eugenio Barba's interview', *Training Project*, Odin Teatret Archives, Holstebro, Denmark (<http://www.youtube.com/watch?v=Ni3Un6BBB-I>, 7 July 2011).

arts education dreamed and implemented by the generation of Im Ch'uja. The experiences of the dancing bodies, such as training and performing the *Chosŏn* dance in Japan, practicing Korean language, familiarizing to the Korean rhythms and wearing Korean costumes, are literal incarnations of their imagination.

The dance teacher Ri Kyŏng-hŭi states her students may indeed be the “product of a tragedy,” – the historical, ideological and political tragedy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ew generation seems to grope for solutions to break away from this tragedy and try a new path to tell a new narrative even though the generational problems within the community are still persistent. It is their Koreanness – their imagination.

References

Primary sources

Personal interviews during my fieldwork (July 24–September 19, 2010) in Tokyo, Japan:

- Interview with Ri Kyŏng-hŭi, a dance instructor at *Chosŏn Middle & High School of Tokyo* (도쿄조선중고급학교), Tokyo, Japan, 10 August 2010.
- Interview with the students of the program “Pyongyang distance education” (평양통신교육) 2010, *Chosŏn Middle & High School of Tokyo*, Tokyo, Japan, 22 August 2010.
- Interview with Im Ch'uja, one of the founders of *Kŭmgangsan kagŭktan*, Kanagawa, Japan, 9 September 2010.
- Interview with Kang Su-Nae, current choreographer in *Kŭmgangsan kagŭktan*,

25 Pradier, Jean-Marie (1998) ‘Ethnoscénologie: la chair de l’esprit,’ *Théâtre 1*, Paris: l’Harmattan, 20.

Tokyo, Japan, 10 September 2010.

Audio-visual materials filmed by me (Jeong Ae-ran) during my fieldwork at the period.

Secondary works

In Korean:

Ch'oe, Sŭng-hŭi (1991) *Chosŏn minjok muyong kibon (58 Pyongyang)* (Base of the Chosŏn ethnic dance), Seoul: Tongmunsa.

_____ (2006) *Flamme (불꽃)*, Seoul: Jaum gua Moum.

Kim, Chŏng-il (1992) *Theory of Dance (무용예술론)*, Pyongyang: Chosŏn Rodongdang Ch'ulp'ansa (조선로동당출판사).

Minjok21 (2003) 'Going to school wearing chima-jegory even the next day of the incident (사건 다음날에도 치마저고리입고 학교에 다닙니다),' No.24, March 1, Seoul: Minjok21 Press.

<http://www.minjok21.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9>

(last visited on June 7, 2011).

Pak, Chŏng-sun (박정순) (2000) *The cultivation of ethnicity and dance education in the Korean students in Japan*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성교양과 민족무용교육), Pyongyang: Munhak Yesul Chonghap Ch'ulp'ansa.

_____ (2005) *The preliminary movements of Chosŏn dance* (Reference materials) (조선 무용기초동작 (참고자료)), Tokyo: Chosŏn Taehakyo Ch'ulp'ansa.

Ri, Yŏnghwan & Jŏng, Namrsŏn (1999) *Chosŏn Muyongsa II* (History of Chosŏn Dance), Pyongyang: Yesul kyoyuk Ch'ulp'ansa.

In English:

Chapman, David (2008) *Zainichi Korean Identity and Ethnicity*, London: Routledge.

Kashiwazaki, Chikako (2000) 'The politics of legal status: The equation of nationality with ethnonational identity,' in Sonia Ryang (ed)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London: Routledge, 13-3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1)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abduction/pdfs/abductions_en.pdf (last visited on June 7, 2010).

Morris-Suzuku, Tessa (1998) *Re-inventing Japan: time, space, nation*, Armonk London: M.E. Sharpe.

- _____ (2007)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_____ (2011) 'Re-imagining Japan - North Korea relations Part 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apanese Studies Online: The ANU Japan Institute*, Issue 1/2011: 3-32, http://japaninstitute.anu.edu.au/japanese_studies/issue_01/1_Re-Imagining_Part_I.pdf (last visited June 6, 2010).
- Norma, Field (1993) 'Beyond Envy, Boredom, and Suffering: Toward an Emancipatory Politics for Resident Koreans and Other Japanese,' *Positions*, Vol. 1, No. 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640-670.
- Park, Sang Mi (2006) 'The Making of a Cultural Icon for the Japanese Empire: Ch'oe Sŭng-hŭi's U.S. Dance Tours and 'New Asian Culture' in the 1930s and 1940s' in *Positions*, Vol.14, No.3, 597-632.
- Park, Soon-Won (1999) 'Colonial Industrial Growth and Emergence of the Korean Working Class' in Gi-Wook Shin and Michael Robinson (ed.)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28-160.
-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Boulder: Westview Press.
- _____ (ed) (2000) *Koreans in Japan: Critical Voices from the Margin*, London : Routledge.

In French:

- Destexhe, Alain (2001) *Corée du Nord : voyage en dynastie totalitaire*, Paris: l'Harmattan.
- Hancock, Claire (2011) 'Le Zocalo de Mexico,' *Pour une géographie de l'altérité. Corps de l'Autre et espaces de subjectivation politique*, HAR, volume inédit, 46-51.
- Laplantine, François (1996) *La description ethnographique*, Paris: Nathan.
- Mauss, Marcel (1936) 'Les techniques du corps' in *Journal de psychologie*, XXXII, ne, 3-4, 15 March-15 April, http://www.uqac.quebec.ca/zone30/Classiques_des_sciences_sociales/index.html
- _____ (2002) *Manuel d'ethnographie*, Paris: Payot & Rivages.
- Pradier, Jean-Marie (1986) 'L'acteur: aspects de l'apprentissage,' Préface de Jean Duvignaud, in *Actes du colloque Le théâtre, le corps et les sciences de la vie. Internationale de l'Imaginaire*, Paris: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N°6/7, 84-96.
- _____ (1996) (Ethnoscénologie: La profondeur des émergences,' *La scène et la terre : questions d'ethnoscénologie*, Paris: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13-41.
- _____ (1998) 'Ethnoscénologie: la chair de l'esprit,' *Théâtre 1*, Paris: l'Harmattan,

17-37.

_____ (2001) 'L'Ethnoscénologie. Ver une scénologie générale,' *L'Annuaire Théâtral : revue québécoise d'études théâtrales*, n° 29, 51-68.

한(조선)반도 통일철학과 융철학

김희성

Philosophy of Korean Unification and Rune Philosophy

1. 머리말

통일의 달성여부는 철학공부와도 관계된다.

우리의 시대는 이미 큰 변화가 있었으며 세계형세는 지금 주변으로부터 급변하고 있다. 동서독은 시대흐름에 쫓아 이미 20년전에 통일을 이루었고 중국은 개혁개방후 불과 30년이라는 기간에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에는 이미 세계제2의 대국으로 변하였으며 인민들의 경제생활도 크게 제고되어 총체적으로 민주국강의 나라로 되고있는 과정이다. 이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홍콩을 수복하였으며 또 대만과도 냉전상태를 벌써결속짓고 소위 ECFA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이같은 변화와 발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므로 그속에는 자기변화와 발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철학을 등소평이 주장하는 '실사구시'라고 분석한다. 실사구시는 객관세계와 자기를 바로보는 과학정신이며 또한 유물론적이고 실용주의특색을 띤 철학사상이다.

중국은 또 개혁개방과 나라통일에서 일음일양은 도이다 라는 역학사상을 바탕으로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한나라 한체제안에서 융합시키고 또한 소위 일국양제라는 방책으로 홍콩을 수복하였으며 대만과도 같은 방책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한다.

보다싶이 나라발전과 민족통일에는 철학사상이 그속에 반드시 숨어있는 것이다. 올바른 철학사상이 없이는 나라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통일을 이룰수도 없는법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중국적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인정할수 있다.

오늘날 한(조선)반도는 두쪽으로된지 이미 반세기를 넘어 6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한국 전 대통령 김대중선생은 다음과같이 말한적이 있다.

“우리는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한 민족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분단된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것도 아니고 승낙한 바도 아닙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부당한 분단을 우리민족의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우리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이룩할것을 확신합니다.”

(김대중 2006: <http://www.ecumenian.com/>)

통일이 없이는 남과북은 누구도 잘살수 없다. 한(조선)반도는 꼭 통일이 되여야 한다. 이 급변하고있는 시대속에서 한(조선)반도가 계속분렬상태로 남아 있게된다면 한민족은 통일된 강대국으로 가는 기회와 힘을 영원히 잃게 될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완성하는가 이다. 이는 통일의 기회문제이며 방법문제이거나와 또한 통일의 철학문제이기도 하다. 남과 북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못한 근본원인을 따진다면 곧 통일의 철학문제일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달성여부는 철학공부와도 관계된다고 말할수있다. 큰나라민족은 위대한 철학이 역사적으로 키워낸 민족이라 할수있는바 큰나라 한민족이 되자면 남과북은 철학공부를 더욱 개방적으로 심도있게 잘해야겠다. 나라와 민족의 크기에 따라 그나라 그민족의 마음속에있는 철학도 달라지는 법이다.

2. 한(조선)반도 통일방안과 민족의 운명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는 8천만 백의민족의 공동한 념원을 호소하는 노래이다. 노래속에는 간절하고도 비장한 정서가 깊이 담겨져있다.특히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가사는 통일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련결시켰다.이는 매우 투철한 논단이고 견해이다.

그러나 노래는 어디까지나 노래이고,념원은 어디까지나 념원일뿐이다.문제는 현실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방법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통일을 어떻게 할것인가?한쪽은 사회주의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다른 한쪽은 자본주의나라 대한민국이다.그리고 또 한쪽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다른 한쪽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정황이다.그 외 또 한반도의 주위에는 군사대국 러시아가 있고 경제대국 일본이 있다.총적으로 한반도는 당초 외세의 힘에의해 분단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주위4강의 영향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즉 가설 남북이 통일을 하자고해도 주위4강의 간섭으로하여 통일달성의 여부가 명확치 못하다는 것이다.4강의 입장으로 놓고본다면 한반도 통일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고 또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에 맞아야 한다.지금 6자회담이라는 국제협상기구가 있다하지만 이는 결코 한반도 통일을 목적으로하는 체제가 아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남북이 자주적으로 하여야한다.그런데 남북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주위4강등 국제관계하에서 어떻게 통일을 달성하겠는가?이는 참으로 복잡한 문제이다.그러나 아무리 복잡하다해도 해결할수있는 문제이고 또 반드시 남북이 스스로 해결해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억지로 한다면 무력으로 전쟁으로 할수있

다. 그러나 무력통일은 최하책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무조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또 결과적으로도 통일을 보장할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는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결과일 것이다.

또 한가지방안은 일방의 체제붕괴를 노리던가 혹은 초래하여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다. 이방안은 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면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지도사상으로하여 남북은 오늘날까지 60여년동안 냉전상태에 처해있게 되었다. 반대로 소위 적화통일이란 방책도 시대적틀림의 통일관념이며 현실적이 못된다.

남은 길은 오직 평화적인 자주통일이다.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길에서 남북은 이미 력사적으로 여러가지 통일사상과 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일정한 실제행동과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세가지 통일방안을 들수있다.

첫째, 김일성의 고려연방공화국방안. 조선의 수령 김일성주석은 일찍 1972년에 통일문제에 관하여 자주, 평화와 민족대단결 삼원칙을 주장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 건립방안을 제기하였다. (김일성 1990: 31) 특히 주목할것은 김주석은 그때부터 이미 사상, 신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통일된국가를 먼저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이는 후에 등소평이 말한 '일국양제'란 통일정치 모식이다. 이로서 볼때 김주석의 통일사상은 시대적으로 매우 선진적이였다. 그러나 그때는 중국도 아직 개혁개방을 하지않은 상태이며 소련의 붕괴는 더욱 이후의 일이여서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지간의 대립과 냉전상태가 유지되고 있던 시대이다. 그러므로 김주석의 통일방안은 오늘에와서도 일정한 의의가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개혁개방이라는 전제적조건이 없음으로 그의 실현에는 많은 제한을 받고있다.

둘째, 한국 전대통령 김대중의 3단계평화통일방안. 한국의 전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의 통일사상은 1960년대 이래 30여년간 역사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치면서 1995년에는 3단계통일론으로 완성되였다. 그는 1970

년대초에 벌써 남북간에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여 평화통일론을 제시하였으며, 80년대말에는 또 ‘선 민족사회통합, 후 국가통일’이라는 점진적 통일사상을 기초로하는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소련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을 목격하면서 김대중은 1995년에 연합-연방-완전통일이라는 3단계통일론을 완성하였다. 또 그후 한국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평화통일철학에 기초하여 햇볕정책을 창시하고 실행하여 왔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조선정책의 목표를 화해와 협력을 통해 조선이 변화 즉 개혁개방할수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남과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는데 두었다.

드디어 2000년6월, 김대중은 성공적인 조선방문을 통해 조선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장군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세상에 발표하였다. 이공동선언은 당시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금시 눈앞에 다가왔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후 11년이 지나왔지만 오늘에와서도 남북통일은 단 첫단계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근래에 와서 심지어 전쟁폭발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왜 남의 나라는 할수있는 통일이 같은 시대에 처해있는 남북한은 통일이 안되는가? 평화통일이 안된다면 한반도는 또 전쟁통일을 시도하여야 하는가? 그러나 전쟁은 곧 죽음이요,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특히 핵전쟁으로 번져진다면 한반도 한민족의 앞날은 철저히 암담해질것이다.

이렇게 분석해볼때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철학을 더욱 잘 연구하여야 겠다. 남북조선은 결코 손에 무기가 없어서 통일을 못하고있는것이 아니므로 이는 어데까지나 우리 두뇌속의 철학이 모자라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몇가지 철학사상

철학은 일종의 학문으로서 일단 이론적인 철학범주와 실천적인 철학범주로 나누어 볼수있다.이론적개념의 철학은 주로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대표로하는 학문을 가리키며,실천적개념의 철학으로는 과학기술실천을 포함한 정치경제와 사회각방면의 사업에서 지도적이념과 사상및 전략방책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칭한다.그러므로 철학학문자체를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면 아래와같은 층차로 나누어 볼수있다.즉 제1층차에는 고전적이고 원시적인 형이상학과 인식론 원리가있고,그다음 제2층차에는 올바른 형이상학과 인식론으로부터 생겨난 과학리론이 있으며,제3의 층차에는 전략방책을 비롯한 실천적인 지도사상이 있다.

우리 동방사람들은 특히 아래로부터 위로 생각하는 사유방식을 가지고 있다.즉 형이하학적인 구체적실천으로부터 과학을 넘어서 이념을 찌뚫어 보는 직각을 가진 사유방식을 동방사람들은 깊이 습득하고 있다.유학과 불교철학을 이렇게 이해할수있고 주역사상역시 이렇게 이해할수있다.또 오늘날에 와서 중국개혁개방의 지도자 등소평의 소위 '실사구시'사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철학이라고 할때 형이상학적인 철학리론외에도 실천과정에서의 전략방책론을 포함한 리론과 사상을 지칭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입각할때 우리는 통일에대한 형이상학적인 리론과 실천적인리론을 모두포함하여 통일철학이라고 한다.여기에는 주로 조선의 주체사상이 있고 한국에는 평화통일론을 비롯한 실천적인 통일철학이 있으며 또 한사상과 같은 고전적 통일철학이 있다.

주체사상 통일론: 조선 국방위원장 김정일장군은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란 문장에서 주체철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전적인 해설을 하였다.

“주체철학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위주의 철학입니다.”(김정일 1991: 1) “주체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주체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입니다.”(김정일 1991: 2)

김장군은 또 이어서 주체철학과 재래의 유물론철학을 구분하였다.

“주체철학은 이처럼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을 밝힌것이지 결코 물질세계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김정일 1991: 4)

주체철학은 유물론 철학분야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는 독창적인 철학이라고 볼수있다.특히 이는 동방국가의 입장에서 볼때 세계적으로 자기풍격과 자기주체성을 돌출이하는 철학사상이라고 평가할수있다.그리고 같은 유물론 체계이지만 주관유물론 철학과 비교할때 주체철학의 풍격은 매우 강경적이다.이 두가지 철학의 품성을 비유한다면 하나는 강철같고 하나는 바람과 물같다.

이상 주체철학본론을 통해 우리는 주체사상통일론을 얻어낼수있다.간단히 계괄하여 말한다면 첫째는 자주통일일것이고,둘째는 민주통일일것이며,셋째는 자주를 전제로하는 평화통일 일것이다.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혁명정신과 원칙에 근거하여 주체사상 통일론에는 혁명통일론도 들어있을것이다.그러나 지금 이시대와 남북발전상황을 놓고볼때 혁명통일론은 그의 현실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볼수있다. 그렇다면 남은것은 자주,민주와 평화통일론이다.이 3원칙은 남북한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3대원칙과 매우일치한것이다.다만 그중에서 민주 원칙에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일정한 거리가 있을것이다.

아무튼 주체사상을 놓고말하면 총적으로 조선민족역사와 문화발전중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철학사상이다. 일차적인 정치이념은 여하튼간에 주체사상은 마땅히 조선민족전체의 정신제부가 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주체사상통일론도 역시 중요한 사회정치적 위치와 사상의의를 가지고있으므로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기여를 할수있다.

평화통일사상: 위에서 토론한바와 같이 김대중의 평화통일론을 대표로한 평화통일사상은 또 한가지의 한반도 통일철학이다. 여기에서의 평화란 개념은 일종의 통일방식이며 또한 일종의 통일철학을 뜻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에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변화를 약속하는데 바로 이것들이 통일철학의 체현이다. 이런 통일철학을 깊이이해한다면 이는 상생철학이며, 서로주체성의 철학이며 또 변화의 철학이다. 남북간에 누가누구를 소멸하는 것이아니고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화해와 협력관계로 상생하는 것이며 또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전제하에 변화를 도모하는 끝에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통일개념이 명시하다 싶이 평화적통일은 어디까지나 무력통일보다 우선이어야한다. 그리고 또 평화통일철학에 포함된 상생의 원리와 서로주체성의 원리는 통일사업에서 매우 선진적인 사상으로 된다.

한사상에 기초한 통일철학: 현재 한국에는 한국철학이란 개념하에 한사상과 한철학이란 명사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한국고유의 철학사상이라고 한다. 그 시원을 따진다면 한사상은 오랜 고대로부터 전해내려온 『천부경』과 『삼일신고』에서 시작하였다고한다. (송호수 1992: 『삼화 개천경』 앞글)말하자면 자고로부터 한민족은 자기자체의 뿌리사상이 있고 또 오늘날에 와서 여러한국 철학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으로하여 한사상과 한철학을 부활시킴으로 일종의 독자적인 한철학리론이 형성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한사상과 한철학연구의 선두자와 대표자로는 우선 김상일교수를 꼽을 수있다. 이분 외에도 여러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함께힘써 훌륭한 한사상한철학을 창조하고 있는것을 볼수있다.

김상일교수의 한철학에 근거한 통일론을 경기대 노태구교수는 아래와 같은 평론을 한적이 있다.

“남과북은 서로 너 망하고 나 망하는 논리를 버려야 한다.공멸의 논리는 서양철학자가 물려준 배중률(排中律) 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이러한 논리때문에 남북분단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그래서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리의 발견이 시급하다.우리는 바로 이분단의 논리를 극복할수있는 대안이 퍼지논리라고 생각한다.”

“퍼지논리(fuzzy theory)적 시각에서 볼때에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은 ‘한연방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우선,‘한’에담긴 의미를 논리적으로 천착함으로써,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한국철학을 정초하는 작업이 이루어질수있다.일(一)과 다(多)는 서로 상용적인 것으로 최근 서양에서는 양자역학,카오스이론과 홀론과학을 통해 부분,즉 전체(partwhole)라는 사실과도 관련된다.그러나 동양은 그 전반적인 철학의 기저에 있어서 부분,즉 전체를 전제하고 있다.이는 우리 민족의 속성이 전체와 부분을 잘조화시킬수 있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우리는 남북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을 경계하지 않을수없다.이들이야말로 반통일 세력인것이다.오도된 정치철학이 우리의 퍼지적 통일방식,그리고 한연방제(Han federal country)를 거부할것이다.그러나 김상일교수의 ‘한’연방제식 통일은 상호간에 민족성원 전체가 척이없이 신명만나는 무척좋은 세상을 이루어 나갈수 있을것이다.”(노태구 2005: 『경기일보』 3-13)

한사상과 한철학에 대하여 김상일교수는 이렇게 설명을하였다.

“한사상의 ‘한’은 ‘한국’,‘한겨레’,‘한글’,‘한식’,‘하느님’,‘한얼’할때의 ‘한’으로서 국가,민족,사상, 생활전반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규정할때 쓰여진 말이다.각 민족이 제 나름대로 발견한 고유한 사상이 있는데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외래사상이 아닌 우리것으로서의 사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 까지 누구라도 가져왔을 것이다.필자는 외국에서 학위논문을 쓰다 유교,불교가 아닌 우리민족의 고유한 철학적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한’개념이야말로 잘알고 닦아 발전시키면 남에 못지않을 사상이 될수 있을 것이라 확신케 되었다.그래서 논문을 끝낸다음 전공인 과정철학적 입장에서본 ‘한’을 전개시켜 ‘한철학’이라 출판케 되었다.”(김상일 1986: 『한 사상』 머리말)

한사상과 한철학의 발견은 참으로 한국철학사에서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일로 볼수 있다.그리고 오늘날에와서 훌륭한 한국철학가들의 노력으로 한철학은 서양의 과정철학과 퍼지논리에 의해 재해석 재발견이 되어 더욱 세상에 빛나는 현대적 철학사상으로 뜨오르고 있다.더구나 한철학은 다만 개념논리에만 제한된 철학이 아니고 실천논리에도 힘을 쓸수있는 철학이다.그러므로 한사상과 한철학은 지금 한반도에서 일종 통일철학의 역할을 하고있다. '한연방제'란 통일방안이 바로 한사상한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끝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세가지 철학사상을 비교한다면 주체사상과 평화통일철학, 그리고 한사상한철학은 모두가 민족의 운명을 기중히하는 철학사상이라고 할수있다.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차실이 있겠지만 주체와 평화와 한겨레라는 개념들은 모두 사람을 중심으로하고 특히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이다.의 통일론에서 평화를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가?바로 사람의 가치를 제일중시하기 때문이다.의 상반상극하는 논리를 배제하고 상생공존의 퍼지논리를 제창하는가?바로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것이다. 총적으로 주체사상과 평화통일철학과 한사상한철학은 모두다 사람을 중심으로하는 사상임으로 한반도 통일사업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은 평화통일철학과 한사상한철학에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성질이 좀 다른 철학이다.주체사상은 소위 무산계급을 대표로한 인민대중의 주체사상이며 따라서 소위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는 주체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과 평화통일철학 및 한사상한철학지간에는 선천적으로 일정한 거리가 있는것이다.이런 정황하에서 아무리 퍼지논리를 작용시킨다해도 사상적으로 통일문제의 해결은 어려울것이다.이문제가 바로 융철학이 가입하여 해결대책을 구하는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철학문제이다.

4. 융철학에 근거한 통일방안과 통일철학

4.1. 융철학의 입장

융철학은 필자가 중국에서 근년에 창립한 독자적인 철학학설이다. 이는 맑스주의 철학과도 다르며 현재 어떤 맑스주의철학을 비판하는 서방철학과도 같지 않다. 그러나 융철학은 일종의 주관유물주의 철학학설로서 논리상으로는 자고로부터 근대와 현대까지 역사적발전단계를 거처온 서양철학의 발전결과이다. 이는 포스터 현대주의적인 사상특징을 품고있는 한편 또 동방철학의 품성을 띠고있다. 이 철학은 본체론 인식론과 가치론을 융이란 한 글자로 체현함으로써 동방문화의 사유방식을 응결하여 표현한다. 융철학의 기본원리를 한마디로 집결하여 말한다면 이차적으로 볼때 물질과 의식의 존재는 같은것이다라는 원리다. 그래서 재래의 유물주의 입장을 객관적인 물질주의로부터 주관적인 인본주의에로 바로돌리는 것이다. 이는 진정 사람의 가치존재를 중심으로 세계를인식하고 평가하자는 새로운 유물주의철학이다.

이런 융철학은 주체사상과 서로 통하는데가 있으며 한사상과도 서로통하는 데가 있다. 우선 융철학과 주체사상은 다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하는 철학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주장한다면 융철학은 이에대해 이차적인 입장에서 주체사상과 가까운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 주체사상은 융철학과 많이 흡사하다.

다음으로 융철학은 한사상과도 많은 상통성을 가지고있다. 융이란 일정한 형이상학적인 각도로 볼때 ‘한’과 같은 개념이다. 그들은 모두 일에 다가 있고 다는 일로 통한다는 뜻이있다. 그리고 특히 한사상 한철학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으로 해석하고있는데 융철학도 마찬가지로 과정철학의 원리를 내포하

고 있다. 이는 융합의 철학이며 상생의 철학이므로 한민족한반도 통일과 통합에 기여할수있는 철학사상이라 할수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융철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려 한다. 첫째는 중국조선족동포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에 유익한 철학사상과 리론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남북양측에는 주체사상과 평화통일철학, 한사상 등을 비롯한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이있지만 문제는 제3자의 입장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3자의 입장이 바로 중국조선족 동포의 입장이며 또 나아가서는 전세계해외동포들의 입장이다. 이런 특수한 제3자의 입장에서 형성되고 참여되는 통일철학이 한반도 통일에 꼭 유익한 기여를 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둘째는 융철학이 조선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한국의 자본주의 민주사상을 융합할수있는 중간체제의 입장에 놓여있다. 리론적으로는 한사상한철학역시 융철학과 같은 역할을 할수있다 하지만 제3자 특히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의 조선족동포들의 입장에 선 융철학은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자본주의 민주사상시간의 타협과 융합을 추진할수있는 더욱 유익한 입장에 놓여있다.

셋째는 학술층면으로부터 통일위업에 융철학의 가입을 신청한다. 이신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내의 학술계에도 드리고 대한민국내의 학술계에도 드리려 한다. 이 지구상 어느나라에 살든 수백만해외동포들의 통일념원을 남북한은 더 넓은 가슴으로 다 기꺼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4.2. 융철학에 근거한 한반도 통일방안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여러가지 통일방안들이 나왔다. 김일성주석의 「고려련방공화국」방안으로부터 노태우전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화통일 3단계방안, 또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 새로 제시한 조선반도 3단계 통일방안들이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통일방안이 있다.

이 많은 통일방안들을 분석해보면 총적으로 한가지 특징이 있는데 대개다 통일과정을 몇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다시말하면 이들은 모두 통일을 일종의 필연적인 장기적과정으로 보느바 점차적으로 접근하여 최후단계에 도달할때만이 통일을 정식으로 이룰수있다는 방안들이다.

리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볼때 이상과 같은 통일론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착실한 방안인것 같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하다 싶이 이때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외나하면 하나는 복잡한 국제관계 때문일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의 신뢰문제일것이다. 이 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은 안된다. 심지어 이 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날에는 점진적인 통일과정이 어데까지 왔던지간에 하루밤사이에 통일관계는 대립적인 원점으로 되돌아 갈수있다. 이러한 현실이 남북한 통일관계의 본질이다.

때문에 필자는 남북한 통일방식과 통일과정에 대하여 역적인 사고방식과 론리에 근거하여 번개식 통일방식과 이원론 통일철학을 제시하려 한다. 번개식 통일방식이란 문자그대로 통일을 번개치기로 하는것이며 이원론 통일철학이란 융철학에 근거한 이념과 체제분리적 통일사상이다. 한마디로 남북한 국내외 특수한 실정에 따라 통일을 창조적이고 비 상례적인 방식으로 하여야만 된다는 주장이다. 오직 창조적이고 비 상례적인 사고방식과 통일철학만이 통일을 진정 이룩할수 있다.

번개식 통일방안을 해설한다면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주원칙, 즉 나라통일은 절대원칙임으로 남북이 원할때 하는 통일은 그 어느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없다. 만약 이런 용기가 없고 또 이 기본원칙을 지키지못한다면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즉 까놓고 말해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어데까지나 한민족자기 리익을 도모하는 일이므로 언제나 남의나라 이익에 알맞지 않을것이므로 꼭 이장벽을 뚫어야한다는 것이다.

(2) 평화원칙.통일은 꼭 평화적 방식으로 이룩하여야 한다.전쟁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무책임한 방식임으로 통일의 대가도 엄청나게 크거니와 그 결과도 불확실한 것이니 60년전의 전쟁과 또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있다.

(3) 통일은 과정이라 하지만 “선 통일 후 연합 후 통합”의 방식도 채택할수 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기한의 연애프로세스를 거친후 결혼을 하는것이 마땅하지만 먼저 결혼을 한후 같이살아가면서 연애를하는 경우도 있듯이 남북한 통일문제도 마찬가지이다.먼저 통일을 선포한 후 연합과 통합의 제도와 절차를 짜서 차차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것 같다.외나하면 이렇게 번개식으로 통일을 선포하고 자주적으로 시작하면 많은 이득과 우점들을 따고 들어가는데 제일큰 이득이 내외의 모든 통일간섭세력을 단방에 막을수 있으며 또 통일의 평화적 방식을 보장할수있고 통일의 대가를 최대한도로 줄일수 있으며 그리고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 나갈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통일 후연합방안을 번개식 통일방안이라고 지칭한다.

(4) 번개식 통일방안에는 우선 남북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거쳐 통일을 선포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번개식통일방안의 최우선조건이며 통일을 이끄는 주도적인 요인이다. 그 시기는 긴장완화때도 좋고 전쟁을 할것같은 위기때도 좋다.아무튼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데는 시기제한이 없다.

(5) 그리고 남북정상이 통일을 선포하는데는 서로 무조건이다.즉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없이 통일을 일단 선포한다.남북한은 무조건통일로 시작하여야 한다. 번개식통일의 진의가 바로 무조건통일에 있다.서로 조건을 따진다면 한이없고 또 어떤문제는 대립상태에서 해결책이없다.대방이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들고있다고해도 서로 통일을 원한다면 일단 무조건 통일을 선포하지는 주장이다.이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다.

(6) 통일을 무조건 선포한후 통일과정을 시작한다.그 절차로는 우선 통일헌법 제정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하다.경제,문화교류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인것은 통일헌법이다.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주로 상례적인

경제,문화교류와 협력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우선 정치적인 헌법으로 하여야 한다.

남북한 헌법통합에 관한 논문들은 이미 많이 나왔다.대표적으로본다면 북한헌법연구회 장명봉회장의 논문'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헌법통합방향'을 예로 들수있다.그는 논문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단계, 「남북연합헌장」에 기초한 남북연합단계,그리고 「통일헌법」에 기초한 통일국가 단계란 3단계 통일과정을 서술하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을 통일헌법의 최고원리로 제기하였다.(장명봉 2006: <http://www.moleg.go.kr/>) 이런 견해들은 통일에 대한 창조적인 사상이다 할수있다.

(7) 「통일헌장」은 남북한 정상이 함께 지속적으로 써내려 간다. 「통일헌장」은 한꺼번에 완성하는 일이 아니다.남북한 정상은 일단 통일헌장제일장을 먼저쓴다. 통일헌장을 당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장을 써놓은 다음 실천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음 또 다음의 정상회담에서 계속이어 제2장, 제3장을 써내려간다.그래서 통일헌장을 완성하는 날에는 통일을 제도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완성하는 날이된다.만약 이렇게 통일헌장이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끄러간다면 한반도의 최종통일을 확보할수있을것이며 통일의 시간적 여유도 많이 크질것이다.

그러나 핵심문제는 되돌아와 이 「통일헌장」에 무슨 내용의 문자를 써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통일절차와 문제해결책들이 있겠지만 핵심문제는 통일의 이념이며 철학이다.즉 통일은 중국적으로 올바른 철학에 의해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법이다.그러므로 통일의 핵심문제는 철학인것이다.

4.3. 응철학에 근거한 이원론 통일철학

인간적으로 말할때 큰사람 큰인물이 되자면 능력과 학식이 있어야 되고 인

생에서 많은 풍파도 격어야하며 특히 정치적인 큰사람 큰인물이 되자면 굳건한 자기주견도 있어야 하거니와 많은 비평과 의견도 받아줄수있어야 한다.오직 남의 비판을 받아줄수 있어야 더많은 지지자를 자기주위에 모을수있고 인심을 얻을수 있어서 중국적으로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를 성장시켜 뜻을 이룰수있다.이와 마찬가지로 한개 나라와 민족의 성장도 같은 도리다.세계에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을 몇개 헤아릴수 있는데 한나라 한민족이 그속에 가입하자면 통일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주로 GDP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 한민족의 마음의 크기를 따져야하기 때문이다.다시말하면 큰나라 한민족에게는 반드시 그 덩지에 알맞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재정황을 놓고볼때 조선의 주체사상도 부족한데가 있으며 한국의 평화통일철학과 한철학도 실제문제의 해결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필자는 융철학에 근거한 이원론 통일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원론 통일철학의 체현으로 이원론 통일체제를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이있다.

첫째,한국은 주체사상에 대해 개방을 하여야 한다.이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남북은 서로의 정권을 존중할 뿐만아니라 특히 한국은 주체사상을 존중하고 받아 들여주어야 진정한 통일의 첫장을 열수있다.

조선의 주체사상을 우선 학술적 층면에서 받아 들인다면 필연코 일정한 제 조작업이 따르기 마련임으로 주체사상의 시대적 발전을 남북이 다 같이 도모할수있다. 이렇게 된다면 주체사상은 진정 전민족의 주체사상으로 될수있는 것이다.남과북이 오직 주체사상을 나누어 소유하고 같이 발전시킬때만히 진정한 통일이 오는 것이다.

둘째,조선은 실사구시정신으로 자본주의를 배워야한다.사실이 이미 증명하다 싶이 단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나라발전에 큰제한이 있으므로 중국을 따라

배우고 한국을 따라배워 자본주의 사상과 체제를 도입하여야한다. 즉 주역철학의 일음일양원리에 따라 개방과 개혁을 하여야한다. 깨놓고 말한다면 조선노동당도 중국공산당과 같이 자본주의사회를 이끌수있는 능력을 배워야한다. 그리고 또 하면된다.남이 할수있는 일 조선이 못할것 없다.

셋째,이상과 같이 남과북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개방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통일체제이다.남과북을 살리고 한민족을 살리는 길은 중국적인 통일이 아니라 이원론적 통일체제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완전통일을 과로안에 넣어놓고 시작과 과정을 중시해야한다.이런 통일체제의 시작은 남과북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개방이고 통일현장을 상징으로하는 통일철학이다.남북한의 통일은 진정전민족의 탁월한 지혜와 철학을 요구하고 있다. 이원론 통일철학으로 볼때 한반도의 통일은 한나라안에서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당과의 민주정치를 목표로 할수있고 또 영국과 일본의 정체를 본받아 의회제군주립헌제같은 나라를 세울수도 있는것이다.물론 군주립헌제라하면 남북한 누구에게나 다 모욕이 되는것 같지만 진정 이원론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현실성이 아주없는 방안은 아닌것같다. 한반도의 통일에는 비상의 지혜와 비상의 철학이 요구됨으로 잘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보다싶이 이원론적 통일이란 결코 문제가 간단해지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는 것같다.그러나 오직 이길이 가장 합리하고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방도인것같다.외나하면 뭐니뭐니 해도 통일의 자주적입장 즉 서로주체성이 바로 이원론 통일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시작부터 과정을 거쳐 마지막까지 모두 자주적입장을 지키는것이 이원론이다.자주를 원칙으로 함으로 주체사상을 관철할수있으며 동시에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할수있고 또 평화통일을 보장할수있다.그리고 서로주체성의 관계는 또한 자유와 민주정신을 의미한다. 자유와 민주가 없이는 서로주체성을 철저히 관철할수없다.그리고 또 더나아가서 서로주체성의 관계란 매개인의 독립적인 경제기초를 요구한다.이 점에서 사회주의사회도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사회도 문제가 있다.그러므로

남북은 서로주체성의 철학에 따라 다 같이 통일의 길을 손잡고 걸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용철학은 하나를 둘로보고 둘은 또 하나로 본다. 즉 한이란 하나의 뜻외에 언제나 자기와 다른 또하나의 존재를 의미하며 또 그를 수용한다. 이 논리에 따라 용철학은 '우리'관념을 서로주체사상으로 바꾸어 어디까지나 주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라는 존재를 서로주체성으로 이해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통일철학이란 한철학이요 주체철학이며 또는 서로주체성의 용철학이다. 한이란 또 크다는 뜻인데 거물은 언제나 자기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자기를 비롯한 일종 군체의 존재이다. 이런 철학이 없으면 한민족은 영원히 큰나라 대민족이 될수없으며 우선 통일부터 이룰수없다.

5. 맺음말

본논문을 총결한다면 몇가지 견해가 있는데 간단히 아래와 같이 개괄할수 있다.

(1) 철학과 통일.겉으로 보기에선 먼관계인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심지어 통일의 달성여부는 철학공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2) 한반도 통일방안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특히 전쟁방식으로서의 통일을 남북은 건결히 막아야 한다.

(3) 주체사상, 평화통일철학, 한철학등은 모두 통일문제에 입각한 철학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실제문제의 해결에서 이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필자는 특수한 제3자의 입장에서 용철학에 근거한 통일방안과 통일철학을 제시하려 한다.

(4) 통일방식으로는 평화를 전제로한 돌발식 번개통일을 주장하며 그 절차로는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통일현장을 쓰내러가는 과정이다.

(5) 끝으로 중요한것은 용철학에 근거한 이원론 통일철학을 밝혔다. 이원론

이란 핵심적으로 서로주체성의 철학원리임으로 그속에는 주체사상과 한철학을 포함 할수있으며 또 평화통일철학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융철학에 근거한 이원론 서로주체성의 철학으로 남북한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때 통일의 문은 꼭 열리게 될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중(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기조연설」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dxno=1174>
- 金日成(1990) 「统一祖国三项原则」, 『关于建立高丽民主联邦共和国的方案』, 平壤, 外文出版社, 1-33.
- 임동원(2009) 「김대중사상 대강좌 강의」
http://www.kdjpeace.com/kdj_news_view.asp?idx=1314
- 김정일(1991)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8.
- 송호수(1992) 『삼화 开天经』, 개천대학, 앞글.
- 노태구(2005) 「한'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하여」, 『경기일보』, 3-13.
- 김상일(1986) 『한사상』, 은누리, 머리말.
- 장명봉(2006)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와 헌법통합방향」
<http://www.moleg.go.kr/knowledge/northSouthResearch?pageIndex=5>

Ⅰ 활동과 연혁 Ⅰ

- 1986년 8월 제1회 조선언어문학학 국제학술토론회(중국)
- 1988년 8월 제2회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북경)
주최: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북경대학 조선문
화연구소
참가: 300명 10개국
폐회식에서 5명의 준비위원을 선출
- 1990년 8월 제3회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오사카)
주최: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북경대학 조선문
화연구소
참가: 1000명 14개국
- 국제고려학회창립**
- 1991년 5월 북경서화세미나 및 작품전시회(북경)
- 7월 미주본부창립(NY)
국제고려의학술회의(연길)
주최: 국제고려학회, 연변의학원
KOREA학소장자국제학술회의(연길)
- 8월 제1회 운영위원회(북경)
- 12월 회보 창간
- 1992년 5월 한반도문제의 재검토
주최: 정치법률부회, Georgetown대학 School of Foreign
Service
- 6월 중국조선족교육의 특징 및 전망(연길)

- 8월 제4회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북경)
주최: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북경대학 조선문
화연구소
참가: 700명 9개국
- 제2, 3회 운영위원회(북경)
제2회 총회
- 1993년 1월 제4회 이중언어학국제학술회의(오사카)
주최: 국제고려학회, 한국이중언어학회
- 6월 국제고려학회 학술총서 창간
- 7월 제1회 미국KOREA학국제학술회의
주최: 미주본부, 미시강주립대학, 한양대학
- 8월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북경)
- 1994년 2월 제2회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북경)
- 7월 여성문제회의 - 한국과 재미한인사회에 있어서의 성과 정치-(NY)
- 8월 전근대조선 및 일본에 있어서의 중국문화의 수용의 변용(오사카)
주최: 관서대학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협찬: 역사부회
- 12월 제4회 확대 운영위원회(오사카)
학회지 국제고려학 창간
- 1995년 3월 동아시아의 관료제와 문화적 기반(오사카)
주최: 역사부회, 관서대학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 7월 한국의 세계화와 한미경제협력
주최: 미주본부, Seton Hall대학경영학부
- 8월 반파쑸 전쟁승리 50주년기념학술토론회
주최: 아시아분회,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소
- 10월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제1회 학술대회 - 해방/분단50년-
- 1996년 3월 평양지부 성립

- 8월 KOREA학연구의 현황과 과제(북경)
주최: 아시아분회,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12월 전환기의 현대세계와 코리아민족의 진로
주최: 철학/종교부회
- 1997년 12월 **제5회 KOREA학 국제학술토론회**(오사카)
주최: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국제고려학회
후원: 일본외무성, 오사카부, 오사카시
참가: 500명 10개국
- 제3회 총회
- 1998년 7월 아시아의 문자와 문맹 국제심포지엄(서울)
주최: 언어부회,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Center for Advanced Stud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서울지회 성립
- 8월 해외조선민족문학 국제학술회의
주최: 문학부회
- 11월 일본지부 제3회 학술대회
- 1999년 7월 서울지회 제1회 전국학술대회
- 8월 21세기를 향한 중국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전망학술토론회(북경)
주최: 아시아분회, 중국조선어학회
- 9월 조선족공동체의 역사, 현황과 진로학술토론회
주최: 아시아분회 문학분과, 연변대학 조문과학부
- 11월 일본지부 제4회 학술대회
- 2000년 2월 **제6회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Hawaii)
주최: Hawaii Center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회,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북경대학 조선문

화연구소

참가: 300명 10개국

제4회 총회

- 4월 아시아분회 흑룡강지회 창립
- 10월 아시아분회 북경지회 창립
- 11월 일본지부 제5회 학술대회
- 2001년 6월 국제 심포지엄 격동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오사카)
주최: 일본지부
- 7월 동북아시아 평화와 발전 논단체2차 회의(북경)
주최: 아시아분회,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서울지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조선족 중학교 교수용어와 관련한 토론회
주최: 아시아분회, 중국조선어학회
- 11월 20세기 조선민족무용 및 최승희 무용예술국제학술회의
주최: 문화예술부회
- 12월 평양지부 창립대회
- 2002년 1월 아시아분회 연변지회 설립
- 7월 제1회 세계KOREA학 대회
주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고려학회, 기타
제5회 총회
- 8월 정보화시대에 따르는 민족어의 통일적 발전과 언어정보 산업표준에 관한 학술모임(중국)
주최: 아세이분회, 평양지부, 남북언어정보산업표준위원회, 언어정보표준기술연구회
- 9월 동북아세아 평화와 발전 논단 제3차 회의(중국)
주최: 아세이분회,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 11월 일본지부 제6회 학술대회

- 평양지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관계법의 특징에 대한 학술대회
- 2003년 7월 서울지회 제4회 학술대회
- 11월 민족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모임(중국)
주최: 아세아분회, 평양지부,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한국국립국어연구원
- 일본지부 제7회 학술대회
- 2004년 4월 유럽지부 발족
-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자원개발 리용전망에 대한 국제회의(중국)
주최: 아세아분회, 평양지부, 한국해양연구원
- 6월 민족어유산의 수집정리와 고유어체계의 발전 풍부화에 관한 학술모임(중국)
주최: 아세아분회, 평양지부,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한국국립국어연구원
- 11월 일본지부 제8회 학술대회
- 2005년 9월 **제7차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심양)**
주최: 국제고려학회
참가: 150명 6개국
- 제6회 총회
- 동북아 평화와 발전 포럼 제4차 회의(중국)
주최: 아세아분회
- 10월 민족의 체육발전을 위한 국제체육학술토론회(중국)
주최: 아세아분회
- 11월 일본지부 제9회 학술대회
- 12월 조선현대문학연구 국제학술모임 (중국)
주최: 아세아분회
- 2006년 4월 북미지부 창립

- 5월 일본지부 제10회 학술대회
- 8월 서울지회 제5회 학술대회
- 10월 2006 세계한국학대회(제주)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고려학회, 기타
- 12월 제2회 세계코리아학대회 공동논/문문집 “화해와 협력시대의 코리아학” 출판
- 2007년 5월 일본지부 제11회 학술대회
- 8월 제8차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런던)
주최: 국제고려학회, Centre of Korean Studies(SOAS), 유럽지부
참가: 150명 10개국
- 2008년 5월 일본지부 제12회 학술대회
- 6월 서울지회 제6회 학술대회
- 8월 북미지부 국제회의의 Workshop on Dongbei gongcheng and Koguryo
- 9월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서울)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고려학회, 기타
- 12월 서울지회 한반도 국경 설정의 역사적 배경과 현안 국제학술 WORKSHOP
- 2009년 6월 일본지부 제13회 학술대회
- 8월 제9차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상해)
주최: 국제고려학회, Fudan University, 아세아지부
참가: 130명 12개국
- 11월 아세아분회 제2회 중국조선족 청년작가 창작회의 개최
- 12월 아세아분회 제3회 광동지역 한국학대회 개최
- 2010년 4월 아세아분회 제1회 화동지역 한국학대회 개최
- 6월 일본지부 제14회 학술대회
- 서울지회 제7회 학술대회
- 11월 일본지부 국제고려학회 20주년 기념 『제일코리아인 사전』 발간

- 2011년 6월 일본지부 제15회 학술대회
8월 제10차 KOREA학국제학술토론회(밴쿠버)
주최: 국제고려학회, The Department of Asian Studies,UBC
The Centre for Korean Research,UBC, 북미지부
참가: 110명 14개국
- 2012년 6월 일본지부 제15회 학술대회
8월 서울지회 제8회 학술대회

『국제고려학』 투고교정

1. 원고작성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언어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고를 받는다.

3. 본문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4. 주석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 쪽수를 밝혀, 홍길동(2007: 123-125)와 같이 표시한다. 내각주일 경우에는 (홍길동 2007: 123-125)로 한다.

5. 예문 및 인용문

예문이나 인용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운다. 예문이 하나 이상일 때에는 붙인다.

6. 참고문헌

논문 서지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1) 한국어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판자명,✓『서적명』, 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홍길동(2006) 「지식인의 역할」, 『국제고려학』 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 「육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 2) 일본어, 중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지 작성 원칙에 준한다.

- 3) 서양논문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글명(논문명)」,✓in✓판자명 (ed.)✓서적명(이탈릭),✓출판지:✓출판사명,✓쪽수.

예)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예)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 4)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논문 제목과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를 병기한다. 인용부분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 주소는 html까지 그 페이지 주소창에 뜨는 부분을 모두 적어 준다.

예)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 : 인용
- 2)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3) 『 』 : 서적명, 총서명, 원전, 단행본, 신문명, 음반 등
- 4) 「 」 : 논문명, 기사명, 글명, 작품명, 편명, 조명
- 5) ·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한라산·지리산

8. 기타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國際高麗學會「國際高麗學」編輯委員會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Funah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Email: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회 임원

본부임원

회장 Donald Baker(캐나다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부회장 宋南先(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学)

김정영(평양지부 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연재훈(유럽지부 회장, 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徐永彬(아시아분회 회장, 중국 对外经济贸易大学)

정태현(서울지부 회장, 한국 고려대학교)

박찬웅(북미지부 회장,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

高龍秀(일본지부 회장, 일본 甲南大学)

편집위원장 Edward J. Shultz(미국 University of Hawaii)

사무총장 배 룡(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学)

국제고려학 제14호

발행일 2012년 6월 30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Donald Baker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처 國際高麗學會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區舟橋町2-2 OIC Center

TEL: +81-6-6768-8425 FAX: +81-6-6763-5080

Email: info@isks.org HP: <http://www.isks.org>

만든곳 도서출판 선인

TEL:+82-2-718-6252

ISSN 1347-7307

2012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